

吳鞠通의 『溫病條辨』中 上焦에 관한 研究

圓光大學校 韓醫科大學 原典學教室¹
圓光大學校 韓醫學專門大學院 韓醫情報學科²
한국전통의학연구소³

김영두^{2, 3} · 신승열^{2, 3} · 조경중^{2, 3} · 이석재² · 금경수^{1, 2, 3} * · 이시형^{1, 2, 3}

A Study on the Ohguktong(吳鞠通)'s Upper Burner[上焦] in 『The Sections of Warm Disease(溫病條辨)』

Kim Young-doo^{2, 3} · Shin Seung-yuel^{2, 3} · Cho kyung-jong^{2, 3} · Lee Seok-jae² ·
Keum Kyung-soo^{1, 2, 3} * · Lee Si-Hyeong^{1, 2, 3}

¹Dept. of Oriental Medical Classics, Graduate School, Wonkwang University

²Dept. of professional Oriental Medicine Graduate School of Wonkwang University. Institute of Oriental Medical Informatics

³Research Center of Traditional Korean Medicine

An Epidemic disease is regarded as warm disease by Korean Medicine. Warm disease is highly contagious and shows an unfavorable condition, and that is characteristic of being widely prevalent. Warm disease study cope with this epidemic disease opportunely. In the Myeong[明] and Cheong[清] Dynasty, warm disease study got into the region of Korean medicine of today and 『The Sections of Warm Disease(溫病條辨)』 contributed to the cause of the study was really great.

『The Sections of Warm Disease』 written by Ohguktong(吳鞠通) in the Cheong Dynasty are divided into the three sections of Upper burner[上焦], Middle burner[中焦] and Lower burner[下焦].

Ohguktong, dealing with the contents of Defense-aspect[衛分], Qi-aspect[氣分], Construction-aspect[營分], Blood-aspect[血分], and so forth in all 『Sections of Warm Disease』, made use of Seopcheonsa(葉天士)'s Defense Qi[衛氣], Construction, and Blood pattern identification with Triple burner[三焦] pattern identification and six channel pattern identification.

And he, having a correct understanding of the nature of medicine, suggested in detail that the directions of medicine and described the processing according to method and the method to take medicine.

To conclude, Ohguktong(吳鞠通) Tong in 『The Sections of Warm Disease』 not only formulated the system of the practical theory of warm disease but also solidified the foundation covering warm disease and its treatment as well, He established the new method of treatment and formula related to warm disease and made a definite distinction between cold damage[傷寒] and warm disease[溫病].

Key Words : Ohguktong(吳鞠通), upper burner(上焦), The Sections of Warm Disease(溫病條辨), Onbyeongjobyeon(溫病條辨)

* 교신저자: 금경수, 원광대학교 한의과대학 원전학교실.

전라북도 익산시 신용동 344-2

I. 緒論

韓醫學에서는 傳染病을 溫疫으로 규정하고 있다.¹⁾ 溫疫²⁾은 溫病의 한 종류이다. 이는 發病속도가 빠르고 病勢가 위험하며 傳染性이 강하여 광범위하게 流行하는 것이 그 특징이다. 이러한 傳染病에 시기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는 학문이 溫病學이다. 溫病이라는 학문이 어느 한 순간에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다. 韓醫學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다보면 溫病學은 중국 淸나라 시대에서야 비로소 이론적인 체계가 형성되었지만, 뿌리는 『黃帝內經』에서부터 시작되었음을 어렵지 않게 알 수가 있다. 內經에는 溫病과 관련하여 病因, 治療, 臨床과 관련한 내용들이 실려 있다. 그 이후 難經과 傷寒論 등에서도 溫病과 관련한 내용들이 실린다. 그런데 溫病學의 체계가 잡히기 전까지는 傷寒論이 溫病의 모든 證治를 총괄하였다. 明清時代에 이르러서야 溫病學은 하나의 독립된 韓醫學의 한 분야로 자리 잡게 되었다.

『黃帝內經』에는 溫病에 관한 病名, 病因, 病脈, 病證, 治療, 豫防 등이 모두 실려 있다. 病名에 관해서는 『素問·六元正紀大論』에 “氣酒大溫, 草酒早榮, 民酒癘, 溫病乃作(기후가 이에 크게 따뜻하여 草木이 이에 일찍 무성하고 사람들이 疫癘를 앓게 되고, 溫病이 이에 발생한다)”³⁾이라 하여 최초로 溫病의 명칭이 실려 있다. 病因에 관해서는 『素問·生氣通天論』에 “冬傷于寒, 春必病溫(겨울에 寒邪에 손상되면 봄에 반드시 溫病이 된다.)”⁴⁾이라 하였는데, 이는 뒤에

나오는 伏邪溫病學說의 유래가 된다. 脉에 관해서는 『靈樞·論疾診尺篇』에 “尺膚熱甚, 脉盛躁者, 病溫也(尺膚에 심하게 熱이 나고 脈象이 盛大하면서 躁動하면 이는 溫病이다)”⁵⁾라 하였고, 『素問·至眞要大論』에 “熱者寒之, 溫者清之”⁶⁾, 『素問·評熱病論』 “有病溫者, 汗出輒復熱, 而脉躁疾, 不爲汗衰, 狂言不能食(溫病을 앓는 사람이 땀이 난 뒤에도 곧 다시 熱이 나면서 脉이 빠르면서 強하게 뛰며 땀을 내어도 病이 물러가지 않고 狂言을 하며 음식을 먹지 못한다)”⁷⁾이라 하였다. 治療에 관해서는 『素問·至眞要大論』에 “風淫于內, 治以辛涼(風氣가 내부에 淫勝하면 辛味와 涼性을 가진 약물로 주치한다)”, “熱淫于內, 治以咸寒, 佐以甘苦(熱氣가 내부에 淫勝하면 鹹味와 寒性을 가진 약물로 주치한다)”⁸⁾라 하여 風과 熱의 治療原則을 규정하였다. 溫病의 豫防에 관해서는 『素問·刺法論』에 “不相染者, 正氣存內, 邪不可干, 避其毒氣(서로 傳染되지 않는 것은 正氣가 안을 지키고 있어서 邪氣가 침범하지 못하여 그 毒氣를 피하는 것이다)”⁹⁾라 하였으며, 溫病의 豫防藥으로서 ‘小金丹方’을 제시하였으며 ‘小金丹方’의 組成과 服用法¹⁰⁾을 정확하게 제시하였다.

『黃帝內經』에서는 溫病에 관한 내용이 어느 한 篇에만 실리지 않고 이리저리 흩어져서 실려 있지만, 이를 한데 모아놓고 종합적으로 생각해보면, 溫病에 대해서 일정한 지식수준을 지녔다고 볼 수 있으니, 이후의 溫病學 發展에 커다란 이론적 土臺가 되었다.

E-mail : kskeum@wonkwang.ac.kr Tel : 063-850-6808.
접수일(2008년 7월 29일), 수정일(2008년 8월 12일),
게재확정일(2008년 8월 14일)

- 1) 彭勝權 主編. 溫病學. 人民衛生出版社. 北京. 2000. pp.4-5. SARS를 溫病으로 규정할 수 있는 근거는 이 책의 目次를 보면 알 수 있다. 溫病으로 규정하는 병증들인데, 流行性感冒, 流行性耳下腺炎, 紅痘, 風疹, 水痘, 細菌性病疾, 流行性出血熱 등을 溫病의 범주에 넣을 수 있다.
- 2) 傳統醫學研究所 編纂. 東洋醫學大辭典. 서울. 成輔社. 2000. p.1606. “원래 瘟疫이라고 함. 疫癘의 氣를 感受하여 발생하는 流行性急性傳染病의 총칭이다.”
- 3) 素問研究集成刊行委員會 編. 素問研究集成 卷九. 대구. 金星印刷社. 2001. p.24.
- 4) 素問研究集成刊行委員會 編. 素問研究集成 卷一. 대구. 金星印刷社. 2001. p.111.

- 5) 靈樞研究集成刊行委員會 編. 靈樞研究集成. 대구. 청운인쇄. 2006. p.1587. 卷三.
- 6) 素問研究集成刊行委員會 編. 素問研究集成. 대구. 金星印刷社. 2001. p.488. 卷九.
- 7) 素問研究集成刊行委員會 編. 素問研究集成. 대구. 金星印刷社. 2001. p.68. 卷四.
- 8) 素問研究集成刊行委員會 編. 素問研究集成. 대구. 金星印刷社. 2001. p.446. 卷九.
- 9) 素問研究集成刊行委員會 編. 素問研究集成. 대구. 金星印刷社. 2001. p.318. 卷九.
- 10) 素問研究集成刊行委員會 編. 素問研究集成. 대구. 金星印刷社. 2001. p.318. 卷九. “辰砂二兩, 水磨雄黃一兩, 葉子雌黃一兩, 紫金半兩, 同入合中外固, 了地一尺築地實, 不用爐, 不須藥制, 用火二十斤, 煨之也, 七日終, 候冷七日取, 次日出合子, 埋藥地中七日, 取出, 順日研之三日, 煉白沙蜜, 爲丸梧桐子大, 每日望東, 吸日華氣一口, 冰水下一丸, 和氣嚥之, 服十粒, 無疫干也.”

漢唐時代의 溫病學에서는 『黃帝內經』을 기초로 하여 발전을 하게 된다. 漢代의 張仲景이 쓴 『傷寒論』은 최초의 熱性病學에 관한 서적이다. 『傷寒論』에 “太陽病發熱而渴, 不惡寒者, 爲溫病(太陽病에서 熱이 나고 渴症이 나며 惡寒이 나지 않는 것은 溫病이다)”¹¹⁾이라 하였는데, 여기에서는 溫病초기의 증후에 대한 특징이 비교적 명확하게 논술 되어 있다. 治療에 대해서는 太陽溫病은 비록 治療方劑를 제시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溫病의 治療法과도 명확하게 일치하지는 않으나, 傷寒論속에 나오는 清熱의 方劑들은 溫病에서 운용이 가능하나, 이후의 溫病治療學의 발전의 기초가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晉代의 王叔和는 溫病의 종류에 대해, 『黃帝內經』에서 溫病과 暑病을 제시하는 것에 근거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여전히 溫瘧, 風溫, 溫毒, 溫疫 등의 명칭을 제시하였다. 隨代의 巢元方은 『諸病源候總論』에서 “溫病一日, 太陽受病, 諸陽主表, 表謂皮膚也, 故頭項腰痛”¹²⁾이라 하여 온병에 대해서 王叔和보다 더 자세히 서술하였으나 이론은 王叔和와 대체로 일치한다. 唐代의 『千金要方』, 『千金翼方』, 『外台秘要』등에서는 溫病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方劑가 적지 않게 실려 있다.

漢唐시대의 溫病學은 『傷寒論』에 의해 治療방법과 方劑가 결정되었으며 이론적으로도 독립적인 체계를 갖추지 못하였다. 다만 이전보다는 治療를 위한 方劑가 더욱 풍부해졌다.

宋元시대에는 溫病이 傷寒學說의 틀을 벗어나기 시작한 것이 특징으로, 溫病學에 대한 臨床경험이 쌓이면서 治療에 있어서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한 것이다. 唐宋以前에는 의사들이 外感熱病을 치료할 때는 기본적으로 『傷寒論』의 理法方藥을 사용하는 것이 보편적이었다. 사회와 경제가 발전하고 인구가동이 빈번해지면서 病의 종류가 증가함에 따라, 의사들이 傷寒方을 臨床에서 무조건 적용시키는 것이 外感熱病을 치료하는 데에 적합하지 않다는 것을 느끼고, 새로운 방법을 찾게 되었다. 宋代의 朱肱은 『傷寒論』에서 辛溫한 약물로 外感熱病을 다스릴 때에는, 때와

장소와 사람에 따라서 적절히 활용해야 할 것을 주장하였다. 이는 經驗方을 가감을 해 가면서 적절하게 운용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당시 한번 정해놓고 고치지 않는 經驗方만을 무조건 따라야 하는 政勢에 대해 큰 촉진제 역할을 하였다. 金元시대에는 “百家爭鳴”의 시기로서 溫病學의 발전에 아주 강한 촉진작용이 될 수밖에 없었다. 특히 金元四大家 중 한 사람인 劉完素는 熱性病의 치료에 있어서 커다란 획을 그었는데, 經驗方은 張仲景의 傷寒論을 반드시 따라야 한다는 이전의 고정 관념을 완전히 버리는 것이었다. 劉河間은 臨床적인 체험을 통해서 熱病초기에는 辛溫한 藥을 많이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명확히 제시하였다. 과거에는 外感熱病의 초기에는 辛溫解表와 先表後裏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는데, 劉河間은 이를 무시하고 雙解散¹³⁾ 등의 處方을 직접 만들어서 表裏雙解하는 방법을 사용할 것을 주장하였다. 그래서 劉河間을 溫病治療學의 嚆矢라 할 수 있다. 그래서 後代사람들은 그를 溫病學의 創始者라고 추앙하니 “外感은 張仲景이 최고이고 熱病은 劉完素가 주도한다.(外感宗仲景, 熱病主河間)”라는 말이 생겨났다. 元代末年의 王安道는 發病의 메카니즘과 治法상으로 부터 溫病을 傷寒과 명확하게 구분 지었다. 王安道는 “溫病은 傷寒과 뒤섞여서 부를 수 없으며, 溫病은 伏熱이 안에서부터 나오니 治療는 清裏熱을 위주로 한다.”고 지적하였다. 그래서 吳鞠通은 『溫病條辨』의 凡例에서 “王安道가 비로소 傷寒을 탈피하여서 溫病을 辨證하기 시작하였다.”¹⁴⁾고 하였다. 溫病은 이때 부터 傷寒學說로부터 떨어져 나와서 溫病學 形成의 독립된 체계를 이루었다. 그러나 『傷寒論』을 체계적으로 완전히 벗어난 것은 아니었으며 독자적으로 辨證체계를 완전히 벗어난 것은 아니었다. 다만 후세 溫病學의 체계적인 시작에 대해서 일정한 土臺가 되었을 뿐이다.

溫病學은 明清시대에 이르러 이론과 治療와 임상에 있어서 모두 괄목할만한 발전을 보게 되었다. 溫

11) 傷寒論研究會 編. 傷寒論講義. 서울. 圖書出版 鼎談. 1997. p.6.

12) 巢元方 著. 巢氏諸病源候論. 臺灣 臺中市. 昭人出版社. 發行年不明. p.247.

13) 傳統醫學研究所 編纂. 東洋醫學大辭典. 서울. 成輔社. 2000. p.1397. [益元散]·[防風通聖散] 각 210g씩에 蔥白5寸, 鹽豆豉50알, 生薑3쪽을 加해 水煎服한다.

14) 吳瑭(鞠通) 著. 溫病條辨.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8. p.47. “王安道能脫却傷寒, 辨證溫病”

病學의 전문서적이 연달아서 많이 나왔고 溫病學을 연구하는 醫學者들이 많이 배출되었으며, 傷寒學說의 범위를 완전히 벗어나서 체계적이고 독립된 하나의 학문을 형성하게 되었다. 먼저 明代末의 吳又可는 최초의 전문 溫病書籍인 『溫疫論』을 편찬하였는데 책의 서두에 ‘雜氣說’과 ‘癘氣說’을 제안하였다. 崇禎(명나라 朱由檢의 연호) 末年에 마침 溫疫이 유행하였는데 吳又可는 여러 차례의 반복적인 臨床을 통해서 溫病이 傷寒과 다르다는 독특한 見解를 제시하였다. 그 내용은 주로 첫째, 溫疫의 원인은 일종의 戾氣로서 老少實虛를 막론하고 접촉하기만 하면 바로 病이 된다. 둘째, 邪氣를 받는 경도가 입과 코로부터 들어온다. 셋째, 溫病의 초기에 邪氣가 半表半裏의 膜原에 있으면 먼저 疎利透達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이러한 인식은 비록 局限적일지라도 이후 溫病學에서 새로운 이론체계를 형성한 것에 대해 아주 큰 영향이 있었다. 溫病學은 清代에 이르러 완전한 체계를 형성하면서 하나의 독립된 학문을 이루어 갔다. 대표적인 溫病學者로는 葉天士, 薛生白, 吳鞠通, 王孟英 등으로, 衛氣營血과 三焦로 핵심을 삼아 이론적인 체계를 성립해 갔다. 이 중에서도 대표적인 인물로 추앙받으며 실로 溫病學의 완전한 체계를 세운 창시자는 葉天士이다. 그는 『溫熱論』중에서 溫病이 발생 발전하는 규칙과 溫病과 傷寒과의 구별을 정확하게 밝혔으며, 溫病이 進行하는 과정 중 각 단계의 治療원칙을 제정하였다. 그리고 衛氣營血이 溫病辨證의 이론적인 근거로 삼아 溫病學이론의 발전에 새로운 길을 열었으며, 舌, 齒, 斑疹, 白痞 등의 관찰을 통해 溫病의 診斷 방법을 발전시켰다. 그 후 吳鞠通은 葉天士의 衛氣營血이론의 기초위에서 三焦辨證을 보충하였고 아울러 비교적 체계적인 溫病治療方劑를 만듦으로서 溫病學의 완전한 체계를 이루었다. 吳鞠通은 葉天士의 뒤를 이어 『溫熱論』과 『臨証指南醫案』을 종합한 것으로 볼 수 있는 『溫病條辨』을 편찬하였다. 吳鞠通은 중국 江蘇城사람으로 『內經』과 『傷寒論』, 葉天士의 영향을 받으며 啓發하여 당시에 醫術로 이름을 떨쳤다. 90년대에 吳鞠通이 京師에 머물러 있을 때 마침 溫病이 돌아서, 이러한 질병을 깊이 연구하고 關聯文獻을 採集하여서 1798년에 『溫病條辨』을 撰輯하였다.¹⁵⁾ 吳鞠

通은 『溫病條辨』을 통해 溫病의 실질적인 이론 체계를 갖추고 임상적인 치료에 이르기까지 완전한 틀을 갖추게 된 것이다.

II. 研究方法

1. 본 연구는 人民衛生出版社의 『溫病條辨』을 토대로 연구한 것이다.
2. 각 條文마다 본 著者가 직접 懸吐를 달았다.
3. 본론에서는 條文 바로 아래에 註解를 먼저 해석하였고 註解를 해석한 부분 바로 밑에 註解를 원문으로 실었다.
4. 註解를 해석함에 있어서 매끄럽지 못한 부분은 意譯을 하였으며 楊進 主編의 『溫病條辨』¹⁶⁾을 참고하였다.
5. 내용을 이해하는데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引用文獻에 대한 原文과 說明은 脚註로 處理하였다.
6. 이해하기 어렵다고 생각되는 단어나 글자는 字句解로 처리하였다.
7. 本論文에 사용한 부호로는 引用文獻은 『』로 표시하였으며, 強調해야 할 文句가 節인 경우에는 “ ”로 강조하였고 句인 경우에는 ‘ ’로 강조하였다.

III. 本論

1. 風溫 溫熱 溫疫 溫毒 冬溫

- 1) 溫病者는 有風溫⁽¹⁾, 有溫熱⁽²⁾, 有溫疫⁽³⁾, 有溫毒⁽⁴⁾, 有暑溫⁽⁵⁾, 有濕溫⁽⁶⁾, 有秋燥⁽⁷⁾, 有冬溫⁽⁸⁾, 有溫瘧⁽⁹⁾이라.

이 아홉 가지는 王叔和의 『傷寒例』에 거의 있는데, 王叔和는 『難經』의 글을 끌어다가 명백하게 논술하

15) 漢醫學大辭典編纂委員會 編. 漢醫學大辭典(醫史文獻編). 서울. 東洋醫學研究院出版部. 1985. p.166.

16) 楊進 主編. 溫病條辨. 北京. 中國醫藥科技出版社. 1999.

는 기초로 삼았다. 계절에 따라 病을 추측해 보는데, 실제로도 이러한 證이 있었으며 王叔和가 病을 治療할 때에도 또한 실제로 이러한 證을 접했을 것이다. 다만 王叔和는 별도로 治法을 세우지 않고 『傷寒例』에 서술하였는데 이는 실제로 혼동한 것이나 다름없는 것에 속하며, 『傷寒論』을 外感을 治療하는 좋은 방법으로 생각하여 外感을 모두 『傷寒例』중에 수록하고서 傷寒을 다스리는 治法으로 치료하였다. 후세 사람들 또한 이러한 관습을 깨뜨리지 못하고 여전히 소홀히 하기를 千余年을 지나왔으니 後患이 끝이 없었으며, 모두 王叔和가 안 좋은 예를 처음으로 만들었으니 明代의 方有執과 清初의 喻嘉言 등 여러 醫家들에게 반박당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여러 醫家들이 비록 王叔和를 반박하기는 했지만 역시 별도로 溫病을 치료하는 方法을 제시하지 못했다. 喻嘉言이 비록 溫病을 治療하는 方法을 세우긴 했지만 여전히 傷寒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였고, 부족한 점이 있어서는 王叔和와 다를 바 없었으니 후세사람들이 溫病을 치료하는 方法에 대해서는 믿고 따를만한 근거가 없게 되었다. 본 책은 溫病의 治法에 대해 詳細하게 研究했으며 古今의 醫家들과 관련 있는 論述들을 광범위하게 받아들여 溫病을 치료하는 各種의 方法을 자세하게 세웠다. 책속에서 傷寒의 治法에 대해서 仲景의 治法을 宗主로 삼은 것을 제외하고, 四時雜感⁽¹⁰⁾에 대해서는 가지런한 눈썹같이 아주 자세하게 治法을 세웠으니 王叔和가 처음으로 그 단서를 있게 하였고, 李東垣, 劉河間, 王安道, 吳又可, 喻嘉言, 葉天士 등이 의견을 넓혔고, 나는 그들의 기초위에서 마무리를 잘 했을 뿐이다.

風溫은 초봄에 陽氣가 막 나오고 厥陰이 時令을 주관할 때에 風이 溫과 뒤섞인 것이다. 溫熱은 늦봄에서 초여름에 陽氣가 팽창할 때에 溫이 盛해서 熱이 된 것이다. 溫疫은 厲氣가 유행하여 穢濁한 氣와 兼하는데, 집집마다 이런 환자가 발생하는 것이 마치 사람이 가축을 부리는 것과 같다. 溫毒은 溫病에 毒이 낀 것으로 穢濁함이 극심한 것이다. 暑溫은 한 여름에 暑病이 熱에 치우친 것이다. 濕溫은 長夏부터 초가을까지에 濕中에서 熱이 발생한 것으로 곧 暑病이 濕에 치우친 것이다. 秋燥은 秋金의 燥熱한 氣다.

冬溫은 겨울에는 마땅히 추워야 하는데 오히려 따뜻하여서 陽氣가 潛藏되지 못하여 백성이 溫病에 걸리는 것이다. 溫瘧은 陰氣가 먼저 손상을 받았는데 暑로 인하여 陽氣가 獨發한 것이다. 諸家들이 溫을 論한 것을 살펴보면 顧此失彼(이것을 돌아보면 저것을 잃게 됨)하는 弊端이 생기므로, 이 책은 諸溫의 大綱을 첫머리에 공개하고, 이 책을 이름 하여 『溫病條辨』이라 이른다.

此九條, 見於王叔和『傷寒例』中居多, 叔和又牽引『難經』之文以神其說. 按時推病, 實有是証, 叔和治病時, 亦實遇是証. 但叔和不能別立治法, 而敘於『傷寒例』中, 實屬蒙混, 以『傷寒論』爲治外感之妙法, 遂將一切外感悉收入傷寒例中, 而悉以治傷寒之法治之. 後人亦不能打破此關, 因仍苟簡, 千余年來, 貽患無窮, 皆叔和之作俑無怪見駁於方有執, 喻嘉言諸公也. 然諸公雖駁叔和, 亦未曾另立方法, 喻氏雖立治法, 仍不能脫卻傷寒圈子, 弊與叔和無二, 以致後人無所遵依. 本論詳加考核, 準古酌今, 細立治法, 除傷寒宗仲景法外, 俾四時雜感, 朗若列眉; 未始非叔和有以肇其端, 東垣, 河間, 安道, 又可, 嘉言, 天士宏其議, 而瑱得以善其後也.

風溫者, 初春陽氣始開, 厥陰行令, 風夾溫也. 溫熱者, 春末夏初, 陽氣弛張, 溫盛爲熱也. 溫疫者, 厲氣流行, 多兼穢濁, 家家如是, 若役使然也. 溫毒者, 諸溫夾毒, 穢濁太甚也. 暑溫者, 正夏之時, 暑病之偏於熱者也. 濕溫者, 長夏初秋, 濕中生熱, 即暑病之偏於濕者也. 秋燥者, 秋金燥烈之氣也. 冬溫者, 冬應寒而反溫, 陽不潛藏, 民病溫也. 溫瘧者, 陰氣先傷, 又因於暑, 陽氣獨發也.

按諸家論溫, 有顧此失彼之病, 故是編首揭諸溫之大綱, 而名其書曰『溫病條辨』.

【字句解】

(1) 風溫: 겨울과 봄에 風熱邪를 感受함으로 인해서 얻은 新感溫病으로, 身熱, 咳嗽, 微惡風寒 등이 있다.

(2) 溫熱: 봄에 발생하는 일종의 伏邪溫病으로 처음에 氣分의 身熱, 大渴, 汗大出, 脈洪大 등이 나타나는데, 더욱이 熱入心營의 神昏, 譫語 등이 나타나기 쉽다.

(3) 溫疫:疫癘의 毒을 感受받아서 일어난 여러 流行性急性傳染病의 總칭으로 熱病이 극도로 전염되기 쉬운 것으로 남녀노소 구분 없이 증상이 相同하다.

(4) 溫毒:溫邪熱毒을 感受한 疔瘡의 總칭으로 發熱惡寒, 頭面赤腫, 咽喉痛腐爛하며 피부에 비단무늬 같은 紅斑이 있다.

(5) 暑溫:여름에 발생하는 일종의 新感溫病으로 여름에 傷暑하여 身熱, 自汗, 口渴, 面赤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6) 濕溫:여름과 가을철에 雨濕이 비교적 盛한 계절에 발생하는 일종의 急性熱病으로 長夏에 사람이 濕熱病邪를 感受받아서 頭重如裹, 胸悶納呆, 四肢困倦, 惡寒發熱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데, 그 병세는 緩慢하고 病의 경과가 비교적 긴 病이다.

(7) 秋燥:가을에 燥氣를 感受하여 발생하는 일종의 新感溫病이다.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 燥熱에 傷한 경우로서 發熱咳嗽, 咽乾口渴, 脇痛 등의 증상이 있는 것을 溫燥라고 부르고; 涼燥에 傷한 경우로서 惡風寒, 咳嗽, 脇痛, 頭痛, 微發熱 등의 증상이 있는 것을 涼燥라고 부른다.

(8) 冬溫:陰氣가 먼저 손상을 받은 후에 여름에 이르러 또 暑熱을 받아서 寒熱이 瘧과 같은 일종의 病證으로 겨울에 頭痛, 發熱, 口渴 등이 나타난다.

(9) 溫瘧:아주 추워야할 겨울철에 사람이 溫邪에 感受받은 후의 일종의 新感溫病으로, 안에 伏邪가 있는데 다시 暑熱을 感受받아서 나타나는 일종의 內熱이 盛한 瘧疾이다. 다만 寒少熱多하고 발작엔 規律이 있다.

(10) 四時雜感:각종의 四時의 다른 病邪를 感受받아서 발생하는 溫病

【考察】

본 조문은 傷寒例¹⁷⁾를 본떠서 溫病의 분류와 범위를 총괄한다. 이 조문은 『傷寒論』의 傷寒例를 골격으

로 삼아서 溫病과 관련한 病名을 열거하였고 모든 溫病의 대강으로 삼았으며, 溫病을 아홉 가지로 나누었다.

2) 凡病溫者는, 始于上焦하며, 在手太陰⁽¹⁾이라.

傷寒은 毛竅를 통해 들어와서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며 足太陽에서 시작한다. 足太陽膀胱은 水에 속하고 水와 寒의 성질은 유사한 점이 있어서 寒邪가 먼저 膀胱經을 침범하는데, 이는 ‘同類相從’이기 때문에 傷寒發病은 膀胱經에서 시작한다. 예로부터 膀胱이 表를 主管한다고 말하지만 그 뜻은 아직 반에도 이르지 못했다. 肺는 皮毛의 母인데 어찌 表를 主管하지 않겠는가! 治法은 반드시 仲景의 六經傳變으로 祖法을 삼아야 한다. 溫病은 溫邪를 感受받아서 發病한 것이며, 溫病은 일반적으로 입과 코를 통해서 人體를 침범하여 溫病의 발생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가고, 코는 肺로 통하니 溫邪는 發病을 시작한다. 手太陰은 金에 속하며 溫은 火의 氣이고 風은 火의 母이니 火邪가 金을 克하므로 溫病의 發病은 上焦의 手太陰肺經에서 시작하니 溫病의 發病은 반드시 劉河間의 三焦定論¹⁸⁾을 좇아야 한다. 또한 寒은 陰邪인데 비록 傷寒論중에서 中風을 말하긴 했지만 이 風은 西北方으로부터 와서 촉발하는 寒風으로 收引하는 성질이 강하니, 陰寒의 氣가 盛한하면 반드시 人體의 陽氣를 손상시켜서 寒邪에 感受받은 것으로 말하자면 먼저 太陽經중의 陽氣를 가로막아서, 이로부터 頭痛 身熱 등의 證이 발생한다. 足太陽膀胱經은 陽에 속하고 腑에 속하며, 傷寒은 陰邪에 속하니, 陰寒이 盛하면 人體의 陽氣를 손상시킨다. 溫邪는 陽邪에 속하며 이 論(문장)에서 傷風을 말하였으나 다만 이 風은 東쪽에서 오는 것이니, 곧 解凍할 수 있는 따뜻한 風으로, 發泄하는 성질이 아주 강하며 陽熱이 盛하면 반드시 陰液을 傷하므로 먼저 手太陰經중의 陰氣를 가로막아서 咳嗽, 自汗, 口渴, 頭痛, 身熱, 尺熱¹⁹⁾ 등의 證이

17) 張仲景 著. 傷寒論. 北京. 中醫古籍出版社. 1997. p.11. 張仲景의 著書 傷寒雜病論의 원본은 소실되었고 지금 전해지는 傷寒論과 金匱要略은 王淑和가 仲景의 原著를 다시 새롭게 편집해서 만든 두 권의 책이다. 傷寒論에 傷寒例 한편이 있다. 病名을 모아보니 傷寒, 溫病, 暑病, 濕熱病, 冬溫, 寒疫, 時行逆氣, 風溫, 溫毒, 時氣病, 傷暑, 溫瘧, 病熱, 瘧瘧 등이 다.

18) 彭勝權 主編. 溫病學.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2000. p.88. “葉天士의 『臨証指南醫案』에서 나온 말로 溫熱病 관련 醫案이나 暑病의 楊案등에 유사한 말이 보인다.”

19) 尺膚熱을 말함. 자세한 내용은 다음 조문의 【字句解】에 나옴.

발생한다. 手太陰肺經은 陰臟에 속하며, 溫熱은 陽邪에 속하니 陽熱이 亢盛하면 반드시 인체의 陰液을 손상시킨다. 陰陽 두 大法의 門의 分別이 마음속에 확실해졌을 것이다.

무릇 大明은 東에서 생기고 달은 西에서 생하고, 모든 만물이 少陽·少陰의 氣로 말미암아 생성되지 않음이 없으므로 만물을 모두 東西라고 부른다. 사람은 만물을 통솔하는 우두머리이며 東西의 氣가 가장 온전함을 얻어서 비로소 天地東西의 氣와 상응한다. 그 질병은 또한 天地東西의 氣와 상응하지 않을 수 없다. 東西라는 것은 陰陽의 도로이다. 東쪽으로부터 나아가는 것은 木, 風, 濕, 火, 熱과 상응한다. 濕土는 五行상 중앙에 위치하는데, 만약 火熱과 교류하면 暑가 된다. 火는 또한 南쪽에 위치한다. 또 다른 측면은 西로부터 나아가는데 그 속성은 金, 燥, 水, 寒과 상응한다. 水는 五行상 북쪽에 속한다. 水와 火, 이 두 가지는 陰陽의 徵兆이고 南北은 陰陽의 極致이다. 天地가 이 陰陽을 운행해서 만물을 化生하므로 하늘의 은혜는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은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는 큰 은혜가 생긴다고 말할 수 있다. 天地가 운행시키는 陰陽이 和平하면 人生의 陰陽 또한 和平하니 어찌 이른바 病이 있겠는가! 天地와 사람의 陰陽이 조금이라도 치우침이 있으면 곧 病이 된다. 치우침이 얇은 것은 病이 얇고 치우침이 깊은 것은 病이 깊으며, 火에 치우치면 病溫·病熱이 되며 水에 치우치면 病清·病寒한 病이 되니, 이 水火라는 두 가지 커다란 法門의 구별을 醫者는 몰라서는 아니 된다. 水의 病이라는 것을 알면 그것을 溫熱시키고 火의 病이라는 것을 알면 그것을 寒涼시켜서, 각기 그 치우침을 구하여 和平에 이르게 할 뿐이다. 거울이 맑듯이 한 점의 티끌도 없고, 저울이 평평하듯이 터럭만큼의 기울어짐도 없어야 오묘함에 합치할 수 있으니, 어찌 각기 門戶를 세워 寒熱溫涼 중 一家의 이론만을 오로지 주장 하겠는가. 나는 이로 인해 寒病의 원인은 水에 있고 溫病의 원인은 火에 있다고 分別하고 아울러 이것을 비교한다.

傷寒由毛竅而入, 自下而上. 始足太陽. 足太陽膀胱屬水, 寒即水之氣, 同類相從, 故病始於此. 古來但言

膀胱主表, 殆未盡其義. 肺者, 皮毛之合也, 獨不主表乎(按人身一臟一腑主表之理, 人皆習焉不察. 以三才大道言之: 天爲萬物之大表, 天屬金, 人之肺亦屬金, 肺主皮毛, 經曰皮應天, 天一生水; 地支始於子, 而亥爲天門, 乃貞元之會, 人之膀胱爲寒水之腑; 故俱同天氣, 而俱主表也.) 治法必以仲景六經次傳爲祖法. 溫病由口鼻而入, 自上而下, 鼻通於肺, 始手太陰. 太陰金也, 溫者火之氣, 風者火之母, 火末有不克金者, 故病始於此, 必從河間三焦定論. 再寒爲陰邪, 雖『傷寒論』中亦言中風, 此風從西北方來, 乃發之寒風也, 最善收引, 陰盛必傷陽, 故首郁遇太陽經中之陽氣, 而爲頭痛身熱等証. 太陽陽腑也, 傷寒陰邪也, 陰盛傷人之陽也. 溫爲陽邪, 此論中亦言傷風, 此風從東方來, 乃解凍之溫風也, 最善發泄, 陽盛必傷陰, 故首郁遇太陰經中之陰氣, 而爲咳嗽自汗口渴頭痛身熱尺熱等証. 太陰陰臟也, 溫熱陽邪也, 陽盛傷人之陰也. 陰陽兩大法門之辨, 可了然於心目間矣.

夫大明生於東, 月生於西, 舉凡萬物, 莫不由此少陽, 少陰之氣以爲生成, 故萬物皆可名之曰東西. 人乃萬物之統領也, 得東西之氣最全, 乃與天地東西之氣相應. 其病也, 亦不能不與天地東西之氣相應. 東西者, 陰陽之道路也. 由東而往, 爲木, 爲風, 爲濕, 爲火, 爲熱, 濕土居中, 與火交而成暑, 火也者, 南也. 由西而往, 爲金, 爲燥, 爲水, 爲寒, 水也者, 北也. 水火者, 陰陽之徵兆也; 南北者, 陰陽之極致也. 天地營運此陰陽以化生萬物, 故曰天之無恩而大恩生. 天地營運之陰陽和平, 人生之陰陽亦和平, 安有所謂病也矣. 天地與人之陰陽, 一有所偏, 即爲病也. 偏之淺者病淺, 偏之深者病深; 偏於火者病溫, 病熱, 偏於水者病清, 病寒, 此水火兩大法門之辨, 醫者不可不知. 燭其爲水之病也, 而溫之熱之; 燭其爲火之病也, 而涼之寒之, 各救其偏, 以抵於平和而已. 非如鑿之空, 一塵不染, 如衡之平, 毫無倚著, 不能暗合道妙, 豈可各立門戶, 專主於寒熱溫涼一家之論而已哉. 璠因辨寒病之原於水, 溫病之原於火也, 而並及之.

【字句解】

(1) 手太陰: 肺臟을 가리킴

【考察】

본 조문은 新感溫病의 邪氣가 우선 침입하는 部位와 經路를 제시한다.

葉天士가 말하길 “溫邪는 위에서 感受받는데, 먼저 肺를 犯하여 心包로 逆傳한다. 肺는 氣를 주관하니 衛에 속하고, 心은 血을 주관하니 營에 속한다. 營衛氣血을 辨證하는 것이 비록 傷寒과는 같을지라도 治法을 論하는 것은 傷寒과는 크게 다르다.”²⁰⁾라고 하였다. 吳鞠通은 이러한 선배들의 經驗을 살려서 三焦로 溫病을 辨證할 것을 확정했다. 溫病의 傳變과정에서 특수한 경로를 밝혔는데 溫病이 입과 코에서 肺로, 즉 위에서 아래로 傳變한다는 것이다. 吳鞠通 이전에는 溫病은 表에서 衛分으로 들어가는 경로가 일반적이었다. 이 조문의 重點은 傷寒과 溫病의 구별인데, 傷寒의 中風과 溫病의 風溫을 논술하였다. 溫病의 病因은 風溫이며, 病機는 陰藏인 手太陰肺經에서 시작하는 것이며, 傳變經路는 위에서 아래로 가는 것이고, 病證은 自汗, 口渴 등이다. 傷寒의 病因은 風寒이며, 病機는 陽腑인 足太陽膀胱經에서 출발하는 것이며, 傳變하는 經路는 아래에서 위로 가는 것이고, 病證은 頭痛, 身熱 등이다.

3) 太陰之爲病也, 脈不緩不緊而動數, 或兩寸獨大, 尺膚熱¹⁾, 頭痛, 微惡風寒, 身熱自汗, 口渴, 或不渴, 而咳, 午後熱甚者, 名曰溫病이라.

脈이 緩하지 않으면 太陽中風이 아니고, 緊하지 않으면 太陽傷寒이 아니며, 動數한 脈은 風火가 서로 부채질하는 형상으로 內經에서는 躁²¹⁾라고 하며, 양寸部脈이 大한 것은 火熱의 邪氣가 肺經을 침범한 것을 반영한 것으로, ‘火克金’인 것이다. ‘尺部熱’은 尺部

의 肌膚에 熱이 심한 것으로 火發가 도리어 水熱을 克한 것이다. 頭痛, 惡風寒, 身熱自汗 등의 증상은 太陽中風과 다르지 않아 혼동하기가 아주 쉬우니, 어떻게 辨別해야하는가? 脈에 있어서 動數하나 緩하지 않고 緊하지 않으며; 주된 증상은 渴하거나, 咳하거나, 尺熱하고, 오후에 熱이 심한 것으로 구분한다. 太陽頭痛은 風寒의 邪氣가 위로 頭項部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項強, 頭痛등의 증상이 있게 된다. 肺가 天氣를 주관하니 天氣가 막히면 또한 頭痛이 발생하며, 또 봄에는 기가 머리에 있어서²²⁾, 또한 感受받은 火가 炎上하는 것이다. 吳又可가 『溫疫論』에서 溫病으로 頭痛이 발생하는 것은 邪氣가 太陽經脈을 범람한 것 때문이라고²³⁾ 제기한 것은 억측일 뿐이다. 傷寒의 惡寒은 足太陽膀胱經이 寒水에 속하고 表를 주관하므로, 溫病의 惡寒은 肺가 皮毛에 습하고 表를 주관하므로 惡風寒한다. 溫病초기에 病이 手太陰經에 있을 때에 病邪와 衛氣가 相爭하니, 衛氣가 정상적으로 體表肌膚를 정상적으로 溫養할 수 없어서 惡風, 惡寒이 나타난다. 傷寒太陽病의 환자는, 全身의 陽氣가 寒邪에 의해 鬱滯되므로 身熱하나, 肺는 一身의 氣化를 주관하는데, 만약에 肺經에 病邪가 생기면 정상적으로 化氣할 수 없으니, 氣機가 鬱滯되어 衛氣가 泄越할 수 없으니 發熱이 나타난다. 太陽自汗은 風이 衛氣를 분산시킨 것이고, 太陰自汗은 皮毛가 열린 것으로 肺 또한 衛氣를 주관하기 때문이다. 溫病에서 나타나는 口渴은 이른바 ‘火克金’이며, 咳는 肺氣가 鬱滯된 것이다. 午後에 熱이 심한 것은, 濁邪가 아래로 내려가는데 마침 火가 왕성한 시기에 陰이 火의 靄를 받은 형상이다.

不緩, 則非太陽中風矣; 不緊, 則非太陽傷寒矣; 動數者, 風火相煽之象, 經謂之燥; 兩寸獨大, 火克金也. 尺膚熱, 尺部肌膚熱甚, 火反克水也. 頭痛, 惡風

20) 葉天士 著. 魏漢奇, 袁寶庭 注評. 溫熱論注評. 北京. 中醫古籍出版社. 1993. p.1. “溫邪上受, 首先犯肺, 逆傳心包. 肺主氣屬衛, 心主血屬營, 辨營衛氣血雖與傷寒同, 若論治法則與傷寒大異也”

21) 素問研究集成刊行委員會 編. 素問研究集成 卷二. 대구. 金星印刷社. 2001. p.184. “人一呼脈三動, 一吸脈三動而躁, 尺熱曰病溫”

22) 素問研究集成刊行委員會 編. 素問研究集成 卷一. 대구. 金星印刷社. 2001. p.134. “春氣者病在頭”

23) 吳又可 著. 中華醫書集成 第三冊·溫疫論. 中國北京. 中醫古籍出版社. 1999. p.2. “溫病初起, 先憎寒而後發熱, 日後發熱而無憎寒也. 初得之二三日, 其脈不浮不沉而數, 晝夜發熱, 日晡益甚, 頭疼身痛. 其時邪在夾脊之前, 腸胃之後, 雖有頭疼身痛, 此邪熱浮越於經, 不可認爲傷寒表證, 輒用麻黃桂枝之類強發其汗.”

寒, 身熱自汗, 與太陽中風無異, 此處最足以相混, 於何辨之? 於脈動數, 不緩不緊, 証有或渴, 或咳, 尺熱, 午後熱甚辨之. 太陽頭痛, 風寒之邪, 循太陽經上至頭與項, 而項強頭痛也. 太陰之頭痛, 肺生天氣, 天氣郁, 則頭亦痛也, 且春氣在頭, 又火炎上也. 吳又可謂浮泛太陽經者, 臆說也. 傷寒之惡寒, 太陽屬寒水而主表, 故惡風寒, 溫病之惡寒, 肺合皮毛而亦主表, 故亦惡風寒也. 太陽病則周身之陽氣郁, 故身熱; 肺主化氣, 肺病不能化氣, 氣郁則身亦熱也. 太陽自汗, 風疏衛也; 太陰自汗, 皮毛開也, 肺亦主衛. 渴, 火克金也. 咳, 肺氣郁也. 午後熱甚, 濁邪歸下, 又火旺時也, 又陰受火克之象也.

【字句解】

(1) 尺膚熱: 腕關節의 「寸口」의 尺部脈에서 시작해서 肘關節의 「尺部穴」에서 끝이 나는 일종의 皮膚發熱을 가리킨다.

【考察】

본 조문은 溫病초기의 證候특징을 제시한다.

緩脈은 太陽中風の 脈이고 緊脈은 太陽傷寒의 脈인 것²⁴⁾으로써 溫病과의 혼동을 방지하는 것이니, 吳鞠通은 이 부분을 중요하게 생각하여 첫 부분에 실은 것 같다. 조문에서 ‘脈不緩不緊而動數, 或兩寸獨大’은 太陽傷寒도 아니고 太陽中風도 아니니, 오로지 溫病의 脈象임을 강조한 것이다. 이는 傷寒과 溫病을 鑑別하는 데에 있는 것이다. 이로 인해 이 구절은 본 조문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며 傷寒과 溫病을 구별하는 하나의 간편한 방법이다. 이 뒤의 구절인 ‘頭痛, 口渴, 身熱, 오후에 熱이 심함, 尺膚熱’ 등의 증상은 溫病으로 생각하기에는 별 무리가 없다.²⁵⁾

4) 太陰風溫, 溫熱, 溫疫, 冬溫에, 初起惡風寒者는, 桂枝湯主之이 아니라; 但熱不惡寒而渴者는, 辛涼平劑銀翹散主之이 아니라. 溫

毒, 暑溫, 濕溫, 溫瘧은, 不在此例이 아니라. 張仲景의 『傷寒論』원문을 살펴보면, 太陽病(太陽證과 같이 앞글의 頭痛, 身熱, 惡風, 自汗을 말함)에 다만 惡熱하나 惡寒하지 않고 渴한 것을 溫病이라 하며 桂枝湯으로 다스렸다.²⁶⁾ 대개 溫病은 發汗해서는 안 되고 解肌하는 것이 가장 좋으니, 桂枝로 본래 解肌하고, 桂枝의 芳香으로 化濁하며, 芍藥은 陰液을 收斂하고, 甘草는 敗毒和中하고, 生薑과 大棗로 營衛를 조화시키니 溫病初起에 사용할 수 있다. 이 문장에서 예전의 방법을 바꾸어서 惡風, 惡寒을 桂枝로 다스리고, 不惡風, 不惡寒을 辛涼劑로 다스리는 것은, 감히 옛 사람들의 가르침을 제멋대로 거스르는 것은 아니다. 張仲景이 말한 不惡風, 不惡寒은 완전히 不惡風, 不惡寒 한다는 것이 아니라, 다만 病의 초기에 惡風, 惡寒의 증상이 있고, 나중에 熱이 난 후에 惡風, 惡寒한 증상은 없는 것일 뿐이니, 古文은 간결하고 솔직한데다, 太陽中風에서 熱이 날 때에 惡風, 惡寒한 것에 대해 말한 것이라 상세하게 말할 겨를이 없었을 뿐이다. 대개 寒水の 病은 冬氣인데, 辛溫인 春夏의 氣가 아니면 풀기가 쉽지 않으니, 비록 溫病이라고 말을 했지만 惡風, 惡寒이 나타난 것은, 분명히 溫邪는 안으로부터 발생하고 風寒邪는 밖으로부터 束縛하여 內熱外寒證이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예전 그대로 桂枝의 辛溫解肌法을 사용하여 가볍게 땀을 나게 하면 寒熱의 邪氣가 모두 풀린다. 溫熱의 邪氣는 春夏의 氣로서 惡風, 惡寒하지 않으니 寒風을 兼하지 않음을 알 수 있으며, 이는 辛涼한 秋金의 氣가 아니면 쉽게 풀리지 않는다. 桂枝의 辛溫으로 溫을 다스린다는 것은 불로서 불을 끄려는 것과 같다. 따라서 이는 內經에서의 “風淫于內, 治以辛涼, 佐以苦甘”²⁷⁾ 하는 방법을 따른 것이다.

按仲景『傷寒論』原文, 太陽病(謂如太陽証, 即上文頭痛身熱惡風自汗也), 但惡熱不惡寒而渴者, 名曰

24) 傷寒論研究會 編. 傷寒論講義. 서울. 圖書出版 鼎談. 1997. p.28.

25) 李劉坤 강의. 臨牀溫病學特講. 서울. 대성의학사. 2001. p.43.

26) 傷寒論研究會 編. 傷寒論講義. 서울. 圖書出版 鼎談. 1997. p.36. “太陽病, 發熱而渴, 不惡寒者, 爲溫病” 傷寒論原文에는 “桂枝湯主之”란 구절은 없다. 그래서 이 부분은 傷寒論의 原文을 잘못 해석한 것이 아닌가 한다.

27) 素問研究集成刊行委員會 編. 素問研究集成 卷九. 대구. 金星印刷社. 2001. p.446.

溫病, 桂枝湯主之. 蓋溫病忌汗, 最喜解肌, 桂枝本爲解肌, 且桂枝芳香化濁, 芍藥收陰斂液, 甘草敗毒和中, 姜, 棗調和營衛, 溫病初起, 原可用之. 此處卻變易前法, 惡風寒者主以桂枝, 不惡風寒主以辛涼者, 非敢擅違古訓也. 仲景所雲不惡風寒者, 非全不惡風寒也, 其先亦惡風寒, 迨既熱之後, 乃不惡風寒耳, 古文簡, 質, 且對太陽中風熱時亦惡風寒言之, 故不暇詳耳. 蓋寒水之病, 冬氣也, 非辛溫春夏之氣, 不足以解之, 雖曰溫病, 既惡風寒, 明是溫自內發, 風寒從外搏, 成內熱外寒之証, 故仍舊用桂枝辛溫解肌法, 俾得微汗, 而寒熱之邪皆解矣. 溫熱之邪, 春夏氣也, 不惡風寒, 則不兼風寒可知, 此非辛涼秋金之氣, 不足以解之. 桂枝辛溫, 以之治溫, 是以火濟火也, 故改從內經“風淫於內, 治以辛涼, 佐以苦甘”法.

桂枝湯方

桂枝六錢 芍藥(炒)三錢 炙甘草二錢 生薑三片 大棗(去核)二枚

약 달이는 方法과 服藥하는 방법은 반드시 傷寒論의 원문과 같이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桂枝湯의 묘미를 잃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다른 傳變을 발생시켜서 病은 절대로 제거되지 않는다.

汪按: 麻黃, 桂枝는 肺系통의 藥으므로 足經으로 傳하여지나 水經으로 傳하여지지 않으나, 옛 사람들이 대부분 그렇다고 생각하지는 않았다. 다만 인체의 經絡이 서로 통하여 있으나 하늘의 氣를 감응하는 것이 다르므로 治法도 다른 것이다.

桂枝湯方

桂枝(六錢) 芍藥(炒, 三錢) 炙甘草(二錢) 生姜(三片) 大棗(去核, 二枚)

煎法服法, 必如傷寒論原文而後可, 不然, 不惟失桂枝湯之妙, 反生他變, 病必不除.

汪按: 麻黃, 桂枝, 既系肺藥, 故傳足不傳手, 前人多不以爲然, 但人之經絡相通, 而天之感氣則異, 故治法不同也.

辛涼平劑銀翹散方

連翹一兩 銀花一兩 苦桔梗六錢 薄荷六錢 竹葉四錢 生甘草五錢 芥穗四錢 淡豆豉五錢 牛蒡

子六錢

위 약재들을 찧어서 가루로 만들어 매번 六錢씩 복용하고 鮮葦根을 湯液으로 달여서 향기가 크게 나면 바로 복용하되 오래 달이지 말라. 肺藥은 輕淸을 취하는데 오래 달이면 맛이 두터워져서 中焦로 들어간다. 病이 重하면 4시간 마다 한번 복용하되 낮에 세 번, 밤에 한번을 복용하고, 病이 가벼우면 6시간마다 한번 복용하되 낮에 2번 밤에 한번 복용하고, 病이 풀리지 않으면 다시 지어서 복용한다. 대개 肺의 위치는 가장 높는데 약이 지나치게 무거우면 病所를 지나쳐 버리고 약이 지나치게 가벼우면 病은 重한데 藥이 輕한 폐단이 있으므로 普濟消毒飲²⁸⁾의 時時淸揚法을 따른다. 지금 사람들도 간혹 辛涼法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으나 대부분 효과를 보지 못한 것은 대체로 病은 큰데 藥이 가벼운 까닭이므로 한번 효과를 보지 못하면 처방 등을 바꾸고 처방 등을 바꾸면 점차 멀어져서 이제는 처방 등을 바꿀 수 없게 되어 천천히 며칠을 경과한 후에는 반드시 中下焦證을 이루게 된다. 胸膈이 답답하면 藿香 3錢, 鬱金 3錢을 가하여서 膈中을 보호하고, 갈증이 심하면 花粉을 가하고, 項腫咽痛하면 馬勃²⁹⁾, 元蓼³⁰⁾을 가하고, 鼻衄이 있으면 芥穗, 豆豉를 去하고, 白茅根 3錢, 側柏炭 3錢, 梔子炭 3錢을 가하고, 咳하면 杏仁을 가해서 利肺氣하고, 발병 2~3일에 病이 여전히 肺에 있으면 熱이 점차로 裏로 들어 간 것이니, 가는 生乾地黃과 麥門冬을 가해서 津液을 保存시키고, 그래도 풀리지 않거나 소변이 短하면은 知母, 黃芩, 梔子와 같은 苦寒한 藥물을 가하며 麥門冬, 生乾地黃과 같은 甘寒한 藥물과 승하여 陰氣를 化生시켜서 熱이 治성한 것을 다스린다.

28) 李範九, 朴贊斗 譯編. 方劑學. 서울. 대성의학사. 2000. p.178. “黃芩酒炒·黃連酒炒各五錢, 陳皮去白·甘草生用·玄參·柴胡·桔梗各二錢, 連翹·板藍根·麻勃·牛蒡子·薄荷各一錢, 白僵蠶·升麻各七錢”

29) 全國韓醫科大學 本草學教授 共編著. 本草學. 서울. 圖書出版永林社. 1998. p.217. “淸肺利咽, 解毒止血. 治風熱鬱肺咽痛, 咳嗽, 音啞. 外治鼻衄, 創傷出血.”

30) 全國韓醫科大學 本草學教授 共編著. 本草學. 서울. 圖書出版永林社. 1998. p.192. “滋陰淸熱, 解毒滑腸. 治熱病傷陰, 舌絳煩渴, 溫毒發斑, 津傷便秘, 骨蒸勞嗽, 目赤, 咽痛, 癰癤, 白喉, 癰腫瘡毒”

辛涼平劑銀翹散方

連翹(一兩) 銀花(一兩) 苦桔梗(六錢) 薄荷(六錢) 竹葉(四錢) 生甘草(五錢) 芥穗(四錢) 淡豆豉(五錢) 牛蒡子(六錢)

上杵爲散, 每服六錢, 鮮葦根湯煎, 香氣大出, 即取服, 勿過煎, 肺藥取輕清, 過煎則味濃而入中焦矣. 病重者, 約二時一服, 日三服, 夜一服; 輕者三時一服, 日二服; 夜一服; 病不解者, 作再服.

蓋肺位最高, 藥過重, 則過病所, 少用又有病重藥輕之患, 故從普濟消毒飲時時清揚法. 今人亦間有用辛涼法者, 多不見效, 蓋病大藥輕之故, 一不見效, 隨改弦易轍, 轉去轉遠, 即不更張, 緩緩延至數日後, 必成中下焦証矣. 胸膈悶者, 加藿香三錢, 郁金三錢; 護膈中; 渴甚者, 加花粉; 項咽腫痛者, 加馬勃, 元參, 靛者, 去芥穗, 豆豉, 加白茅根三錢, 側柏炭三錢, 梔子炭三錢; 咳者, 加杏仁利肺氣; 二, 三日病猶在肺, 熱漸入裡, 加細生地, 麥冬保津液; 再不解或小便短者, 加知母, 黃芩, 梔子之苦寒, 與麥, 地之甘寒, 合化陰氣, 而治熱淫所勝.

[方論] 생각하건대 溫病은 發汗을 禁忌시하는데 發汗시키면 풀리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다른 폐단을 발생시킨다. 대개 病은 手經에 있는데 함부로 足太陽經을 손상시키면 無益하게 되고, 病은 口鼻를 통해 흡수되어 발생하는데 함부로 그 表를 發散시키는 것 또한 無益하다. 게다가 汗은 心의 液인데 心陽이 손상을 당하면 반드시 神明이 內亂하여 譫語, 癡狂이 나타나게 되고 內閉外脫하는 변고가 생긴다. 재차 잘못 發汗시켜서 비록 陽氣를 손상시켰으나 汗은 五液 가운데 하나이니 결코 陰을 傷한 것이 아니라고는 할 수 없다. 『傷寒論』에 “尺脈微者爲裏虛, 禁汗,”³¹⁾이라 했는데 그 의미를 알 수 있다. 發汗이 陽氣를 손상시킨다고 말한 것은 특별히 손상이 심한 것만을 들어서 말한 것뿐이다. 溫病은 陰을 가장 잘 손상시키는데 藥을 써서 또다시 陰을 손상시키니, 어찌 적을 위해

깃발을 세우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것이 古來로 傷寒法을 이용해서 溫病을 치료하는 커다란 착오이다. 吳又可가 처음 수립한 達原飲³²⁾으로 말하자면 그 의미는 膜原에 직접 도달하게 하여 邪氣로 하여금 신속하게 흩어지게 하는 것이다. 변변치 못한 일반백성들이나 건강한 사람들의 溫疫病에 이 처방을 사용하면 낫게 되는데 이는 芳香성이穢濁한 기운을 몰아낸 攻이다. 기름지고 찰진 음식을 즐겨먹거나 귀족집안 사람들과 아주 건강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사용하면 실패를 한다. 대개 그 方中에서 檳榔, 草果, 厚朴을 君으로 삼는데, 무릇 檳榔은 씨앗 중 단단한 것에 속하며, 씨앗들은 모두 下降하는데 檳榔은 苦辛而溫하고 무겁고 단단하여 中焦에서 下焦로 달려가 곧바로 肛門에 도달하니 中下焦藥이다. 草果 또한 씨앗인데 그 氣臭는 강렬하고 大熱하며 味는 苦하니 太陰脾經을 劫하는 藥이며, 厚朴은 苦溫하니 또한 中焦의 藥이다. 어찌 上焦의 溫病에 먼저 中下焦에 사용하는 苦溫하고 강렬한 성질이 있는 劫奪하는 藥을 써서 적은 陰의 津液을 먼저 劫奪하는 이치가 있을 수 있겠는가? 知母와 黃芩 또한 모두 中焦로 歸經하는 苦燥의 裏藥인데 어찌 사용할 수 있겠는가? 더구나 瘟邪가 三陽을 遊溢한다는 說과 三陽經의 羌活, 葛根, 柴胡를 加하는 방법³³⁾이 있겠는가? 이는 여전히 傷寒의 방법을 섞은 것으로 溫病의 治法을 완전히 알지 못한 것이니 후세사람들이 여기까지만 보고 三焦를 分辨하지 않았다고 말하는 것은 마치 알파한 설명이나 마찬가지이다. 그 『溫疫論』의 三消飲³⁴⁾에 大黃, 芒硝를 加한 것은 邪氣가 陽明으로 들어감으로 인해 신체가 조금 긴장한 자는 다행히 便을 보고서 풀리거나 戰汗을 흘려서 풀리기도 하지만 왕왕 虛弱證을 초

32) 吳又可 著. 中華醫書集成內 溫疫論 第三冊. 北京. 中醫古籍出版社. 1999. p.2. “檳榔2錢, 厚朴1錢, 草果仁5分, 知母1錢, 芍藥1錢, 黃芩1錢, 甘草5分”

33) 吳又可 著. 中華醫書集成內 溫疫論 第三冊. 北京. 中醫古籍出版社. 1999. p.2. “凡疫邪游溢諸經, 當隨經引用, 以助升泄. 如脇痛, 耳聾, 寒熱, 嘔而口苦, 此邪熱溢于少陽經也, 本方加柴胡一錢; 如腰背項痛, 此邪熱溢于太陽經也, 本方加羌活一錢; 如目痛, 眉稜骨痛, 眼眶痛, 鼻干不眠, 此邪熱溢于陽明經也, 本方加干葛一錢.”

34) 傳統醫學研究所 編纂. 東洋醫學大辭典. 서울. 成輔社. 2000. p.977. “『溫疫論補註』卷上方. 檳榔厚朴芍藥甘草知母黃芩大黃葛根羌活柴胡生薑大棗”

31) 傷寒論研究會 編. 傷寒論講義. 서울. 圖書出版 鼎談. 1997. p.115. “脈浮緊者, 法當身疼痛, 宜以汗解之. 假令尺中遲者, 不可發汗, 何以知然? 以營氣不足, 血少故也”

래해서 虛가 심한 자는 죽게 된다. 하물며 邪氣가 위에 있는 자, 胸中에 있는 자, 營에 있는 자, 血에 있는 자 모두 함부로 下法을 쓴다면 그 害를 일일이 말로 다 할 수 있겠는가? 어찌 사람을 쇠나 돌과 마찬가지로 보겠는가, 결코 氣血이 생성한 것이 아니지 않는가? 처음의 의미를 탐구해 보건데 원래는 세상의 의사들이 傷寒으로 溫病을 다스리고자 하는 폐단을 바로 잡고자 해서 자못 陶氏의 실수를 바로잡을 수 있었으나 학술이 정교하고 순수하지 못하여 法으로 삼기에는 충분하지 못했다. 喻嘉言과 張景岳³⁵⁾이 傷寒三陰經의 治法으로 溫病을 치료하는 것에 관해서는 그 설이 옳지 않으나 이들을 따르는 자는 적고 吳又可를 따르는 자가 많으므로 깊이 있게 분간하지 않을 뿐이다. 본방은 內經에서 “風淫于內, 治以辛寒, 佐以苦甘; 熱淫于內, 治以咸, 佐以甘苦”³⁶⁾라고 하는 가르침을 삼가 따른 것이다. 또 喻嘉言이 말한 芳香逐穢의 說을 따르고 李東垣의 清心涼膈散³⁷⁾의 辛涼苦甘을 사용한다. 病의 초기에 裏로 들어가는 黃芩을 빼서 中焦를 犯하지 말고; 銀花의 辛涼과 荊芥穗의 芳香을 加하여 散熱解毒하고; 牛蒡子는 氣味가 辛平하고 潤肺, 解熱散結, 除風利咽하니, 모두 手太陰의 藥이다. 종합해서 논하건대, 內經에서 “冬不藏精, 春必溫病”이라 하였고, 또한 “藏于精者, 春不病溫”이라 하였으며, 또한 “病溫虛甚死”³⁸⁾라 하였으니, 溫病에 걸리는 자는 精氣가 먼저 虛해짐을 알 수 있다. 이 方劑의 妙味는 그 虛를 앞서 보호하는데 있으며, 순수히 上焦를 清肅시키고 中下焦를 犯하지 않아, 문을 열어 도독을 불러들이는 것과 같은 폐단이 없으며, 가벼운 藥性으로 實을 去하는 능력이 있으니, 이 方을 적절하게

사용하면 저절로 좋은 효과를 보게 되며 이것은 葉氏가 立法한 것으로 모든 다른 醫家들보다 뛰어나다.

方論按溫病忌汗, 汗之不惟不解, 反生他患. 蓋病在手經, 徒傷足太陽無益; 病自口鼻吸受而生, 徒發其表亦無益也. 且汗爲心液, 心陽受傷, 必有神明內亂, 譫語癲狂, 內閉外脫之變. 再, 誤汗雖曰傷陽, 汗乃五液之一, 未始不傷陰也.

『傷寒論』曰: “尺脈微者爲裡虛, 禁汗, ”其義可見.

其曰傷陽者, 特舉其傷之重者而言之耳. 溫病最善傷陰, 用藥又復傷陰, 豈非爲賊立幟乎? 此古來用傷寒法治溫病之大錯也. 至若吳又可開首立一達原飲, 其意以爲直透膜原, 使邪速潰, 其方施於藜藿壯實人之溫疫病, 容有愈者, 芳香辟穢之功也; 若施於膏粱膩及不甚壯實人, 未有不敗者. 蓋其方中首用檳榔, 草果, 濃朴爲君: 夫檳榔, 子之堅者也, 諸子皆降, 檳榔苦辛而溫, 體重而堅, 由中走下, 直達肛門, 中下焦藥也. 草果亦子也, 其氣臭烈大熱, 其味苦, 太陰脾經之劫藥也; 濃朴苦溫, 亦中焦藥也, 豈有上焦溫病, 首用中下焦苦溫雄烈劫奪之品, 先劫少陰津液之理知母, 黃芩, 亦皆中焦苦燥裡藥, 豈可用乎? 況又有溫邪游溢三陽之說, 而有三陽經之羌活, 葛根, 柴胡加法, 是仍以傷寒之法雜之, 全不知溫病治法, 後人止謂其不分三焦, 猶淺說也. 其三消飲加入大黃, 芒硝, 惟邪入陽明, 氣體稍壯者, 幸得以下而解, 或戰汗而解, 然往往成弱証, 虛甚者則死矣. 況邪有在衛者, 在胸中者, 在營者, 入血者, 妄用下法, 其害可勝言耶? 豈視人與鐵石一般, 並非氣血生成者哉? 究其始意, 原以矯世醫以傷寒法治病溫之弊, 頗能正陶氏之失, 奈學未精純, 未足爲法. 至喻氏, 張氏多以傷寒三陰經法治溫病, 其說亦非, 以世醫從之者少. 而宗又可者多, 故不深辨耳. 本方謹遵內經“風淫於內, 治以辛涼, 佐以苦甘; 熱淫於內, 治以咸寒, 佐以甘苦”之訓(王安道『溯洄集』, 亦有溫暑當用辛涼不當用辛溫之論, 謂仲景之書, 爲即病之傷寒而設, 並未嘗爲不即病之溫暑而設. 張鳳達集治暑方, 亦有暑病首用辛涼, 繼用甘寒, 再用酸泄酸斂, 不必用下之論. 皆先得我心者). 又宗喻嘉言芳香逐穢之說, 用東垣清心涼膈散, 辛涼苦甘. 病初起, 且去入裡之黃芩, 勿犯中焦; 加銀花辛涼, 芥穗芳

35) 傳統醫學研究所 編纂. 東洋醫學大辭典. 서울. 成輔社. 2000. p.1930. 張介賓(1563~1640년. 明代의 著名한 醫家. 字는 景岳 혹은 會卿. 산음人. 類經圖翼類經附習質疑錄을 편집하였으며, 만년에는 과거의 임상경험을 결합해서 景岳全書を 집성하였다. 그의 저술과 학설은 후세의 의학에 큰 영향을 미쳤다.

36) 素問研究集成刊行委員會 編. 素問研究集成 卷九. 대구. 金星印刷社. 2001. p.446.

37) 白上龍 譯注. (國譯補註)溫熱經緯 下권. 서울. 木과土. 2001년. p.349. “清心涼膈散即涼膈散去硝黃加桔梗, 余氏又加生石膏, 爲治疫疹初起之良劑.”

38) 素問研究集成刊行委員會 編. 素問研究集成 卷二. 대구. 金星印刷社. 2001. p.81.

香, 散熱解毒; 牛蒡子辛平潤肺, 解熱散結, 除風利咽; 皆手太陰藥也. 合而論之, 經謂“冬不藏精, 春必溫病”又謂“藏於精者, 春不病溫”又謂“病溫虛甚死”, 可見病溫者, 精氣先虛. 此方之妙, 預護其虛, 純然清肅上焦, 不犯中下, 無開門揖盜之弊, 有輕以去實之能, 用之得法, 自然奏效, 此葉氏立法, 所以迴出諸家也.

【考察】

본 조문은 溫病初起에 邪氣가 衛分에 있는 證治를 제시하였다.

吳鞠通이 太陰風溫, 溫熱, 溫疫, 冬溫을 辨治하는 경우에, 風寒에 傷한 경우와 風溫에 傷한 경우에 따라 辛溫劑와 辛涼劑를 쓰는 근거로 삼았다. 溫病初起에 나타나는 惡寒은 결코 外感風寒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表熱이 衛分에 있음으로 말미암은 것인데, 여기에서 吳鞠通은 “溫病 初期에 惡風, 惡寒이 있으면 桂枝湯으로 치료하고, 만약에 惡風, 惡寒은 없으나 發熱과 渴症의 증상이 있다면 銀翹散을 사용한다.”³⁹⁾고 하였으니, 이는 吳鞠通의 설득력이 부족했던 부분이다.

그리고 吳鞠通이 말한 부분에 있어서 합당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 앞부분에서 ‘桂枝劑는 溫病初起에 사용할 수 있다’고 한 것과, 뒷부분에서 ‘桂枝의 辛溫으로 溫을 다스리는 것은 불로서 불을 구하는 것이다’라고 한 것과는 서로 矛盾이다. 또한 중간부분에서의 ‘內熱外寒’은 桂枝劑 하나만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닌데도⁴⁰⁾ 桂枝劑 하나만으로 가볍게 풀 수 있다고 한 것도 이치에 합당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 조문은 吳鞠通의 설득력 있는 말이 없는 것이 아쉬운 부분이다.

桂枝湯은 『傷寒論』에서 太陽中風을 치료하는 중요한 방제⁴¹⁾인데 外感風邪를 거는 것이고 병은 太陽經에서 초래한 營衛不和⁴²⁾이니, 頭痛, 發熱, 汗出, 惡風,

脈浮緩하는 表虛證⁴³⁾이 나타나는 데에 적용한다. 그래서 處方중에서 桂枝는 衛陽을 돕고 經絡을 통하게 하며 解肌發表하면서 表에 있는 風邪를 없앤다. 芍藥은 陰을 補하고 營을 收斂한다. 밖으로 排泄되는 營陰을 굳게 收斂한다. 生薑의 辛溫은 桂枝가 表邪를 辛散하는 것을 돕고, 胃를 調和시키면서 구도를 멎게 한다. 大棗는 甘平하여 益氣補中하고 脾를 補하고 津液을 만든다. 生薑과 大棗를 배합하면 脾를 補하고 胃를 調和시키게 된다. 炙甘草는 藥性を 調和하고 桂枝와 합쳐져서 辛甘化陽하여 衛氣를 實하게 하고, 芍藥과 합쳐져서 酸甘化陰하여 조화롭게 한다. 이 藥이 모두 合하여서 解肌發表, 調和營衛의 효능을 지닌다.⁴⁴⁾

桂枝湯의 뒤에 吳鞠通은 銀翹散을 써서 風溫, 溫熱, 溫疫, 冬溫을 다스리는 표준이 熱과 渴症의 증상은 있으나 惡寒의 증상은 없다는 것을 논술했었는데 실질적으로 당연히 ‘身熱, 微惡風寒而口渴’이어야 하니 이야말로 ‘風溫, 冬溫’등 초기의 衛分證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溫邪가 처음 침범하여 正邪相爭하고 衛氣는 저지당해서 津液이 熱邪에 의해 처음 손상을 받는 등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 형상이기 때문에, 만약 ‘但熱, 不惡寒而渴’하면 어찌 陽明熱證⁴⁵⁾으로 되지 않겠는가? 溫邪가 처음 침범하여 邪氣가 肺衛에 있는 이상, 治法은 辛涼解表하여야 하고 處方은 銀翹散을 사용한다.

銀翹散은 辛涼解表의 대표방제이다. 處方중에 金銀花와 連翹로 君藥을 삼아 辛涼透表하고 清熱解毒한다. 또한 좋은 香을 내고 더러운 것을 없애는 효과가 있어 衛分表邪를 풀어주는 동시에 溫熱病邪가 가지는 많은 더러운 기운을 함께 없애는 특징을 가진다. 薄荷와 牛蒡子の 맛은 辛하고 性質은 서늘하여 風熱을 疏散하고 머리와 눈을 맑게 해 주며 毒을 풀어 목을 부드럽게 해 준다. 荊芥穗와 淡豆豉는 辛하고 微

39) 이 부분은 위의 조문의 내용임.

40) 雷載權 主編. 中藥學. 中國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97. p.30. 桂枝는 辛溫하여 熱을 조장하기 때문에 內熱에는 쓰지 않는다.

41) 傷寒論研究會 編. 傷寒論講義. 서울. 圖書出版 鼎談. 1997. p.51.

42) 傷寒論研究會 編. 傷寒論講義. 서울. 圖書出版 鼎談. 1997. p.57, p.69.

43) 傷寒論研究會 編. 傷寒論講義. 서울. 圖書出版 鼎談. 1997. p.55.

44) 李範九, 朴贊斗 譯編. 方劑學. 서울. 대성의학사. 2000. p.66.

45) 李劉坤 講義. 臨床溫病學特講. 서울. 대성의학사. 2001. p.283.

溫하여 君藥을 도와 表의 邪氣를 풀어 주고 熱을 밖으로 빼낸다. 蘆根과 淡竹葉은 熱을 내리고 津液을 만든다. 桔梗은 宣肺止咳祛痰하므로 모두 佐藥이 된다. 甘草는 모든 藥을 조화시키고 胃를 보호하며 中焦를 편안하게 한다. 또한 桔梗과 합하여 咽喉를 부드럽게 하여 佐使의 역할을 한다. 이 모든 藥이 습하여서 辛涼透表, 清熱解毒하는 효능을 지닌다.⁴⁶⁾ 銀翹散은 『素問至真要大論』의 “風氣가 내부에 淫勝하면 辛味와 涼性을 가진 藥物로 주치하고 苦味와 甘味로 佐藥을 삼는다.”⁴⁷⁾와 부합된다고 볼 수 있다.

銀翹散은 溫熱表證을 치료하는 方劑이나, 溫毒, 暑溫, 濕溫, 溫瘧 등의 病에 대해서는 응용할 수 없다. 왜냐하면 이러한 病의 病因病機는 특이하고, 邪氣가 침범하는 부위가 달라서 治法 또한 다르기 때문에 吳鞠通은 ‘不在此例(이 예에서는 없다)’라고 말한 것이다.

5) 太陰溫病은, 惡風寒하니, 服桂枝湯已하고, 惡寒解이나, 餘病不解者는, 銀翹散主之하며; 餘證悉⁽¹⁾減者는, 減其制⁽²⁾이니라.

太陰溫病은 앞 조문에서 말하는 風溫, 溫熱, 溫疫, 冬溫 등 몇 가지 溫病을 포함한다. 이 桂枝湯을 복용하여 惡寒하는 증상이 이미 풀렸다는 것은, 이미 風寒의 邪氣가 더 이상 남아 있지 않고 다만 溫邪가 肺經에 있다는 것을 나타낸 것이니 辛溫發汗하는 방법을 사용하지 말고 銀翹散과 같은 辛涼의 方劑로 바꿔 사용해야 한다. 減其制는 銀翹散의 用量을 줄인다는 뜻이다.

太陰溫病, 總上條所舉而言也. 惡寒已解, 是全無風寒, 止餘溫病, 即禁辛溫法, 改從辛涼. 減其製者, 減銀翹散之製也.

【字句解】

(1) 悉:모두

(2) 制:規範의 뜻이나 여기서는 劑量의 의미로 확대 해석한다.

【考察】

본 조문은 桂枝湯을 복용하여 表寒이 풀린 뒤에 溫邪가 아직 다스려지지 않은 경우에는 辛涼으로 다스리는 것을 제시한다.

溫邪가 肺에 있을 때에 初起에는 ‘惡風, 惡寒’의 증상이 있기 때문에 吳鞠通은 桂枝湯을 써서 다스렸다. 다만 桂枝湯은 辛溫하여 溫病에 있어서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으나, 만약 初起에 이를 사용해서 효과가 없었다면 桂枝湯을 복용한 후에 辛涼解表劑의 銀翹散으로 바꾸어야 한다. 이것이 吳鞠通이 위 조문에 대해 보충해서 쓴 글이다.

엄격하게 말하면 溫病의 初起에는 ‘惡風, 惡寒’의 증상이 있을 지라도 桂枝湯의 적응증은 아니다. 溫病은 본래 熱邪에 의해 일어난 것으로 이 ‘惡寒’은 衛陽이 가로 막혀 正邪가 서로 투쟁해서 일으킨 것이다. 가령 惡風, 惡寒을 겸한 경우에도 桂枝湯의 적응 범위는 아니며 辛涼解表劑중에 祛風解表藥을加해야 비로서 藥과 證이 서로 박자가 맞는 것이다. 만일 본 조문에서 생각한 바대로 ‘땀난 뒤에 열이 다스려지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았다면 아래의 두 가지의 상황이 나타날 것이다. 하나는 ‘惡風, 惡寒’의 증상이 이미 소실되어 發熱, 口渴, 咽痛, 脈浮數⁴⁸⁾ 등의 증상이 결코 줄어들지 않은 것인데, 이는 表熱이 내부로 들어가는 현상이다. 이때는 절대로 桂枝湯을 사용해서는 안 되고 辛涼의 銀翹散으로 바꾸어서 치료해야 한다. 두 번째는 發熱, 咳嗽 등의 증상이 모두 줄어들어 따라이 또한 銀翹散을 써서 다스린다. 그런데 증상이 이미 줄어든 이상 用量도 줄여야 하므로 ‘減其制’라고 말한 것이다.

6) 太陰風溫에, 但咳이나, 身不甚熱하고, 微渴者는, 辛涼輕劑⁽¹⁾桑菊飲主之이니라.

46) 李範九, 朴贊斗 譯編. 方劑學. 서울. 대성의학사. 2000. p.82.

47) 素問研究集成刊行委員會 編. 素問研究集成 卷九. 대구.金星印刷社. 2001. p.446. “風淫于內, 治以辛涼, 佐以苦”

48) 李範九, 朴贊斗 譯編. 方劑學. 서울. 대성의학사. 2000. p.83.

咳는 熱邪가 肺絡이 손상시킨 것이다, 身熱이 심하지 않은 것은 病의 상태가 무겁지 않은 것을 나타낸 것이고, 口渴이 비교적 가벼운 것은 邪熱이 심하지 않은 것이다. 病의 상태는 비교적 가벼운데 銀翹散을 사용하는 것이 너무 무겁지 않을까 걱정이 되어 비교적 가볍게 작용하는 桑菊飲을 만들었다.

辛涼輕劑桑菊飲方

杏仁 二錢 連翹 一錢五分 薄荷 八分 桑葉 二錢五分
菊花 一錢 苦梗 二錢 甘草 八分 葦根 二錢

물 두 잔으로 달여서 한잔으로 만들어 하루에 두 번 복용한다. 2~3일을 복용해도 풀리지 않아 천식처럼 숨이 험떡거리고, 燥가 氣分에 있으면 石膏, 知母를 추가하고; 舌絳하고 해가 저물 때에 熱이 나서 燥邪가 심하면 막 찻으로 들어간 것이니 元蔘 2錢, 犀角 1錢을 추가하고; 病이 血分에 있으면 薄荷와 葦根⁴⁹⁾을 제거하고 麥門冬, 가는 生乾地黃, 玉竹⁵⁰⁾, 牡丹皮를 각각 2錢씩을 추가하고, 肺熱이 심하면 黃芩을 추가하고; 渴症이 있으면 天花粉을 추가한다.

[方論] 이는 辛甘化風하고 辛涼微苦한 처방이다. 대개 肺는 淸虛한 臟으로 微苦하면 降하고 辛涼하면 平하니 이 처방을 만든 것은 辛溫을 피하고자 한 까닭이다. 지금의 의사들은 모두 杏蘇散을 써서 四時의 咳嗽을 통치하는데, 杏蘇散의 辛溫함은 단지 風寒함에 적합하나 風溫에는 적합하지 않음을 모르는데다가 表裏를 구분하지 않은 폐단이 있다. 이 處方名에 桑葉, 菊花만을 취한 것은 桑葉은 箕星⁵¹⁾의 精氣를 얻고 箕星은 風을 좋아하고 風氣는 肝에 통하므로 桑

葉은 肝風을 잘 다스리며 봄은 肝의 계절이어서 風을 주관하고, 木이 왕하고 金이 쇠한 때이므로 그 남음을 억제하며 桑葉은 芳香性이 있고 가는 털이 있으며 橫紋이 아주 많으므로 肺絡으로 달려가 肺氣를 宣通시킨다. 菊花는 늦가을에 피고 芳香性이 있으며 맛이 달아 金水의 두 臟을 補할 수 있으므로 菊花를 사용해서 그 부족함을 補한다. 風溫咳嗽은 비록 작은 病일지라도 辛溫重劑를 잘못 사용하여 肺液을 손상시켜서 久嗽과 勞癆에 이르게 하는 것이 한둘이 아니다. 聖人은 작은 일도 소홀히 하지 않고 반드시 사소한 일에도 신중히 하니, 의사는 이 점에 특별히 주의하여야 한다.

咳, 熱傷肺絡也. 身不甚熱, 病不重也. 渴而微, 熱不甚也. 恐病輕藥重, 故另立輕劑方.

辛涼輕劑桑菊飲方

杏仁 (二錢) 連翹 (一錢五分) 薄荷 (八分) 桑葉 (二錢五分) 菊花 (一錢) 苦梗 (二錢) 甘草 (八分) 葦根 (二錢)

水二杯, 煮取一杯, 日二服. 二, 三日不解, 氣粗似喘, 燥在氣分者, 加石膏, 知母; 舌絳暮熱, 甚燥, 邪初入營, 加元蔘 (二錢); 犀角 (一錢); 在血分者, 去薄荷, 葦根, 加麥冬, 細生地, 玉竹, 丹皮各二錢; 肺熱甚加黃芩; 渴者加花粉.

方論此辛甘化風, 辛涼微苦之方也. 蓋肺爲淸虛之臟, 微苦則降, 辛涼則平, 立此方所以避辛溫也. 今世僉用杏蘇散通治四時咳嗽, 不知杏蘇散辛溫, 只宜風寒, 不宜風溫, 且有不分表裡之弊. 此方獨取桑葉, 菊花者: 桑得箕星之精, 箕好風, 風氣通於肝, 故桑葉善平肝風; 春乃肝令而主風, 木旺金衰之候, 故抑其有余, 桑葉芳香有細毛, 橫紋最多, 故亦走肺絡而宣肺氣. 菊花晚成, 芳香味甘, 能補金水二臟, 故用之以補其不足. 風溫咳嗽, 雖系小病, 常見誤用辛溫重劑銷鑠肺液, 致久嗽成勞者不一而足. 聖人不忽於細, 必謹於微, 醫者於此等處, 尤當加意也.

【字句解】

(1) 辛涼輕劑: 辛涼解表藥중에서 淸熱작용이 비교적 가벼운 方劑

49) 全國韓醫科大學 本草學教授 共編著. 本草學. 서울. 圖書出版永林社. 1998. p.164. 蘆根을 말하는 것으로 “淸熱, 生津, 除煩, 止嘔, 治熱病煩渴, 胃熱嘔吐, 噎膈, 反胃, 肺痿, 肺癰, 咳河豚魚毒.”

50) 全國韓醫科大學 本草學教授 共編著. 本草學. 서울. 圖書出版永林社. 1998. p.593. “養陰潤燥, 生津止渴. 治熱病陰傷, 咳嗽煩渴, 虛勞發熱, 消穀易飢, 小便頻數.”

51) 이희승 감수. 民衆 옛센스국어사전. 과주. 민중서림. 2006. p.365. “이십팔수의 일곱 번째별”, p.1885. “이십팔수(二十八宿): 옛날 인도-페르시아-중국 등에서 해와 달과 여러 행성 등의 소재를 밝히기 위하여 황도에 따라 天球를 28로 구분한 것. 기(箕)는 동에 속함.”

【考察】

본 조문은 太陰風溫初起의 證治를 제시한다.

‘身不甚熱, 微渴’은 太陰風溫의 가벼운 증에서 볼 수 있다. 다만 기침하는 것은 溫邪가 肺를 침범해서 熱이 肺絡을 손상시켜서 일으킨 것이다.

處方중에서 桑葉의 맛은 甘苦하고 성질은 서늘하다. 上焦의 風熱을 없애고 肺經絡으로 가서 清宣肺熱하며 기침을 멎게 하므로 君藥으로 쓰인다. 菊花는 風熱을 흐트러트려서 청량하게 하여 머리와 눈을 맑게 하며 肺를 깨끗하게 한다. 杏仁과 桔梗은 宣利肺氣하면서 기침을 멎게 해 주며 이 세 가지는 함께 臣藥이 된다. 連翹는 熱을 내리고 毒을 풀어주며 薄荷는 疏散風熱하고 蘆根은 열을 내리고 津液을 만들어 渴症을 멎게 하므로 모두 佐藥이 된다. 甘草는 모든 藥을 調和하므로 使藥이 되고 또한 桔梗과 서로 합쳐져 咽喉를 부드럽게 한다. 이 모든 藥이 습쳐져 疏風清熱, 宣肺止咳하는 효능을 지닌다.⁵²⁾

2~3일을 복용한 뒤에 숨을 헐떡거리는 증상이 있는 것은 邪熱이 이미 氣分에 있음을 설명한 것이다. 그래서 石膏와 知母를 가해서 清裏熱한다, 만약에 舌絳⁵³⁾한데다 야간에 熱이 심한 것은 邪氣가 이미 熱分으로 들어감을 설명한 것이다. 그래서 犀角, 元蓼을 가해서 清熱涼血養陰시켜야 한다. 만약 邪氣가 血分에 있을 때에는 반드시 出血이 있으니 이로 인해 薄荷와 蘆根같은 解表의 藥을 去하고 麥門冬, 가는 生乾地黃, 玉竹, 牡丹皮 등으로 養陰涼血시킨다. 만약 肺熱이 심하면 黃痰을 吐하는데 이때는 清肺熱의 重要약인 黃芩을 加한다. 渴症이 심한 것은 陰이 아주 심하게 상한 것을 설명한 것으로 清熱養陰하는 天花粉을 加한다.

현재 風熱에 속하는 流行性感冒에 多用한다.

桑菊飲은 風溫初起에 단지 기침만 하는 것을 치료할 뿐만 아니라 燥邪에 感受 받아서 기침하는 것을 치료하기도 한다.⁵⁴⁾

銀翹散은 溫病初起에 熱이 심해서 口渴, 咽喉腫痛을 다스리는데 사용하고; 桑菊飲은 溫病初起에 發熱하고 口渴은 아주 微弱한데, 다만 기침이 현저한 것을 다스리는데 사용하고; 杏蘇散은 風寒이 침범을 해서 기침을 하는데다 表證을 겸하고 있는 것을 다스리는데 사용한다.⁵⁵⁾

7) 太陰溫病에, 脈浮洪, 舌黃, 渴甚, 大汗, 面赤, 惡熱者는, 辛涼重劑⁽¹⁾白虎湯主之 이니라.

脈이 浮洪한 것은 邪氣가 肺經의 氣分⁵⁶⁾에 있는 것이다. 舌苔가 黃한 것은 邪熱이 이미 심해진 것을 나타낸 것이고, 渴症이 심한 것은 邪熱이 津液을 손상시킨 것이 비교적 심한 것을 반영한 것이다. 大汗은 裏에 있는 邪熱이 熏蒸해서 津液이 外泄해서 일어난 소치이다. 面赤은 火가 上炎한 것이다. 惡熱은 正氣가 邪氣를 밖으로 몰아내려고 하나 邪熱은 여전히 盛해서 밖으로 내보낼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肺熱이 이미 盛한 病證에 대해, 辛涼平劑인 銀翹散은 분명히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清熱保津 작용이 비교적 강한 白虎湯을 사용하여야 만이, 邪熱로 하여금 물러날 수 있게 한 즉, 津液을 保存시킬 수 있다. 호랑이가 울부짖어 바람이 생기고 회오리바람이 불어 熱이 물러가는 것으로 津液을 보존하지 않으면 안 되니, 옛 賢人들은 이를 多用하였다.

脈浮洪, 邪在肺經氣分也. 舌黃, 熱已深. 渴甚, 津已傷也. 大汗, 熱逼津液也. 面赤, 火炎上也. 惡熱, 邪欲出而未遂也. 辛涼平劑焉能勝任, 非虎嘯風生, 金退熱, 而又能保津液不可, 前賢多用之.

人民衛生出版社, 1975. p.49.

55) 李範九, 朴贊斗 譯編. 方劑學. 서울. 대성의학사. 2000. p.515.

56) 傳統醫學研究所編, 한의학사전, 서울, 成輔社, 2004, p.224. “溫熱病의 熱로 변하는 단계로서 대개 衛分證에서 발전된다. 임상상으로 열이 심하고 오한을 느끼지 않으며 땀이 나고 갈증이 나며, 호흡이 거칠거나 숨이 차고 소변이 누렇거나 붉으며 양은 적고 대변이 굳으며, 누런舌苔가 끼고 맥이 洪大하거나 滑數한 등이다. 오한을 느끼지 않고 더운 것을 싫어하며 누런舌苔가 끼는 것이 특징이다.”

52) 李範九, 朴贊斗 譯編. 方劑學. 서울. 대성의학사. 2000. p.84.

53) 傳統醫學研究所編, 한의학사전, 서울, 成輔社, 2004. p.180. “舌質의 색깔이 짙은 홍색을 나타내는 것을 말함. 대개 溫病의 熱邪가 營分에 들어갔을 경우에 볼 수 있다.”

54) 成都中醫學院中藥方劑教研組 編. 中醫治法與方劑. 北京.

辛涼重劑白虎湯方

生石膏(研) 一兩 知母 五錢 生甘草 三錢 白粳米 一合

물 여덟 잔을 달여서 세 잔을 취하여 따뜻하게 세 잔으로 나누어서 복용하는데 病이 물러가면 量을 줄여서 복용하고, 그렇지 않으면 재차 지어서 복용한다.

〔方論〕 意義가 조문 아래에 있어 다시 이론을 내세우지 않는다. 다음에도 이에 따른다.

辛涼重劑白虎湯方

生石膏(研, 一兩) 知母(五錢) 生甘草(三錢) 白粳米(一合)

水八杯, 煮取三杯, 分溫三服, 病退, 減後服, 不知, 再作服.

方論義見法下, 不再立論, 下仿此.

【字句解】

(1) 辛涼重劑: 辛涼解表藥중에서 清熱작용이 비교적 강한 방제이니 辛涼重劑라 한다.

【考察】

본 조문은 熱이 氣分에 있다는 證治를 제시한다.

白虎湯은 氣分の 熱을 식히는데 胃를 포함할 뿐만 아니라 肺를 포함하기도 한다. 이 方은 원래 『傷寒論』⁵⁷⁾에서 나왔으며, 陽明經의 熱을 식히는 주요 方劑이다. 太陰溫病은 白虎湯의 四大證인 大熱, 大渴, 汗大出, 脈洪大有力을 빠짐없이 갖추기만 하면, 表에서는 病邪가 끝이 나고 裏로 들어가 熱이 肺衛氣分에 있다는 것을 설명한다. 특히 苔黃而燥한 것은 더욱 熱이 盛하여 津液이 꺾박을 받아 外泄한 것으로 裏熱이 盛하여 陰液을 손상시키는 형상이므로 마땅히 清熱生津하여야 한다.⁵⁸⁾ 그러므로 辛涼重劑인 白虎湯을 써

야 만이 비로소 辛透退熱하고 甘寒保津하는 목적에 도달할 수 있다. 舌質과 舌苔의 변화를 보면 正氣와 邪氣가 傳變하는 과정을 알 수 있으며 溫熱病의 診斷, 治療, 預後에 대해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 그러나 임상에서 어떤 때는 白苔이거나 혹은 黃白이 서로 兼해 있는데, 다만 舌苔가 어떤 색인지를 막론하고 반드시 口乾少津함이 있어야 더욱 실제임상에 부합된다.

白虎湯은 氣分の 實熱을 치료하는 主方이다. 處方중의 生石膏는 君藥으로 맛이 辛甘하고 성질이 大寒하며 熱을 내리는 능력이 있어, 陽明氣分の 盛한 熱을 制壓하고, 아울러 渴症을 멎게 하며 煩熱을 없앤다. 臣藥은 知母로 맛은 쓰고 성질은 차며 質은 潤하다. 찬 성질은 石膏의 清熱을 돕고 潤은 石膏의 生津을 돕는다. 石膏와 知母가 相須작용을 하여 清熱生津의 기능을 강화시킨다. 粳米와 炙甘草로 和中益氣를 돕고 아울러 君臣藥이 大寒하여 中焦를 傷하게 하는 폐단을 막을 수 있다. 炙甘草는 모든 약을 조화시키는 작용을 한다. 이 모든 藥이 합하여져 清熱生津하는 효능을 지닌다.⁵⁹⁾

8) 太陰溫病에, 脈浮大而芤⁽¹⁾, 汗大出, 微喘, 甚至鼻孔扇⁽²⁾者는, 白虎加人蔘湯主之하며, 脈若散大者는, 急用之하되, 倍人蔘하라.

脈이 浮大하면서 芤한 것은 脈象이 散大無力한 것과 마찬가지로, 이는 津液이 虧虛하여 陽이 안에서 固密하지 못한 것이다. 이 때 津液을 補益하는 藥物을 사용한다면, 채찍은 길어도 말의 배에는 닿지 못하는 우려가 있으니 오직 白虎湯으로 邪熱을 식혀서 물리치고 人蔘으로 元氣를 固密시켜서, 陽氣를 補益하는 것을 통해서 陰液을 滋養시키는 것이 곧 生化의 근원이 곧 衰竭해지려고 하는 病證을 치료하는 데에 가장 효과가 있는 방법이다. 땀이 쏟아지고 코가 벌름거리고 脈이 散한 것은 모두 生化의 근원이 끊어

p.283.

59) 李範九, 朴贊斗 譯編. 方劑學. 서울. 대성의학사. 2000. p.165.

57) 傷寒論研究會 編. 傷寒論講義. 서울. 圖書出版 鼎談. 1997. p.377. “傷寒, 脈浮滑, 此以表有熱, 裏有寒, 白虎湯主之”, p.379. “三陽合病, 腹滿, 身重, 難而轉側, 口不仁, 面垢, 譫語, 遺尿, 發汗則譫語, 下之則額上生汗, 手足逆冷. 若自汗出者, 白虎湯主之”, p.737. “傷寒脈滑而厥者, 裏有熱, 白虎湯主之”

58) 李劉坤 講義. 臨牀溫病學特講. 서울. 대성의학사. 2001.

지려고 하는 징조인 것이다.

白虎加人參湯方

앞의 처방에다 人參 三錢을 加한다.

浮大而扞，幾於散矣，陰虛而陽不固也。補陰藥有鞭長莫及之虞，惟白虎退邪陽，人參固正陽。使陽能生陰，乃救化源欲絕之妙法也。汗涌，鼻扇，脈散，皆化源欲絕之徵兆也。

白虎加人參湯方

即於前方內加人參 (三錢).

【字句解】

(1) 脈浮大而扞: 脈이 浮大하면서 속이 비어 있다. 汗血同源으로 인해 汗이 傷하면 陰血이 傷하므로 脈이 扞하다. 陰이 虛해서 陽이 곧 固密하지 못하므로 脈은 浮大하다.

(2) 鼻孔扇: 鼻翼이 呼吸에 따라 벌름거리는 상태를 가리킴.

【考察】

본 조문은 太陰의 氣分의 熱이 盛한데다 동시에 陰이 虛해서 陽이 固密하지 못한 證治를 제시한다.

『傷寒論』에서 白虎加人參湯을 사용한 조문(60)은 白虎湯에 비해서 많은데, 煩渴, 脈大, 汗大出, 背惡寒 등의 증상이 白虎湯과 다르다.

본 조문은 白虎湯을 基本方으로 하기 때문에 渴症이 심하고 惡熱하는 증상이 있어야 한다. 汗大出은 內熱이 盛한 것과 관련이 있으며 동시에 津氣가 크게 손상되고 陽이 衛氣를 固密시키지 못해서 일어난다. 그래서 熱邪가 津液을 竅박해서 外泄하는 형상이니, 땀이 나가면 氣가 따라가므로 氣 또한 傷하고 氣가 傷하면 숨도 조금 가빠진다. 심하면 鼻孔이 벌름거리

게 까지 되는 것은 實한 가운데 虛를 겸한 모양이다. 그러므로 白虎湯으로 邪熱을 식히며, 人參을 加해서 元氣를 크게 補하고 生津시켜서 肺陰을 보존시킨다.

만약 汗出이 그치지 않고 숨이 약간 가쁘고 鼻翼煽動한데 다만 脈弱散大者⁶¹⁾하는 것은 臟腑의 氣가 衰竭해서 危重한 상태를 나타낸다⁶¹⁾. 그래서 吳鞠通은 ‘急用之, 倍人參’한다고 말했다. ‘脈弱散大者’는 ‘脈浮大而扞’보다 위중한 것으로 正氣손상이 더 심해짐을 알 수 있으며 人參을 더 많이 사용하는 것이다. 人參은 大補元氣, 固脫生津⁶²⁾하는데, 生津하여 陰이 충분해지면 氣도 길러지니 손상된 正氣는 회복되게 된다.

9) 白虎本爲達熱出表이니, 若其人脈浮弦而細者면, 不可與也하고; 脈沈者면, 不可與也하고; 不渴者면, 不可與也하고; 汗不出者면, 不可與也라; 常須識¹⁾此하여, 勿令誤也라.

이 조문은 白虎湯의 禁忌證이다. 白虎湯의 작용이 아주 강력한 것을 보건데 邪熱이 盛한 경우에는, 이 處方이 아니면 다스릴 수가 없으니 제대로 사용하면 즉시 효과가 나타나는 묘미가 있으나 사용이 적절하지 못하면 아주 빠르게 病의 상태를 악화시켜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다. 臨床에 있어서 膽力이 약한 의사는 마땅히 사용해야 할 곳에 감히 사용하지 못하여 病의 상태를 질질 끌어서 치료시기를 놓쳐버리게 되고 孟浪한 의사는 자주 환자의 脈象과 症狀이 어떠한지를 막론하고 일단 高熱이 있기만 하면 모두 白虎湯을 사용하는데, 심지어 處方중의 石膏를 한 근 이상까지도 사용하여 설사 이 方을 사용한 후에 즉시 효과를 보는 경우가 있지만, 사용 후에 환자가 아주 빠르게 사망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는 의사가 진정으로 病證의 그러한 연고를 알지 못한 것이므로 藥을 쓸 때 기준이 없는 것이다.

此白虎之禁也; 按白虎劑悍, 邪重非其力不舉, 用之

60) 傷寒論研究會 編. 傷寒論講義. 서울. 圖書出版 鼎談. 1997. p.178. “服桂枝湯, 大汗出後, 大煩渴不解, 脈洪大者, 白虎加人參湯主之”, p.382. “傷寒, 脈浮, 發熱, 無汗, 其表不解, 不可與白虎湯. 渴欲飲水, 無表證者, 白虎加人參湯主之”, p.383. “傷寒無大熱, 口燥渴, 心煩, 背微惡寒者, 白虎加人參湯主之”, p.384. “傷寒若吐, 藥下後, 七八日不解, 熱結在裏, 表裏俱熱, 時時惡風, 大渴, 舌上乾燥而煩, 欲飲水數升者, 白虎加人參湯主之”, p.386. “若渴欲飲水, 口乾舌燥者, 白虎加人參湯主之”

61) 李鳳教 編著. 漢方診斷學 四診. 서울. 成輔社. 1986. p.254.

62) 全國韓醫科大學 本草學教授 共編著. 本草學. 서울. 圖書出版 永林社. 1998. p.532.

得當, 原有立竿見影之妙, 若用之不當, 禍不旋踵. 儒者多不敢用, 未免坐誤事機; 孟浪者, 不問其脈証之若何, 一概用之, 甚至石膏用至斤余之多, 應手而效者固多, 應手而斃者亦復不少. 皆未真知確見其所以然之故, 故手下無準的也.

【字句解】

(1) 識: 기억하디의 뜻

【考察】

본 조문은 白虎湯의 禁忌를 제시한다.

白虎湯은 邪熱을 表로 전달해서 밖으로 내쫓는 藥으로, 결코 어떠한 熱病에서든지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外部에 表證이 있고 内部에 裏虛가 있는 경우에도 사용할 수 없다. 만일 사용하면 邪氣를 裏로 끌어들이어 裏로 하여금 더욱 虛해지게 하는데 이러한 환자는 脈이 거의 浮弦細하다. 그래서 『傷寒論』에 “傷寒脈浮, 發熱無汗, 不可與白虎湯”⁶³⁾ 이라고 하였으니, 表證이 여전히 존재하여서 邪氣가 수시로 裏로 들어올 수 있음을 나타낸 것이다. 그 다음으로 裏寒한 경우도 사용할 수 없는데, 만약에 사용하면 裏寒이 더욱 심해진다. 게다가 白虎湯의 하나의 다른 표준을 반드시 사용할 수 있다면 반드시 渴症이 있어야 하는데, 왜냐하면 熱이 盛하면 반드시 津液을 손상시키기 때문이다. 만약 渴症이 없으면 大熱이 아니거나 혹은 내부에 濕邪가 있음을 설명한 것이다. 그 밖에 汗不出한 것은 熱이 盛하지 않아서 땀이 나올 수 없기 때문이다. 아직 大熱이 이르지 않았을 때에도 사용할 수 없는 원인은, 邪가 表에 있고 衛氣가 가로 막혀 있음으로 또한 사용할 수 없다. 상술한 네 가지 현상은 吳鞠通이 재삼 강조한 것이다.

10) 太陰溫病에, 氣血兩燔⁽¹⁾者면, 玉女煎去牛膝加元參主之라.

氣血兩燔하면 한쪽으로는 오로지 다스릴 수 없으

므로 張景岳의 『景岳全書』에서 氣血을 모두 다스리도록 제정한 玉女煎을 선택 사용한다. 牛膝을 빼는 것은 牛膝은 아래로 내려가는 성질이 있어서 太陰병 증과는 서로 적합하지 않기 때문이다. 原方중의 熟地黃을 가는 生地黃으로 바꿔 사용하는 것은, 성질이 重濁하고 溫한 熟地黃보다는 細生地黃의 輕清하고 涼하며 血中の 表熱을 發散하는 효능을 취한 것이다. 處方에 元參을 가한 것은 元參이 生津清熱하며 壯水하여 制火하는 것을 취한 것이며 咽喉痛症과 各種出血 등의 病證을 예방하는 작용이 있기 때문이다.

玉女煎去牛膝熟地加細生地元參方(辛涼合甘寒法)
生石膏 一兩 知母 四錢 元參 四錢 細生地 六錢 麥冬 六錢

물 여덟 잔을 달여서 세잔을 취하여 두 번으로 나누어서 복용한다. 찌꺼기는 다시 한번 달여서 복용한다.

氣血兩燔, 不可專治一邊, 故選用張景岳氣血兩治之玉女煎. 去牛膝者, 牛膝趨下, 不合太明証之用. 改熟地爲細生地者, 亦取其輕而不重, 涼而不溫之義, 且細生地能發血中之表也. 加元參者. 取其壯水製火, 預防咽喉失血等証也.

玉女煎去牛膝熟地加細生地元參方(辛涼合甘寒法)
生石膏 (一兩) 知母 (四錢) 元參 (四錢) 細生地 (六錢) 麥冬 (六錢)
水八杯, 煮取三杯, 分二次服, 渣再煮一鐘服.

【字句解】

(1) 氣血兩燔: 氣分の 熱邪가 아직 풀리지 않았는데 營分の 熱은 이미 盛해서 極에 달한 상태를 말함.

【考察】

본 조문은 氣血兩燔의 治法을 제시한다.

溫病에 表熱이 있는 경우는 辛涼平劑 혹은 輕劑를 사용하고; 氣분이 經에 있으면 辛涼重劑를 사용하고; 氣血兩燔한 경우에는 氣분에 있어 高熱, 汗大出, 大渴, 脈洪大 등이 있고 또 皮膚斑疹이 나타나는데 斑덩어리가 紫黑色이거나 다른 부위에 出血이 있으면서 舌絳하는 등의 熱灼血分⁶⁴⁾의 증상이 나타나니, 곧

63) 傷寒論研究會 編, 傷寒論講義. 서울. 圖書出版 鼎談. 1997. p.382.

氣血兩熱이라 마땅히 氣血兩清法을 사용하고 玉女煎을 加減해서 치료한다. 玉女煎은 『景岳全書 卷五十一·寒陣』⁶⁵⁾에 나온다.

處方중에서 石膏는 清胃火를 하고도 남는 것이 있어 君藥이 된다. 熟地黃은 腎水가 부족한 것을 滋養하여 臣藥으로 작용한다. 君臣이 합쳐져서 清火하고 壯水한다. 知母가 佐藥이 되어 石膏를 도와 瀉火清胃하고, 熟地黃의 滋腎陰 瀉相火하는 것을 돕는다. 麥門冬은 清熱養陰한다. 牛膝은 熱을 이끌어 血을 하행시켜 佐使의 용도로 쓰인다. 모든 藥이 배합되어 清胃熱하고 滋腎陰하는 효능이 있다.⁶⁶⁾

牛膝은 涼血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清熱할 수 없으며, 단지 瘀血만을 흐트러뜨리니 만약 사용하게 되면 出血만을 加重시킬 수 있어서 제거시킨다. 熟地黃은 비록 補血補陰시킬 수 있을 지라도 甘溫은 溫熱에 불리하게 되므로 또한 제거시키고, 生地黃을 加해서 앞의 두 가지의 결점을 보완할 수 있다. 왜냐하면 生地黃이 清熱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涼血할 수 있기 때문이니, 가히 一石二鳥라 할 만하다. 元蓼을 加해서 滋陰清熱하여 火를 제거한다. 이것이 곧 吳鞠通이 牛膝과 熟地黃을 去하고 生地黃과 元蓼을 去하는 의도가 있는 바이다.

- 11) 太陰溫病에, 血從上溢者면, 犀角地黃湯合銀翹散主之라. 其中焦病者는, 以中焦法治之라. 若吐粉紅血水者면, 死不治하고; 血從上溢, 脈七, 八至以上, 面反黑者면, 死不治라도; 可用清絡育陰法이라.

血이 위로 흘러넘치는 것은 溫邪가 血液을 위로 清

道를 竅박하여 清竅를 따라서 나가게 한것이므로 銀翹散으로 肺中の 熱毒을 식혀서 흩어지게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犀角地黃湯으로 血分에 깊이 잠복해 있는 邪熱을 식히니 곧 바로 水를 구하여서 金을 구하는 것이다. 粉紅색의 핏물을 뱉한다는 것은 血도 아니고 液도 아닌 것으로, 이는 血分에 邪熱이 熾盛해서 血과 水液을 竅박하기 때문에 위로 토해내는 소치이다. 이는 邪熱이 지극히 亢盛해서 들뜬에 번지는 불길과 같이 걸잡을 수 없이 맹렬하여 肺의 生化의 근원이 곧 끊어지는 것이다. 血이 위로 흘러넘치고 脈이 한번 호흡하는 동안 칠, 팔 회에 이르는데도 얼굴이 붉지 않고 오히려 검은 것은 火熱의 亢盛함이 최고조에 달해서 五行중 水의 본색이 나타나는 것으로 이는 소위 ‘火極似水’하여 나를 勝하는 변화를 겪은 것이다. 이는 火熱의 熾盛함을 억제하지 못하여, 下焦의 津液이 극도로 虧損되어 위로 心火를 구제할 수 없게 되고, 心火는 오히려 溫熱의 邪氣와 습하니 肺金이 어찌 감당해낼 수 있겠는가? 그러므로 이런 위험한 病證은 치료해서 구하기가 아주 어려운 것이다. 肺의 生化의 근원이 끊어지는 것이 溫病 환자가 죽음을 초래하는 제일 첫 번째 원인이다. 孔子의 제자 仲子가 말하기를 “감히 死에 대해 물어봅니다.” 孔子가 말하기를 “生을 모르는데 어찌 死를 알겠느냐”라 하였다. 吳瑭인 내가 생각하기를, 의사가 死를 모르고서 어찌 生을 구제할 수 있겠는가? 자세하게 조사하건데, 溫病이 死證의 상태인 것이 아주 많지만 크게 나누면 다섯 가지를 넘지 않는다. 上焦에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肺의 生化의 원천이 끊어지는 것이고, 둘째는 心神內閉하여 內閉外脫한 것이다. 中焦에 또한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陽明이 아주 實해서 土克水하게 되면 죽고, 둘째는 脾氣가 鬱結되면 黃疸이 발생하는데 黃疸이 극도로 심해지면 모든 竅가 닫히고 穢濁한 邪氣가 竅를 막아버리면 죽는다. 下焦에 있어서는 邪熱이 깊숙이 들어가서 津液을 태우니 다 말라버려서 죽는 것이다.

犀角地黃湯(下焦편을 보라)

銀翹散(앞을 보라)

이미 表의 藥을 지나치게 사용하였으면 豆豉, 荊芥

64) 傳統醫學研究所編, 한의학사전, 서울, 成輔社, 2004, p.225. “溫熱病이 발전하여 가장 심각한 단계에 이른 것으로 대개 營分證이 한층 더 발전한 것이다. 陰이 손상되고 血이 소모되며 血液이 제멋대로 움직이는 것이 그 특징이다.”

65) 張介賓 著, 景岳全書, 서울, 麗江出版社, 1987, p.438.

66) 李範九, 朴贊斗 譯編, 方劑學, 서울, 대성의학사, 2000, p.198.

穗, 薄荷를 去한다.

血從上溢, 溫邪逼迫血液上走清道, 循清竅而出, 故以銀翹散敗溫毒, 以犀角地黃清血分之伏熱, 而救水即所以救金也. 至粉紅水非血非液, 實血與液交迫而出, 有燎原之勢, 化源速絕. 血從上溢, 而脈至七, 八至, 面反黑, 火極而似水, 反兼勝己之化也, 亦燎原之勢莫製, 下焦津液虧極, 不能上濟君火, 君火反與溫熱之邪合德, 肺金其何以堪, 故皆主死. 化源絕, 乃溫病第一死法也. 仲子曰: 敢問死? 孔子曰: 未知生, 焉知死. 嗚以爲醫者不知死, 焉能救生. 細按溫病死狀百端, 大綱不越五條. 在上焦有二: 一曰肺之化源絕者死; 二曰心神內閉, 內閉外脫者死. 在中焦亦有二: 一曰陽明太實, 土克水者死; 二曰脾郁發黃, 黃極則諸竅爲閉, 穢濁塞竅者死. 在下焦則無非熱邪深入, 消鑠津液, 涸盡而死也.

犀角地黃湯方 (見下焦篇)

銀翹散 (方見前)

已用過表藥者, 去豆豉, 芥穗, 薄荷.

【考察】

본 조문은 溫邪가 血을 竅박해서 위로 흘러넘치게 하는 治法과 死證의 分別방법을 제시한다. 手太陰肺經의 溫病은 血을 上行하도록 竅박해서 일어나는 吐血, 衄血등 다른 부위에서 出血할 때에, 犀角地黃湯⁶⁷⁾에 銀翹散을 합방해서 사용한다. 그 목적은 두 가지이다. 犀角地黃湯으로 血中の 熱邪를 다스리니 그 血로 하여금 涼하게 하여 妄行하지 않게 하는 것이다. 銀翹散을 써서 解毒시키고 風熱을 흩뜨려서 邪氣를 밖으로 끌어낸다. 吳鞠通이 제시한 조문 중에서 ‘血從上溢者’에는 血色이 어떠한가는 언급 되어 있지 않으나 治法은 나와 있다. 다만 ‘若吐粉紅血水者, 死不治’라고 분명하게 말하였는데, 왜 粉紅色을 吐하는 것이 死證이 되는 것인가? 왜냐하면 血과液이 溫邪를 받아 끊어져서 나오니 生化의 근원이 고갈됐기 때문이다. 그래서 吳鞠通은 清絡育陰法, 즉 涼血安絡, 甘寒養陰하는 법칙을 제시하였다. 여기에 처방은 제시되지 않으나 處方은 黃連阿膠湯⁶⁸⁾과 犀角地黃

湯을 合방해서 加減한 것을 선택해 볼 수 있다.

12) 太陰溫病에, 口渴甚者면, 雪梨漿沃⁽¹⁾ 하고; 吐白沫粘滯不快者면, 五汁飲沃之라.

이는 모두 甘寒養陰生津하는 藥을 사용해서 陰液이 손상되는 病證을 구하는 방법이다.

雪梨漿(甘冷法)

단물이 있는 배의 큰 것을 얇게 썰어서 막 떠은 물에 반나절을 담가두었다가 자주 마신다.

五汁飲方(甘寒法)

梨汁 荸薺汁 鮮葦根汁 麥冬汁 藕汁(或用蔗漿)
양의 많고 적음을 조절하여 잘 섞어서 차갑게 복용하되, 찬 것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으면 중탕하여 따뜻하게 복용한다.

此皆甘寒救液法也.

雪梨漿方 (甘冷法)

以甜水梨大者一枚薄切, 新汲涼水內浸半日, 時時頻飲.

五汁飲方 (甘寒法)

梨汁 荸薺汁 鮮葦根汁 麥冬汁 藕汁 (或用蔗漿)
臨時斟酌多少, 和勻涼服, 不甚喜涼者, 重湯燉溫服.

【字句解】

(1) 沃: 붓다, 물을 대다의 뜻.

【考察】

본 조문은 陰을 손상시키는 두 가지의 다른 방법을 제시한다.

手太陰溫病은 熱이 氣分으로 들어가 病이 肺, 胃에 있으니, 口渴이 나타나는데 이는 하나의 熱盛津傷의 表現이다. 만약에 熱이 지나치게 盛하지 않아도 口渴

67) 李範九, 朴贊斗 譯編. 方劑學. 서울. 대성의학사. 2000. p.172. “水牛角十兩, 生地黃八兩, 芍藥三兩, 牡丹皮二兩.”

68) 傷寒論研究會 編. 傷寒論講義. 서울. 圖書出版 鼎談. 1997. p.657. “黃連4兩, 黃芩2兩, 芍藥2兩, 鷄子黃2枚, 阿膠3兩.”

이 아주 심한데, 이는 肺胃의 津液이 虧損된 것이지 邪熱이 지나치게 盛해서 일으킨 것이 아니니 氣味가 甘涼하고 즙이 많은 배를 사용해서 津液을 補하는 것이다. 만약에 또 거품 있는 하얀 침이 잘 뱉어지지 않는 증상이 있다면 이는 陰液損傷이 아주 심한 것을 설명한 것으로 治法은 마땅히 清熱養陰하여야 하고 처방은 五汁飲을 사용한다. 처방중의 梨汁은 氣味가 甘涼해서 生津潤燥, 清熱化痰하고⁶⁹⁾, 荸薺汁은 清熱化痰하고⁷⁰⁾, 鮮薑根汁은 清熱生津, 除煩止嘔하고⁷¹⁾, 麥門冬汁은 養陰潤肺, 清心除煩, 益胃生津하고⁷²⁾, 藕汁은 清熱涼血散瘀한다⁷³⁾. 모든 藥이 造化를 이루어 生津清熱, 涼血化痰의 效능을 가져온다.

13) 太陰病得之二, 三日에, 舌微黃, 寸脈盛⁽¹⁾, 心煩懊憹⁽²⁾, 起臥不安, 欲嘔不得嘔하며, 無中焦證이면, 梔子豉湯主之라.

溫病에 걸린 지 2~3일이 지났는데, 땀이 이미 났거나 땀이 아직 안 났거나와 상관없이 舌에 약간의 黃苔가 보이는 것은 邪氣가 이미 완전히 肺에 있는 것이 아니다. 寸脈이 盛하고 心煩懊憹하고 앓으나 서나 불안하고 吐하고자 하나 吐하지 못하는 것은 邪氣가 上焦의 膈中에 있는 것이다. 病이 위에 있으면 위로 배출시켜야 하는 원칙에 근거해서 梔子를 써서 邪熱을 오르게 하고 豆豉를 써서 上焦가 열리게 한다.

梔子豉湯方(酸苦法)

梔子(搗碎)五枚 香豆豉 六錢

물 넉 잔으로 梔子를 먼저 달여서 몇 번 끓여오르게 한 뒤에 豆豉를 넣고 달여서 두 잔이 되게 하여서, 먼저 한잔을 따뜻하게 복용하되 吐하면 더 이상 복용하지 않는다.

69) 江蘇新醫學院 編. 中藥大辭典 下冊.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94. p.2175.

70) 江蘇新醫學院 編. 中藥大辭典 下冊.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94. p.1798.

71) 全國韓醫科大學 本草學教授 共編著. 本草學. 서울. 圖書出版永林社. 1998. p.164.

72) 全國韓醫科大學 本草學教授 共編著. 本草學. 서울. 圖書出版永林社. 1998. p.588.

73) 江蘇新醫學院 編. 中藥大辭典 下冊.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94. p.2690.

溫病二, 三日, 或已汗, 或未汗, 舌微黃, 邪已不全在肺中矣. 寸脈盛, 心煩懊, 起臥不安, 欲嘔不得, 邪在上焦膈中也. 在上者因而越之, 故涌之以梔子, 開之以香豉.

梔子豉湯方(酸苦法)

梔子(搗碎, 五枚) 香豆豉(六錢) 水四杯, 先煮梔子數沸, 後納香豉, 煮取二杯, 先溫服一杯, 得吐止後服.

【字句解】

(1) 寸脈盛: 脈大有力함

(2) 懊憹: 煩悶하여 不安하다는 뜻

【考察】

본 조문은 熱鬱胸膈하는 證治를 제시한다.

본 조문은 氣分熱證의 일종이다. 手太陰溫病에 걸린 지 2~3일밖에 안 지났으나 邪氣가 안으로 들어갔으니 衛分으로 말미암아 氣分을 일으킨 것이다. 病은 여전히 上焦에 있는데, 舌微黃하고 寸脈盛한 것은 上焦의 邪熱이 일으킨 바다. 膈間의 濁熱이 위에서는 神明을 교란시키므로 心煩本조하고 起臥不安한 증상이 나타난다. 아래로는 胃中에 영향을 미쳐서 懊憹하고 欲嘔不得嘔한 증상이 나타나는데 이는 心과 관련이 있다. 吳鞠通이 中焦證이 없다고 말한 것은 嘔吐나 泄瀉 등 胃腸의 증상이 없다고 한 것이다. 治療는 마땅히 清熱宣鬱하여야 하고 處方은 梔子豉湯으로 치료한다. 梔子豉湯은 『傷寒論』에 나오는 처방으로, 處方중에서 梔子は 苦寒하여 鬱熱을 清透시키고 答답한 증세를 제거할 뿐만 아니라 火를 인도하여 下行시킬 수 있다. 豆豉는 氣味가 모두 가벼우며 表熱을 清宣시킬 뿐 아니라 胃氣도 和降시킬 수 있다. 이 두 약물을 배합하여 下降과 宣散하는 效능을 동시에 발휘하기 때문에, 胸膈의 鬱煩을 清宣하여 虛煩에 의한 懊憹을 치료하는 良方이 된다.⁷⁴⁾ 吳鞠通은 이 方뒤에서 『傷寒論』의 ‘得吐止後服’⁷⁵⁾이라는 말을 사용하였

74) 傷寒論研究會 編. 傷寒論講義. 서울. 圖書出版 鼎談. 1997. p.167.

75) 傷寒論研究會 編. 傷寒論講義. 서울. 圖書出版 鼎談. 1997. p.164. “發汗吐下後, 虛煩不得眠, 若劇者, 必反復顛倒, 心中懊憹, 梔子豉湯主之.”

는데, 梔子豉湯에 涌吐작용이 있다고는 정확히 단정 짓기가 어렵다. 張仲景은 이 처방을 吐한뒤의 虛煩을 다스리는데 사용하였는데, 이 처방이 涌吐작용이 있다면 어찌 吐한 뒤에 다시 涌吐劑를 사용하였겠는가? 다만 吳鞠通이 '梔子を 써서 솟아오르게 하고 豆豉를 써서 열리게 한다.'라고 말하였는데, 이는 梔子が 涌吐하는 작용이 있다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다.

14) 太陰病得之二, 三日에, 心煩不安, 痰涎壅盛, 胸中痞塞欲嘔者하고, 無中焦證이면, 瓜蒂散主之인데, 虛者加參蘆라.

본 조문은 앞 조문과 病의 상태에 輕重의 차이가 있고, 有痰과 無痰의 구별이 있다. 作用이 猛烈的한 方藥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지만, 病은 重한데 藥이 가벼워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그래서 앞 조문에서는 작용이 비교적 緩和한 梔子豉湯을 써서 胸膈의 鬱熱을 快通시키는데 그쳤지만, 이 조문에서는 痰涎이 壅盛해서 작용이 비교적 맹렬한 瓜蒂散을 써서 급히 吐하게 한 것은, 痰熱이 心包宮으로 들어가 癰厥 등의 危重한 病證이 발생할까 걱정되기 때문이다. 苦寒한 瓜蒂, 梔子를 甘酸한 赤小豆와 合하였는데, 이른바 酸苦는 涌吐하고 瀉下하여 陰이 된다는 것이니⁷⁶⁾ 熱痰을 잘 吐하게 하는 것 또한 上部에 있는 邪氣를 위로 잘 배출하는 방법인 것이다.

瓜蒂散方(酸苦法)

梔瓜蒂 一錢 赤小豆(研) 二錢 山梔子 二錢

물 두 잔으로 달여서 한잔이 되게 하여 먼저 반잔을 마시되 吐하면 다시는 복용하지 않고, 吐하지 않으면 다시 복용한다. 虛한 자는 人參蘆 一錢五分을 加한다.

此與上條有輕重之分, 有有痰無痰之別. 重劑不可輕用, 病重藥輕, 又不能了事, 故上條止用梔子豉湯快涌膈中之熱, 此以痰涎壅盛, 必用瓜蒂散急吐之, 恐邪入包宮而成癰厥也. 瓜蒂, 梔子之苦寒, 合赤小豆之甘酸, 所謂酸苦涌泄爲陰, 善吐熱痰, 亦在上者因而

76) 素問研究集成刊行委員會 編. 素問研究集成 卷一. 대구. 金星印刷社. 2001. p.187. “酸苦涌泄爲陰”

越之方也.

瓜蒂散方(酸苦法)

甜瓜蒂 (一錢) 赤小豆 (研, 二錢) 山梔子 (二錢)
水二杯, 煮取一杯, 先服半杯, 得吐止後服, 不吐再服. 虛者加人參蘆一錢五分.

【考察】

본 조문은 胸膈에서 痰熱이 盛한 것을 제시한다.

본 조문은 13조와 서로 비교해보면, 같은 점은 모두 太陰病을 앓은 지 2~3일이 지나서 心煩하여 미식거리는 증상이 나타난다는 것이다. 다른 점은 痰이 비교적 적거나 胸膈에 熱이 있는 경우에 梔子豉湯을 사용하고, 熱이 심하고 痰이 壅盛한 경우에는 瓜蒂散을 써서 급히 吐하게 한다. 이 조문에서의 痰은 黃色이고 證은 痰이 胸膈에 留滯하는 것에 속하고 治法은 清熱涌吐法을 써야 하고 처방은 瓜蒂散方을 사용한다.

瓜蒂散은 『傷寒論』에 나오는 처방으로 瓜蒂와 赤小豆만으로 구성되었으나⁷⁷⁾, 吳鞠通은 豆豉를 제거하고 山梔子를 加하여 사용하였다. 處方중에서 瓜蒂는 味苦하며 痰涎宿食을 잘 涌吐시키므로 君藥이다. 赤小豆는 味酸平하고 祛濕除煩滿하여 臣藥이다. 이 두 가지가 配合되어 酸味와 苦味が 涌泄시키고 또 相須相益하여 催吐하는 힘을 增強시킨다. 佐藥으로 豆豉를 써서 安中護胃하는데 快吐시키는 가운데에도 胃氣를 보호할 것을 고려하였으며 이는 또한 胸中의 邪氣를 宣解시키기도 하여 涌吐하는데 유리하다. 梔子は 清熱시키는 작용을 增強시킨다.⁷⁸⁾ 熱痰은 胸膈에 있어 涌吐하는 방법을 사용하는 것은 『素問·陰陽應象大論』에서의 “病邪가 上部에 있으면 吐法 등으로 越出시킨다.”⁷⁹⁾를 구체적으로 運用하는 본보기이다.

15) 太陰溫病에, 寸脈大, 舌絳而乾이면, 法當渴이나, 今反不渴者는, 熱在營中也이니, 清營湯去黃連主之라.

77) 傷寒論研究會 編. 傷寒論講義. 서울. 圖書出版 鼎談. 1997. p.342.

78) 李範九, 朴贊斗 譯編. 方劑學. 서울. 대성의학사. 2000. p.542.

79) 素問研究集成刊行委員會 編. 素問研究集成 卷一. 대구. 金星印刷社. 2001. p.213. “在高者因而越之”

口渴은 溫病에서 자주 나타나는 증상 가운데 하나인데 지금은 오히려 渴症이 없으니 사람들은 의구심을 품는다. 舌이 絳한데다 건조하고 좌우 寸脈은 대하니 溫病인 것은 확실하다. 대개 邪熱이 營分에 깊이 들어간 후에, 營氣를 찌서 營氣를 상승하게 하여 咽喉를 滋潤시키니 환자는 현저한 口渴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니 渴症이 없어서 溫病이 아니라고 의심해서는 안 된다. 그러므로 清營湯으로 營分의 熱을 식히는데, 黃連을 가한 것은 邪氣가 깊이 들어가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다.

清營湯(暑溫門을 보라)

渴乃溫之本病, 今反不渴, 滋人疑惑; 而舌絳且干, 兩寸脈大, 的系溫病. 蓋邪熱入營蒸騰, 營氣上升, 故不渴, 不可疑不渴非溫病也, 故以清營湯清營分之熱, 去黃連者, 不欲其深入也.

.清營湯 (見暑溫門中)

【考察】

본 조문은 熱이 營分으로 들어가는 證治를 제시한다.

본 조문에서는 吳鞠通의 辨證 時에 느낄 수 있는 섬세함을 엿볼 수 있다. 寸脈이 大하고 舌絳乾한 것은, 熱邪가 營陰을 손상시킨 것이 분명하다. 營陰이 손상을 받으면 渴症이 있는 것은 당연하나, 오히려 渴症이 없는 것은 熱邪가 營陰을 찌 때 나오는 수증기가 상승하여 咽喉를 적셔주기 때문에 환자가 渴症을 못 느끼는 것이다. 증은 熱傷營陰에 속하여 清營解毒, 透熱養陰하여야 하고 처방은 清營湯으로 치료하여야 한다. 處方중에 黃連을 가한 것은 黃連이 苦寒燥하고 中焦로 들어가니 이를 사용하면 안으로 깊이 들어가서 陰을 傷하는 폐단이 있으므로 뺀 것이다.

이 清營透熱하는 清營湯은 吳鞠通이 『素問·至眞要大論』에서의 “熱氣가 내부에 淫勝하면 鹹味와 寒性을 가진 약물로 주치한다.”⁸⁰⁾하는 방법을 이용하여서 만들어 낸 것이다.

80) 素問研究集成刊行委員會 編. 素問研究集成 卷九. 대구. 金星印刷社. 2001. p.446. “熱淫于內, 治以鹹寒, 佐以甘苦, 以酸收之, 以苦發之”

16) 太陰溫病에, 不可發汗인데, 發汗而汗不出者면, 必發斑疹이며, 汗出過多者면, 必神昏譫語라. 發斑⁽¹⁾者는, 化斑湯主之하고; 發疹⁽²⁾者는, 銀翹散去豆豉, 加細生地, 丹皮, 大青葉, 倍元蔘主之라. 禁升麻, 柴胡, 當歸, 防風, 羌活, 白芷, 葛根, 三春柳라. 神昏譫語者면, 清宮湯主之며, 牛黃丸, 紫雪丹, 局方至寶丹亦主之라.

溫病을 치료할 때에는 辛溫發汗을 禁한다. 이는 溫邪가 口鼻로부터 들어가는 것이지만, 表인 足太陽膀胱經에 있지 않으므로 足太陽膀胱經이 손상되지 않는다. 지금 의사들이 이러한 이치를 모르고서 자주 辛溫發汗法을 잘못 사용하여서 환자가 邪熱이 亢盛하고 陰血이 燥하여 땀이 만들어질 수 없고 溫邪가 肌表血分에 鬱滯되므로 발생된다. 만약 이러한 환자를 辛溫發汗法을 사용하여 땀이 나기 시작하면 더욱더 땀이 그치지 않으니, 汗은 心液으로 잘못 發汗하면 亡陽하게 되고 心陽이 손상되어 神明이 어지러워져 주재할 바가 없어지므로 神昏이 생긴다. 心液이 傷하면 心血이 傷하게 되고, 心은 陰으로서 體를 삼는데 心陰이 陽을 구제할 수 없은즉, 心陽이 홀로 亢盛하게 되고 心은 言을 주관하므로 譫語不休함이 생긴다. 게다가 手太陰肺經은 心包로 쉽게 逆傳하는데, 이에 대해 아는 사람이 드물다. 手太陰病이 풀리지 않으면 본래 手厥陰心包로 逆傳되기가 쉬운데, 心氣, 心血의 큰 손상이 있다면 더욱더 心包로 逆傳되기가 쉽지 않겠는가?

溫病忌汗者, 病由口鼻而入, 邪不在足太陽之表, 故不得傷太陽經也. 時醫不知而誤發之, 若其人熱甚血燥, 不能蒸汗, 溫邪郁於肌表血分, 故必發斑疹也. 若其表疏, 一發而汗出不止, 汗爲心液, 誤汗亡陽, 心陽傷而神明亂, 中無所主, 故神昏. 心液傷而心血虛, 心以陰爲體, 心陰不能濟陽, 則心陽獨亢, 心主言, 故譫語不休也. 且手經逆傳, 世罕知之, 手太陰病不解, 本有必傳手厥陰心包之理, 況又傷其氣血乎?

化斑湯方

石膏 一兩 知母 四錢 生甘草 三錢 元參 三錢
犀角 一錢 白粳米 一合

물 여덟 잔을 달여서 세 잔을 취하되 하루에 세 번을 복용하고 찌꺼기를 다시 한 번 달여서 밤에 한번 복용한다.

[方論] 이는 熱邪가 안에서 과도할 때 鹹寒으로 치료하고 苦甘으로 輔佐하는 방법이다. 옛 사람들이 모두 白虎湯으로 化斑湯을 만든 것은 斑을 陽明證이라 여긴 것이다. 陽明은 肌肉을 주관하니 斑이 온몸에 퍼져 모두 붉어지고 안에서 밖으로 나오므로 石膏로써 肺胃의 熱을 식히고, 知母는 金을 식혀 肺를 補하고 陽明의 獨盛한 熱을 다스리고, 甘草는 清熱解毒 和中和, 粳米는 胃熱을 식히고 胃液을 保存하니 白粳米는 陽明燥金의 곡식인 것이다. 본문에서 元參, 犀角을 加한 것은 斑色이 赤色인 것은 木火가 태과하여 그 변화가 가장 빠르나 燥金의 약물인 白虎만으로는 上焦를 清肅시키는데 임무를 감당하지 못할까 걱정되므로 元參을 가해서 腎經의 氣를 열어 위로 올려서 肺와 교류하게 하여 水天一氣가 되고 上下가 순환하여 원천이 끊어지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게 한 것이다. 犀角은 氣味가 鹹寒하고 水木火가 相生하는 氣를 품었는데, 神奇한 짐승으로 陽剛의 體를 갖추고서 百毒蟲疰⁸¹⁾와 邪鬼瘴氣⁸²⁾를 주로 다스리기 때문

이며, 甘寒을 취하여 腎水를 구하고 이로써 心火를 구제하면 斑을 밖으로 뽑어내고 敗毒하고 蠱邪를 물리치기 위함이다. 病에 있어 斑이 나타나면 熱이 오로지 氣分에만 있는 것이 아니기에 두 가지의 涼血하는 약물을 加한다.

化斑湯方

石膏 (一兩) 知母 (四錢) 生甘草 (三錢) 元參 (三錢) 犀角 (二錢) 白粳米 (一合)

水八杯, 煮取三杯, 日三服, 渣再煮一鐘, 夜一服.

[方論]此熱淫於內, 治以咸寒, 佐以苦甘法也. 前人悉用白虎湯作化斑湯者, 以其爲陽明証也. 陽明主肌肉, 斑家遍體皆赤, 自內而外, 故以石膏清肺胃之熱, 知母清金保肺而治陽明獨勝之熱, 甘草清熱解毒和中, 粳米清胃熱而保胃液, 白粳米陽明燥金之歲谷也. 本論獨加元參, 犀角者, 以斑色正赤, 木火太過, 其變最速, 但用白虎燥金之品, 清肅上焦, 恐不勝任, 故加元參啟腎經之氣, 上交於肺, 庶水天一氣, 上下循環, 不致泉源暴絕也, 犀角咸寒, 稟水木火相生之氣, 爲靈異之獸, 具陽剛之體, 主治百毒蟲疰, 邪鬼瘴氣, 取其咸寒, 救腎水, 以濟心火, 托斑外出, 而又敗毒辟蠱也; 再病至發斑, 不獨在氣分矣, 故加二味涼血之品.

銀翹散去豆豉加細生地丹皮大青葉倍元參方

앞의 銀翹散에서 豆豉를 去하고 細生地 四錢 大青葉 三錢 丹皮 三錢 元參 加至一兩을 加한다.

[方論] 銀翹散의 方義는 앞에 나와 있다. 네 가지를 加한 것은 血熱을 식히기 위한 것이고, 豆豉를 去한 것은 溫한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살피 보건데; 吳又可는 托裏舉斑湯⁸³⁾을 썼는데, 疹을 말하지 않은 것은 斑과 疹을 똑같이 취급한 것이다. 살피 보건데, 溫病중 疹이 생기는 것은 열 가운데 七八이고, 斑이 생기는 것은 열 가운데 二三이다. 대개 斑은 순수한 赤色으로 혹은크기가각이 큰데 肌肉의 病이므로 化斑湯으로 主治하는데 전문적으로

않으며 각종 毒氣가 그 따뜻함으로 인해 쉽게 발생하므로 瘴氣病이 많이 발생한다.”라고 하였다.

81) 傳統醫學研究所 編纂, 東洋醫學大辭典, 서울, 成輔社, 2000. p.184. 蠱注라고도 하는데, 『諸病源候論蠱注候』에서 “注란 住로서, 그 병이 과급되어 머무르는 것을 말하는데, 죽은 후에는 또 쉽게 주변사람들에게 옮는다. 蠱란 하나의 그릇 안에 각종 毒蛇毒蟲을 모아서 서로 잡아먹도록 했을 때 최후에 남는 하나를 말하는데, 능히 毒으로 변해 사람을 해치기도 한다. 이것에 중독되면 心悶腹痛이 발생하는데, 이것이 五臟을 모두 잠식하면 죽는다. 이 병에는 緩急이 있다. 急한 경우는 10여일 사이에 죽고 緩한 경우는 여러 달 동안 서서히 腹內로 들어가므로 항상 기력이 없고 骨節이 무거우며, 발작할 때는 心腹이 煩躁하여 괴롭고 아프다. 사람이 먹은 음식물 역시 蠱로 변할 수 있는데, 이것이 점차 臟腑를 모두 잠식하면 죽고, 또한 곧 주변사람들에게 옮겨가므로 蠱注라고 한다.”라고 하였다.

82) 傳統醫學研究所 編纂, 東洋醫學大辭典, 서울, 成輔社, 2000. p.1933. 『諸病源候論瘴氣候』에서 “嶺南일대에는 瘴氣가 많아 靑草瘴黃芒瘴등이 있는데, 이는 嶺北에 傷寒病이 많은 것과 마찬가지로, 남쪽은 날씨가 따뜻하여 겨울이 되어도 草木이 누렇게 시들지 않고 벌레들도 들어가

肌肉을 다스린다. 疹은 紅點이 높이 돌기되며 麻⁴⁾, 瘡⁵⁾, 沙⁶⁾와 모두 한 부류로서 血絡에 침범한 病이므로 芳香性으로 絡脈에 뚫으니 辛涼으로 解肌하고 甘寒으로 清血한다. 托裏舉斑湯중에 當歸, 升麻, 柴胡, 白芷, 川山甲은 모두 溫燥한 약물이니 어찌 津液을 태우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겠는가? 게다가 예전에는 痘는 溫하게 하고 疹은 涼하게 하는 정확한 이론이 있었는데, 小兒의 風熱疹보다 더욱 심한 溫疹에 있어서라! 升麻, 柴胡를 써서 升發의 뜻을 취하였는데, 이는 溫病이 대부분 봄여름에 발생한다는 것을 몰랐던 것이니, 天地의 氣는 升은 있고 降은 없는데 어찌 다시 升發한 약으로 升發시키겠는가? 또 經에 이르기를 “冬藏精者, 春不病溫”⁸³⁾이라 하였으니, 이 溫病에 걸린 사람은 下焦의 精氣가 오랫동안 固密하지 못하니, 어찌 少陽之氣를 다시 升發시켜 下焦를 枯竭시켜서 上焦로 치밀어 오르게 하겠는가? 經에 이르기를 “無實實, 無虛虛, 必先歲氣, 無伐天下”⁸⁴⁾라 하였으니 몰라서야 되겠는가? 후대 사람들이 모두 잘못된 것을 본받으니 실로 經文을 읽지 않은 과오이다.

다시 살펴 보건데: 그 당시의 의사들은 溫熱의 表를 發散시켜서 2~3일이 지나도 땀이 나지 않는 것은, 斑疹이 숨은 것이라고 말하고는 升麻, 柴胡, 羌活, 葛根을 사용할 뿐만 아니라 거듭 山川柳를 써서 發散시켰다. 山川柳는, 일년에 세 번 꽃이 피어서 三春이란 이름을 얻었으며 속세에서 三春을 山川으로 음이 바뀌었고 이 柳는 옛날에는 檉木이라 불렀으며 詩經에 “其檉其楛”이라 한 것이 그 성질이 大辛大溫하고 生發이 아주 신속하고 가지는 지극히 가늘어서 능히 絡脈으로 들어가기를 잘하여 虛寒한 白疹을 전적으로 發散하는데 만일 溫熱의 氣血이 끊어올라서 생긴 赤疹을 어찌 원수 보듯 하지 않겠는가? 대저 溫病을 잘 치료하는 자는 疹을 절대 돌아나게 하지 않으니 邪氣가 2~3일, 혹은 3~5일을 鬱滯되어 땀이 나지 않아 부득불 斑疹이 돌을지라도, 重한 것은 輕하게

하고 輕한 것은 없게 하는데, 만약에 한번이라도 辛溫한 것을 사용하면 氣分이 災殃을 받아 血分으로 옮기니 어찌 스스로 斑疹을 조성한 것이 아니겠는가?

또 그 당시 의사들은 疹이 이미 나올 때마다 곧 마음을 놓아도 된다고 말하는데, 邪熱이 熾盛할 때에 마땅히 신중해야 하며 조금이라도 소홀함이 있으면 害가 적지 않다는 것을 모른다. 또 疹에는 瀉下를 禁忌하지 않으나 만약 裏結하면 모름지기 약간 通하게 해야지 크게 瀉下시켜 內虛下陷에 이르게 해서는 안 되는데, 이 방법은 中焦편에 있다.

汪廷珍按: 三春柳⁸⁵⁾는 일명 西河柳라고도 하고 또 觀音柳라고도 하는데, 『圖經』과 『別錄』에는 실리지 않았다. 繆希雍⁸⁶⁾의 『廣筆記』⁸⁷⁾로부터 疹을 치료하는 功을 소개하면서 사용하는 자가 점차로 많아졌다. 寒疹은 반드시 發散하여야 하나, 溫疹은 發散하지 말아야 하며 약물은 辛涼을 사용해야지 辛溫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모르는 것이다. 木棉紗⁸⁸⁾와 같은 부류도 이와 같다. 疹은 瀉下하는 것이 적합하고 升提를 삼가고 輔澁을 삼가며 또한 瀉下시켜서 中焦와 下焦를 범하는 것은 좋지 않다. 斑疹과 痢疾은 苦寒堅陰하여야 하고 中下焦를 치료한다.

銀翹散去豆豉加細生地丹皮大青葉倍元參方
即於前銀翹散內去豆豉, 加: 細生地 (四錢) 大青葉 (三錢) 丹皮 (三錢) 元參 (加至一兩)

85) 江蘇新醫學院 編. 中藥大辭典. 中國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94. p.1533. ‘檉柳’라는 이름으로 나오며 “疏風, 解表, 利尿, 解毒의 효능이 있음”

86) 傳統醫學研究所 編纂, 東洋醫學大辭典, 서울. 成輔社. 2000. p.659. “1546~1627? 明代의 醫家. 字는 仲淳, 호는 慕台, 江蘇省 常熟人. 어려서 病이 잦아 장성하면서 醫術을 좋아했는데, 특히 本草에 정통하였다. <本草經疏>를 저술하였는데, 本草學 특히 藥물의 炮炙에 상당한 공헌을 하였다.”

87) 傳統醫學研究所 編纂, 東洋醫學大辭典, 서울. 成輔社. 2000. p.1090. “先醒齋醫學光筆記: 綜合醫書. 總四卷. 醫學廣筆記라고 약칭한다. 明代의 繆希雍이 편찬하여 처음에는 『先醒齋筆記』라고 하였는데, 丁元荇이 다시 繆希雍이 臨證에서 사용한 모든 處方을 취해 刊行한 후에 繆希雍이 增訂하여 지금의 명칭으로 개명하였다.”

88) 李時珍 著, 俞小乎, 黃志杰 共主編. 本草綱目精譯. 北京. 科學技術文獻出版社. 1990. p.669.

83) 素問研究集成刊行委員會 編. 素問研究集成 卷一. 대구. 金星印刷社. 2001. p.144. “藏於精者, 春不病溫”

84) 素問研究集成刊行委員會 編. 素問研究集成 卷八. 대구. 金星印刷社. 2001. p.280. “必先歲氣, 無伐天下, 無盛盛, 無虛虛”

[方論] 銀翹散義見前. 加四物, 取其清血熱; 去豆豉, 畏其溫也.

按: 吳又可托裡舉斑湯, 不言疹者, 混斑疹爲一氣也. 考溫病中發疹者, 十之七, 八. 發斑者十之二, 三. 蓋斑乃純赤, 或大片, 爲肌肉之病, 故主以化斑湯, 專治肌肉; 疹系紅點高起, 麻, 痧皆一類, 系血絡中病, 故主以芳香透絡, 辛涼解肌, 甘寒清血也. 其托裡舉斑湯方中用歸, 升, 柴, 芷, 穿山甲, 皆溫燥之品, 豈不畏其灼津液乎? 且前人有痘宜溫, 疹宜涼之論, 實屬確見. 況溫疹更甚於小兒之風熱疹乎, 其用升, 柴, 取其升發之義, 不知溫病多見於春夏發生之候, 天地之氣, 有升無降, 豈用再以升藥升之乎? 且經謂“冬藏精者, 春不病溫”, 是溫病之人, 下焦精氣久已不固, 安庸再升其少陽之氣, 使下竭上厥乎經謂“無實實, 無虛虛, 必先歲氣, 無伐天和”, 可不知耶? 後人皆尤而效之, 實不讀經文之過也.

再按: 時人發溫熱之表, 二, 三日汗不出者, 即雲斑疹蔽伏, 不惟用升, 柴, 羌, 葛, 且重以山川柳發之. 不知山川柳一歲三花, 故得三春之名, 俗轉音三春爲山川, 此柳古稱檉木, 詩所謂“其檉其楛”者是也. 其性大辛大溫, 生發最速, 橫枝極細, 善能入絡, 專發虛寒白疹, 若溫熱氣血沸騰之赤疹, 豈非見之如仇乎? 夫善治溫病者, 原可不必出疹, 即有邪郁二, 三日, 或三, 五日, 既不得汗, 有不得不疹之勢, 亦可重者化輕, 輕者化無, 若一派辛溫剛燥, 氣受其災而移於血, 豈非自造斑疹乎? 再時醫每於疹已發出, 便稱放心, 不知邪熱熾甚之時, 正當謹慎, 一有疏忽, 爲害不淺. 再疹不忌瀉, 若裡結須微通之, 不可令大泄, 致內虛下陷, 法在中焦篇.

汪按: 三春柳一名西河柳, 又名觀音柳, 『圖經』『別錄』未載, 自繆希雍『廣筆記』盛推其治疹之功, 而用者遂多. 不知寒疹須發, 溫疹不須發, 可用辛涼, 不可用辛溫也. 木棉紗之類同此. 疹以瀉爲順, 忌升提, 忌輔澀, 亦不宜下, 以犯中下二焦. 其疹病者, 當苦寒堅陰, 治屬中下.

清宮湯方

元蔘心 三錢 蓮子心 五分 竹葉卷心 二錢 連翹心 二錢 犀角尖(磨沖) 二錢 連心麥冬 三錢

[加減法] 熱痰이 盛하면 竹瀝, 梨汁을 각 다섯 수 지씩을 加하고; 咯痰不清에는 瓜蒌皮 一錢五分을 加하고; 熱毒이 盛할 때에는 金汁과 人中黃을 가하고, 精神이 昏迷해지려고 할 때는 金銀花 三錢, 荷葉 二錢, 石菖蒲 一錢을 加한다.

[方論] 이것은 鹹寒甘苦法으로 膻中을 식히는(清) 처방이다. 清宮이라고 이른 것은 膻中이 心의 宮城이기 때문이다. 모두 약초의 心을 사용하는 것은 무엇 心은 발생이 끊이지 않는 다는 뜻이 있으니 藥草의 心은 人體의 心으로 능히 들어갈 수 있는 穢濁함을 맑게 하는 약물이며, 또한 心中을 補하여 生氣를 끊이지 않고 발생하여 아주 작은 것에도 性命을 救하는 것이다. 火는 사람을 昏迷하게 할 수 있고 水는 사람을 清하게 할 수 있으니 神昏譫語하는 것은 水가 부족하고 火가 남음이 있으며 또한 穢濁함이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離(心)는 坎(腎)으로 體를 삼으니 元蔘은 味는 苦하여 水에 속하나 離中의 虛를 補하고; 犀角은 神령스러운 것으로 味가 鹹하고 辟穢解毒하여 소위 靈犀一點通(서로 말없는 가운데 의사가 잘 통한다)이라 하여 心氣를 잘 소통시키고 색은 검어서 水를 補하니 또한 離中의 虛를 補할 수 있으므로 이 두 가지를 君藥으로 삼는다. 蓮心은 甘苦鹹하고 뿌리가 거꾸로 자라니 心을 거처 腎으로 달려가서 心火로 하여금 아래의 腎으로 通하게 할 수 있고 또한 다시 돌아서 상승하니 腎水로 하여금 心을 적시게 할 수 있으므로 使藥으로 삼는다. 連翹는 모양이 心臟을 닮으니 連翹心은 心熱을 물리칠 수 있다. 竹葉心은 예리하고 속이 비어 있어 능히 通竅清心하므로 佐藥으로 삼는다. 麥門冬의 心을 사용하는 이유는, 神農本草經에서 心腹結氣, 傷中傷飽, 胃脈絡絶을 주관한다고 했으니, 그러면 시험 삼아 물어 보건데 心을 제거하면 結氣를 흐트러뜨리고 傷中을 補하고 傷飽를 通하게 하고 胃脈絡이 끊어진 것을 이을 수 있겠는가? 대개 麥門冬은 少陰癸水의 氣를 받아 하나의 뿌리가 옆으로 자라나서 덩어리진 뿌리로 연결되는데, 12개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14~5개로 되어 있는 것도 있으니 이러한 까닭에, 手足三陽三陰經의 絡脈에는 12개와 任脈의 尾翳穴⁸⁹⁾과 督脈의 長強⁹⁰⁾을 합하여 14개가

되고 또 脾의 大絡을 합하여 모두 15개가 된다. 이것은 物性和 人身이 합하여지는 자연의 묘미인데 오직 聖人만이 物象을 체득하고 物情을 살필 수 있기에 麥門冬을 사용하여 絡脈을 통하여 이어지게 한다. 天門冬과 함께 ‘門冬’이라 명명한 것은, ‘冬’은 閉藏을 주관하고 ‘門’은 開轉을 주관하니 開合의 효능이 있음을 이룬 것이다. 麥門冬을 사용하는 묘미는 麥門冬의 心을 사용하는 데에 있으니 예로부터 心을 제거한다는 문장은 결코 어디에도 없다. 張隱庵은 누구로부터 시작되었는지 모르며 이미 오랫동안 답습되어 고칠 수 없다고 말하였다. 吳瑭인 내가 두루 조사해 보는데 陶弘景으로부터 시작된 것임을 비로소 알았는데, 대개 陶弘景은 모든 本草의 心이 人體의 心으로 들어가서 사람으로 하여금 煩證을 일어나게 한다는 한마디 말에 현혹되었으며, 麥門冬은 毒이 없어 上品에 실리고 오래 복용하면 몸이 가벼워진다는 것을 몰랐으니, 어찌 사람으로 하여금 煩證이 일어나게 할 수 있단 말인가! 예를 들어 人參, 白朮, 黃芪, 甘草 및 모든 仁과 모든 子는 心이 없는 것이 없으니, 모두 사람으로 하여금 煩證을 일어나게 할 수 있으니 모두 心을 제거하고 써야 하겠는가? 陶弘景이 麥門冬의 心을 제거하고 사용해야 한다는 것은 지혜로운 사람인 것이다. 이 처방에 心만을 취해서 心중의 穢濁한 結氣를 흐트러뜨리므로 麥門冬을 臣藥으로 삼는다.

清宮湯方

元參心 (三錢) 蓮子心 (五分) 竹葉卷心 (二錢) 連翹心 (二錢) 犀角尖 (磨沖, 二錢) 連心麥冬 (三錢)

[加減法] 熱痰盛加竹瀝, 梨汁各五匙; 咯痰不清, 加栝蒌皮 (一錢五分); 熱毒盛加金汁, 人中黃; 漸欲神昏, 加銀花 (三錢), 荷葉 (二錢), 石菖蒲 (一錢).

[方論] 此咸寒甘苦法, 清臚中之方也. 謂之清宮

者, 以臚中爲心之宮城也. 俱用心者, 凡心有生生不已之意, 心能入心, 即以清穢濁之品, 便補心中生生不已之生氣, 救性命於微芒也. 火能令人昏, 水能令人清, 神昏譫語, 水不足而火有余, 又有穢濁也. 且離以坎爲體, 元參味苦屬水, 補離中之虛; 犀角靈異味咸, 辟穢解毒, 所謂靈犀一點通. 善通心氣, 色黑補水, 亦能補離中之虛, 故以二物爲君. 蓮心甘苦咸, 倒生根, 由心走腎, 能使心火下通於腎, 又回環上升, 能使腎水上潮於心, 故以爲使. 連翹象心, 心能退心熱. 竹葉心銳而中空, 能通竅清心, 故以爲佐. 麥冬之所以用心者, 本經稱其主心腹結氣, 傷中傷飽, 胃脈絡絕, 試問去心, 焉能散結氣, 補傷中, 通傷飽, 續胃脈絡絕哉? 蓋麥冬稟少陰癸水之氣, 一本橫生, 根類連絡, 有十二枚者, 有十四, 五枚者, 所以然之故, 手足三陽三陰之絡, 共有十二, 加任之尾翳, 督之長強, 共十四, 又加脾之大絡, 共十五, 此物性合人身自然之妙也, 惟聖人能體物象, 察物情, 用麥冬以通續絡脈. 命名與天冬並稱門冬者, 冬主閉藏, 門主開轉, 謂其有開合之功能也. 其妙處全在一心之用, 從古並未有去心之明文, 張隱庵謂不知始自何人, 相沿已久而不可改, 瑭遍考始知自陶弘景始也, 蓋陶氏惑於諸心入心, 能令人煩之一語, 不知麥冬無毒, 載在上品, 久服身輕, 安能令人煩哉如參, 朮, 草, 以及諸仁諸子, 莫不有心, 亦皆能令人煩而悉去之哉? 陶氏之去麥冬心, 智者千慮之失也. 此方獨取其心, 以散心中穢濁之結氣, 故以之爲臣.

安宮牛黃丸

牛黃 一兩 鬱金 一兩 犀角 一兩 黃連 一兩 朱砂 一兩 梅片 二錢五分 麝香 二錢五分 珍珠 五錢 山梔 一兩 雄黃 一兩 金箔衣 黃芩 一兩

위약들을 아주 곱게 가루 내어 정제한 꿀로 丸을 만드는데 매 丸을 1전으로 하여 금박으로 입히고 밀랍으로 봉한다. 脈이 虛한 사람은 人參湯으로 복용하고 脈이 實한 사람은 金銀花, 薄荷湯으로 복용하되 매번 한 丸씩 복용한다. 飛尸(7)卒厥, 五癰中惡, 成人 小兒의 瘧厥이 熱로 인한 것 등도 치료한다. 성인의 경우 病이 重하고 身體가 實한 자는 하루에 두 번 복용하되 심하면 세 번까지도 복용하고; 小兒는 반 丸

89) 傳統醫學研究所 編纂, 東洋醫學大辭典, 서울. 成輔社. 2000. p.669. 經穴別名. 靈樞經에서 “任脈에서 갈라져 나온 絡脈을 尾翳라고 한다”고 하였고, 나중에 針灸甲乙經 등의 책에서는 鳩尾穴의 別名이라고 하였다.

90) 傳統醫學研究所 編纂, 東洋醫學大辭典, 서울. 成輔社. 2000. p.1930. 經穴名. 尾骨의 끝부분과 肛門을 연결한 선의 中點에 위치하며, 앞드러서 取穴한다.

을 복용하되 차도가 없으면 다시 반 丸을 복용한다.

[方論] 이 약은 芳香性으로 穢濁함을 제거시켜서 모든 竅를 이롭게 하며, 鹹寒으로 腎水를 保하여서 心體를 편안하게 하며, 苦寒으로 小腸을 通하게 하여 心用을 瀉하는 처방인 것이다. 牛黃은 日月의 精氣를 얻어서 心이 주관하는 腎을 通하게 한다. 犀角은 모든 毒과 邪鬼瘴氣를 主治한다. 眞珠는 太陰의 精을 얻어서 神明을 通하게 하는데, 犀角과 합하여 水를 補하고 火를 구한다. 鬱金은 풀 중에서 香이 있는 것이고, 梅片은 나무 중에서 香이 있는 것이고, 雄黃은 돌 중에서 香이 있는 것이고, 麝香은 精血로 만들어진 것 중에서 香이 있는 것이니, 네 가지 香이 合하여서 사용되면 단단하게 닫힌 邪熱과 溫毒이 厥陰부분에 깊숙이 있는 것을 안으로부터 한꺼번에 透出시키니, 穢濁한 邪氣는 스스로 사라지고 神明이 회복될 수 있다. 黃連은 心火를 瀉하고, 梔子是 心과 三焦의 火를 瀉하고, 黃芩은 膽과 肺의 火를 瀉하니, 邪火로 하여금 모든 香을 따라 동시에 흩어지게 하는 것이다. 朱砂는 心體를 補하고 心用을 瀉하니, 金箔과 合하여서는 痰을 제거하여 진정시키고, 다시 眞珠, 犀角과 合하여서는 전투를 독려하는 주사령관인 것이다.

安宮牛黃丸方

牛黃(一兩) 郁金(一兩) 犀角(一兩) 黃連(一兩) 朱砂(一兩) 梅片(二錢五分) 麝香(二錢五分) 眞珠(五錢) 山梔(一兩) 雄黃(一兩) 金箔衣黃芩(一兩)

上爲極細末, 煉老蜜爲丸, 每丸一錢, 金箔爲衣, 蠟護. 脈虛者人參湯下, 脈實者銀花, 薄荷湯下, 每服一丸. 兼治飛尸卒厥, 五癘中惡, 大人小兒瘧厥之因於熱者. 大人病重體實者, 日再服, 甚至日三服; 小兒服半丸, 不知再服半丸.

[方論] 此芳香化穢濁而利諸竅, 咸寒保腎水而安心體, 苦寒通火腑而瀉心用之方也. 牛黃得日月之精, 通心主之神. 犀角主治百毒, 邪鬼瘴氣. 眞珠得太陰之精, 而通神明, 合犀角補水救火. 郁金草之香, 梅片木之香(按冰片, 洋外老杉木浸成, 近世以樟腦打成偽之, 樟腦發水中之火, 爲害甚大, 斷不可用), 雄黃石

之香, 麝香乃精血之香, 合四香以爲用, 使閉固之邪熱溫毒深在厥陰之分者, 一齊從內透出, 而邪穢自消, 神明可復也. 黃連瀉心火, 梔子瀉心與三焦之火, 黃芩瀉膽, 肺之火, 使邪火隨諸香一齊俱散也. 朱砂補心體, 瀉心用, 合金箔墜痰而鎮固, 再合眞珠, 犀角爲督戰之主帥也.

紫雪丹方(本事方の 紫雪丹에서 黃芩을 去한다.)

滑石 一斤 石膏 一斤 寒水石 一斤 磁石水煮一斤

甞어서 달인 후에 찌꺼기를 없애어 아래의 약에 넣는다.

羚羊角 五兩 木香 五兩 犀角 五兩 沈香 五兩 丁香 一兩 升麻 一斤 元蓼 一斤 炙甘草 半斤 위의 8가지 藥材들을 찢고 잘라서 앞의 藥液 속에 넣고, 달여서 마시는데 찌꺼기를 제거하고 다음의 藥을 넣는다.

朴硝, 硝石 各 二斤 을 깨끗이 하여서 앞의 藥液 속에 넣고 약한 불로 달이는데 쉬지 않고 버드나무가지로 잘 저어서 藥液이 응고되기를 기다려 다시 다음의 두 가지 藥材를 넣는다.

辰砂(研細) 三兩 麝香(研細) 一兩二錢 이 약들을 넣고 잘 섞는다.

잘 합쳐지면 火氣를 빼고 冷水로 一, 二錢을 복용한다.

[方論] 모든 石材약들은 水火를 이롭게 하여 下竅를 소통시킨다. 磁石, 元蓼은 肝腎의 陰을 補하여 위로 君火를 구한다. 犀角, 羚羊角은 心, 膽의 火를 瀉한다. 甘草는 모든 藥을 조화시키고 敗毒하며 肝의 急함을 緩和시킨다. 諸藥은 모두 하강시키는데 오직 升提하는 升麻 하나를 사용한 것은 대개 下降시키기 위해 먼저 올리는 것이다. 모든 香은 穢濁함을 제거하는데 어떤 것은 上竅를 열고 어떤 것은 下竅를 열어서, 神明이 濁邪에 의해 곤란하지 않도록 해서 마침내 濁邪가 밝음을 다시 극복하지 못하게 한다. 丹砂는 赤色으로 心을 補하여 心火를 通하게 하고 안에는 水銀을 함유하여 心體를 補하니 心體를 지키는 작용을 한다. 藥 모두가 氣를 사용하는데 硝만이 糞로 質을 사용하는 것은, 水鹵이 결합하여 이루어졌기 때

문에 성질은 사납고 쉽게 녹아서 瀉火散結하는 작용 때문이다.

紫雪丹方 (從本事方去黃金)

滑石 (一斤) 石膏 (一斤) 寒水石 (一斤) 磁石 (水煮二斤, 搗煎去渣入後藥) 羚羊角 (五兩) 木香 (五兩) 犀角 (五兩) 沉香 (五兩) 丁香 (一兩) 升麻 (一斤) 元參 (一斤) 炙甘草 (半斤)

以上八味, 共搗銼, 入前藥汁中煎, 去渣入後藥.

朴硝, 硝石各二斤, 提淨, 入前藥汁中, 微火煎, 不住手將柳木攪, 候汁欲凝, 再加入後二味.

辰砂 (研細, 三兩) 麝香 (研細, 一兩二錢) 入煎藥拌勻. 合成退火氣, 冷水調服一, 二錢.

[方論] 諸石利水火而通下竅. 磁石, 元參補肝腎之陰, 而上濟君火. 犀角, 羚羊瀉心, 膽之火.

甘草和諸藥而敗毒, 且緩肝急. 諸藥皆降, 獨用一味升麻, 蓋欲降先升也. 諸香化穢濁, 或開上竅, 或開下竅, 使神明不致坐困於濁邪而終不克復其明也. 丹砂色赤, 補心而通心火, 內含汞而補心體, 爲坐鎮之用. 諸藥用氣, 硝獨用質者, 以其水鹵結成, 性峻而易消, 瀉火而散結也.

局方至寶丹方

犀角(鎊) 一兩 朱砂(飛) 一兩 琥珀(研) 一兩 玳瑁(鎊) 一兩 牛黃 五錢 麝香 五錢

安息香으로 증탕을 하여 불에 끓인 후에 약 모두를 넣어 丸 一百丸으로 만들어 蜜蠟으로 감싼다.

[方論] 이 처방은 각종 영험하고 기이한 약들을 모은 것으로, 모두 心體를 補하고 心用을 通하게 하며 穢濁한 邪氣를 제거하고 熱結을 풀니 모두 합하여 邪氣를 뽑아내고 正氣를 되돌리는 功이 있다. 대저 安宮牛黃丸이 이중에서 가장 涼하고 紫雪丹이 그 다음이고 至寶丹이 그 다음인데, 주치는 대략 비슷하나 각기 長點이 있어 臨床에 임해서는 證에 따라서 헤아려서 쓰면 되는 것이다.

局方至寶丹方

犀角 (鎊, 一兩) 朱砂 (飛, 一兩) 琥珀 (研, 一兩) 玳瑁 (鎊, 一兩) 牛黃 (五錢) 麝香 (五錢) 以安息重湯燉化, 和諸藥爲丸一百丸, 蠟護.

[方論] 此方會萃各種靈異, 皆能補心體, 通心用, 除邪穢, 解熱結, 共成撥亂反正之功. 大抵安宮牛黃丸最涼, 紫雪次之, 至寶又次之, 主治略同, 而各有所長, 臨用對証斟酌可也.

【字句解】

(1) 斑: 外感熱病과정중에 熱傷營血, 迫血妄行하여 肌膚에 나타나는 조각모양의 斑덩어리며 만져도 결끄럽지 않아서 대부분 紅斑이라 한다. 만약 斑이 紫黑色이면 熱毒이 盛한 것으로 胸部에 나타나고 계속해서 등, 복부와 사지 등으로까지 번진다.

(2) 疹: 疹子라고도 한다. 대부분 風熱鬱肺, 內閉營分, 血絡을 따라 밖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인해 나타난다. 피부위에 紅色의 작은 점이 나타나는데, 좁쌀모양의 형태로 만져도 만져지며 疹色은 鮮紅色이거나 紫色인 것은 熱이 盛하고, 紫黑色인 것은 毒이 重한 것이다.

(3) 托裏去斑湯: 吳又可의 『溫疫論』에 나오는 처방. 當歸白芍藥 各一錢, 升麻 五分, 白芷·柴胡 各七分, 穿山甲炙黃二錢.

(4) 麻: 麻疹을 가리킨다.

(5) 瘡: 麻疹을 이룸.

(6) 沙: 風痧나 爛喉痧 등의 부류를 말함.

(7) 飛尸: 傳尸勞라고도 하는데, 일종의 傳染될 수 있는 虛勞病이다.

【考察】

이 조문은 溫病에서 잘못 發汗시켜서 나타난 斑疹과 神昏譫語의 治法을 제시한다. 여기서의 斑疹은 發汗法을 잘못 사용해서 나타나는 것이다. 發汗하는 藥物을 사용하면 熱이 심해서 血이 燥하니 蒸汗할 수 없으며, 溫邪가 辛溫한 藥性和 합심하니 肌表의 氣分이나 血分에 鬱滯되어 斑疹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血이 血分에 鬱滯되면 斑이 나타나니 清透肌膜, 涼血化斑하여야 하고 처방은 化斑湯을 사용한다. 血이 肌表인 氣分에 鬱滯되면 疹이 나타나니 辛涼清解, 涼血

消痧하여야 하고 처방은 銀翹散去豆豉加細生地丹皮大青葉倍元蔘方을 사용한다.

化斑湯은 白虎湯에 元蔘과 犀角을 加한 것으로서, 白虎湯은 清熱生津하며, 元蔘⁹¹⁾과 犀角⁹²⁾은 解毒涼血滋陰한다. 모든 藥이 함께 清熱解毒, 滋陰涼血하는 효능이 나타난다.

銀翹散去豆豉加細生地丹皮大青葉倍元蔘方중에서 銀翹散은 辛涼透表, 清熱解毒하며 細生地黃⁹³⁾과 元蔘은 養陰涼血하고 牡丹皮⁹⁴⁾는 清熱涼血, 活血散瘀하고 大青葉⁹⁵⁾은 清熱解毒, 涼血消斑한다. 모든 藥이 합쳐져서 透表清熱하고 養陰涼血하는 효능이 뛰어나다.

만약 汗藥을 써서 땀을 과다하게 내는 경우에는 心陰이 반드시 손상되고 心陰이 傷하면 心火가 홀로 亢盛하므로 神昏譫語가 나타나니, 이는 溫邪로 인해 잘못 發汗시켜서 心包로 逆傳된 것이다. 그 證은 溫病誤汗, 液傷邪陷, 心包受邪에 속하고 治法은 清心解毒, 養陰生津하여야 하고 處方은 清宮湯을 사용하거나 安宮牛黃丸, 紫雪丹, 局方至寶丹을 사용한다. 이 네 가지 處方이 비록 모두 神昏譫語를 다스리는데, 뒤의 세 方은 開竅하는 효능이 있지만, 清宮湯은 開竅하는 효능은 없다. 다만 藥物의 心을 제거하지 않고 사용하여서, 이 心으로 心을 다스린다는 생각을 갖고 입하니, 心經의 熱을 清熱시키고 養陰하는데 치우칠 뿐이다. 그래서 清宮湯으로는 藥物을 加減을 해서 開竅하는 것이다. 후자의 安宮牛黃丸·紫雪丹·局方至寶丹은 모두 開竅의 효능이 있지만 強약의 차가 있다. 安宮牛黃丸중의 黃芩, 黃連, 梔子是 모두 苦寒化燥하고 더욱 傷陰하는데 오직 直折하는 효능은 볼 수 없고; 紫雪丹方중의 丁香은 지나치게 溫燥해서 溫熱이 불리한데 오직 芳香辟穢하는 효능은 볼 수 없으나 開竅力은 가장 크고; 局方至寶丹方은 비록 清熱開竅安神

하는 효능을 갖추었을지라도 藥量이 적어서 힘이 부족하다. 각 方의 조성으로 보건데 하나의 처방을 사용하는 것이 두 개의 처방을 사용하는 것만 못하는 것은 특히 이상적인데, 예를 들어 清宮湯을 써서 그중 하나의 丸藥과 다시 배합하는 것이 타당하다.

清宮湯중에서 元蔘心, 蓮心, 麥門冬은 清熱養陰하고, 蓮子心, 竹葉卷心, 犀角尖은 모두 清心除煩하고, 連翹心은 清熱解毒한다. 모든 藥이 서로 배합되어서 함께 清心解毒, 養陰生津하는 효능이 나타난다.

安宮牛黃丸方중에서 牛黃, 麝香이 清心開竅하여 君藥이 되고, 犀角은 清心涼血解毒한다. 黃連, 黃芩, 梔子是 清熱瀉火解毒하여 牛黃의 心包之熱을 내리는 것을 돕는다. 鬱金, 冰片은 芳香穢濁, 通竅開閉하여 麝香의 開竅醒神의 효과를 강하게 한다. 朱砂와 珍珠는 鎮心安神하여 煩躁不安을 없앤다. 雄黃은 牛黃의 豁痰解毒을 돕는다. 蜂蜜로 丸을 만들어 和胃調中하여 使藥이 된다. 金箔으로 옷을 입히는 것은 重鎮安神의 효과를 취한다.⁹⁶⁾

紫雪丹方중에 犀角은 清心熱, 涼血解毒을 잘하고, 羚羊角은 涼肝熄風止癇하고, 麝香은 開竅醒神하니, 이 세 가지가 함께 清心涼肝開竅熄風한다. 石膏, 寒水石, 滑石은 大寒清熱한다. 玄蔘과 升麻는 清熱解毒한다. 木香, 丁香, 沈香은 行氣通竅하니 麝香과 함께 開竅醒神을 증강시킨다. 芒硝, 硝石은 泄熱散結한다. 甘草는 益氣安中하고 諸藥을 조화시킨다. 이 모든 藥이 합하여 清熱開竅, 熄風止癇의 효능이 있다.⁹⁷⁾

局方至寶丹方중에서 犀角과 麝香은 清熱開竅하니 君藥이 된다. 冰片과 安息香은 芳香開竅하고 辟穢化濁한다. 玳瑁와 牛黃은 清熱解毒한다. 朱砂와 琥珀은 鎮心安神하고 雄黃은 豁痰解毒한다. 이 모든 藥이 합하여 清熱開竅하고 化濁解毒하는 효능이 나타난다.⁹⁸⁾

원문의 내용 중에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倍元蔘’이다. 銀翹散속에 元蔘이란 약물

91) 全國韓醫科大學 本草學教授 共編著. 本草學. 서울. 圖書出版永林社. 1998. p.192. “滋陰清熱, 解毒滑腸”

92) 全國韓醫科大學 本草學教授 共編著. 本草學. 서울. 圖書出版永林社. 1998. p.189. “涼血止血, 瀉火解毒, 安神定驚”

93) 全國韓醫科大學 本草學教授 共編著. 本草學. 서울. 圖書出版永林社. 1998. p.191. “清熱涼血, 養陰生津”

94) 全國韓醫科大學 本草學教授 共編著. 本草學. 서울. 圖書出版永林社. 1998. p.193.

95) 全國韓醫科大學 本草學教授 共編著. 本草學. 서울. 圖書出版永林社. 1998. p.204.

96) 李範九, 朴贊斗 譯編. 方劑學. 서울. 대성의학사. 2000. p.475.

97) 李範九, 朴贊斗 譯編. 方劑學. 서울. 대성의학사. 2000. p.478.

98) 李範九, 朴贊斗 譯編. 方劑學. 서울. 대성의학사. 2000. p.480.

이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元蓼을 倍로 한다.’고 해석하면 잘못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석해야 할 것인가? 앞에 있는 生地黃, 牡丹皮, 大靑葉을 加하고 玄蓼도 加하되 앞에 있는 약물보다 양을 더 늘려서 사용해야 한다고 보면 되는 것이다.

또 한 가지는 ‘禁升麻, 柴胡, 當歸, 防風, 羌活, 白芷, 葛根, 三春柳’란 부분이다. 發疹을 치료할 때에는 升麻와 그 이하의 藥들을 禁해야 한다는 뜻이다. 當歸⁹⁹, 防風¹⁰⁰, 羌活¹⁰¹, 白芷¹⁰²는 辛溫한 약물로 당연히 사용을 피해야 한다. 升麻¹⁰³와 柴胡¹⁰⁴는 涼한 性味로 당연히 사용할 수 있다. 紫雪丹속에 升麻를 一斤이나 사용하는 것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는 것이다. 葛根¹⁰⁵과 三春柳¹⁰⁶는 性味가 平하면서도 透疹하는 효능이 있어서 당연히 사용할 수 있다. 升麻, 柴胡, 葛根, 三春柳는 이미 透疹된 후에는 사용하기 힘들다. 透疹되기 전에 사용하여야 한다.

17) 邪入心包하여, 舌蹇肢厥⁽¹⁾이면, 牛黃丸主之하며, 紫雪丹亦主之라.

99) 江蘇新醫學院. 中藥大辭典.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94. p.876. ‘當歸는 甘辛溫하고 補血和血, 調經止痛, 潤燥滑腸하는 효능이 있다. 濕阻中滿한 者는 복용을 삼간다.’
 100) 江蘇新醫學院. 中藥大辭典.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94. p.985. ‘防風은 辛甘溫하며 發表祛風, 腥濕止痛하는 효능이 있다. 血虛癱急 혹은 頭痛이 風邪로 인하지 않은 者는 복용을 삼간다.’
 101) 江蘇新醫學院. 中藥大辭典.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94. p.1172. ‘羌活은 辛苦溫하고 散表寒, 祛風濕, 利關節하는 효능이 있다. 血虛痺痛에는 복용을 삼간다.’
 102) 江蘇新醫學院. 中藥大辭典.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94. p.677. ‘羌活은 辛苦溫하고 散表寒, 祛風濕, 利關節하는 효능이 있다. 血虛痺痛에는 복용을 삼간다.’
 103) 江蘇新醫學院. 中藥大辭典.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94. p.451. ‘升麻는 甘辛微苦涼하고 升陽發表透疹解毒의 효능이 있다. 麻疹已透者는 복용을 피한다.’
 104) 江蘇新醫學院. 中藥大辭典.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94. p.1832. ‘柴胡는 苦涼하고 和解表裏, 疏肝升陽하는 효능이 있다. 眞陰虧損, 肝陽上升한 者는 복용을 삼간다.’
 105) 江蘇新醫學院. 中藥大辭典.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94. p.2307. ‘葛根은 甘辛平하고 升陽解肌, 透疹止瀉, 除煩止渴하는 효능이 있다.’
 106) 江蘇新醫學院. 中藥大辭典.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94. p.1533. ‘三春柳의 다른 이름은 檉柳로 되어 있으며, 三春柳는 甘寒平하고 疏風解表, 利尿解毒하는 효능이 있다. 麻疹이 透疹되기 어려운 것을 치료한다.’

厥은 盡의 뜻이다. 陰陽이 지극히 한쪽으로 치우치면 모두 厥을 초래할 수 있다. 傷寒의 厥은 足厥陰의 病이다. 溫熱의 厥은 手厥陰의 病이다. 舌卷과 囊縮은 비록 모두 厥陰證일지라도 요약하면 舌은 手에 속하고 囊은 足에 속한다. 대개 舌은 心竅이고 心包絡은 心을 대신해서 일을 처리하며, 腎囊의 앞과 뒤는 모두 肝經이 지나가는 곳으로 陰陽의 두 厥을 하나로 혼동해서는 陶節庵이 “四肢厥冷이 이미 팔꿈치와 무릎을 超過하면 반드시 陰寒證에 속한 것이다”고 해서 제멋대로 大熱한 方藥을 사용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熱厥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 邪氣가 心包絡을 침범한 것이 많고 陽明證은 비교적 적은 것으로 芳香開竅를 취해서 치료하는데, 본 條文이 말한 바가 이것이다; 邪氣가 陽明을 疇박하면 陽明腑實證을 이루어 邪熱이 心包로 치밀어 올라 神志昏迷, 四肢厥冷하고 심지어는 全身이 모두 厥冷해지는데, 이때는 마땅히 下法을 취해야 한다. 이는 中焦편에 실려 있다; 熱病에 걸린지 오래되어 邪氣가 陰液을 극도로 虧虛해서 厥이 나타나는 것은, 育陰潛陽法을 취하는데, 이는 下焦편에 실려 있다.

牛黃丸, 紫雪丹方 (모두 앞에 있다)

厥者, 盡也, 陰陽極造其偏, 皆能致厥. 傷寒之厥, 足厥陰病也. 溫熱之厥, 手厥陰病也. 舌卷囊縮, 雖同系厥陰現証, 要之舌屬手, 囊屬足也. 蓋舌爲心竅, 包絡代心用事, 腎囊前後, 皆肝經所過, 斷不可以陰陽二厥混而爲一, 若陶節庵所云: “冷過肘膝, 便爲陰寒”, 恣用大熱. 再熱厥之中亦有三等: 有邪在絡居多, 而陽明証少者, 則從芬香, 本條所雲是也; 有邪搏陽明, 陽明太實, 上沖心包, 神迷肢厥, 甚至通體皆厥, 當從下法, 本論載入中焦篇; 有日久邪殺陰虧而厥者, 則從育陰潛陽法, 本論載入下焦篇.

【字句解】

(1) 肢厥: 肢冷이다. 肢厥에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陰寒이 盛해서 일으킨 肢冷으로 寒厥을 말함; 다른 하나는 熱邪가 盛하고 陽氣는 안에서 鬱滯되어 外達할 수 없어서 일으키는 肢冷으로 陽厥을 말하는데,

陽厥은 비록 肢冷하지만 胸腹은 灼熱한다. 여기에서의 肢厥은 陽厥을 말한다.

【考察】

본 조문은 病의 進行과정중에 邪氣가 心包로 깊이 들어가는 證治를 제시한 것이다.

心은 神明을 주관하고 혀로 구멍이 열리니, 邪氣에 의해 心包가 손상을 받은 것이니, 病이 가벼우면 혀의 원활하지 못함과 四肢厥冷이 나타나고 病이 심각하면 神志昏迷하게 된다. 실질적으로 내부에서는 熱로 가득 차 있으니 陽氣가 밖으로 펼칠 수 없어서 四肢厥冷이 나타나는 것으로, 이는 하나의 假寒인 것이다. 치료는 앞 조문과 마찬가지로 清心解熱, 芳香開竅하여야 하고, 處方은 安宮牛黃丸이나 紫雪丹을 써서 치료할 수 있다.

- 18) 溫毒咽痛喉腫, 耳前耳后腫, 頰腫, 面正赤⁽¹⁾, 或喉不痛, 但外腫, 甚則耳聾을, 俗名大頭溫, 蝦蟆溫者라 하니, 普濟消毒飲去柴胡, 升麻主之인데, 初起一, 二日, 再去芩, 連하고, 三, 四日加之佳라.

溫毒이라는 것은 穢濁의 氣를 感受 받아서 얻은 것이다. 무릇 地上의 穢濁의 氣가, 少陽의 升發하는 氣에 의존하지 않으면 스스로 上升할 수 없으니 봄과 여름에는 地氣가 升發外泄하는 계절이므로 이 계절에 溫毒이 많다. 다만 가을과 겨울에 간혹 地氣가 內藏할 수 없는 때가 있기도 해서 간혹 溫毒이 발생할 수도 있는 사람이 평소에 少陰인 腎水가 부족하면, 위로 少陽을 救濟할 수 없으니, 少陽이 위로 솟구쳐서 억제할 수 없게 되어 이러한 체질의 사람도 本病이 쉽게 발생할 수 있다. 小兒의 체질은 純陽에 속하여 火氣가 비교적 旺盛하니, 陰液이 충분히 자라지 못하면 小兒도 비교적 이 病을 쉽게 앓는다. 咽喉痛症은 『內經』에서 “一陰一陽結, 謂之喉痺”¹⁰⁷⁾라고 하였으니, 대개 少陰과 少陽의 經脈은 모두 喉嚨을 지나는

데 그 중 少陰은 君火에 속하고, 少陽은 相火에 속해서, 兩者가 결합해서 질병을 일으킨 것이다. 앞과 귀 뒤와 뺨 앞이 붓는 원인은 모두 少陽經脈이 지나가는 때문이니, 頰車라는 혈 자리가 비록 陽明經위에 있을 지라도 足少陽經脈과도 아주 가깝다. 얼굴색이 赤色인 것은 火毒이 上炎한 것이다. 심한 경우에 耳聾이 발생할 수도 있는 것은 手少陽과 足少陽의 經脈이 모두 귓속으로 순행하기 때문에, 만약에 少陽의 火가 盛하면 清竅가 막혀서 耳聾을 발생시킬 수 있다. 本病의 치료는, 결코 李東垣의 普濟消毒飲을 벗어나지 않는다. 이 方의 妙味는 涼膈散¹⁰⁸⁾이 주가 되는데, 가볍게 清氣해서 穢濁의 氣를 去하는 馬勃, 白僵蠶, 金銀花를 加하여 가벼운 것으로 實한 것을 없애는데 묘미가 있다. 다시 元蓼, 牛蒡子, 板藍根¹⁰⁹⁾을 加하여 清熱解毒하고 肺氣를 이롭게 하고 補腎水하여 위로 邪火를 去하며, 柴胡, 升麻를 제거하는 이유는, 本病은 少陽의 升發이 過度하기 때문에 발생된 것이므로 다시 上升하는 약을 쓰는 것은 적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은 升麻와 柴胡를 사용한 것을 引經藥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는 아주 어리석은 생각이다. 무릇 藥이라는 것은 도달하고자 하는 부위에 직접 도달할 수 없는 경우에야 비로소 引經藥을 써서 引導하는데, 本方중에서 사용하는 藥物의 성질은 기본적으로 가벼워서 위로 뜨는 것이어서, 모두 上焦로 上行할 수 있고, 天氣를 열어주고 肺氣를 宣通하는 작용을 일으키니, 어떻게 升麻, 柴胡를 써서 引經藥으로 삼을 필요가 있겠는가? 黃芩, 黃連을 去하는 이유는 黃芩과 黃連은 邪熱이 裏에 있는 것을 치료하는 약물이니, 本病의 초기에 病邪가 中焦氣分에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裏藥을 다스리는 藥을 일찍 사용할 필요가 없으며, 裏藥을 사용하면 中焦를 犯하게 된다.

普濟消毒飲去升麻柴胡黃芩黃連方

連翹 一兩 薄荷 三錢 馬勃 四錢 牛蒡子 六錢 芥穗 三錢 僵蠶 五錢 元蓼 一兩 銀花 一兩 板

108) 李範九, 朴贊斗 譯編. 方劑學. 서울. 대성의학사. 2000. p.179. “川大黃朴硝甘草各二十兩, 山梔子仁薄荷黃芩各十兩, 連翹二斤半”

109) 全國韓醫科大學 本草學教授 共編著. 本草學. 서울. 圖書出版永林社. 1998. p.205. “清熱解毒, 涼血, 利咽”

107) 素問研究集成刊行委員會 編. 素問研究集成 卷一. 대구. 金星印刷社. 2001. p.259.

藍根 五錢 苦梗 一兩 甘草 五錢

위의 약들을 가루 내어 매번 六錢을 복용하고 病이 重하면 八錢을 복용한다. 鮮蘆根湯으로 달여서 찌꺼기는 버리고 대략 4시간에 한 번씩 복용하되 病이 重한 자는 2시간에 한 번씩 복용한다.

瘟毒者, 穢濁也. 凡地氣之穢, 未有不因少陽之氣而自能上升者, 春夏地氣發泄, 故多有是証; 秋冬地氣, 間有不藏之時, 亦或有是証; 人身之少陰素虛, 不能上濟少陽, 少陽升騰莫製, 亦多成是証; 小兒純陽火多, 陰未充長, 亦多有是証. 咽痛者, 經謂“一陰一陽結, 謂之喉痺”. 蓋少陰少陽之脈, 皆循喉嚨, 少陰主君火, 少陽主相火, 相濟爲災也. 耳前耳後頰前腫者, 皆少陽經脈所過之地, 頰車不獨爲陽明經穴也. 面赤者, 火色也. 甚則耳聾者, 兩少陽之脈, 皆入耳中, 火有余則清竅閉也. 治法總不能出李東垣普濟消毒飲之外. 其方之妙, 妙在以涼膈散爲主, 而加化清氣之馬勃, 僵蠶, 銀花, 得輕可去實之妙; 再加元參, 牛蒡, 板藍根, 敗毒而利肺氣, 補腎水以上濟邪火; 去柴胡, 升麻者, 以升騰飛越太過之病, 不當再用升也, 說者謂其引經, 亦甚愚矣; 凡藥不能直至本經者, 方用引經藥作引, 此方皆系輕藥, 總走上焦, 開天氣, 肅肺氣, 豈須用升, 柴直升經氣耶? 去黃芩, 黃連者, 芩連裡藥也, 病初起未至中焦, 不得先用裡藥, 故犯中焦也.

普濟消毒飲去升麻柴胡黃芩黃連方
連翹 (一兩) 薄荷 (三錢) 馬勃 (四錢) 牛蒡子 (六錢) 芥穗 (三錢) 僵蠶 (五錢) 元參 (一兩) 銀花 (一兩) 板藍根 (五錢) 苦梗 (一兩) 甘草 (五錢)
上共爲粗末, 每服六錢, 重者八錢. 鮮葦根湯煎, 去渣服, 約二時一服, 重者一時許一服.

【字句解】

(1) 正赤: 正은 치우치지 아니함의 뜻. 正赤은 열은 紅色도 아니고 또한 진한 紫紅色도 아닌 순수한 紅色을 말함.

【考察】

본 조문은 溫毒의 名稱과 證治를 제시한다.

吳鞠通은 ‘溫毒은 穢濁’이라고 하여, 溫毒의 개념을 명확히 하였다. 먼저 病의 원인을 溫邪로 규정하였고, 溫毒은 봄여름에 많이 發病한다고 하였다. 봄과 여름에 少陽의 氣가 升發한 것이 원인이라고 보았다. 사람의 체질에 있어서, 腎水가 不足한 체질은 솟구치는 少陽을 억제할 수 없어서 溫毒에 걸린다고 하였다. 小兒는 火氣가 旺盛하기 때문에 이 病에 많이 걸린다고 보았다. 吳鞠通은 溫毒이 걸리는 유형을 두 가지로 나누었다. 그 중 하나는 귀 앞과 귀 뒤와 뺨 앞이 붓고 얼굴색이 赤色인 것이고, 다른 하나는 喉部는 아프지 않은데 다만 뺨 부위만 붓는데 심하면 耳聾이 발생하는 것이다. 이 두 가지는 모두 流行性 질환으로서 두 가지 모두 바이러스가 頭面部를 感染시켰기 때문에, 治法은 모두 清熱解毒, 散結解表를 爲主로 하여야 하고 處方은 普濟消毒飲去升麻柴胡黃芩黃連方을 써야한다.

普濟消毒飲去升麻柴胡黃芩黃連方중에서 牛蒡子, 連翹, 銀花, 荊芥, 僵蠶은 머리와 얼굴의 風熱을 辛涼疏散한다. 元參, 板藍根, 馬勃은 위로 가서 清熱解毒하고 薄荷, 荊芥는 利咽解表하고 甘草와 桔梗을 배합하여 清利咽喉한다. 모두 清熱解毒, 利咽解表하는 효능을 가져온다.¹¹⁰⁾

升麻와 柴胡를 去한 것은 病이 上部에 있으며 모든 약물의 藥性이 가벼워서 위로 뜨기 때문에 引經藥인 升麻와 柴胡를 사용할 필요가 없다고 본 것이다. 黃連과 黃芩을 去한 것은 이 약들이 中焦를 칠 수 있으며 病의 초기에는 病邪가 上焦에 있으니 사용하더라도 病의 초기에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본 것이다.

19) 溫毒外腫은, 水仙膏主之하며, 并主一切癰瘡이라.

살펴 보건데: 水仙花는 가을과 겨울의 金水의 精氣를 받아서 자라는 것으로 한겨울에 꽃을 피운다. 水仙의 뿌리는 맛은 쓰고 약간 매우며 寒性이고 滑하고 毒이 없다. 苦는 火를 내려서 敗毒하고 辛은 邪熱이

110) 李範九, 朴贊斗 譯編. 方劑學. 서울. 대성의학사. 2000. p.178.

맺힌 것을 풀어주고 寒은 熱을 이길 수 있고 滑은 痰을 이롭게 할 수 있다. 그 妙用은 전적으로 阿膠와 같은 끈끈한 汁이 毒을 밖으로 뽑아내어 毒邪로 하여금 臟腑 깊숙이 들어가 사람을 傷하지 않게 하는데 있다.

水仙膏方

水仙花¹¹¹⁾의 뿌리를 수량에 상관없이 붉은 뿌리와 수염뿌리를 제거하고서 돌절구에 찧어서 膏처럼 만들어 腫한 곳에 붙이는데, 하나의 구멍을 만들어서 熱氣가 빠져나가도록 하며 마르면 바꾸고 肌膚上에 가장쌀만한 크기의 누런 瘡이 생기는 것으로 限度를 삼는다.(누런 瘡이 생기면 붙이지 않는다)

按：水仙花得金水之精，隆冬開花，味苦微辛，寒滑無毒，苦能升火敗毒，辛能散邪熱之結，寒能勝熱，滑能利痰，其妙用全在汁之膠粘，能拔毒外出，使毒邪不致深入臟腑傷人也。

水仙膏方

水仙花根，不拘多少，剝去老赤皮與根須，入石臼搗如膏，敷腫處，中留一孔出熱氣，干則易之，以肌膚上生黍米大小黃瘡爲度。

【考察】

본 조문은 溫毒外腫하는 治法을 제시한다.

溫毒으로 外腫할 때에 水仙膏를 붙이고 아울러 중간에 하나의 작은 구멍을 만든다. 이렇게 하면 毒을 밖으로 뽑아내고 邪氣가 안으로 들어와서 臟腑를 손상시키는 것을 막는데, 肌膚上에 가장쌀만한 누런 瘡이 나타날 때는 溫毒이 이미 밖으로 나오는 것을 상징하니, 이때는 붙여서는 안 된다. 이 때 붙이면 肌膚가 문드러지게 된다. 이 溫毒을 치료하는 外用法은 內外合治를 해야 치료효과가 아주 뛰어나다.

水仙花根은 맛이 苦微辛하고 性은 寒하여 毒이 있으며 效능은 清熱解毒하고 散結消腫하므로, 膏로 만들거나 찧어서 즙을 내어 本病에 붙인다. 아울러 일체의 癰腫의 外用藥으로 만들어서 사용하는데 절대로 內服해서는 안 된다.¹¹²⁾

20) 溫毒敷水仙膏後에，皮間有小黃瘡如黍米者면，不可再敷水仙膏하고，過敷則痛甚而爛이니，三黃二香散主之라.

三黃二香散중에서 三黃은 모든 火를 강하게 瀉해서 皮膚를 문드러지지 않게 하는 것을 취한 것이고, 二香은 絡中에 있는 餘熱을 빠져나가게 해서 痛증을 그치게 한다.

三黃二香散方(苦辛芳香法)

黃連 一兩 黃柏 一兩 生大黃 一兩 乳香 五錢 沒藥 五錢

위의 약들을 곱게 갈아서 처음에는 細茶汁으로 개어서 붙이되, 마르면 바꾸고 뒤이어서는 菴기름으로 개어서 붙인다.

三黃取其峻瀉諸火，而不爛皮膚，二香透絡中余熱而定痛。

三黃二香散方

(苦辛芳香法) 黃連 (一兩) 黃柏 (一兩) 生大黃 (一兩) 乳香 (五錢) 沒藥 (五錢)

上爲極細末，初用細茶汁調敷，干則易之，繼則用香油調敷。

【考察】

본 조문은 溫毒外治法의 표준과 外用藥의 징후와 治法을 제시한다.

溫毒은 水仙膏外用藥을 사용한 뒤에 皮膚에 가장쌀만한 크기의 누런 瘡을 가장 좋은 표준으로 삼는데, 이때는 더 이상 붙여서는 안 되며 만약에 계속해서 사용하면 國부가 痛증이 심할 뿐만 아니라 문드러지기까지 한다. 證은 火熱之毒에 속하고 治法은 清熱瀉火解毒, 生肌止痛하여야 하고 처방은 三黃二香散을 사용한다.

處方중의 黃連, 黃柏, 大黃은 清熱解毒燥濕하고; 乳香, 沒藥은 活血止痛, 消腫生肌한다¹¹³⁾. 모든 藥이 서

111) 江蘇新醫學院., 中藥大辭典.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94. p.525. “祛風除熱, 活血調經”

112) 江蘇新醫學院., 中藥大辭典.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94. p.526.

113) 全國韓醫科大學 本草學教授 共編著. 本草學. 서울. 圖書

로 조화를 이루어 淸熱解毒, 生肌止痛하는 효능이 뛰어나다.

21) 溫毒神昏譫語者면, 先與安宮牛黃丸, 紫雪丹之屬, 繼以淸宮湯이라.

安宮牛黃丸, 紫雪丹, 淸宮湯(處方과 治法이 모두 앞에 있다)

安宮牛黃丸, 紫雪丹, 淸宮湯 (方法並見前) 「目錄」卷一上焦篇

【考察】

본 조문은 溫毒이 心包에 內陷하는 證治를 제시한다. 溫毒의 邪氣가 心包에 內陷해서 神明이 교란되면 神昏譫語하는 증상이 나타나는데, 치료에 있어서 먼저 安宮牛黃丸, 紫雪丹을 복용하고 그 후에 淸宮湯을 계속해서 복용한다. 그런데 이 조문이 16조중 太陰溫病의 神昏譫語를 淸宮湯으로 치료하고 그 후에 牛黃丸, 紫雪丹, 局方至寶丹으로 치료하는 것과, 服用法상 先後를 달리하는 것은 무슨 이유인가? 왜냐하면 溫毒이 심하여 心竅가 急하게 막히니, 涼開救急이 우선이다. 이것이 먼저 安宮牛黃丸, 紫雪丹을 준 후에 이어서 心宮의 熱을 식히는 淸宮湯을 주는 원인이다. 16조는 心竅가 막힘이 急한 상황은 아니므로 淸宮湯을 먼저 준 후에 牛黃丸, 紫雪丹, 局方至寶丹을 준 것이다.

2. 暑溫

1) 形似傷寒이나, 但右脈洪大而數, 左脈反小于右, 口渴甚, 面赤, 汗大出者를, 名曰暑溫인데, 在手太陰이니, 白虎湯主之하고; 脈扞甚者면, 白虎加人蔘湯主之라. 이 조문은 暑溫의 證治의 大綱을 표시한 것이다. 살펴 보면 溫은 熱의 시작이고 熱은 溫이 최고조가

지 발전한 것이다. 溫이 盛해서 熱이 되는 것은 木이 火를 生하는 것이 된다. 熱이 극성하면 濕이 動하는데 이는 火가 土를 生하는 것이 위는 熱하고 아래는 濕한 곳에 사람이 살면 暑邪를 感受받아서 暑病이 생긴다. 만약 火熱의 邪氣만을 感受받을 뿐 濕邪를 겸하지 않으면, 여전히 앞에서 말한 溫熱病의 부류에 속하니 이러한 병증을 暑病과 같은 것으로 볼 수 없을 수 없다. 조문에서 말한 ‘形似傷寒’은 暑溫의 초기를 가리킨 것으로 頭痛, 身痛, 發熱惡寒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 것이다. 火와 水는 성질이 완전히 다르나, 다만 이 두 가지가 최고조에 달해서는 도리어 비슷한 점이 생긴다. 그래서 『內經』에서는 水가 極하면 火와 비슷해지고, 火가 極하면 水와 비슷하다고 말했다. 傷寒은 水寒의 氣에 손상된 것이니, 먼저 惡寒이 나타난 뒤에 發熱하는데, 이러한 發熱은 寒邪가 사람의 衛陽의 氣를 鬱閉시키니 衛陽이 發泄할 수 없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므로 그래서 張仲景의 『傷寒論』중에 “已發熱或未發”이란 문장¹¹⁴⁾이 있다. 만약 傷暑하면 먼저 發熱하고 熱이 극성한 뒤에 惡寒이 나타나니 이는 대개 火가 盛하면 반드시 金을 克하고, 肺의 성질은 본래 寒하니 熱이 최고조에 달한 뒤에 惡寒이 나타나는 것이다. 이로부터 알 수 있는 것은, 暑邪에 傷한 것과 傷寒은 비록 모두 發熱과 惡寒이 있을 지라도, 다만 이러한 증상이 나타나는 원인은 서로 같지 않은 것이다. 醫學을 배우는 사람이 이것을 정성껏 연구할 수 있으면 깨닫는 바가 많게 된다. 脈은 洪大하면서 數脈이 나타나고 심하면 脈이 扞脈이 나타나는 것은, 이는 傷寒의 초기에 나타나는 浮緊脈과 상대적으로 말한 것이다. 脈이 洪大하면서 數한 것이 주로 右手에 나타난다고 한 것은 이는 傷寒에서의 左手脈이 大脈인 것에 상대적으로 말한 것으로, 右手는 上焦의 氣分을 주관하고, 右脈이 洪大하면서 數한 것은 火가 金을 克한 것으로, 暑邪가 口과 코로부터 吸入되니 病變은 위로부터 아래로 발전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傷寒은 寒邪가 먼저 足太陽膀胱經을 침범한 것이니 病變은 아래로부터 위로 발전한다. 左手는

114) 傷寒論研究會 編. 傷寒論講義. 서울. 圖書出版 鼎談. 1997. p.33. “太陽病, 或已發熱, 或未發熱, 必惡寒, 體痛, 嘔逆, 脈陰陽俱緊者, 名爲傷寒”

出版永林社. 1998. pp.411-412.

주로 下焦血分의 病變을 반영한 것이다. 그래서 暑邪에 感受받은 뒤에 下焦血分까지 영향을 미치지 못하면 左脈이 右脈보다 작다. 暑邪에 感受받아서 口渴이 심하고 얼굴이 붉은 것은, 傷寒의 太陽證에서의 얼굴이 붉지 않고 渴症이 나지 않는 것에 상대적으로 말한 것이다. 火가 津液을 태우므로 口渴이 생기고 火가 심하면 煩이 생기지 않는 경우가 없으니 얼굴이 붉은 것은 煩이며 煩字는 火뒤에 頁字가 따른 것이니 火가 얼굴에 나타난 것을 이르는 것이다. 조문에서 말한 땀이 많이 나는 것은 傷寒의 땀이 나지 않는 것에 상대적으로 말한 것이다. 暑溫病의 치료에 대해서는 먼저 白虎湯을 예로 들었는데, 이는 대개 白虎는 秋金의 氣로서 煩暑를 물리칠 수 있기 때문에 白虎湯이 暑病을 치료하는 代表方이 된 것이다. 白虎湯이 暑病을 치료하는 근원은 『金匱要略』에서 비롯되었으니, 앞선 聖賢이 이룬 방법을 따른 것이다.

白虎湯, 白虎加人參湯方(앞에 나와 있음)

此標暑溫之大綱也。按溫者熱之漸，熱者溫之極也。溫盛爲熱，木生火也。熱極濕動，火生土也。上熱下濕，人居其中而暑成矣。若純熱不兼濕者，仍歸前條溫熱例，不得混入暑也。形似傷寒者，謂頭痛，身痛，發熱惡寒也。水火極不同性，各造其偏之極，反相同也。故經謂水極而似火也，火極而似水也。傷寒，傷於水氣之寒，故先惡寒而後發熱，寒郁人身衛陽之氣而爲熱也，故仲景『傷寒論』中，有已發熱或未發熱之文。若傷暑則先發熱，熱極而後惡寒，蓋火盛必克金，肺性本寒，而復惡寒也。然則傷暑之發熱惡寒雖與傷寒相似，其所以然之故實不同也，學人誠能究心於此，思過半矣。脈洪大而數，甚則芤，對傷寒之脈浮緊而言也。獨見於右手者，對傷寒之左脈大而言也，右手主上焦氣分，且火克金也，暑從上而下，不比傷寒從下而上，左手主下焦血分也，故傷暑之左脈反小於右。口渴甚面赤者，對傷寒太陽証面不赤，口不渴而言也；火燄津液，故口渴，火甚未有不煩者，面赤者，煩也，煩字從火後頁，謂火現於面也。汗大出者，對傷寒汗不出而言也。首白虎例者，蓋白虎乃秋金之氣，所以退煩暑，白虎爲暑溫之正例也。

其源出自『金匱』，守先聖之成法也。
白虎湯，白虎加人參湯方（並見前）

【考察】

본 조문은 上焦暑溫의 證治와 暑溫初起와 傷寒初起가 다른 것을 제시한다.

여름의 暑熱은 暑가 반드시 濕을 겸한 것으로 溫이 盛하면 熱이 되고 熱이 극에 달하면 濕이 動한다. 그래서 暑는 대부분 濕을 끼고 와서 精氣를 傷하기 쉽다. 다만 暑證이 반드시 濕을 겸하는 것만은 아니다.

吳鞠通이 形似傷寒을 얘기한 것은, 暑熱이 나타나기 시작한 暑溫초기에는 頭痛, 身痛, 高熱, 惡寒 등의 증상을 傷寒으로 잘못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설명한 것이다. 暑溫초기의 頭痛, 身痛, 高熱, 惡寒을 傷寒으로 잘못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形似란 단어를 사용한 것이다. 發熱惡寒의 증상이 있는 후에, 계속해서 脈은 洪大하면서 數하고, 口渴이 아주 심하고, 얼굴이 붉고, 땀이 많이 나는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 것이 暑溫의 특징이다. 그래서 暑溫은 手太陰에 있고 暑熱氣分證에 속하고 治法은 清熱生津하여야 하고 처방은 白虎湯을 사용한다. 暑가 비록 濕을 겸했을지라도 濕이 적고 熱이 주가 되는 경우에는, 熱이 물리거나 熱을 따라 濕도 물리므로 白虎湯만을 써서 다스린다. 芤脈은 血이나 陰이 손상되었을 때 나타나는 대표적인 脈象으로, 芤脈이 심하다는 것은 땀이 나와서 津液이 손상되었으니¹¹⁵⁾, 證은 暑傷氣陰에 속하고 治法은 清暑益氣生津하여야 하고 처방은 白虎加人參湯을 사용한다. 吳鞠通이 ‘聖賢의 관습을 따른다.’고 한 것은, 張仲景의 學術思想을 계승한다는 뜻이며, 白虎加人參湯은 『金匱要略·痙濕喝病脈并治篇』¹¹⁶⁾에 실려 있다.

23) 『金匱』謂太陽中暍⁽¹⁾, 發熱惡寒, 身重而疼痛, 其脈弦細芤遲, 小便已, 洒然毛聳⁽²⁾, 手足逆冷, 小有勞, 身則

115) 李鳳教 編著. 漢方診斷學 四診. 서울. 成輔社. 1986. p.225.

116) 大塚敬節 主講. 金匱要略講話. 원주. 醫方出版社. 2004. p.77.

熱，口開前板齒⁽³⁾燥라，若發其汗이면，則惡寒甚하고，加溫針이면，則發熱甚하니，數下이면，則淋甚이니，可與東垣清暑益氣湯이라.

張石頑⁽⁴⁾이 『金匱要略』을 注解한 것에, 太陽中喝에 發熱惡寒하고 몸이 무겁고 아픈 것은 무더운 여름에 風露의 邪氣에 傷한 것으로 이는 手太陽小腸經의 標證이다. 手太陽小腸經은 火에 속하며 위로는 心包와 相應하는데 이 두 經이 모두 金을 억제하고 肺를 태울 수 있으니 肺金이 火刑을 받으면 發熱惡寒이 나타나 傷寒病초기의 足太陽病證과 서로 비슷하다. (다만 脈象이 傷寒초기의 浮緊脈이 아니고) 그 脈이 弦細하거나 혹은 紮遲하며 소변이 끝날 때 터럭이 오싹 오싹 솟는데 이는 邪熱이 肺胃의 氣를 손상한 것으로 陽明의 本證이다. 發汗해서 곧 惡寒이 심해지는 것은, 暑邪로 氣가 손상된 환자에 대해 다시 辛溫發汗法을 사용해서 거듭 津液을 빼앗기 때문이다. 溫鍼을 놓으면 發熱이 더욱 심해지는 것은, 溫鍼의 火熱이 經脈중의 陰液을 거듭 손상시키고 아울러 邪熱을 助長했기 때문에 이로부터 火熱로 하여금 밖에서 亢盛하게 했기 때문이다. 여러 차례 攻下해서 小便頻數하는 淋證이 심한 것은, 체내에 있는 陰液을 크게 손상시키고 동시에 邪熱이 虛한 틈을 타서 裏로 깊이 들어갔기 때문이다. 『金匱要略』의 이 원문은 본래 處方이 없는데 李東垣이 특별히 清暑益氣湯을 만들어서 張仲景이 책에서 언급하지 못한 부분을 보충하기에 충분하다. 내가 살펴 보건데, 張石頑이 상술한 說法은 너무 지나치다. 張仲景이 『金匱要略』을 저술할 당시에 반드시 方劑를 만들지 않은 것도 있고 일찍이 處方을 세웠는데 후세에 빠졌을 수도 있어서 모두 알 수는 없지만 다만 어찌 李東垣이 이 病證에 대해 處方을 세울 수 있고 張仲景은 오히려 處方을 세울 수 없단 말인가? 단 이證을 자세히 살펴 보건데 清暑益氣湯을 주는 것이 맞다. 써볼만하다고 말하는 것은 단지 쓸 수는 있지만 완전하지는 못함을 뜻하는 것으로 이證을 만나는 자는 臨床에서 잘 헤아려서 완전무결하게 하기를 바란다. 沈日南⁽⁵⁾이 『金匱要略注』에서 제시한 바에 따르면, 이러한 병증에 대해서는 마땅히

辛涼甘寒法을 써야 한다고 했는데 실로 이證과는 맞지 않는다. 왜냐하면 대개 身重疼痛하는 것은 寒濕을 겸한 것이다. 즉 沈日南이 스스로 注를 달기를, 發熱惡寒身重疼痛하고 脈이 弦細紮遲하는 것은 內暑에 陰濕을 동시에 겸한 변증이라 하였다. 어찌 陰濕에 대해서 甘寒한 약물을 사용해서 柔함으로써 柔함을 구제하는 이치가 어디 있겠는가? 陰濕이라고 말한 이상, 어찌 辛한 방제로 다스릴 수 있겠는가? 더 이상 가려내지 않아도 自明하다.

清暑益氣湯方(辛甘化陽酸甘化陰復法)

黃芪 一錢 黃柏 一錢 麥冬 二錢 青皮 一錢 白朮 一錢五分 升麻 三分 當歸 七分 炙草 一錢 神曲 一錢 人蔘 一錢 澤瀉 一錢 五味子 八分 陳皮 一錢 蒼朮 一錢五分 葛根 三分 生薑 二片 大棗 二枚

물 다섯 잔을 달여서 두 잔이 되게 하고 찌꺼기는 다시 달여 한잔이 되게 하여서 세 번으로 나누어서 따뜻하게 복용한다. 虛한 경우에는 적당하나 實한 경우에는 쓸 수 없다. 땀이 나지 않고 단지 熱만 있는 경우에도 쓸 수 없다.

張石頑注：謂太陽中，發熱惡寒身重而疼痛，此因暑而傷風露之邪，手太陽標証也。手太陽小腸屬火，上應心包，二經皆能製金燻肺，肺受火刑，所以發熱惡寒似足太陽証。其脈或見弦細，或見紮遲，小便已，洒然毛聳，此熱傷肺胃之氣，陽明本証也(愚按：小便已，洒然毛聳，似乎非陽明証，乃足太陽膀胱証也。蓋膀胱主水，火邪太甚而製金，則寒水來爲金母復仇也。所謂五行之極，反兼勝已之化)。發汗則惡寒甚者，氣虛重奪(當作傷)其津(當作陽)也。溫針則發熱甚者，重傷經中之液，轉助時火。肆虐於外也。數下之則淋甚者，劫其在裡之陰，熱勢乘機內陷也。此段經文，本無方治，東垣特立清暑益氣湯，足補仲景之未逮，愚按：此言太過。仲景當日，必有不可立方之故，或曾立方而後世脫簡，皆未可知，豈東垣能立而仲景反不能立乎? 但細按此証，恰可與清暑益氣湯，曰可者，僅可而有所未盡之詞，尚望遇是証者，臨時斟酌盡善。至沈日南『金匱要略注』，謂當用辛涼甘寒，實於此証不

合. 蓋身重疼痛, 証兼寒濕也. 即日南自注, 謂發熱惡寒身重疼痛, 其脈弦細攣遲, 內暑而兼陰濕之變也. 豈有陰濕而用甘寒柔以濟柔之理? 既曰陰濕, 豈辛涼所能勝任不待辯而自明.

清暑益氣湯方 (辛甘化陽酸甘化陰復法)

黃 (一錢) 黃柏 (一錢) 麥冬 (一錢) 青皮 (一錢)
白朮 (一錢五分) 升麻 (三分) 當歸 (七分) 炙草 (一錢) 神曲 (一錢) 人參 (一錢) 澤瀉 (一錢) 五味子 (八分) 陳皮 (一錢) 蒼朮 (一錢五分) 葛根 (三分) 生姜 (二片) 大棗 (二枚)
水五杯, 煮取二杯, 渣再煎一杯, 分溫三服. 虛者得宜, 實者禁用; 汗不出而但熱者禁用.

【字句解】

(1) 中噤: 噤은 음이耶이다. 中은 손상당하단의 뜻이고 噤은 熱의 뜻이다. 中噤은 곧 傷熱로써 여름철에 傷暑한 病證이다.

(2) 葷: 뚝바로 세우다, 세우지다의 뜻

(3) 前板齒: 앞니를 가리킴

(4) 張石頑: 清代의 학자, 이름이 璠이고, 字가 路玉이며, 號가 石頑이다. 『張氏醫通』, 『傷寒緒論』 등의 著書가 있다.

(5) 沈目南: 清代의 학자, 이름은 明宗, 字는 目南이다. 『醫微』 등의 著書가 있다.

【考察】

본 조문은 元氣가 본래 虛한데다 暑濕을 끼고 있는 證治 및 誤治가 일으키는 變證을 제시한다.

『金匱要略·痙濕喝病脈證治篇』중에서 “中噤”은 中暑¹¹⁷⁾를 말한다. 惡寒發熱으로 몸이 무거우면서 통증이 있고 脈은 弦細하면서도 攣遲하다. 조금만 움직여도 몸에 熱이 나고 입을 벌리니 아늑이 마른다. 소변을 보고 나면 으슬으슬 떨리면서 털이 곤두서고 手足이 厥冷하는 것이, 이 中噤의 특징이다. 惡寒發熱, 身重疼痛 등의 증상이 있어도 發汗劑로 發汗시켜서 증상을 그치게 하거나 溫鍼을 加하여 發汗시켜 증상을 그치게 하는 것은 좋지 않으며 下劑로 下해서도 안

된다. 發汗을 하면 衛陽이 점차 虛해지고 衛陽이 虛해지면 外寒이 생기므로 惡寒이 심해진다. 溫鍼을 사용하면 燥熱해서 陰을 손상시키므로 發熱은 더욱 심해진다. 下劑로 下하면 眞陽을 손상시켜서 下焦가 冷해지게 하니 氣化가 不行하여서 小便이 淋痛한다. 證은 元氣虛損, 暑溫挾濕, 氣陰兩傷에 속하고 治法은 清熱祛濕, 益氣養陰하여야 하고 처방은 李東垣의 清暑益氣湯을 사용한다.

處方중에서 黃芪, 人參, 白朮, 炙甘草는 益氣健脾하고, 當歸는 人參, 白朮, 黃芪, 炙甘草와 더불어 補氣에 힘쓰고, 麥門冬은 養陰清熱하며, 五味子는 斂陰생진하고, 升麻, 葛根은 清陽의 氣를 올려서 解表하고, 生薑, 大棗는 調和營衛하고, 黃柏, 澤瀉, 蒼朮은 清熱燥濕해서 몸이 무거운 것을 가볍게 하고, 神麩은 醒脾開胃하고, 青皮, 陳皮는 行氣燥濕한다. 모든 藥이 합하여서 清暑益氣, 除濕健脾하는 효능이 나타난다.

清暑益氣湯에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李東垣이 創方한 것이고 하나는 王孟英¹¹⁸⁾이 만든 것으로 이름은 같고 약은 다르니 治證 또한 완전히 같지 않다. 두 가지는 모두 清暑益氣의 작용을 하고 暑病에 氣虛가 兼한 證을 치료한다. 다만 『溫熱經緯』¹¹⁹⁾에서의 清暑益氣湯은 清暑益氣이외에 養陰生津을 兼하고 暑熱이 津液을 傷하게 하고 氣를 消耗한 證에 적당하다. 『脾胃論』¹²⁰⁾에서의 清暑益氣湯은 清暑生津의 힘은 비교적 약하나 健脾燥濕의 기능에 치중하여 元氣가 虛한데 暑濕에 傷한 證을 치료한다.¹²¹⁾

118) 漢醫學大辭典編纂委員會 編. 漢醫學大辭典(醫史文獻編). 서울. 東洋醫學研究院出版部. 1985. p.180. “本명은 王士雄(1808~1866년?), 清代의 저명한 醫家. 자는 孟英, 浙江錢塘人이다. <溫熱經緯>·<霍亂論>·<歸硯錄>의 저작이 있음.”

119) 漢醫學大辭典編纂委員會 編. 漢醫學大辭典(醫史文獻編). 서울. 東洋醫學研究院出版部. 1985. p.174. “書名. 5권. 清代 王孟英이 1852년에 撰함. 권 1~2는 <內經>, <傷寒雜病論>중에서 溫熱病에 관한 論을 撰輯하고, 先人の 注文을 引錄하여 일부 溫熱病의 病原, 證候 및 治法을 설명함.”

120) 漢醫學大辭典編纂委員會 編. 漢醫學大辭典(醫史文獻編). 서울. 東洋醫學研究院出版部. 1985. p.88. “書名. 3권. 金代 李杲의 撰으로, 大約 13世紀에 刊行됨.”

121) 李範九, 朴贊斗 譯編. 方劑學. 서울. 대성의학사. 2000. p.208.

117) 傳統醫學研究所. 韓醫學辭典. 서울. 成輔社. 2004. p.345.

24) 手太陰暑溫에, 如上條證이나, 但汗不出者면, 新加香薷飲主之라.

조문의 내용 중에 證이 앞 조와 같다는 것은, 증상이 傷寒과 유사하고, 右脈은 洪大하고 左手의 脈은 오히려 작고 面赤口渴한 것을 가리켜 말한 것이다. 다만 汗이 스스로 배출되지 않아 表實證인 것이 앞 證과 서로 같지 않으므로 香薷飲을 써서 表에 있는 暑邪를 發散하였다. 살펴 보건데 香薷는 辛溫芳香하여 肺經으로부터 絡脈으로 外達하게 할 수 있다. 鮮扁豆花는 그 芳香性を 취해서 發散하고, 게다가 肺液을 保護할 수 있다. 原方에서는 扁豆를 썼는데 本方에서는 扁豆花로 바꾸어서 사용하는 이유는, 扁豆의 작용이 주로 補脾에 있고 暑濕의 證에 사용하며 성질이 막힘을 싫어하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여름에 자생하는 식물은 대부분 解暑의 작용이 있는데, 그 중에서 오직 扁豆花가 가장 뛰어나다. 만약 꽃이 필 때가 아니어서 扁豆花가 없다면 鮮扁豆皮로 대체하고 만약에 이때도 아니면 生扁豆皮를 쓴다. 厚朴은 苦溫하니 理氣하여 食滿을 泄할 수 있으며, 厚朴은 皮이므로 비록 작용이 주로 中焦에 있을지라도, 結胸에 肺는 皮毛를 주관하므로 말미암아 藥物의 작용이 皮로써 皮를 쫓으니, 厚朴을 사용해서 肺에 작용시킬 수 있으니 上焦를 치료하려다 中焦를 범하는 일이 없게 하였다. 黃連과 甘草는 순전히 裏證을 치료하는 藥이니, 暑病初起에 굳이 쓸 필요가 없으나, 邪氣를 깊이 끌어들이 염려가 있으므로 이로 인해 本方에서는 銀花와 連翹로 바꾸어서 그 辛涼으로 肺經의 表에 도달함을 취하여 순전히 病邪로 하여금 밖을 쫓아 달러가게 하고 굳이 中焦로 달려가지 않게 하였다.

溫病에서는 辛溫의 藥物을 가장 금기시하는데, 다만 暑病에서는 辛溫藥을 禁忌시하지 않는 것은 暑病은 일반적으로 濕을 반드시 겸고, 濕은 陰邪로서 辛溫한 藥을 사용하지 않으면 풀리지 않는다. 이로 인해 新加香薷飲에서 香薷와 厚朴 등은 모두 辛溫한 약이고, 나머지는 辛涼한 藥으로 佐藥이 된다. 아래의 濕溫病의 治療중에서, 辛溫한 藥을 禁忌시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辛熱한 藥도 사용하였다.

新加香薷飲(辛溫復辛涼法)

香薷 二錢 銀花 三錢 鮮扁豆花 三錢 厚朴 二錢 連翹 二錢

물 다섯 잔을 달여서 물 두 잔을 취한다. 먼저 한잔을 마시고 汗이 나면 다음 복용을 중지하고; 汗이 나지 않으면 다시 복용하는데; 다 복용하고도 汗이 나지 않으면 다시 지어서 복용한다.

証如上條, 指形似傷寒, 右脈洪大, 左手反小, 面赤口渴而言. 但以汗不能自出, 表實爲異, 故用香薷飲發暑邪之表也. 按香薷辛溫芳香, 能由肺之經而達其絡. 鮮扁豆花, 凡花皆散, 取其芳香而散, 且保肺液, 以花易豆者, 惡其呆滯也, 夏日所生之物, 多能解暑, 惟扁豆花爲最, 如無花時, 用鮮扁豆皮, 若再無此, 用生扁豆皮. 濃朴苦溫, 能泄食滿, 濃朴皮也, 雖走中焦, 究竟肺主皮毛, 以皮從皮, 不爲治上犯中. 若黃連甘草, 純然裡藥, 暑病初起, 且不必用, 恐引邪深入, 故易以連翹, 銀花, 取其辛涼達肺經之表, 純從外走, 不必走中也.

溫病最忌辛溫, 暑病不忌者, 以暑必兼濕, 濕爲陰邪, 非溫不解, 故此方香薷, 濃朴用辛溫, 而余則佐以辛涼雲. 下文濕溫論中, 不惟不忌辛溫, 且用辛熱也.

新加香薷飲方(辛溫復辛涼法)

香薷(二錢) 銀花(三錢) 鮮扁豆花(三錢) 濃朴(二錢) 連翹(二錢)

水五杯, 煮取二杯. 先服一杯, 得汗止後服; 不汗再服; 服盡不汗, 再作服.

【考察】

본 조문은 暑溫초기에 汗이 없는 證治를 제시한다. ‘如上條證’句에서 上條는 前後상황으로 보아 22조를 가리킨 것으로, ‘但汗不出者’는 22조의 ‘汗大出者’와 상대적으로 말한 것이다. 그래서 上條證에 해당하는 내용은 ‘形似傷寒, 但在脈洪大而數, 左脈反小于右, 口渴甚, 面赤’ 이 된다.

본 조문을 22조와 비교해 보면, 22조는 전형적인 暑溫이므로 清熱한 방법을 사용하여 白虎湯을 사용하였고, 본 조문은 ‘汗이 나지 않는 다’고 한 것으로 보아서 邪氣가 表에 있음을 알 수가 있으며, 條文 전

체적인 내용으로 보아서 暑邪가 濕을 낀 것으로, 治療는 반드시 解表化濕한 방법을 써야 탁월한 효과가 나타나니, 處方은 新加香薷飲을 사용한다.

이 方은 吳鞠通이 創方한 것으로 香薷飲에 銀花와 連翹를 加한 것이다. 香薷飲은 祛暑解表, 化濕和中하는 효능이 있으며 金銀花와 連翹는 香薷를 도와 解表하고 그 溫에 反佐할 뿐만 아니라 暑溫의 熱을 푼다. 이 모든 藥이 합하여서 祛暑解表, 清熱化濕하는 효능이 나타난다.¹²²⁾

新加香薷飲은 暑邪가 濕을 끼어서 汗이 나지 않는 것을 다스리고; 白虎湯은 暑證에 濕이 없어서 汗이 나는 것을 다스리고; 白虎加人參湯은 暑溫으로 汗이 나서 陰이 많이 손상된 것을 다스린다.

25) 手太陰暑溫에, 服香薷飲하고, 微得汗이면, 不可再服香薷飲重傷其表하고, 暑必傷氣하여, 最令表虛하니, 雖有餘證이라도, 知在何經하여, 以法治之라.

살펴 보건데 傷寒은 發汗시키지 않으면 낫지 않으니 發汗시키는 것이 가장 좋고, 傷風 또한 發汗이 아니면 낫지 않으나 發汗시키는 것을 가장 꺼리고 단지 解肌해야 한다. 이것이 麻黃湯과 桂枝湯의 主治의 차이점이고 곧 治法의 차이인 것이다. 溫病초기에 病邪는 發汗을 통해 밖으로부터 풀리는데 다만 辛溫發汗하는 방법을 가장 禁忌시하고, 辛涼한 方藥을 사용해서 解肌할 뿐 辛溫한 方藥은 사용해서는 안 된다. 이것의 運用의 妙味는 邪氣를 인도하여 밖으로 빼내서 營衛氣血로 하여금 조화로우게 하여 자연스럽게 發汗을 해야지 억지로 汗이 나게 할 필요는 없다. 暑溫과 濕溫 같은 경우에는 또 이와 같지 않으니, 暑邪는 항상 濕邪를 겸하기 때문에, 暑濕은 裏에 있고 表에는 表寒이 있는 證을 일으킬 수 있으니, 이때는 香薷를 써서 發汗하여 表寒을 제거한다. 만약 發汗한 후에 大汗이 그치지 않는 것은 陽明熱盛한 것으로 白虎湯을 써서 치료해야 하며, 傷寒과 傷風으로 發汗한 후에 大汗이 그치지 않는 것과는 완전히 다르니,

後者는 마땅히 桂枝와 附子 등으로 陽氣를 保護하고 表를 實하게 해서 汗을 그치게 한다. 그래서 發汗法을 써서 表에 있는 邪氣를 제거하고, 여러 차례 發汗法을 써서 表虛를 일으키지 말며, 심지어는 發汗이 過多해서 亡陽厥脫을 일으키게 된다. 옛 사람들의 序文에 生脈散法이 있는 것을 보면 그 의의가 스스로 느껴진다.

按傷寒非汗不解, 最喜發汗; 傷風亦非汗不解, 最忌發汗, 只宜解肌, 此麻桂之異其治, 即異其法也. 溫病亦喜汗解, 最忌發汗, 只許辛涼解肌, 辛溫又不可用, 妙在導邪外出, 俾營衛氣血調和, 自然得汗, 不必強責其汗也. 若暑溫, 濕溫則又不然, 暑非汗不解, 可用香薷發之, 發汗之後, 大汗不止, 仍歸白虎法, 固不比傷寒傷風之漏汗不止, 而必欲桂附護陽實表, 亦不可屢虛其表, 致令厥脫也, 觀古人暑門有生脈散法, 其義自見.

【考察】

본 조문은 暑溫挾濕한 表實證에서 크게 發汗시키려는 안 되는 것과 다른 證의 處理원칙을 제시한다.

吳鞠通은 暑溫挾濕으로 香薷飲을 복용해서 약간 發汗시킨 후에 다시 복용을 하게 되면 表를 심각하게 손상시킨다고 하였다. 왜냐하면 暑邪는 반드시 氣를 損傷시키고 表로 하여금 虛하게 하기 때문에, 많이 복용하면 汗을 지나치게 내서 津液도 消耗되고 氣도 損傷되어 表가 虛해진다. 그러므로 吳鞠通은 비록 기타 다른 증상이 있을 지라도 이證에 근거하여 辨治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앞 조문의 新加香薷飲 服用法중에서 汗이 나면 服用을 멈추고 汗이 나지 않으면 汗이 날 때 까지 계속해서 服用해야 한다고 하였다. 溫熱의 邪氣는 發汗을 시키되 辛溫發表는 禁해야 하니 어떻게 邪氣를 잘 몰아내야 하는가? 暑溫은 陰邪이며 重濁한 성질을 지닌 濕을 겸하기 때문에 반드시 辛開溫散하여야 하므로 香薷飲으로 發散한 것이다. 그래서 이 조문에서 汗을 얻었기 때문에 더 이상 香薷飲을 복용하지 말라고 한 것이다. 暑溫은 表가 풀린 뒤에 內熱은 아직도 존재하므로 汗을 내서 그 內熱을 瀉하는 것이다.

122) 李範九, 朴贊斗 譯編, 方劑學, 서울, 대성의학사, 2000. p.74.

26) 手太陰暑溫에, 或已經發汗, 或未發汗, 而汗不止, 煩渴而喘, 脈洪大有力者면, 白虎湯主之하고; 脈洪大而芤者면, 白虎加人蔘湯主之하고; 身重者면, 濕也이니, 白虎加蒼朮湯主之하고; 汗多脈散大, 喘喝(1)欲脫者면, 生脈散主之라.

이 조문이 앞 조문과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은 단지 已經發汗이라는 한 구절에 있다.

白虎加蒼朮湯方

白虎湯에다 蒼朮 三錢을 加한 것이다.

땀이 많이 나면서 脈이 散大한 것은 陽氣의 發泄이 아주 심해서 그런 것으로 內가 虛하여 머물러 있을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生脈散은 酸甘化陰한 것으로 陰을 지키는 것이 곧 陽을 머무르게 하기 위함이니 陽이 머무르면 땀은 스스로 그친다. 人蔘으로 君을 삼아서 肺中の 元氣를 補하기 위함이다.

生脈散方(酸甘化陰法)

人蔘 三錢 麥冬(不去心) 二錢 五味子 一錢

물 세잔을 달여서 두 잔인 八分을 취하여 두 번으로 나누어서 복용한다. 찌꺼기는 다시 달여 복용하는데 脈이 收斂되지 않으면 다시 지어서 복용하되, 脈이 收斂되는 것을 기준으로 삼는다.

此條與上文少異者, 只已經發汗一句.

白虎加蒼朮湯方

即於白虎湯內加蒼朮三錢.

汗多而脈散大, 其爲陽氣發泄太甚, 內虛不可留戀可知. 生脈散酸甘化陰, 守陰所以留陽, 陽留, 汗自止也. 以人蔘爲君, 所以補肺中元氣也.

生脈散方(酸甘化陰法)

人蔘(三錢) 麥冬(不去心, 二錢) 五味子(一錢)

水三杯, 煮取八分二杯, 分二次服, 渣再煎服, 脈不斂, 再作服, 以脈斂爲度.

【字句解】

(1) 喘喝: 『素問·生氣通天論』에 이르길 “因于於暑, 汗煩則喘喝”¹²³⁾ 이라 하였다. 이는 喘息하는 소리를 형용한 것으로 少氣而喘, 喝喝聲微를 설명한 것이다.

【考察】

본 조문은 暑溫으로 땀이 나서 그치지 않는 증상이 있는데, 다만 以外の 證이 약간 달라서 서로 다른 治法을 취하는 것을 제시한다.

본 조문은, 이미 發汗을 했거나 아직 發汗을 하지 않은 경우를 막론하고, 땀이 그치지 않고, 煩渴하면서 喘證이 있고, 脈은 洪大하면서 有力하는 등의 증상이 있는 것은, 暑에 치우쳐서 熱이 심한 경우로서 氣分의 大熱을 식히는 白虎湯을 사용하고; 脈이 洪大하면서 芤한 것은 裏熱은 盛한데 氣와 陰이 크게 손상되어서 일으킨 것이므로 白虎加人蔘湯을 써서 치료하고; 身體가 무거운 것은 濕이 원인으로, 暑邪가 濕을 끼어서 몸이 무거운 것은 白虎加蒼朮湯을 써서 치료하고; 만약 땀이 많고 脈이 散大하며, 호흡을 촉박하게 헐떡거리는 것은 津氣가 欲脫하고자 하니 生脈散을 써서 치료한다.

白虎湯과 白虎加人蔘湯은 앞에서 이미 논술했었다.

白虎加蒼朮湯方에서 白虎湯은 暑熱을 식혀서 清熱生津하는데, 蒼朮을 加해서 化濕시키니, 이 모든 藥이 清熱祛濕시킨다.

生脈散내에 人蔘은 甘溫하여 益氣生津하여 肺를 補하고 肺氣가 왕성해지면 나머지 네 臟의 氣가 모두 왕성해지니 君藥이다. 麥門冬은 甘寒하여 養陰清熱, 潤肺生津하니 臣藥이다. 五味子是 酸溫하며 斂肺止汗, 生津止渴, 斂陰止汗한다. 이 모든 藥이 造化를 이루어 益氣生津, 斂陰止汗하는 효능이 있다.¹²⁴⁾

27) 手太陰暑溫에, 發汗後에, 暑證悉減이나, 但頭微脹, 目不了了⁽¹⁾, 餘邪不解者면, 清絡飲主之하고, 邪不解而入中下焦者면, 以中下法⁽²⁾治之라.

123) 素問研究集成刊行委員會 編. 素問研究集成 卷一. 대구. 金星印刷社. 2001. p.91.

124) 李範九, 朴贊斗 譯編. 方劑學. 서울. 대성의학사. 2000. p.256.

이미 餘邪라고 말하게 된 이상, 治療시에 藥力이 猛烈한 方劑를 사용할 수 없음이 명백하다. 다만 芳香性있는 가벼운 藥물을 사용해서 肺絡중의 餘邪를 물리치면 충분하다. 단지 만약에 香薷飲을 사용한 후에 病이 깊어져 中下焦로 들어가면 淺部에 작용하는 藥으로 깊이 있는 病을 치료해서는 안 된다.

清絡飲方(辛涼芳香法)

鮮荷葉邊 二錢 鮮銀花 二錢 西瓜翠衣 二錢 鮮扁豆花 一枝 絲瓜皮 二錢 鮮竹葉心 二錢

물 두 잔을 달여서 한잔을 취하여 하루 두 번 복용한다. 무릇 暑邪가 肺經의 氣分을 손상시킨 輕證이라면 모두 사용할 수 없다.

既曰余邪, 不可用重劑明矣, 只以芳香輕藥清肺絡中余邪足矣. 倘病深而入中下焦, 又不可以淺藥治深病也.

清絡飲方(辛涼芳香法)

鮮荷葉邊(二錢) 鮮銀花(二錢) 西瓜翠衣(二錢) 鮮扁豆花(一枝) 絲瓜皮(二錢) 鮮竹葉心(二錢) 水二杯, 煮取一杯, 日二服. 凡暑傷肺經氣分之輕証皆可用之.

【字句解】

(1) 目不了了: 눈으로 물건을 보는 것이 애매모호하고 정확하지 않다.

(2) 中下法: 中焦證 혹은 下焦證을 다스리는 방법을 사용하여 施治함을 가리킴.

【考察】

본 조문은 暑溫으로 發汗法을 사용한 뒤에 남아있는 邪氣가 잘 다스려지지 않는 證治를 제시한다.

暑熱이 氣分에 많이 나타나서 땀이 많은 것은 發汗法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오직 寒, 濕에 感受받은 것을 겸하고, 表가 邪氣에 속박을 받아서 땀이 없는 것은 衛分證으로서 發汗을 필요로 한다. 發汗法을 사용한 후에 暑邪가 제거되어서 증상은 가벼워졌으나, 다만 나머지 邪氣가 肺心의 絡으로 침입해 들어가니 治療가 결코 쉽지 않다. 治法은 解暑清肺하고 處方은 清絡飲을 사용한다. 藥을 사용해서 暑邪가 풀리지 않

고 中, 下焦의 증상이 나타난다면, 그것은 바로 病邪가 上焦에 있지 아니한 것이며 清絡飲으로 治療할 수 없으니, 中, 下焦를 다스리는 方法을 사용해서 治療한다.

본방은 吳鞠通이 暑邪가 肺經의 氣分을 손상시킨 것을 다스리는데 사용되는 輕劑이니, 解暑清肺하는 효능이 있다. 處方중에서 鮮銀花는 辛涼하고 芳香性이 있어 祛暑清熱하고, 芳香清散하는 鮮扁豆花와 함께 君藥이 된다. 西瓜翠衣¹²⁵⁾는 清熱解暑하고, 絲瓜絡은 清肺透絡한다. 鮮荷葉邊은 祛暑清熱하는 中에 舒散의 뜻이 있다. 鮮竹葉心은 清心하고 利水道한다. 이 모든 藥이 조화를 이루어 祛暑清熱의 효능이 있다. 본 方은 가볍게 위로 올라가서 식히는데, 전문적으로 肺絡의 邪氣를 식히니 清絡飲이라 하였다.¹²⁶⁾

28) 手太陰暑溫에, 但咳無痰, 咳聲清高者면, 清絡飲加甘草, 桔梗, 聶杏仁, 麥冬, 知母主之라.

기침은 하되 痰이 없는 것은, 嗽에 속하진 않는다. 기침소리가 清亮하고 높은 것은, 기침을 오래하면 목이 쉬는 것은 肺經에 火는 있고 濕邪는 겸하지 않는 것에 속한다. 治療는 바로 清絡飲을 사용해서 肺絡중의 無形之熱을 다스리니 甘草, 桔梗을 加해서 無形之熱을 열어서 꺼내고 甜杏仁을 加해서 利肺시켜서 氣를 傷하지 않게 하고 麥門冬, 知母를 加해서 肺陰을 補하여 火를 억제시킨다.

清絡飲加甘桔聶杏仁麥冬湯方

清絡飲內 加 甘草 一錢 桔梗 二錢 聶杏仁 二錢 麥冬 三錢

咳而無痰, 不嗽可知, 咳聲清高, 金音清亮, 久咳則啞, 偏於火而不兼濕也. 即用清絡飲, 清肺絡中無形之熱, 加甘, 桔開提, 甜杏仁利肺而不傷氣, 麥冬, 知

125) 江蘇新醫學院. 中藥大辭典.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94. p.850. 西瓜皮를 말함. 清熱解毒, 止渴, 利小便의 효능이 있으며, 暑熱煩渴, 小便短少, 水腫, 口舌生瘡를 다스린다.

126) 許濟群 主編. 方劑學.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94. p.72.

母保肺陰而製火也。

清絡飲加甘桔甜杏仁麥冬湯知母方
即於清絡飲內，加甘草一錢，桔梗二錢，甜杏仁二錢，麥冬三錢，知母三錢。

【考察】

본 조문은 暑熱이 肺絡을 灼傷하여 乾咳無痰하는 證治를 제시한다.

‘但咳無痰’은 濕이 없음을 설명한 것이고; ‘咳者清高’는 火가 肺를 灼傷하여 肺가 乾燥한 것으로 證은 暑溫이 肺絡을 손상시킨 것에 속하며 治法은 清暑宣肺, 養陰止咳하여야 하고 처방은 清絡飲에 甘草, 桔梗, 甜杏仁, 麥冬, 知母를 加한 처방을 사용해서 치료한다.

원 조문과 해석을 곁들인 내용 중에 모두 ‘知母’라는 두 글자가 있는데, 오로지 處方속에는 빠져 있으니, 處方에 두 글자를 보태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29) 兩太陰⁽¹⁾暑溫에, 咳而且嗽, 咳聲重濁, 痰多不甚渴, 渴不多飲者면, 小半夏加茯苓湯再加厚朴, 杏仁主之라.

咳와 嗽를 하면서 痰涎이 많고 기침소리가 重濁하니, 重濁한 기침소리는 脾土에 病이 있다는 것으로 本證은 足太陰脾經에 病變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 渴症이 심하지 않거나 渴症이 나는데도 물을 많이 마시지 않는 것으로 보면, 中焦에 痰濁水濕이 있는 것이니 病證은 暑溫에 水飲을 겸한 것이다. 그러므로 小半夏加茯苓湯으로 蠲飲和中하고; 다시 厚朴, 杏仁을 加해서 利肺瀉濕하여 그 喘滿 등의 病證을 일으키는 것을 예방하는 것이고; 물은 甘爛水를 쓰는데, 이는 달리는 성질을 취해서 飲邪를 머무르게 하려고 하지 않는 것이다.

이 조문은 濕溫에 넣어야 하나 일부러 여기에 배열함으로써 앞 조문의 乾咳無痰의 證과 서로 비교해서 證을 살필 수 있다.

小半夏加茯苓湯再加厚朴杏仁方(辛溫淡法)
半夏 八錢 茯苓塊 六錢 厚朴 三錢 生薑 五錢

杏仁 三錢

甘爛水(2) 여덟 잔으로 달여서 세잔을 취하여 따뜻하게 해서 하루 세 번 복용한다.

既咳且嗽, 痰涎復多, 咳聲重濁, 重濁者土音也, 其兼足太陰濕土可知. 不甚渴, 渴不多飲, 則其中有水可知, 此暑溫而兼水飲者也. 故以小半夏加茯苓湯, 蠲飲和中; 再加濃朴, 杏仁, 利肺瀉濕, 預奪其喘滿之路; 水用甘爛, 取其走而不守也.

此條應入濕溫, 卻列於此處者, 以與上條爲對待之文, 可以互証也.

小半夏加茯苓湯再加濃朴杏仁方(辛溫淡法)
半夏(八錢) 茯苓塊(六錢) 濃朴(三錢) 生薑(五錢) 杏仁(三錢)

甘爛水八杯, 煮取三杯, 溫服, 日三.

【字句解】

- (1) 兩太陰: 手太陰肺經과 足太陰脾經을 말함.
- (2) 甘爛水: 勞水라고도 함. 물을 용기에 넣고 국자로 물을 떠서 여러 차례 부으면 많은 거품이 생기게 되는데 이것을 甘爛水라고 한다.

【考察】

본 조문은 暑溫으로 濕이 盛하고 水飲痰盛의 증상을 겸하는 것을 제시한다.

脾는 生痰之本이고 肺는 儲痰之器이므로 痰濕은 이 두 臟腑에 달려 있다. 暑溫은 火熱과 濕이 서로 만나 濕에 치우침이甚한 것으로, 火熱은 쉽게 제거되나 濕濁은 쉽게 제거되지 않아서 脾의 運化에 영향을 미친다. 水飲이 안에 있으니 渴症이 나지 않게 되고, 脾病이 肺에 미치므로 咳嗽하고, 痰이 肺에 모이므로 咳聲重濁한다. 이는 脾虛肺壅한 것으로서 앞 조문의 火가 肺絡을 灼傷시킨 것과는 다르므로, 治法은 健脾化痰, 宣肺止咳하여야 하고 處方은 『金匱要略』의 小半夏加茯苓湯¹²⁷⁾에다 다시 厚朴과 杏仁을 加한 것을 사용한다.

處方중에서 小半夏湯은 和胃止嘔, 散飲降逆하

127) 大塚敬節 主講, 金匱要略講話. 원주. 醫方出版社. 2004. p.238.

고128), 茯苓은 利水滲濕, 健脾寧心하고129), 厚朴은 行氣燥濕, 降逆平喘하고130), 杏仁은 降逆止咳平喘, 潤腸通便하고131), 甘爛水로 모든 藥을 달이니 痰濕을 끌어내어 막히지 않게 한다.

30) 脈虛夜寐不安, 煩渴舌赤, 時有譫語, 目常開不閉, 或喜閉不開는, 暑入手厥陰也이니. 手厥陰暑溫에, 清營湯主之하고; 舌白滑者면, 不可與也라.

밤에 잠을 편하게 못자는 것은 心神이 虛해서 陽이 陰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다. 煩渴과 舌赤은 暑熱의 病邪가 心包를 犯함으로 말미암아 心火가 亢盛하고 心陰이 虧虛해서 일으킨 것이다. 이따금씩 譫語한 것은 邪熱이 心神을 어지럽힌 까닭이다. 눈을 뜨기만 하고 감지 못하는 것은, 눈은 火의 창구로서 火의 성질은 급하기에 눈을 항상 뜬 상태로 이 창구를 통해서 그 火를 배설하고자 하는 것이며 火가 아래로 陰과 서로 교접할 수 없기 때문이다. 눈을 감기를 좋아하고 뜨기를 좋아하지 않는 것은, 暑熱이 亢盛해서 陰液의 손상을 일으키고 陰液이 손상된 후에 환자는 陽光을 보기를 싫어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治療는 清營湯을 써서 營分속의 邪熱을 식히고, 營熱이 물러가니 곧 心陰이 다시 손상을 받지 않도록 保護할 수 있다. 다만 舌白滑한 것은, 熱이 重할 뿐만 아니라 濕 또한 重한 것으로, 濕이 重하면 柔潤藥을 禁忌해야 하니 清營湯을 처방할 수 없으며 濕溫例 중에서 구해야 하기 때문에 清營湯을 투여할 수 없다고 하였다.

清營湯(鹹寒苦甘法)

犀角 三錢 生地 五錢 元參 三錢 竹葉心 一錢
麥冬 三錢 丹參 二錢 黃連 一錢五分 銀花 三錢
連翹(連心用) 二錢

128) 李範九, 朴贊斗 譯編. 方劑學. 서울. 대성의학사. 2000. p.227.

129) 全國韓醫科大學 本草學教授 共編著. 本草學. 서울. 圖書出版永林社. 1998. p.303.

130) 全國韓醫科大學 本草學教授 共編著. 本草學. 서울. 圖書出版永林社. 1998. p.292.

131) 全國韓醫科大學 本草學教授 共編著. 本草學. 서울. 圖書出版永林社. 1998. p.478.

물 여덟 잔을 달여서 세 잔을 취하여 하루 세 번 복용한다.

夜寐不安, 心神虛而陽不得入陰也. 煩渴舌赤, 心用 態而心體虧也. 時有譫語, 神明欲亂也. 目常開不閉, 目爲火戶, 火性急, 常欲開以泄其火, 且陽不下交於陰也; 或喜閉不喜開者, 陰爲亢陽所損, 陰損則惡見陽光也. 故以清營湯急清宮中之熱, 而保離中之虛也. 若舌白滑, 不惟熱重, 濕亦重矣, 濕重忌柔潤藥, 當於濕溫例中求之, 故曰不可與清營湯也.

清營湯方(咸寒苦甘法)

犀角(三錢) 生地(五錢) 元參(三錢) 竹葉心(一錢) 麥冬(三錢) 丹參(二錢) 黃連(一錢五分) 銀花(三錢) 連翹(連心用, 二錢)

水八杯, 煮取三杯, 日三服.

【考察】

본 조문은 暑溫入心營하는 證治와 禁忌를 제시한다.

營分에 熱이 있으면 心陰을 灼傷시키니 陰이 손상되면 煩渴하고 陰이 虛하면 心神이 濡養을 얻지 못하므로 夜寐不安하고; 陰이 虛하면 혈관이 충실하지 못해 脈虛하고, 熱이 盛하니 舌赤하고, 熱邪가 心包로 들어가면 때때로 譫語하게 되고; 暑熱이 위로 펍박하면 눈은 항상 닫혀 지지 않은 상태로 떠 있게 되고, 陰이 暑熱의 亢盛에 의해 손상되니 눈이 濡養을 얻지 못하므로 감고서 뜨지 않는 것을 좋아한다. 證은 暑入心營한 것에 속하고 治法은 清營涼血, 透熱養陰하여야 하고 處方은 清營湯을 사용한다.

處方중에서 犀角은 清營涼血解毒하고 차가우면서도 막히지 않고 散瘀하므로 君藥이 된다. 生地黃은 涼血滋陰하고 麥門冬은 清熱養陰生津하며 玄蔘은 滋陰降火解毒하는데, 이 세 가지 藥이 함께 君藥을 돕는다. 金銀花와 連翹는 清熱解毒, 輕宣透邪하므로 佐藥이 되고 營分の 邪氣가 氣分을 뚫고 나와 풀어지게 한다. 竹葉心은 心熱을 내려주고, 黃連은 清心瀉火하고, 丹參은 清心하며 涼血活血한다. 이 모든 약들이 함께 清營解毒, 瀉熱養陰의 효과를 나타낸다.132)

132) 李範九, 朴贊斗 譯編. 方劑學. 서울. 대성의학사. 2000. p.171.

舌이 白滑하다는 것은 濕邪가 重하다는 것이니, 養陰작용을 갖춘 滋潤하고 苦甘한 藥을 사용할 수 없다. 그래서 당연히 養陰작용이 있는 清營湯을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31) 手厥陰暑溫에, 身熱不惡寒, 淸神不了⁽¹⁾, 時時譫語者면, 安宮牛黃丸主之하고, 紫雪丹亦主之라.

發熱은 하되 惡寒이 없는 것은 手太陰證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神氣가 昏迷하려고 하고 때때로 譫語하는 것은 앞 조문의 時有譫語와는 비교할 바 못되니, 앞 조문은 邪氣가 營分에 들어간 것이고, 본 조문은 暑熱의 邪氣가 이미 手厥陰心包絡에 깊이 들어간 것으로, 특별히 邪氣가 心包를 內閉하는데에 몹시 주의하여야 함으로 芳香性의 藥물로 開竅하고 苦寒한 藥물로 淸熱하는 것이 시급하다.

安宮牛黃丸, 紫雪丹(方義는 앞에 나와 있음)

身熱不惡寒, 已無手太陰証, 神氣欲昏, 而又時時譫語, 不比上條時有譫語, 謹防內閉, 故以芳香開竅, 苦寒淸熱爲急.

安宮牛黃丸, 紫雪丹 (方義並見前)

【字句解】

(1) 淸神不了了: 精神意識이 또렷하지 못함 .

【考察】

본 조문은 暑入心包하는 證治를 제시한다.

暑邪가 心包에 들어가서 身熱하고 惡寒이 없는 것은 熱이 極盛해서 表證이 없다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고, 사물을 볼 수 없고 자주 譫語하는 것은 熱이 淸竅를 막은 것이니 이는 逆傳心包證이다. 治法은 淸熱涼血, 芳香開竅하여야 하고 處方은 安宮牛黃丸이나 紫雪丹을 모두 사용할 수 있다.

본 조문과 앞 조문은 모두 手厥陰暑溫의 證治를 제시한다. 본 조문은 病邪가 깊고 무거우나 앞 조문은

病邪가 얇고 가볍다. 이 두 가지의 감별의 관건은 譫語와 精神증후의 정도가 다르다는 데에 있다. 같은 營分證에 똑같은 譫語가 있으며 病邪가 心包를 침범한 것은 같으나 관건은 의식증상이 있느냐 없느냐, 가볍냐 무겁냐에 있다. 앞 조문에서 '時有譫語'는 아직 의식이 흐린 것이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邪氣가 營分에 들어가서 간접적으로 心包에 영향을 미친 것이다. 본 조문에서 「時時譫語」는 이미 의식의 흐림이 나타나는 것으로 직접 心包로 傳入한 것이다. 邪氣의 進入부위가 다르므로 말미암아 治療도 당연히 차별이 있다. 앞 조문은 주로 營熱에 속하므로 淸營湯을 써서 淸營透熱시키면 된다. 본 조문은 熱入心包에 속하므로 淸營湯만을 써서 藥效가 없을까 걱정되므로 牛黃丸, 紫雪丹 등을 써서 芳香開竅, 淸熱解毒시킨다.

32) 暑溫寒熱, 舌白不渴, 吐血者를, 名曰暑瘵⁽¹⁾라 하니, 爲難治이나, 淸絡飲加杏仁, 薏仁, 滑石湯主之라.

寒熱은 熱이 表를 손상시킨 것이고; 舌白과 不渴은 濕이 裏를 손상시킨 것이니; 病邪가 모두 氣分에 있는 것이며, 또한 吐血하는 것은 表裏의 氣血이 모두 病든 것이니 어찌 暑瘵가 重한 證이 아니겠는가? 이 證은 순수하게 淸하기만 하면 虛에 지장을 주고 순수하게 補하기만 하면 邪에 장애를 주므로 淸絡飲을 써서 血絡중의 熱을 식히되 手經은 犯하지 않는다. 그래서 杏仁을 加하여 利氣시키는 것은 氣가 血을 통솔하기 때문이고, 薏苡仁, 滑石을 加하여 裏의 濕을 이롭게 한다. 이리하여 邪가 물러나고 氣가 편안해져서 血이 그치기를 바라는 것이다.

淸絡飲加杏仁薏仁滑石湯方

淸絡飲內 加 杏仁 二錢 滑石末 三錢 薏仁 三錢, 복용법은 앞과 같다.

寒熱, 熱傷於表也; 舌白不渴, 濕傷於裡也; 皆在氣分, 而又吐血, 是表裡氣血俱病, 豈非暑瘵重証乎? 此証純淸則礙虛, 純補則礙邪, 故以淸絡飲淸血絡中之熱, 而不犯手; 加杏仁利氣, 氣爲血帥故也; 薏仁, 滑石, 利在裡之濕, 冀邪退氣寧而血可止也.

清絡飲加杏仁薏仁滑石湯方
 即於清絡飲內加杏仁二錢，滑石末三錢，薏仁三錢，
 服法如前。

【字句解】

(1) 暑瘵: 暑熱에 感受받고 醇酒와 辛熱한 음식을 많이 먹은 까닭으로 火가 盛하여 肺를 손상시켜서 생긴 것이다. 그 증상은 咳嗽氣喘, 咯血, 頭目不清, 煩熱口渴, 或不渴, 脈浮洪有力 등이다.

【考察】

본 조문은 暑瘵의 證治를 제시한다.

暑瘵는 暑熱을 感受받아서 갑자기 咳血咳嗽하는 것을 말한다. 暑瘵는 두 유형으로 나눈다. 우선 暑熱이 肺絡을 손상하여 濕邪가 없고 단순히 熱邪만 있는 경우다. 다른 하나는 暑濕이 肺絡을 손상한 경우다.¹³³⁾ 본 조문은 후자인 暑熱挾濕에 해당한다. 治法은 清暑祛濕, 宣肺止咳하여야 하고 處方은 清絡飲에 肺氣를 이롭게 하는 杏仁과 濕을 이롭게 하는 滑石과 薏苡仁을 加하여 사용한다.

33) 小兒暑溫에, 身熱, 卒然瘳厥을, 名曰暑癩⁽¹⁾라 하니, 清營湯主之하고, 亦可少與紫雪丹이라.

小兒의 陰은 어른보다 훨씬 虛한데, 하물며 여름에 있어서라? 일단 暑溫病을 얻으면 곧장 衛分을 지나 營分으로 들어가는 것은 대개 小兒의 臟腑가 여리기 때문이다. 血絡이 火邪의 熾박을 받아서 火가 極盛하면 內風이 생기는 것을 속칭 急驚이라고 하는데, 아무렇게나 發散消導하는 藥을 쓰면 순식간에 죽게 되니, 오로지 清營湯을 써서 營分의 熱을 식히고 津液을 보존하여서 津液으로 하여금 충만 되게 하고 陽和하게 하면 자연스럽게 汗이 나와서 풀리지만, 절대로 發汗劑를 쓸 수 없다. 紫雪丹을 조금 써도 되는 것은 包絡의 熱을 식혀서 內竅를 열기 때문이다.

133) 李劉坤 講義. 臨牀溫病學特講. 서울. 대성의학사. 2001. p.588.

小兒之陰, 更虛於大人, 況暑月乎! 一得暑溫, 不移時有過衛入營者, 蓋小兒之臟腑薄也. 血絡受火邪逼迫, 火極而內風生, 俗名急驚, 混與發散消導, 死不旋踵, 惟以清營湯清營分之熱而保津液, 使液充陽和, 自然汗出而解, 斷斷不可發汗也. 可少與紫雪者, 清包絡之熱而開內竅也.

【字句解】

(1) 暑癩: 暑熱을 받은 뒤에 나타나는 高熱이 계속 되어서 갑자기 抽搐하는 病証을 가리킴

【考察】

본 조문은 小兒暑癩의 證治를 제시한다.

小兒가 暑溫으로 인해 瘳症을 일으키는 것을 暑癩이라 말한다. 小兒臟腑는 柔弱하며 易寒易熱, 易虛易實¹³⁴⁾하는 특징이 있다. 그래서 小兒는 어떤 원인으로든 갑자기 瘳厥抽搐을 일으키기가 쉽다. 處方은 清營湯을 써서 치료한다.

34) 大人暑癩은, 亦同上法이라. 熱初入營으로, 肝風內動하여 大人暑癩은, 亦同上法이라. 熱初入營여, 手足瘳瘳⁽¹⁾이면, 可于清宮湯中, 加勾藤, 丹皮, 羚羊角이라.

清營湯, 紫雪丹(處方과 治法이 모두 앞에 나와 있다)

清營湯, 紫雪丹 (方法並見前)

【字句解】

(1) 瘳瘳: 음은 啓縱임. 筋脈이 拘急해서 收縮하는 것을 瘳라 하고, 筋脈이 弛緩되서 느슨해지는 것을 瘳이라 한다. 筋脈이 끊임없이 교대로 伸縮이 나타나는 것을 瘳瘳이라 한다.

【考察】

134) 錢乙 著. 金達鎬 譯. 小兒藥證直訣. 서울. 醫聖堂. 2002. p.3.

본 조문은 成人暑癘과 小兒暑癘의 證治를 제시한다. 成人이 暑癘에 걸렸을 때 그 病因, 病機, 治法상에서 小兒와는 다르지 않다. 다만 成人이 暑癘에 걸려서 抽搐이 발생했을 때는 小兒暑癘에 사용하는 처방만을 써서는 쉽게 치료가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成人의 暑癘에는 淸營湯에다 淸熱涼血息風止癎하는 약물을 加해야 한다.

3. 伏暑

(暑溫과 伏暑를 살피건데 이름은 비록 다를지라도 病은 같으며, 治法은 전자와 후자를 서로 참고해야 하므로 中下焦편에서는 별도로 조문을 세우지 않는다.)

35) 暑兼濕熱인데, 偏于暑之熱者爲暑溫이니, 多手太陰證而宜淸하고; 偏于暑之濕者爲濕溫이니, 多足太陰證而宜溫하고; 濕熱平等者면 兩解之라. 各宜分曉하며, 不可混也니라.

이는 앞의 조문을 이어서 다음의 조문을 세운 것이다. 살펴 보건데 暑溫과 濕溫은 예로부터 處方과 治法이 아주 뛰어나서, 앞 조문의 溫病이 털끝만치의 표준이 없는 것과는 다르니 본문에서는 다시 논할 필요가 없으며, 다만 『內經』에 夏至이전에는 溫病이 되고 夏至이후에는 暑病이 된다는 분명한 글¹³⁵⁾이 있으니, 이는 暑와 溫이 가지는 비록 다를지라도 뿌리가 같음을 말한 것으로서 溫을 말하면서 暑를 빠뜨리고 暑를 말하면서 濕을 빠뜨릴 수 없다. 역대의 유명한 醫家들이 모두 추측하고 혼동하는 폐단이 있었는데, 대개 여름에는 三氣가 섞여서 感受되어 근본적으로 세밀한 분석이 어렵다. 오로지 葉天士만이 총명하고 재간이 있어 思惟의 정밀함이 남들보다 뛰어나고 醫案중의 治法이 조리 정연하여 많은 것을 모아놓은 것이 장점이라고 말할 수 있다. 애석하게도 지금 사람

들은 그중 한 둘도 알지 못한다. 그러나 그 治法이 醫案중에 흩어져서 조목별로 정한 규정은 정리되어 있지 않으니 지식이 얇은 자가 읽으면 望洋之嘆한다. (자신의 힘이 미치지 못함을 탄식한다.) 후대의 사람은 계단 없이 오르는 것일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본론은 대략적인 것들을 가려 뽑아 대체로 형태를 갖추어서 배우는 자로 하여금 길을 찾을 수 있도록 하였고, 정묘함은 아주 많으나 여유가 없어 다 갖추어 기재하지는 못하였으니 배우는 자는 유명한 醫家를 참고하고 葉天士의 醫案에 대해 자세하게 단서를 찾은 후에 깊이 연구할 수 있다. 다시 살펴 보건데 張潔古¹³⁶⁾가 말하기를 “靜而得之爲中暑, 動而得之爲中熱; 中暑者陰證, 中熱者陽證”라 하였다. 오호라! 張潔古의 의도가 이와 같이 불명확한데 후대사람들이 떠받들어 기준으로 삼으니 이는 醫道라 말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증세에 대해 생각해 보건데, 결국 돌아다니다가 얻는 경우는 없는 것인가? 中熱은 결국 조용히 있으면서 얻어지는 경우는 없는 것인가? 여기서 動靜이란 두 글자로 暑熱을 구분하기란 어려운 것처럼 보인다. 또 ‘中暑者陰證’이라 하였는데, 暑란 글자는 日로부터 시작하는데, 日이 어찌 陰의 물건인가? 暑中에 火가 있는데 火가 어찌 陰의 邪氣인가? 暑중에 陰이 있을 뿐이니 濕이 곧 이것으로 순수한 陰邪는 아니다. ‘中熱者陽證’이라 한 것은 사실 그럴싸한데, 熱中에 또한 穢濁을 겸하고 穢濁 또한 陰의 부류임을 알아야 하니, 이는 中熱이 전혀 陰이 없는 것은 아니다. 대개 張潔古가 가리킨 바의 中暑는 본론 뒤에 나오는 濕溫이며, 그가 가리키는 바의 中熱은 본론의 앞 조문에 나오는 溫熱이다. 張景岳은 또 陰暑, 陽暑로 세세하게 나누었는데: 소위 陰暑라는 것은 暑가 濕에 치우쳐서 足太陰의 裏證을 이룬 것이고, 陽暑라는 것은 暑가 熱에 치우쳐서 手太陰의 表證을 이룬 것이다. 배우는 자는 ‘目無全牛’의 생각 없이는 요체를 파악할 수 없다. 宋元代 以來로 名醫들은 대부분 스스로 옳다고 여기고서 자연의 법칙에서 구하지 않았으니, 일

135) 素問研究集成刊行委員會 編. 素問研究集成 卷四. 대구.金星印刷社. 2001. p.13. “凡病傷寒而成溫者, 先夏至日者爲病溫, 後夏至日者爲病暑”

136) 漢醫學大辭典編纂委員會 編. 漢醫學大辭典(醫史文獻編). 서울. 東洋醫學研究院出版部. 1985. p.256. “張元素(12世紀)를 말함. 金代의 著名한 醫學家. 字는 潔古. 易州人. 著作에는 『醫學啓源』, 『珍珠囊』, 『臟腑標本藥式』, 『藥注難經』 等書가 있다.”

반적인 도리에 밝지 않아 지금사람들은 손가는 대로 사람을 죽이는 수밖에 없는 것은 안타깝다.

汪按：偏濕偏熱과 傷手傷足으로 요점을 간명하게 제시하였으니 가히 변하지 않는 논리라고 말할 수 있고, 배우는 자는 이를 명확히 하여서 스스로 손을 대기만 하면 실수를 하게 되는 것을 걱정하지 않게 된다. 또 살펴 보건데：張潔古가 말한 바의 動이라는 것은 분주하게 노동하는 사람들이 天地熱氣에 감촉되어 病이 된 것을 말하는 것이고; 소위 靜이라는 것은 富貴하고 안일한 사람들이 높은 곳에서 서늘함을 받아들이고 熱을 피하다가 濕에 적중된 것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나 動하는 자가 濕에 적중되는 때도 있고 靜하는 자가 熱에 적중되는 때도 있으니 구에반아서는 안 된다. 靜한 자가 서늘한 바람을 쏘이고 차가운 것을 마셔서 濕氣없이 寒氣에만 적중될 때는 桂枝湯, 大順散¹³⁷⁾을 써야 하고 심하면 理中湯, 四逆湯을 써야 하니 이것이 곧 여름의 傷寒으로 일일이 조목조목 분석하여야 한다. 張景岳의 六氣治法에 관해서는 전혀 기초를 터득하지 못하여서 거론할 만한 것이 못된다.

此承上起下之文. 按暑溫, 濕溫, 古來方法最多精妙, 不比前條溫病毫無尺度, 本論原可不必再議, 特以『內經』有先夏至爲病溫, 後夏至爲病暑之明文, 是暑與溫, 流雖異而源則同, 不得言溫而遺暑, 言暑而遺濕. 又以歷代名家, 悉有蒙混之弊, 蓋夏日三氣雜感, 本難條分縷晰. 惟葉氏心靈手巧, 精思過人, 案中治法, 絲絲入扣, 可謂匯眾善以爲長者, 惜時人不能知其一, 二; 然其法散見於案中, 章程未定, 淺學人讀之, 有望洋之嘆, 無怪乎後人之無階而升也. 故本論撫拾其大概, 粗定規模, 俾學人有路可尋, 精妙甚多, 不及備錄, 學人仍當參考名家, 細繹葉案, 而後可以深造. 再按：張潔古云：“靜而得之爲中暑, 動而得之爲中熱; 中暑者陰証, 中熱者陽証”. 嗚呼! 潔古筆下如是不了了, 後人奉以爲規矩準繩, 此醫道之所以難言也. 試思中暑, 竟無動而得之者乎? 中熱, 竟無靜而得之者乎? 似難以動靜二字分暑熱. 又雲“中暑者陰証”,

137) 팽부인, 項平 主編. 中醫方劑大辭典精選本 上冊.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9. p.133. “甘草三十斤, 乾薑杏仁肉桂各四斤”

暑字從日, 日豈陰物乎? 暑中有火, 火豈陰邪乎? 暑中有陰耳, 濕是也, 非純陰邪也. “中熱者陽証”, 斯語誠然, 要知熱中亦兼穢濁, 穢濁亦陰類也, 是中熱非純無陰也. 蓋潔古所指之中暑, 即本論後文之濕溫也; 其所指之中熱, 即本論前條之溫熱也. 張景岳又細分陰暑, 陽暑: 所謂陰暑者, 即暑之偏於濕, 而成足太陰之裡証也; 陽暑者, 即暑之偏於熱, 而成手太陰之表証也. 學人非目無全牛, 不能批隙中款. 宋元以來之名醫, 多自以爲是, 而不求之自然之法象, 無怪乎道之常不明, 而時人之隨手殺人, 可勝慨哉!

汪按：偏濕偏熱, 傷手傷足, 挈領提綱, 可謂不易之論, 學者從此認清, 自不患動手便錯矣. 又按：潔古所謂動者, 指奔走勞役之人, 觸冒天地之熱氣而病者也; 所謂靜者, 指富貴安逸之人, 納涼于高堂大厦以避熱而中濕者也. 然動者亦有時中濕, 靜者亦有時中熱, 未可拘執. 靜者一種內, 又有乘涼飲冷, 無濕氣而但中寒氣, 應用桂枝, 大順, 甚則理中, 四逆者, 此即夏月傷寒, 當一一條分縷晰也. 至景岳于六氣治法, 全未入門, 無足置論.

【考察】

본 조문은 暑溫, 濕溫, 濕熱의 治則을 제시한다.

暑邪와 濕邪가 함께 섞이는 경우에는 세 가지가 있다. 첫째로 暑溫은 熱이 濕보다 지나친 것으로 대부분이 手太陰肺經의 證候가 나타나며 淸하게 하여야 한다. 둘째로는 濕溫은 濕이 熱보다 지나친 것으로 대부분 足太陰脾經의 證候가 나타나며 溫하게 하여야 한다. 濕과 熱이 어느 한쪽으로도 지나치지 않는 경우에는 淸과 溫의 方法을 동등하게 사용하여야 한다.

36) 長夏⁽¹⁾受暑에, 過夏而發者를, 名曰伏暑라. 霜未降而發者少輕하고, 霜既降而發者則重하며, 冬日發者尤重하니, 子, 午, 丑, 未之年爲多也라.

長夏에 暑가 茂盛하여도 氣가 健壯한 자는 暑邪를 받지 않고; 약간 虛弱한 자는 眩暈이 잠시 있으나 나절이면 없어지고; 아주 虛弱한 자는 즉시 病이 나거나 즉시 病이 나지 않으면 暑邪가 안으로는 骨髓에

머무르고 밖으로는 分肉의 사이에 머무르는 것으로, 이는 氣虛한 자이다. 대개 氣가 虛하면 暑邪를 밖으로 내보낼 수 없어서 반드시 가을의 서늘한 金氣를 기다려 相搏한 뒤에 내보내게 되니, 이는 金氣가 본래 煩暑를 물리치는 까닭으로 金이 물리나려 하면 暑는 감추어지는 바가 없으므로 伏暑病이 나타나는 것이다. 氣虛가 심하면 설사 金風일지라도 暑邪를 공격해서 내보낼 수 없으니 반드시 아주 서늘한 늦가을이나 약간 추운 초겨울에 暑邪가 꺾박받기를 기다려서 내보내므로 病은 더욱이 重하다. 子, 午, 丑, 未년에 유독 많은 것은 子, 午는 君火가 司天인데 暑는 火에 뿌리를 두고 있고; 丑, 未는 濕土가 司天인데 暑가 濕을 얻으면 머무르기 때문이다.

長夏盛暑, 氣壯者不受也; 稍弱者但頭暈片刻, 或半日而已; 次則即病; 其不即病而內舍於骨髓, 外舍於分肉之間, 氣虛者也. 蓋氣虛不能傳送暑邪外出, 必待秋涼金氣相搏而後出也, 金氣本所以退煩暑, 金欲退之, 而暑無所藏, 故伏暑病發也. 其有氣虛甚者, 雖金風亦不能擊之使出, 必待深秋大涼, 初冬微寒相逼而出, 故尤爲重也. 子, 午, 丑, 未之年爲獨多者, 子, 午君火司天, 暑本於火也; 丑, 未濕土司天, 暑得濕則留也.

【字句解】

(1) 長夏: 大暑後의 18일을 長夏라 한다. 濕熱이 가장 盛한 시기이다.

【考察】

본 조문은 伏暑의 意義와 病因과 發病특징을 제시하였다.

여름철 무덥고 濕한 계절에 暑邪에 感受 받아서 체내에서 일정시간을 잠복한 후에 病이 나는 것을 伏暑라고 한다. 霜降以前인 초가을에 病이 나는 것은 病이 가벼우며, 霜降以後인 늦가을에 病이 나는 것은 病이 重하다. 겨울에 病이 발생하면 病은 아주 심각하다. 吳鞠通은 伏暑의 원인을 氣虛로 보았다. 氣가 虛하면 暑邪를 밖으로 내보낼 수 없으니, 가을을 기다렸다가 가을의 서늘한 기운이 暑邪를 물리치고서야 비로소 伏暑가 나타나는 것이다. 子와 午의 해에

는 少陰君火가 司天이니, 이 해에는 기후가 炎熱하고, 丑과 未의 해에는 太陰濕土가 司天이니, 이 해에는 기후가 濕氣가 차고 비가 많다. 그래서 子, 午, 丑, 未의 해에는 伏暑가 자주 나타난다.

인체가 暑邪를 感受받아서 곧 바로 病이 나는 것이 아니라 體內에서 일정시간을 잠복한 후에 비로소 發病하므로 伏暑라고 부른다.

37) 頭痛, 微惡寒, 面赤煩渴, 舌白, 脈濡而數者, 雖在冬月이라도, 猶爲太陰伏暑也라.

頭痛과 惡寒은 傷寒과 다르지 않으나 面赤과 煩渴은 傷寒이 아니다, 그러면 마치 傷寒陽明證인 듯한데 脈濡而數은 절대로 傷寒이 아니다. 대개 寒脈은 緊하고 風脈은 緩하고 暑脈은 弱하며, 濡는 弱의 象이고 弱은 濡의 體이다. 濡는 離中虛이니 火의 象이고, 緊은 坎中滿이니 水의 象이다. 火의 성질은 熱하고 水의 성질은 寒하여서 그 象이 같지 않고 성질은 判이하게 다르니 어찌 세상 사람들이 모두 伏暑를 傷寒으로 보고서 治療하여 足六經의 羌活, 葛根, 柴胡, 黃芩을 사용하여 언제나 사람을 죽인단 말인가? 象이 각기 같지 아니하고 성질이 判이하게 다르므로 雖在冬月이라고 말한 것은 바로 傷寒이 아니고 伏暑인 것이다. 겨울에도 伏暑가 나타나니 가을에는 알만하다. 伏暑와 傷寒은 마치 남자와 여자의 구별과 같아서 하나는 外實中虛하고 하나는 外虛中實하니 어찌 혼동할 수 있겠는가?

頭痛惡寒, 與傷寒無異; 面赤煩渴, 則非傷寒矣, 然猶似傷寒陽明証; 若脈濡而數, 則斷斷非傷寒矣. 蓋寒脈緊, 風脈緩, 暑脈弱, 濡則弱之象, 弱則濡之體也. 濡即離中虛, 火之象也; 緊即坎中滿, 水之象也. 火之性熱, 水之性寒, 象各不同, 性則迥異, 何世人悉以伏暑作傷寒治, 而用足六經羌, 葛, 柴, 芩每每殺人哉, 象各不同, 性則迥異, 故曰雖在冬月, 定其非傷寒而爲伏暑也. 冬月猶爲伏暑, 秋日可知. 伏暑之與傷寒, 猶男女之別, 一則外實中虛, 一則外虛中實, 豈可混哉.

【考察】

본 조문은 겨울에 나타나는 伏暑의 辨證을 제시한다. 겨울에 頭痛, 微惡寒, 舌白 등은 傷寒으로 誤診하기가 아주 쉽다. 面赤, 煩渴과 脈數은 熱의 징후이고, 脈濡는 濕의 징후이다. 熱의 징후와 濕의 징후가 함께 있으니 暑邪가 濕을 낀 것이다. 결국은 겨울철에 暑濕이 나타나니 잠복되어 있다가 나타나는 伏暑임을 알 수 있다.

38) 太陰伏暑에, 舌白口渴, 無汗者면, 銀翹散去牛蒡, 元參加杏仁, 滑石主之라.

이는 邪氣가 氣分에 있고 表가 實한 證이다.

銀翹散去牛蒡元參加杏仁滑石方

銀翹散에서 牛蒡, 元參을 去하고 杏仁 六錢 飛滑石 一兩을 加한다. 복용법은 銀翹散과 같다.

胸悶하면 鬱金 四錢 香豉 四錢을 加하고 嘔而痰多하면 半夏 六錢, 茯苓 六錢을 加하고 小便短하면 薏仁 八錢, 白通草 四錢을 加한다.

銀翹散去牛蒡子元參加杏仁滑石方

即於銀翹散內, 去牛蒡子, 元參, 加杏仁六錢, 飛滑石一兩. 服如銀翹散法. 胸悶加郁金四錢, 香豉四錢; 嘔而痰多, 加半夏六錢, 茯苓六錢; 小便短, 加薏仁八錢, 白通草四錢.

【考察】

본 조문은 伏暑挾濕의 證治를 제시한다.

舌白은 邪氣가 氣分에 있는 데다 濕이 비교적 무거운 것이고, 口渴은 熱이 있다는 것이고, 無汗은 表가 實하다는 것이다. 그래서 治法은 解表利濕하여야 하며 處方은 銀翹散去牛蒡, 元參加杏仁, 滑石을 써서 주치한다.

處方에서 銀翹散은 解表하여 약간 發汗시키고, 杏仁과 滑石은 解表利水하여 熱과 濕을 表裏로부터 쫓는다. 便溏한 증상이 있기 때문에 通便시키는 牛蒡子와 滋陰戀濕하는 元參을 제거한다.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銀翹散去元參'이

란 부분이다. 16조와 40조에서는 원문에 '培元參'이란 부분이 있고 그 아래 처방에는 '元參加至一兩'이란 부분이 있다. 4조에 銀翹散의 처방이 처음 나오는데 여기에는 元參이 분명히 없다. 또한 4조 銀翹散처방 밑에 내용 중에 '項腫咽痛하면 馬勃, 元參을 加하고'란 加減法의 내용이 나온다. 銀翹散이란 처방은 4조에서 처음 나오는데 元參이 들어 있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다. 종합해 보건데, 4조의 내용을 따르다면 銀翹散에는 元參이 없으며 4조의 銀翹散 처방에 元參을 넣어야 한다. 著者는 銀翹散에 元參이 없는 4조에 무게를 실어주고 싶다. 그 이유로는 銀翹散은 辛涼平劑이다. 보편적으로 發熱, 不惡寒할 때에 가볍게 透表시켜야 한다. 만약 玄參이 있다면 이러한 뜻에 맞지 않게 된다. 왜 이러한 일이 발생하였을까?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銀翹散은 吳鞠通이 『溫病條辨』에서 새로 만들어낸 방제이다. 그런데 책을 계속 써 내려가다가 뒷부분에서 銀翹散에 元參이 있는 걸로 착각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39) 太陰伏暑에, 舌赤口渴, 無汗者면, 銀翹散加生地, 丹皮, 赤芍, 麥冬主之라.

이는 邪氣가 血分에 있고 表가 實한 證이다.

銀翹散加生地丹皮赤芍麥冬方

銀翹散에 生地 六錢, 丹皮 四錢, 赤芍 四錢, 麥冬 六錢을 加한다. 服用法은 앞과 같다.

銀翹散加生地丹皮赤芍麥冬方

即於銀翹散內, 加生地六錢, 丹皮四錢, 赤芍四錢, 麥冬六錢. 服法如前.

【考察】

본 조문은 伏暑로 血熱한 證治를 제시한다.

舌赤은 血分에 熱이 있다는 것이고, 口渴은 熱이 陰液을 손상한 것이고, 無汗은 表가 實한 것이다. 表가 實하면 疏表를 꺼리지 않으므로 治法은 解表清熱 涼血養陰하여야 하고 處方은 銀翹散加生地, 丹皮, 赤

芍, 麥冬을 써서 主治한다.

處方에서 銀翹散은 解表透熱하고, 牧丹皮와 赤芍藥¹³⁸⁾은 清熱涼血하고, 生地黃과 麥門冬¹³⁹⁾은 清熱養陰한다. 모든 藥이 造化를 이루어 清熱透表, 涼血養陰하는 효력이 나타난다.

40) 太陰伏暑에, 舌白口渴, 有汗, 或大汗不止者면, 銀翹散去牛蒡子, 元參, 芥穗加杏仁, 石膏, 黃芩主之하고; 脈洪大, 渴甚汗多者면, 仍用白虎法하고; 脈虛大而芤者면, 仍用人蔘白虎法이라.

이는 邪氣가 氣分에 있고 表가 虛한 證이다.

銀翹散去牛蒡子元參芥穗加杏仁石膏黃芩方

銀翹散에서 牛蒡子, 元參, 芥穗를 去하고 杏仁 六錢, 生石膏 一兩, 黃芩 五錢을 加한다. 服用法은 앞과 같다.

白虎法, 白虎加人蔘法(모두 앞에 있음)

銀翹散去牛蒡子元參芥穗加杏仁石膏黃芩方

即於銀翹散內, 去牛蒡子, 元參, 芥穗, 加杏仁(六錢), 生石膏(二兩), 黃芩(五錢). 服法如前.

白虎法, 白虎加人蔘法(俱見前)

【考察】

본 조문은 邪氣가 衛分, 氣分, 氣陰이 모두 손상되는 것의 서로 다른 治法을 제시한다.

땀이 있는 것은 表虛가 원인으로 牛蒡子와 芥穗를 제거한다. 舌白은 濕이 있다는 것이니 滋陰하는 玄蔘을 居하고 宣肺시키는 杏仁을 加한다. 口渴은 熱이 있다는 것이니 白虎湯을 사용한다. 그리고 脈洪大, 渴症이 심함, 汗多한 것으로 熱이 氣分에 있어서 裏熱이 熾盛한 것으로 白虎湯을 사용해야한다. 마지막

으로 脈虛大하면서 惝한 것으로 熱이 심할 뿐만 아니라 氣陰이 모두 손상되었다는 것이니 白虎人蔘湯을 사용한다.

41) 太陰伏暑에, 舌赤口渴汗多면, 加減生脈散主之라.

이는 邪氣가 血分에 있고 表가 虛한 證이다.

加減生脈散方(酸甘化陰)

沙蔘 三錢 麥冬 二錢 五味子 一錢 丹皮 二錢 細生地 三錢

물 다섯 잔을 달여 물 두 잔으로 만들고 나누어서 따뜻하게 복용한다.

加減生脈散方(酸甘化陰)

沙蔘(三錢) 麥冬(二錢) 五味子(一錢) 丹皮(二錢) 細生地(三錢)

水五杯, 煮二杯, 分溫再服.

【考察】

본 조문은 暑邪가 營陰을 손상시키는 證治를 제시한다.

본 조문은 앞의 39조문과 거의 비슷한데 다른 것이 있다면 땀이 있고 없고의 차이이다. 하나는 營分이 表의 實을 겸해서 땀이 없으며 또 하나는 熱이 營陰을 손상시키고 表가 虛해서 땀이 있다. 본 조문은 후자에 해당되니 加減生脈散을 사용하여 養津斂汗시킨다. 牧丹皮와 生地黃을 加해서 涼血養陰清熱하니 모든 藥이 相伍해서 養陰斂汗涼血清熱의 효능이 나타난다.

42) 伏暑, 暑溫, 濕溫은, 證本一源이니, 前後互參하고, 不可偏執이라.

【考察】

본 조문은 伏暑, 暑溫, 濕溫 세 가지가 病因이 동일함을 제시한다.

吳鞠通은 세 가지가 病이 서로 같으나 단지 發病하

138) 全國韓醫科大學 本草學教授 共編著. 本草學. 서울. 圖書出版永林社. 1998. p.195. “清熱涼血, 散瘀止痛”

139) 全國韓醫科大學 本草學教授 共編著. 本草學. 서울. 圖書出版永林社. 1998. p.589. “養陰潤肺, 清心除煩, 益胃生津”

는 계절과 濕熱의 정도가 다르다고 생각한다. 세 가지는 근본원인이 濕과 熱이다. 辨證에 임해서는 엄격하게 구분을 해서 어느 한쪽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4. 濕溫

43) 頭痛惡寒, 身重疼痛, 舌白不渴, 脈弦細面濡, 面色淡黃, 胸悶不飢, 午後身熱, 狀若陰虛, 病難速已, 名曰濕溫이라. 汗之則神昏耳聾하며, 甚則目瞑⁽¹⁾不欲言하며, 下之則洞泄⁽²⁾하며, 潤之則病甚不解하며, 長夏深秋冬日同法이니, 三仁湯主之라.

頭痛惡寒과 身重疼痛은 傷寒과 비슷하나 脈弦濡은 傷寒이 아니다. 舌白不渴과 面色淡黃은 傷暑가 火에 치우친 것도 아니다. 胸悶不飢는 濕이 清陽의 길을 막은 것이다. 午後身熱이 陰虛의 상태와 비슷한 것은, 濕은 陰邪인데 陰邪는 陰分에서 왕성하므로 陰虛와 동일한 午後에 身熱하기 때문이다. 濕은 陰邪로써 長夏에서 시작되어 점차 심해지며 성질이 粘膩하여, 한번 땀을 내면 풀리는 寒邪나 한번 서늘해지면 물러나는 溫熱과 달리 빨리 낫기가 어렵다. 의사는 그것이 濕溫인지를 모르고 頭痛惡寒身重疼痛만을 보고 傷寒으로 여겨 發汗시키니 發汗은 心陽을 손상시키고 濕은 辛溫發表하는 藥을 따라 蒸騰上逆하여, 안으로 心竅를 막아 神昏하게 하며 위로 清竅를 막아 耳聾目昏不語하게 한다. 또한 中焦가 그득하고 배가 고프지 않은 것을 보고 정체된 것이라 여겨 크게 瀉下시키니, 잘못된 瀉下는 陰을 손상시키고 脾陽의 상승을 억누르니, 脾氣는 내려가고 濕邪는 안으로 모여 洞泄한다. 또 午後身熱을 보고서 陰虛라 여겨 柔潤藥을 사용하게 되며, 濕은 陰邪를 정체시키는데 다시 柔潤한 陰藥을 더한 것이니 二陰이 相合하여 同氣끼리 단단하게 붙어 풀 수 없다. 오로지 三仁湯으로 上焦의 肺氣를 가볍게 開宣하는데, 肺는 一身之氣를 주관하므로 氣가 化하면 濕 또한 化하게 된다. 濕氣는 넓게 퍼지며 본래 형질이 없어 重濁滋味한 藥으로 치료할

수록 어긋나게 된다. 伏暑와 濕溫은 내 고향에서 秋 呆子라고 속칭하여 모두 陶氏의 『六書』⁽³⁾로 다스리는데, 명칭한 의사가 오히려 병보고 명칭하다고 하니 또한 속인 것이 아닌가! 다시 살펴건데: 濕溫은 모든 溫과 비교해서 병세는 비록 완만하여도 실제로는重하며, 上焦病에는 아주 적고 병세 또한 그다지 뚜렷하지 않으며, 中焦病에 가장 많으며 中焦편에 상세히 나와 있으며, 濕은 陰邪인 까닭에 마땅히 中焦에서 치료방법을 구해야 한다.

三仁湯方

杏仁 五錢 飛滑石 六錢 白通草 二錢 白蔻仁 二錢 竹葉 二錢 厚朴 二錢 生薏仁 六錢 半夏 五錢

甘爛水⁽⁴⁾ 여덟 사발을 달여 세 사발을 취하여 매번 한 사발을 복용하되 하루 세 번 복용한다.

頭痛惡寒, 身重疼痛, 有似傷寒, 脈弦濡, 則非傷寒矣. 舌白不渴, 面色淡黃, 則非傷暑之偏於火者矣. 胸悶不飢, 濕閉清陽道路也. 午後身熱, 狀若陰虛者, 濕爲陰邪, 陰邪自旺於陰分, 故與陰虛同一午後身熱也. 濕爲陰邪, 自長夏而來, 其來有漸, 且其性氤氳粘膩, 非若寒邪之一汗而解, 溫熱之一涼則退, 故難速已. 世醫不知其爲濕溫. 見其頭痛惡寒身重疼痛也, 以爲傷寒而汗之, 汗傷心陽, 濕隨辛溫發表之藥蒸騰上逆, 內蒙心竅則神昏, 上蒙清竅則耳聾目瞑不言. 見其中滿不飢, 以爲停滯而大下之, 誤下傷陰, 而重抑脾陽之升, 脾氣轉陷, 濕邪乘勢內漬, 故洞泄. 見其午後身熱, 以爲陰虛而用柔藥潤之, 濕爲膠滯陰邪, 再加柔潤陰藥, 二陰相合, 同氣相求, 遂有錮如而不可解之勢. 惟以三仁湯輕開上焦肺氣, 蓋肺主一身之氣, 氣化則濕亦化也. 濕氣彌漫, 本無形質, 以重濁滋味之藥治之, 愈治愈壞. 伏暑濕溫, 吾鄉俗名秋呆子, 悉以陶氏『六書』法治之, 不知從何處學來, 醫者呆, 反名病呆, 不亦誣乎! 再按: 濕溫較諸溫, 病勢雖緩而實重, 上焦最少, 病勢不甚顯張, 中焦病最多, 詳見中焦篇, 以濕爲陰邪故也, 當於中焦求之.

三仁湯方

杏仁 (五錢) 飛滑石 (六錢) 白通草 (二錢) 白蔻仁

(二錢) 竹葉 (二錢) 濃朴 (二錢) 生薏仁 (六錢)
半夏 (五錢)
甘瀾水八碗, 煮取三碗, 每服一碗, 日三服.

【字句解】

- (1) 目瞑: 눈을 감다.
- (2) 洞泄: 濕邪가 脾를 손상시켜서 일어난 물 같은 설사, 혹은 大便溇薄한 것이 계속해서 그치지 않은 것.
- (3) 陶氏『六書』: 陶節庵의 『傷寒六書』를 가리킨다.
- (4) 甘瀾水: 흐르는 물을 그릇에 넣고 국자로 잘 흔들거나 저어서 거품을 생기게 한 물.

【考察】

본 조문은 濕溫의 證治 및 갖가지의 誤治後의 變證을 제시한다.

頭痛惡寒, 身重疼痛, 舌白不渴은 濕溫病에서도 나타나고 傷寒에서도 나타난다. 그런데 弦而濡한 脈은 濕溫의 脈이다. 浮緊한 傷寒脈과는 확연한 차이가 있다. 오후에 身熱한 경우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陰虛, 陽明, 血瘀, 濕溫 등등이 그 원인이다. 胸悶不飢도 陽明腑實證의 痞滿證과 혼동할 수가 있다. 여기에서 종종 혼란을 겪게 되는데, 身重, 胸悶不飢, 脈弦而細 등 여러 가지 증상들과 결합해서 보면 濕溫이 원인임을 쉽게 알 수 있다. 汗法을 사용하면 濕邪가 發越해서 淸竅를 막으니 神昏, 耳聾, 目瞑不欲言한 증상이 나타난다.

만약에 胸悶不飢를 陽明腑實證의 痞滿證과 혼동해서 攻下法을 사용하면 洞泄이 나타나고, 午後身熱을 陰虛로 잘못알고 滋陰藥을 쓰게 되면, 病은 더욱 加重되어간다. 그래서 張仲景은 이 조문에서 濕溫을 傷寒, 痞滿證, 陰虛證과 혼동되지 않도록 鑑別에 힘쓸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濕溫病은 어느 계절에 발생하는지를 막론하고 濕溫病이 확실하다면 濕溫病의 규칙에 따라서 鑑別하고 治療해야 한다. 반드시 여름에만 濕溫病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濕溫病은 濕熱이 원인이지만 濕이 주가 된 것은 淸利濕熱하여 氣機를 宣通시켜야 하니 處方은 三仁湯을 써서 다스린다.

處方중에서 杏仁으로 上焦의 肺氣를 宣利하며, 肺는 一身의 氣를 主하고, 氣化하면 濕이 역시 化한다. 白蔻仁은 芳香化濕, 行氣寬中하여, 中焦의 脾氣를 暢하고 薏苡仁은 甘淡性寒하여, 利濕淸熱하고 健脾하여 下焦를 消導하고 濕熱이 소변을 나가게 한다. 滑石의 甘淡性寒을 配伍하여 利濕淸熱하고 解暑한다. 通草와 竹葉의 甘淡性寒으로 淸利濕熱의 效力을 돕는다. 半夏와 厚朴의 辛苦性溫으로 行氣化濕, 散結除痞하여, 行氣化濕의 기능을 돕고 또한 寒涼하여 濕이 막히지 않게 한다. 모든 약이 相合하여 宣上暢中滲下하여, 濕熱의 邪가 三焦에서 分消되게 하여 暑解淸熱하면 모든 증상이 사라진다.¹⁴⁰⁾

44) 濕溫邪入心包하여, 神昏肢逆이면, 淸宮湯去蓮心, 麥冬加銀花, 赤小豆皮하며, 煎送至寶丹, 或紫雪丹亦可라.

濕溫이 經絡에 붙으면 身痛身熱한 징후가 많이 나타나는데 의사가 잘못하여 傷寒으로 여겨 發汗시키니 이러한 證이 나타난다. 張仲景이 濕病家は 發汗시켜서는 안 되며 發汗시키면 瘡病이 된다¹⁴¹⁾고 하였다. 濕熱이 相搏해서 經을 돌아 絡으로 들어가니 淸宮湯을 써서 包中의 熱邪를 식히는데 銀花, 赤豆¹⁴²⁾를 加하여 濕中의 熱을 식히고 또한 手厥陰으로 곧장 들어갈 수 있다. 至寶丹은 穢濁함을 제거하여 神明을 회복시키는데, 至寶丹이 없으면 紫雪丹으로 대신해도 된다.

淸宮湯去蓮心麥冬加銀花赤小豆皮方
犀角 一錢 連翹心 三錢 元蓼心 二錢 竹葉心 二錢 銀花 二錢 赤小豆皮 三錢

至寶丹, 紫雪丹方(모두 앞에 있음)

140) 李範九, 朴贊斗 譯編. 方劑學. 서울. 대성의학사. 2000. p.381.
 141) 傷寒論研究會 編. 傷寒論講義. 서울. 圖書出版 鼎談. 1997. p.108. “瘡家, 雖身疼痛, 不可發汗, 汗出則瘡”
 142) 全國韓醫科大學 本草學教授 共編著. 本草學. 서울. 圖書出版永林社. 1998. p.309. “利水消腫, 解毒排膿”

濕溫著於經絡, 多身痛身熱之候, 醫者誤以爲傷寒而汗之, 遂成是証. 仲景謂濕家忌發汗, 發汗則病瘥. 濕熱相搏, 循經入絡, 故以清宮湯清包中之熱邪, 加銀花, 赤豆以清濕中之熱, 而又能直入手厥陰也. 至寶丹去穢濁復神明, 若無至寶, 即以紫雪代之.

清宮湯去蓮心麥冬加銀花赤小豆皮方
犀角(一錢) 連翹心(三錢) 元參心(二錢) 竹葉心(二錢) 銀花(二錢) 赤小豆皮(三錢)
至寶丹, 紫雪丹方(並見前)

【考察】

본 조문은 濕溫의 邪氣가 心包로 들어가는 證治를 제시한다.

일반적인 濕溫病의 상황(43조)에서 發汗法을 잘못 사용하면 濕溫의 邪氣가 心包로 들어가서 神昏이 나타난다. 肢逆은 濕邪가 陽氣를 가로막아서 陽氣가 四肢로 도달하지 못해서 일어난다. 그래서 治法은 清熱利濕開竅하여야 하고 處方은 清宮湯去蓮心麥冬加銀花赤小豆皮方과 至寶丹, 혹은 紫雪丹을 사용한다. 清宮湯은 원래 熱이 심해서 津液을 손상시킴과 동시에 熱이 心包를 막는 경우에 사용하는데, 여기서는 濕溫病의 濕邪 때문에 蓮心과 麥冬을 제거하고 金銀花와 赤小豆皮를 加한 것이다.

45) 濕溫喉阻咽痛하면, 銀翹馬勃散主之라.

肺는 氣를 주관하는데 濕溫이 있으면 肺氣가 不化하고 鬱滯가 심해져 一陰一陽의 火가 모두 멎히게 된다. 대개 금이 病들면 木을 다스릴 수 없어 木이 오히려 心火를 끼고 肺金을 刑罰한다. 喉는 肺系이니 氣分에서 막히면 喉가 막히고 血分에서 막히면 喉가 아프므로 가벼운 藥으로서 開宣한다.

銀翹馬勃散方(辛涼微苦法)
連翹 一兩 牛蒡子 六錢 銀花 五錢 射干 三錢 馬勃 二錢
위의 약들을 찌어서 散劑로 만들어서 銀翹散法대로 복용한다. 통증이 없이 막힘만 심하면 滑石 六錢 桔梗 五錢 葦根 五錢을 加한다.

肺主氣, 濕溫者, 肺氣不化, 郁極而一陰一陽(謂心與膽也)之火俱結也. 蓋金病不能平木, 木反挾心火來刑肺金. 喉即肺系, 其閉在氣分者即阻, 閉在血分者即痛也, 故以輕藥開之.

銀翹馬勃散方(辛涼微苦法)
連翹(一兩) 牛蒡子(六錢) 銀花(五錢) 射干(三錢) 馬勃(二錢)
上杵爲散, 服如銀翹散法. 不痛但阻甚者, 加滑石六錢, 桔梗五錢, 葦根五錢.

【考察】

본 조문은 濕溫으로 인해 咽喉가 막히고 아픈 證治를 제시한다.

통증이 없고 다만 막히는 것은 濕이 氣機로 하여금 不利하게 해서 일어난 것이고, 다만 통증은 있고 막힘이 없는 것은 火가 血分을 막아서 일으킨 것이다. 濕溫이 病을 일으킬 때는 咽喉의 막힘과 喉部의 통증이 자주 동시에 나타난다. 治法은 清熱利濕, 散結利咽하여야 한다. 處方은 銀翹馬勃散方을 사용한다.

處方에서 銀花, 連翹는 清熱解毒하고, 馬勃, 牛蒡子는 散結利咽하고, 射干¹⁴³⁾은 祛痰利咽한다.

만약 喉部의 통증이 없고 단지 咽部의 막히는 증상이 있으면 濕邪가 편성된 것이다. 그래서 滑石, 桔梗, 葦根을 加해서 利濕하고 開宣肺氣하여야 한다.

46) 太陰濕溫에, 氣分痺郁⁽¹⁾而噤者면, 宣痺湯主之라.

上焦의 清陽이 臏鬱된 경우에도 딸꾹질이 날 수 있으므로 治法은 肺氣를 輕宣하는 것이 主가 된다.

宣痺湯(苦辛通法)
枇杷葉 二錢 鬱金 一錢五分 射干 一錢 白通草 一錢 香豆豉 一錢五分
물 다섯 잔을 달여서 두 잔을 취해 두 번으로 나누어서 복용한다.

143) 全國韓醫科大學 本草學教授 共編著. 本草學. 서울. 圖書出版永林社. 1998. p.214.

上焦清陽郁，亦能致噦，治法故以輕宣肺痺爲主。

宣痺湯(苦辛通法)

枇杷葉(二錢) 郁金(一錢五分) 射干(一錢) 白通草(一錢) 香豆豉(一錢五分)

水五杯，煮取二杯，分二次服。

【字句解】

(1) 痺鬱: 통하지 않아서鬱結된다는 뜻

【考察】

본 조문은 濕溫이 딸꾹질을 일으키는 證治를 제시한다.

噦證을 일으키는 원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寒으로 인하거나 熱로 인하거나 氣鬱로 인하거나 病이 위급한 때에 모두 噦이 나타날 수 있다. 이 조문에서의 噦은 濕溫이 일으킨 것으로 吳鞠通은 다른 기타 증상은 서술하지 않았다. 濕熱이 肺의 清陽之氣를 막아서 膈鬱上逆해서 噦이 나타난 것으로, 治法은 宣鬱理氣, 清利濕熱하여야 하고 處方은 宣痺湯을 사용한다.

處方에서 鬱金은 行氣化痰, 清心解鬱, 利膽退黃하고(144), 豆豉(145)와 射干은 上焦의 熱邪를 宣清하고, 白通草는 通利濕熱하고, 枇杷葉은 化痰止咳, 和胃降逆한다(146).

47) 太陰濕溫喘促⁽¹⁾者면, 千金葦莖湯加杏仁, 滑石主之라.

『金匱』에서는 喘이 上焦에 있으면 호흡이 촉박하다(147)고 하였다. 太陰의 濕이 蒸騰하여 痰이되면 喘息이 편안하지 못하므로 葦莖湯을 써서 肺氣를 輕宣하는데 杏仁, 滑石을 加해서 利竅시켜 熱飲을 몰아낸

다. 만약 寒飲으로 喘咳한 경우에는 治法은 飲家에 속하고 이 예에서는 있지 아니하다.

千金葦莖湯加杏仁滑石方(辛淡法)

葦莖 五錢 薏苡仁 五錢 桃仁 二錢 冬瓜仁 二錢 滑石 三錢 杏仁 三錢

물 여덟 잔을 달여서 세 잔을 취해 세 번으로 나누어서 복용한다.

『金匱』謂喘在上焦, 其息促. 太陰濕蒸爲痰, 喘息不寧, 故以葦莖湯輕宣肺氣, 加杏仁, 滑石利竅而逐熱飲. 若寒飲喘咳者, 治屬飲家, 不在此例.

千金葦莖東加滑石杏仁湯(辛淡法)

葦莖(五錢) 薏苡仁(五錢) 桃仁(二錢) 冬瓜仁(二錢) 滑石(三錢) 杏仁(三錢)

水八杯, 煮取三杯, 分三次服.

【字句解】

(1) 喘促: 간단하게 喘이라고 하기도 하고 喘逆이라고도 하며 옛날에는 上氣, 喘息이라고 하였음. 일반적으로 통틀어서 氣喘이라고 함. 호흡이 가쁜 것이 특징인 일종의 病證을 가리킨다.

【考察】

본 조문은 濕溫으로 인해 喘促을 일으키는 證治를 제시한다.

喘促의 原因은 痰飲, 火邪, 風寒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는 濕溫이 일으킨 것으로 熱이 濕을 달구어서 痰熱을 이루고 痰熱이 相搏하니 肺氣가 宣降할 수 없어서 呼吸할 때에 喘促이 발생한다. 治法은 清肺化痰, 宣肺利濕하여야 하고, 處方은 千金葦莖湯에 杏仁, 滑石을 加해서 主治한다.

處方중에 葦莖은 蘆根으로 肺中の 濕熱을 清泄하고, 薏苡仁은 利水滲濕, 清熱하고, 冬瓜仁은 潤肺化痰, 消癰, 利水하고(148), 桃仁은 活血祛瘀해서 熱이 뭉친 것을 식혀서 풀고, 滑石은 清利濕熱하고, 杏仁은 宣通肺氣해서 喘促을 그치게 한다.

148) 全國韓醫科大學 本草學教授 共編著. 本草學. 서울. 圖書出版永林社. 1998. p.477.

144) 全國韓醫科大學 本草學教授 共編著. 本草學. 서울. 圖書出版永林社. 1998. p.415.

145) 全國韓醫科大學 本草學教授 共編著. 本草學. 서울. 圖書出版永林社. 1998. p.154.

146) 全國韓醫科大學 本草學教授 共編著. 本草學. 서울. 圖書出版永林社. 1998. p.476.

147) 大塚敬節 主講. 金匱要略講話. 원주. 醫方出版社. 2004. p.45. “吸而微數, 其病在中焦也, 實也, 當下之, 即愈, 虛者不治. 在上焦者, 其吸促, 在下焦者, 其吸遠, 此皆難治”

48) 『金匱』謂太陽中暈⁽¹⁾하고, 身熱疼痛而脈微弱하면, 此以夏月傷冷水⁽²⁾하여, 水行皮中所致也이니, 一物瓜蒂湯主之라.

이는 熱은 적고 濕이 많은 상태로 陽氣가 鬱滯되어 病을 일으킨 것이다. 瓜蒂가 그 邪氣를 涌吐하니 暑濕이 모두 풀려서 淸陽이 원상태로 돌아온다.

一物瓜蒂湯方
瓜蒂二十个

위 약재를 찧어 부수고 逆流水⁽³⁾ 여덟 잔을 달여서 세 잔을 취하여 먼저 한 잔을 마시되 吐하지 않으면 더 복용하고 吐하면 더 이상 복용하지 않는다. 虛한 자는 人蔘의 蘆頭 세 錢을 加한다.

此熱少濕多, 陽郁致病之方法也. 瓜蒂涌吐其邪, 暑濕俱解, 而淸陽復辟矣.

一物瓜蒂湯方
瓜蒂 (二十個)

上搗碎, 以逆流水八杯, 煮取三杯, 先服一杯, 不吐再服, 吐停後服. 虛者加參蘆三錢.

【字句解】

(1) 中暈: 中暑를 말함

(2) 傷冷水: 冷水浴으로 지나치게 冷水나 雨淋 등의 外濕侵犯을 접촉함.

(3) 逆流水: 물이 흐르는 방향을 거슬러서 얻은 물

【考察】

본 조문은 暑邪에 의해서 痰飲이 생기는 證治를 제시한다.

본 조문은 『金匱要略』의 내용을 그대로 引用¹⁴⁹⁾하였다.

여름철은 차가운 물을 접촉하다 보니 冷水에 손상당하기 쉽다. 冷水는 暑熱을 만나서 식히지 못하고

오히려 가로막으니 身熱하게 된다. 冷水는 濕을 만나서 서로 相搏하니 疼痛하게 된다. 그리고 濕이 陽을 가로 막으니 脈은 微弱해진다. 그래서 治法은 涌吐暑濕하여야 하고 處方은 一物瓜蒂湯을 사용한다.

處方중 瓜蒂¹⁵⁰⁾는 涌吐하여 發汗시키고, 逆流水는 瓜蒂를 도와서 邪氣로 하여금 거스르는 方向으로부터 나오게 한다. 만약 身體가 虛弱하면 蔘의 蘆頭를 加하여서, 한편으론 그 正氣를 補하고 한편으론 涌吐를 도와서, 正氣로 하여금 補를 얻게 하고 邪氣로 하여금 吐를 얻게 하여서 祛邪하면서도 正氣를 손상시키지 않는 效능을 취한다.

49) 寒濕傷陽하여, 形寒脈緩, 舌淡, 或白滑不渴, 經絡拘束⁽¹⁾하면, 桂枝薑附湯主之라.

寒濕을 揭載한 것은 서로 濕溫과 대비하기 위한 까닭이다. 살피 건데 寒濕이 表陽을 손상시키고 經絡에 積중된 證은, 『金匱』에서 아주 상세히 설명되어 있으니 여기서는 자세히 기록하지 않는다. 유독 葉氏의 醫案중 한 조문만을 취하여 寒濕과 濕溫을 혼동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形寒脈緩, 舌淡, 或白滑不渴, 經絡拘束하는 것은 모두 寒證이다. 그러므로 乾薑과 附子로 溫中시키고 白朮로 燥濕시키고 桂枝로 表陽을 通行시킨다.

桂枝薑附湯(苦辛熱法)

桂枝 六錢 乾薑 三錢 白朮(生) 三錢 熟附子 三錢
물 다섯 잔을 달여서 두 잔을 취하고 찌꺼기는 다시 달여서 한잔으로 복용한다.

載寒濕, 所以互証濕溫也. 按寒濕傷表陽中經絡之証, 『金匱』論之甚詳, 茲不備錄. 獨采葉案一條, 以見濕寒, 濕溫不可混也. 形寒脈緩, 舌白不渴, 而經絡拘束, 全系寒証, 故以姜附溫中, 白朮燥濕, 桂枝通行表陽也.

桂枝姜附湯 (苦辛熱法)

149) 大塚敬節 主講. 金匱要略講話. 圓珠. 醫方出版社. 2004. p.77. “太陽中暈, 身熱疼重, 而脈微弱, 此以夏月傷冷水, 水行皮中所致也, 一物瓜蒂湯主之”

150) 全國韓醫科大學 本草學教授 共編著. 本草學. 서울. 圖書出版永林社. 1998. p.635. “吐風痰宿食, 瀉水濕停飲”

桂枝(六錢) 干姜(三錢) 白朮(生, 三錢) 熟附子(三錢)

水五杯, 煮取二杯, 渣再煮一杯服.

【字句解】

(1) 經絡拘束: 肌表肌肉이 당겨서 불편한 느낌이 있는 것을 가리킴.

【考察】

본 조문은 寒濕이 陽을 손상시킨 證治를 제시한다. 본 조문은 寒邪에 損傷된 것으로 濕溫과 서로 鑑別하기 위해서 寒濕編에 배열시켰다. 形寒은 衛陽이 寒邪에 손상을 받은 것이고, 經脈이 不利한 것은 經絡이 寒濕에 손상을 받은 것이다. 人體가 寒邪에 손상을 받으면 기본적으로 渴症이 없고 脈緩하고 舌淡苔白滑한다. 治法은 散寒祛濕하여야 하고 處方은 桂枝薑附湯을 사용한다.

處方에서 乾薑¹⁵¹⁾과 附子¹⁵²⁾는 回陽散寒止痛하고, 白朮은 健脾燥濕하고, 桂枝는 發汗解肌, 溫經通脈, 助陽化氣하니¹⁵³⁾, 모든 藥이 散寒祛濕通絡하는 효능이 나타난다.

5. 溫瘧

50) 骨節煩⁽¹⁾, 時嘔, 其脈如平, 但熱不寒을, 名曰溫瘧⁽²⁾이라 하니, 白虎加桂枝湯主之라.

陰氣가 먼저 손상되어 陽氣가 홀로 發散되어 단지 熱만 나고 惡寒하지 않으며 肌肉을 태우는 것은 伏暑와 비슷하니 이 또한 溫病의 부류이다. 彼此(溫病과 伏暑)가 서로 혼동하기에 충분하므로 여기에 덧붙여서 함께 살펴볼 수 있다. 白虎加桂枝湯으로 치료하는데 白虎로서 保肺清金하여 陽明의 獨勝한 熱을 强하

게 瀉하고 肌肉을 타지 않게 한다. 桂枝一味는 邪氣를 통솔하여 밖으로 나가는 안내자가 되어 熱因熱用의 묘미를 얻는다. 經에 이르기를: “奇治之不治, 則偶治之, 偶治之不治, 則求其屬以衰之”¹⁵⁴⁾라고 한 것이 이것이며 또 復方이라 한다.

白虎加桂枝湯方(辛涼苦甘復辛溫法)

知母 六錢 生石膏 一兩六錢 粳米 一合 桂枝木 三錢 炙甘草 二錢

물 여덟 사발을 달여서 세 그릇을 취한다. 먼저 한 그릇을 복용하여 땀이 나면 되는데 땀이 나지 않으면 더 복용한다. 땀이 난 후에도 여전히 하루 분을 복용하되 中焦의 病이 있으면 복용을 멈춘다.

陰氣先傷, 陽氣獨發, 故但熱不寒, 令人消燦肌肉, 與伏暑相似, 亦溫病之類也. 彼此實足以相混, 故附於此, 可以參觀而並見. 治以白虎加桂枝湯者, 以白虎保肺清金, 峻瀉陽明獨勝之熱, 使不消燦肌肉, 單以桂枝一味, 領邪外出, 作向導之官, 得熱因熱用之妙. 經云: “奇治之不治, 則偶治之, 偶治之不治, 則求其屬以衰之”, 是也, 又謂之複方.

白虎加桂枝湯方(辛涼苦甘復辛溫法)

知母(六錢) 生石膏(一兩六錢) 粳米(一合) 桂枝木(三錢) 炙甘草(二錢)

水八碗, 煮取三碗. 先服一碗, 得汗爲知, 不知再服, 知後仍服一劑, 中病即已.

【字句解】

(1) 骨節煩疼: 온몸의 骨關節이 아프고 불안하며 아울러 熱感이 있는 증상을 가리킴.

(2) 溫瘧: 瘧疾가운데 하나이며, 『素問·瘧論』¹⁵⁵⁾에 나온다. 내부에 伏邪가 있는데다 暑熱을 다시 感受받아서 나타나는 일종의 內熱이 盛한 瘧疾을 말함. 『金匱要略』에서는 ‘身無寒, 但熱’이 특징이다.

151) 全國韓醫科大學 本草學教授 共編著. 本草學. 서울. 圖書出版永林社. 1998. p.334. “溫中逐寒, 回陽通脈.”
152) 全國韓醫科大學 本草學教授 共編著. 本草學. 서울. 圖書出版永林社. 1998. p.331. “回陽補火, 散寒除濕”
153) 全國韓醫科大學 本草學教授 共編著. 本草學. 서울. 圖書出版永林社. 1998. p.124.

154) 素問研究集成刊行委員會 編. 素問研究集成 卷九. 대구. 金星印刷社. 2001. p.519. “奇之不去則偶之, 是謂重方. 偶之不去, 則反佐以取之, 所謂寒熱溫涼, 反從其病也”
155) 素問研究集成刊行委員會 編. 素問研究集成 卷四. 대구. 金星印刷社. 2001. p.128.

【考察】

본 조문은 溫瘧의 證治를 제시한다.

骨節煩疼은 表邪가 있는 상태에서 熱이 鬱滯되어 일어난 것이다. 熱邪가 內盛하면 上逆하게 되고 胃의 和降작용이 失調가 되어 嘔吐가 나타난다. 瘧疾의 脉은 일반적으로 弦脈인데 여기서는 ‘其脉如平’이라 하였으니 내부에 伏邪가 있는 溫瘧이기 때문이다. 內熱이 熾盛하여서 白虎湯을 썼으며 表邪가 있는 骨節煩疼을 다스리기 위해서 桂枝를 加한 것이다. 治法은 清熱護陰, 領邪出表하여야 하고 方藥은 白虎加桂枝湯을 사용한다. 溫瘧에 걸렸을 때에 白虎桂枝湯을 사용하는 것은 『金匱要略』¹⁵⁶⁾에서 나온다. 이 조문의 내용이 『金匱要略』의 내용과 거의 같다.

處方에서 白虎湯은 清熱除煩, 益氣生津한다. 辛散한 桂枝를 加해서 發汗透熱하고 領邪出表할 수 있다. 그러므로 骨節煩痛한 경우에 사용하는 것이다.

51) 但熱不寒, 或微寒多熱, 舌乾口渴은, 此乃陰氣先傷하여, 陽氣獨發이니, 名曰瘧瘧¹⁾이라 하여, 五汁飲主之라.

張仲景의 瘧瘧이라는 조문 아래에는 음식으로 消息하라고 하면서 處方은 나오지 않았다.¹⁵⁷⁾ 이와 같이 重病을 다스리면서 藥을 쓰지 않고 음식이라는 두 글자만 내놓는 것은 胃氣를 중요시함을 보여준다. 陽明이 臟象에서는 陽土가 되고 氣運에서는 燥金이 되니 病은 陰傷陽獨에 속하고 治法은 당연히 陰을 救해야 함을 어찌 의심하겠는가? 胃氣를 중요시할 때 治法은 마땅히 胃陰을 救해야 함을 어찌 의심하겠는가? 陽土와 燥金의 偏勝을 억제하고 獨亢하는 孤陽에 견줄 수 있는 것은 甘寒柔潤한 藥이 아니고서는 무엇이 되겠는가? 이는 喻氏의 甘寒之論으로 탁월함을 비유할 수 없다. 葉氏가 이를 떠받드니 後世의 學者는 모두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

156) 大塚敬節主講, 金匱要略講話, 醫方出版社, 원주, 2004, p.94. “溫瘧者, 其脈如平, 身無寒, 但熱, 骨節煩疼, 時嘔, 白虎加桂枝湯主之”

157) 大塚敬節主講, 金匱要略講話, 醫方出版社, 원주, 2004, p.92. “以飲食消息止之”

五汁飲(처방은 앞에 있음)

〔加減法〕 이는 甘寒으로 胃陰을 救하는 처방이다. 表熱을 다스리고자 하면 竹葉, 連翹를 加하고, 陽明의 獨勝한 熱을 瀉하고 肺의 化源을 保하고자하면 知母를 加하고 陰血을 구하고자 하면 生地, 元參을 加하고 肺氣를 宣發하고자 하면 杏仁을 加하고 三焦를 通하게 해서 邪氣가 밖으로 빠져 나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고자 하면 滑石을 加한다.

仲景於瘧瘧條下, 謂以飲食消息之, 並未出方, 調如是重病而不用藥, 特出飲食二字, 重胃氣可知. 陽明於臟象爲陽土, 於氣運爲燥金, 病系陰傷陽獨, 法當救陰何疑. 重胃氣, 法當救胃陰何疑. 製陽土燥金之偏勝, 配孤陽之獨亢, 非甘寒柔潤而何. 此喻氏甘寒之論, 其超卓無比倫也. 葉氏宗之, 後世學人, 咸當宗之矣.

五汁飲(方見前)〔加減法〕此甘寒救胃陰之方也. 欲清表熱, 則加竹葉, 連翹; 欲瀉陽明獨勝之熱, 而保肺之化源, 則加知母; 欲救陰血, 則加生地, 元參; 欲宣肺氣, 則加杏仁; 欲行三焦開邪出路, 則加滑石.

【字句解】

(1) 瘧瘧: 瘧은 熱邪이니, 瘧瘧은 熱瘧이다.

【考察】

본 조문은 瘧瘧의 證治를 제시한다.

본 조문과 50조(溫瘧)를 비교해보면, 모두 ‘但熱不寒’인데 溫瘧은 내열이 치성하지만, 瘧瘧은 內外의 熱이 모두 熾盛한 것이다. 그리고 溫瘧은 實에 치우치고 瘧瘧은 虛에 치우치는 것이다. 溫瘧은 傷陰하는 徵候가 없고 본 조문은 傷陰하는 徵候가 있으니, 50조는 단지 清熱만 하고 본 조문은 清熱과 養陰을 병행한다. 그래서 治法은 救陰하여야 하므로 五汁飲으로 다스린다.

『金匱要略』에 “陰氣가 극히 부족하고 陽氣가 홀로 盛하면 熱이 높고 호흡이 짧고 煩悶하게 되며, 手足이 熱하고 嘔吐하고 싫어지는 것을 이름 하여 瘧瘧이라고 한다. 만일 惡寒은 없고 熱만 있으면, 邪氣가 안으로는 心으로 들어가고 밖으로는 分肉之間에 침범

하여 사람을 깡마르게 한다.”¹⁵⁸⁾이라 하여, 癰瘡의 원인을 陰氣孤絶이라 하였다.

52) 舌白渴飲, 咳嗽頻仍, 寒從背起는, 伏暑所致이니, 名曰肺癰⁽¹⁾이라 하며, 杏仁湯主之라.

肺癰은 癰中에서 지극히 가벼운 것이다. 肺癰은, 비록 풀리기 쉽다고 하나 약간 느슨해지면 病이 깊어지며, 癰疾을 다스릴 때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小柴胡湯을 가장 禁忌시한다. 이는 肺는 少陽의 半表半裏와 차이가 있으니, 邪氣를 이끌고 깊이 들어가서는 안 되므로, 杏仁湯으로 肺氣를 輕宣시키고 邪氣가 모이게 않게만 하면 낫는다.

杏仁湯方(苦辛寒法)

杏仁 三錢 黃芩 一錢五分 連翹 一錢五分 滑石 三錢 桑葉 一錢五分 茯苓塊 三錢 白薤皮 八分 梨皮 二錢

물 세잔을 달여서 두 잔을 취하여 하루 두 번을 복용한다.

肺癰, 癰之至淺者. 肺癰雖雲易解, 稍緩則深, 最忌用治癰印板俗例之小柴胡湯, 蓋肺去少陽半表半裏之界尚遠, 不得引邪深入也, 故以杏仁湯輕宣肺氣, 無使邪聚則愈.

杏仁湯方(苦辛寒法)

杏仁(三錢) 黃芩(一錢五分) 連翹(一錢五分) 滑石(三錢) 桑葉(一錢五分) 茯苓塊(三錢) 白薤皮(八分) 梨皮(二錢)

水三杯, 煮取二杯, 日再服.

【字句解】

(1) 肺癰: 이 해석에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素問·刺癰篇』에: “肺癰은 가슴팍에 惡寒이 들고, 惡寒

이 發熱보다 심하여 發熱하는 중간에 헛것을 본 것처럼 자주 놀라게 한다.”¹⁵⁹⁾라 한 것이고; 또 하나는 본 조문 중에서 吳鞠通이 지적한 바의 증상이다.

【考察】

본 조문은 肺癰의 證治를 제시한다.

癰疾에는 臟腑별로 癰疾이 모두 존재하는데, 肝癰, 心癰, 脾癰, 肺癰, 腎癰 등이 있다. 그 중에서도 肺癰은 病이 비교적 가볍다. 舌白은 濕이 있다는 뜻이고, 渴飲은 안에 熱이 있다는 것이고, 咳嗽가 빈발한 것은 濕熱로 인해 肺가 宣降을 잃어버리는 것이다. 그래서 治法은 清化濕熱, 宣肺止咳하여야 하고 處方은 杏仁湯을 쓴다.

處方중 杏仁은 上焦의 肺氣를 宣利하며, 白薤仁은 芳香化濕, 行氣寬中하여 中焦의 脾氣를 暢하고, 薤仁은 甘淡性寒하여 利濕清熱하고 健脾하여 下焦를 消導하고 濕熱이 소변으로 나가게 하며 滑石과 함께 利濕清熱하고 解暑한다. 通草와 竹葉은 清利濕熱의 효력을 높인다. 半夏와 厚朴은 行氣化濕, 散結除痞하여 行氣化濕의 기능을 돕고 또한 濕을 막지 않게 한다. 모든 藥이 조화를 이루어 宣上暢中滲下하여 濕熱의 邪가 三焦에서 分消되게 하여 暑解熱清하면 모든 증상이 사라진다.¹⁶⁰⁾

53) 熱多昏狂, 譫語煩渴, 舌赤中黃, 脈弱而數을, 名曰心癰⁽¹⁾이라 하며, 加減銀翹散主之하고; 兼穢, 舌濁⁽²⁾口氣重者면, 安宮牛黃丸主之라.

心癰이라는 것은 心은 邪氣를 받지 않으나 邪氣를 받으면 죽게 되며, 癰邪가 처음 肺에서 邪氣를 받아 心包絡으로 逆傳된 것이다. 가볍게 邪氣를 받으면 銀翹散을 加減하여 肺와 膈中の 熱을 식혀 邪氣를 인도하여 衛分으로 내보낸다. 重하게 邪氣를 받으면 邪氣가

158) 大塚敬節主講, 金匱要略講話, 醫方出版社, 원주, 2004, p.94. “陰氣孤絶, 陽氣獨發, 則熱而少氣煩冤, 手足熱而欲嘔, 名曰癰瘡. 若但熱不寒者, 邪氣內藏於心, 外舍分肉之間, 令人消鑠肌肉”

159) 素問研究集成刊行委員會 編. 素問研究集成 卷四. 대구. 金星印刷社. 2001. p.164. “肺癰者, 令人心寒, 寒甚熱, 熱間善驚, 如有所見”

160) 李範九, 朴贊斗 譯編. 方劑學. 서울. 대성의학사. 2000. p.381.

心包의 구멍을 닫아 內閉外脫의 위험이 생기므로 牛黃丸으로 宮城의 熱을 식혀서 君主를 편안하게 한다.

加減銀翹散方(辛涼兼芳香法)

連翹 十分 銀花 八分 元參 五分 麥冬(不去心) 五分 犀角 五分 竹葉 三分

모두 거칠게 갈아서 매번 五錢씩을 복용하는데 달여서 찌꺼기를 제거하여 찻수저로 두 세수저의 荷葉汁을 탄다. 하루 세 번 복용한다.

安宮牛黃丸方(앞에 있음)

心瘡者, 心不受邪, 受邪則死, 瘡邪始受在肺, 逆傳心包絡. 其受之淺者, 以加減銀翹散清肺與膈中之熱, 領邪出衛; 其受之重者, 邪閉心包之竅, 則有閉脫之危, 故以牛黃丸, 清宮城而安君主也.

加減銀翹散方(辛涼兼芳香法)

連翹(十分) 銀花(八分) 元參(五分) 麥冬(五分, 不去心) 犀角(五分) 竹葉(三分)

共爲粗末, 每服五錢, 煎成去渣, 點荷葉汁二, 三茶匙. 日三服.

安宮牛黃丸方(見前)

【字句解】

(1) 心瘡: 그 설명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素問·刺瘡篇』에 “心瘡은 心煩이 심하여 찬물을 마시고자 하는데도 오히려 惡寒이 심하고 發熱은 심하지 않는다.”¹⁶¹⁾라 한 것이고, 또 하나는 吳鞠通이 지적한 증상이다.

(2) 舌濁: 舌苔가 濁膩함을 가리킴

【考察】

본 조문은 心瘡의 證治를 제시한다.

心瘡은 瘡邪가 營分에 침입해서 熱毒이 營血을 불사르는데, 더 심각한 경우에는 心에 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다. 發熱, 譫語, 煩躁, 昏狂은 熱邪가

心에 까지 미쳐서 津液을 태운 것이다. 病邪가 조금 약한 것은 加減銀翹散을 사용하고 病邪가 무거운 것은 安宮牛黃丸을 사용한다.

加減銀翹散方중 銀花와 連翹는 清熱解毒하고 아울러 引邪外達하고, 犀角은 清熱涼血하고, 元參과 麥門冬은 清熱養陰하고, 竹葉은 心經의 熱을 끌어서 下行시키고, 荷葉汁은 구멍을 가볍게 식히니, 모든 藥이 相伍하여 모두 清熱涼血, 透熱養陰清竅하는 효능이 나타난다.

6. 秋燥

54) 秋感燥氣하여, 右脈數大는, 傷手太陰氣分者이니, 桑杏湯主之라.

前代의 사람이 말하길 六氣중 오직 燥만이 病이 되지 않는다고 한 것은 모두 이와 같은 것 같다. 대개 『內經』에서 가을에 燥에 感受된다는 한 조문만이 빠져 있으므로 이 이론이 있게 된 것 뿐이다. 예를 들어 陽明이 司天하는 해에 어찌 燥金이 일으키는 病이 없겠는가? 대저 봄가을의 두 계절은 기후가 여름과 겨울에 偏寒偏熱한 것에 비해서 平和하니, 겨울과 여름의 伏氣로 인해 病이 된 것이 많으면 本氣自病으로 인해 病이 된 것은 적고, 伏氣로 인해 病이 된 것이 중하면 本氣自病으로 인해 病이 된 것은 輕하다. 그 연유로 本氣自病으로 인한 燥證은 초기에 반드시 肺衛에 있으므로 桑杏湯으로서 氣分의 燥를 식히는 것이다.

桑杏湯方(辛涼法)

桑葉 一錢 杏仁 一錢五分 沙蔘 二錢 象貝 一錢 香豉 一錢 梔皮 一錢 梨皮 一錢

물 두 잔을 달여서 한잔을 취하여 단번에 복용하되, 重한 자는 더 지어서 복용한다.

前人有云: 六氣之中, 惟燥不爲病, 似不盡然. 蓋以 『內經』少秋感於燥一條, 故有此議耳. 如陽明司天之年, 豈無燥金之病乎? 大抵春秋二令, 氣候較夏冬之偏寒偏熱爲平和, 其由於冬夏之伏氣爲病者多, 其由

161) 素問研究集成刊行委員會 編. 素問研究集成 卷四. 대구. 金星印刷社. 2001. p.164. “心瘡者, 令人煩心甚, 欲得清水, 反寒多, 不甚熱”

於本氣自病者少，其由於伏氣而病者重，本氣自病者輕耳。其由於本氣自病之燥証，初起必在肺衛，故以桑杏湯清氣分之燥也。

桑杏湯方(辛涼法)

桑葉(一錢)杏仁(一錢五分)沙參(二錢)象貝(一錢)香豉(一錢)梔皮(一錢)梨皮(一錢)

水二杯，煮取一杯，頓服之，重者再作服(輕藥不得重用，重用必過病所。再一次煮成三杯，其二，三次之氣味必變，藥之氣味俱輕故也)。

【字句解】

(1) 本氣自病: 六淫의 邪氣에 感受받아서 즉시 나타나는 新感의 病을 말한다.

【考察】

본 조문은 秋燥의 證治를 제시한다.

秋燥는 溫燥와 涼燥로 나누는데 溫燥의 邪氣에 感受된 경우에는 熱象이 있고, 涼燥의 邪氣에 感受된 경우에는 寒象이 있다. 右脈이 數大한 것으로 보아 溫燥임을 알 수 있다. 이로써 증상을 추리해보면 乾咳痰少, 口乾痛, 口渴, 鼻乾, 或發熱頭痛 등이 나타난다. 治法은 輕宣燥熱, 涼潤肺金하여야 하므로 桑杏湯을 써서 치료한다.

處方중에 桑葉은 輕宣燥熱하고, 杏仁은 宣利肺氣, 潤燥止咳한다. 豆豉는 辛涼解表하므로 桑葉을 도와 輕宣透熱하고 貝母는 清火痰熱하여 杏仁을 도와 止咳化痰하고, 沙參은 潤肺止咳生津한다. 梔子皮는 질이 가벼워 上焦에 들어가 清泄肺熱하고 梨皮는 清熱潤燥, 止咳化痰한다. 모든 藥이 합쳐져서 밖으로는 輕宣燥熱, 안으로는 涼潤肺金하며, 辛涼甘潤한 方으로 燥熱이 제거되고 肺津이 회복되면 모든 證이 스스로 낫게 된다. 解表透熱해서 表에 있는 邪氣를 제거하고, 杏仁은 宣肺止咳하고, 貝母는 肺熱을 식혀서 化痰시키고, 梔子皮는 清泄肺熱하고, 沙參, 梨皮는 生津潤燥하니, 모든 藥이 합쳐져서 解表止咳, 清熱潤肺하는 效능이 나타난다.¹⁶²⁾

162) 李範九, 朴贊斗 譯編, 方劑學, 서울, 대성의학사, 2000, p.517.

55) 感燥而咳者면, 桑菊飲主之라.

肺衛를 救하는 가벼운 方劑이다.

桑菊飲方(앞에 있음)

亦救肺衛之輕劑也.

桑菊飲方(見前)

【考察】

본 조문은 燥邪에 感受되는 證治를 제시한다.

燥邪가 肺衛를 손상시키면 반드시 기침을 하게 되는데 약간의 渴症이 있으며 發熱은 그리 심하지 않는다. 燥邪가 肺衛를 손상시켰으나 渴症이 심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處方은 가벼운 辛涼輕劑인 桑菊飲을 사용한 것이다.

앞 조문도 본 조문과 같이 燥邪가 원인인긴 하나, 口渴이 비교적 甚하다고 보고 桑杏湯을 사용한 것이다.

56) 燥傷肺胃陰分하야, 或熱或咳者면, 沙蔘麥門冬湯主之라.

이 조문은 앞의 조문보다 한층 더 깊은 것이므로 甘寒으로 그 津液을 救한다.

沙蔘麥門冬湯(甘寒法)

沙蔘 三錢 玉竹 三錢 生甘草 一錢 冬桑葉 一錢五分 麥冬 三錢 生扁豆 一錢五分 花粉 一錢五分

물 다섯 잔을 달여서 두 잔을 취하여 하루 두 번 복용한다. 熱이 오래되고 기침이 오래 된 것은 地骨皮 三錢을 加한다.

此條較上二條, 則病深一層矣, 故以甘寒救其津液.

沙蔘麥冬湯(甘寒法)

沙蔘(三錢)玉竹(二錢)生甘草(一錢)冬桑葉(一錢五分)麥冬(三錢)生扁豆(一錢五分)花粉(一錢五分)水五杯, 煮取二杯, 日再服. 久熱久咳者, 加地骨皮三錢.

【考察】

본 조문은 燥邪가 肺胃를 손상시킨 證治를 제시한다. 앞의 두 조문은 燥邪가 모두 肺陰을 손상시킨 것인데, 본 조문은 肺陰을 손상시킬 뿐만 아니라 胃陰을 더욱 크게 손상시킨 것으로 그 病이 더욱 重함을 설명한 것이다. 肺陰이 손상되면 乾咳無痰하거나 痰이 있어도 粘膩하거나 嘔내기가 어렵다. 胃陰이 손상되면 口乾, 口渴, 舌赤 등의 증상이 있어야 한다. 治法은 肺胃의 陰을 滋養시켜야 하고 處方은 沙蔘麥冬湯을 써서 치료한다.

處方중에 沙蔘, 麥冬, 玉竹은 肺胃의 陰을 기르고 花粉은 清熱시켜며, 生扁豆, 甘草는 胃氣를 도와서 生津하고, 桑葉은 肺중의 燥熱之邪를 清透시켜서 기침을 그치게 하니, 모든 藥이 함께 사용되어 清養肺胃, 生津潤燥하는 효능이 나타난다.

57) 燥氣化火하여, 清竅不利者면, 翹荷湯 主之라.

清竅가 不利한 것은 耳鳴目赤하고 齒齦이 붓고 咽部가 아픈 것과 같은 부류이다. 翹荷湯 역시 上焦氣分의 燥熱을 식힌다.

翹荷湯(辛涼法)

薄荷 一錢五分 連翹 一錢五分 生甘草 一錢 黑梔皮 一錢五分 桔梗 二錢 綠豆皮 二錢

물 두 잔을 달여서 한잔을 취하여 단번에 복용한다. 하루에 두 접을 복용하는데 심하면 하루에 세 접을 복용한다.

[加減法] 耳鳴이 있는 경우에는 羚羊角, 苦丁茶¹⁶³⁾를 加하고; 目赤이 있는 경우에는 鮮菊葉, 苦丁茶, 夏枯草를 加하고; 咽痛한 경우에는 牛蒡子, 黃芩을 加한다.

清竅不利, 如耳鳴目赤, 齦脹咽痛之類. 翹荷湯者, 亦清上焦氣分之燥熱也.

翹荷湯(辛涼法)

薄荷(一錢五分) 連翹(一錢五分) 生甘草(一錢) 黑梔皮(一錢五分) 桔梗(二錢) 綠豆皮(二錢)

163) 江蘇新醫學院., 中藥大辭典,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94. p.1288. “散風熱, 清頭目, 除煩渴”

水二杯, 煮取一杯, 頓服之. 日服二劑, 甚者日三.

[加減法] 耳鳴者, 加羚羊角, 苦丁茶;

目赤者. 加鮮菊葉, 苦丁茶, 夏枯草;

咽痛者, 加牛蒡子, 黃芩.

【考察】

본 조문은 燥氣化火하는 證治를 제시한다.

耳鳴, 目赤, 齦腫, 耳痛 등의 증상은 清竅가 不利한 증상으로, 溫燥의 氣가 火로 변하여 炎上한 것이다. 病의 위치가 인체의 上部에 있고 燥火에 속하므로 治法은 辛涼輕宣하여야 하고 處方은 翹荷湯을 사용한다.

處方중에 薄荷는 輕宣清透하니 上焦의 清竅를 다스리고, 甘草, 連翹, 綠豆는 清熱解毒하고, 桔梗은 引經藥으로서 藥을 上行시켜서 病巢에 곧장 도달하게 하니, 모든 藥이 造化를 이루어서 燥熱의 邪氣를 식히니 모든 구멍의 火를 푸는데 뛰어나다.

58) 諸氣膈鬱⁽¹⁾하고, 諸痿喘嘔之因于燥者면, 喻氏⁽²⁾清燥救肺湯主之라.

喻氏가 말하기를: 諸氣膈鬱이 肺에 속한다는 것은 肺의 燥에 속한다는 것을 말한 것으로, 예나 지금이나 氣鬱을 치료하는 처방은 辛香한 약물을 써서 行氣시키는 데, 肺의 燥를 치료하는 처방은 단 하나도 없다. 諸痿喘嘔가 上에 속한다는 것은 또한 肺의 燥에 속한 것으로, 예나 지금이나 治法에서는 痿嘔는 陽明에 속하고 喘은 肺에 속하니 이는 嘔와 痿는 中下焦에 속하나 오직 喘만은 上焦에 속한다. 그래서 수천 수백개의 處方중에 역시 肺의 燥에 미치는 처방은 하나도 없다. 바로 喘이 肺에 속한 경우에는 表가 아니면 下하고 行氣가 아니면 瀉氣하는데 간간이 한두 가지는 潤劑를 사용하는 것은 또 그 핵심을 얻지 못한 것이다. 종합해 보건데 『內經』의 六氣에는 가을에 燥一氣에 손상된 것이 빠져 있고 長夏의 濕을 가리켜 가을의 燥라고 한 것이다. 후대사람들이 더 이상 그 설을 들어 올리지 못하고 이 一氣를 내버려 두었다. 설령 燥를 분명하게 이해했더라도 藥을 사용함이 뒤섞여서 마치 誅殺로 나는 곤충을 잡듯이 사람들에게 定法을 전혀 보여주지 못했다. 지금 이 處方을 해

아려서 淸燥救肺湯이라 命名하였으며 대략 胃氣가 주가 되는데 胃土는 肺金의 어머니이기 때문이다. 天門冬은 비록 保肺할 수 있지만 味가 苦하여 氣가 滯하게 되니 사용 후에 胃를 손상시키고 痰을 방해할까 걱정되므로 사용하지 않는다. 知母는 腎水를 滋養시키고 肺金을 淸할 수 있지만 味가 苦하여 사용하지 않는다. 苦寒으로 降火하는 正治의 藥에 관해서는 더욱 삼가 하는데, 대개 肺金이 스스로 燥에 이르면 남아 있는 陰氣는 한 가닥 실에 불과할 따름인데, 더욱 苦寒한 藥으로 그 氣를 내리고 그 胃를 손상시키면 사람이 어찌 살아갈 방도가 있겠는가? 진실로 이것을 본떠서 加減하여 肺燥를 구하여 諸證을 변화시키는 것이 마치 물을 대서 불탄 것을 救한 것 같고, 그 빈번함을 싫어하지 않으면 거의 救할 수 있다.

淸燥救肺湯方(辛涼甘潤法)

石膏 一錢五分 甘草 一錢 霜桑葉 三錢 人參 七分 杏仁(泥) 七分 胡麻仁(炒研) 一錢 阿膠 八分 麥冬(不去心) 二錢 枇杷葉(去淨毛, 炙) 六錢
 물 한 대접을 달여 六分을 취하여 자주 두, 세 차례 따듯하게 복용한다. 痰이 많으면 貝母, 瓜蒌仁을 복용하고, 血枯하면 生地黃을 加하고, 熱이 심하면 石膏, 羚羊角을 加하거나 牛黃을 加한다.

喻氏云：諸氣郁之屬於肺者，屬於肺之燥也，而古今治氣郁之方，用辛香行氣，絕無一方治肺之燥者。諸痿喘嘔之屬於上者，亦屬於肺之燥也，而古今治法以痿嘔屬陽明，以喘屬肺，是則嘔與痿屬之中下，而惟喘屬之上矣，所以千百方中亦無一方及於肺之燥也。即喘之屬於肺者，非表即下，非行氣即瀉氣，間有一，二用潤劑者，又不得其肯綮。總之，『內經』六氣，脫誤秋傷於燥一氣，指長夏之濕爲秋之燥。後人不敢更端其說，置此一氣於不理，即或明知理燥，而用藥夾雜，如弋獲飛虫，茫無定法示人也。今擬此方，命名淸燥救肺湯，大約以胃氣爲主，胃土爲肺金之母也。其天門冬雖能保肺，然味苦而氣滯，恐反傷胃阻痰，故不用也；其知母能滋腎水淸肺金，亦以苦而不用；至於病寒降火正治之藥，尤在所忌，蓋肺金自至於燥，所存陰氣不過一線耳，倘更以苦寒下其氣，傷其胃，其人尚有生

理乎？誠仿此增損以救肺燥變生諸証。

如沃焦救焚，不厭其頻，庶克有濟耳。

淸燥救肺湯方(辛涼甘潤法) 石膏(二錢五分) 甘草(一錢) 霜桑葉(三錢) 人參(七分) 杏仁(泥, 七分) 胡麻仁(炒研, 一錢) 阿膠(八分) 麥冬(不去心, 二錢) 枇杷葉(去淨毛, 炙, 六分) 水一碗, 煮六分, 頻頻二, 三次溫服. 痰多加貝母, 栝藹; 血枯加生地黃; 熱甚加犀角, 羚羊角, 或加牛黃.

【字句解】

(1) 膈鬱: 胸部가 痞塞하고 呼吸이 促迫한 것을 가리킨다. 일반적으로 氣鬱을 膈이라 여기는데 呼吸이 험떡거리는 것을 가리키며, 氣滯를 鬱이라 생각하는 데 鬱結不通을 가리킨다.

(2) 喻氏: 喻嘉言을 가리킨다. 淸代의 醫學者이고 江西新建(西昌)사람으로, 『尙論篇』, 『醫門法律』, 『寓意草』등의 著書가 있다.

【評釋】

본 조문은 肺燥의 證治를 제시한다.

본 조문의 내용은 黃帝內經의 내용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素問·至真要大論』에 “諸氣膈鬱，皆屬於肺”¹⁶⁴⁾라 하였고, 또한 “諸痿喘嘔，皆屬於上”¹⁶⁵⁾이라 하였다. 金氣가 不足하면 火邪가 침범하여 肺에 金氣가 不足함으로써 病이 발생하니 膈鬱과 痿가 생긴다. 일반적으로 四肢가 痿弱한 것은 下焦가 원인인 경우가 많은데 여기서 上에 속한다고 말한 것은, 熱邪가 침입하여 肺가 乾燥하게 되니 痿證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고 喘, 嘔 등의 원인도 다 이와 같다. 喻嘉言은 上焦를 치료하는 처방은 不知其數인데 肺燥를 치료하는 처방은 단 한 개도 없다고 생각하고서 이 淸燥救肺湯을 創方한 것이다. 治法은 淸肺潤燥하여야 하고, 處方은 淸燥救肺湯을 사용해서 치료하여야 한다.

處方중에 桑葉을 質輕性寒하여 肺中の 燥熱之邪를 淸透한다. 石膏의 辛甘而寒함을 사용하여 淸泄肺熱한다. 麥門冬은 甘寒하고 養陰潤肺한다. 甘草를 사용

164) 素問研究集成刊行委員會 編. 素問研究集成 卷九. 대구. 金星印刷社. 2001. p.544.

165) 素問研究集成刊行委員會 編. 素問研究集成 卷九. 대구. 金星印刷社. 2001. p.544.

하여 培土生金하고 人參은 益胃津, 養肺氣한다. 麻仁과 阿膠는 養陰潤肺하여 肺가 滋潤되면 治節이 잘 이루어진다. 杏仁과 枇杷葉의 苦로 降泄肺氣한다. 甘草는 調和諸藥한다. 이와 같이 하면 肺金의 燥熱을 淸宣할 수 있고, 肺氣의 上逆이 肅降할 수 있으면 燥熱傷肺의 모든 증상이 없으므로 “淸燥潤肺”라 한다.¹⁶⁶⁾

7. 補秋燥勝氣⁽¹⁾論

살펴 보건데 앞에서 서술한 바의 秋燥의 方論은 燥의 復氣⁽²⁾이며 標氣이다. 대개 燥는 金에 속하고 木을 克하고 木의 子는 少陽相火이니 火氣가 와서 보복하므로 燥熱乾燥한 證이 나타난다. 또 『靈樞』에 이르기를: ‘丙丁爲手之兩陽合明, 辰巳爲足之兩陽合明’⁽³⁾이라 하였는데¹⁶⁷⁾, 陽明의 本은 燥이고 標는 陽이다. 옛 사람들은 燥氣化火라 하였고 內經에서는 ‘燥金之下, 火氣承之’¹⁶⁸⁾라고 한 것은 이를 말함이다. 살펴보건데 古方의 책에는 秋燥라는 病이 없다. 근대이래로 오직 喻氏⁽⁴⁾만이 처음으로 燥氣論을 보충하였고 處方은 甘潤微寒한 약을 사용하였고; 葉氏 또한 燥氣化火之論을 주장하여 處方은 辛涼甘潤한 약을 사용하였는데, 이것이 『素問』에서 말한 바의 ‘燥化于天, 熱反勝之’⁽⁵⁾ 治以辛涼, 佐以苦甘⁽⁶⁾이라는 방법이다. 吳瑭인 나는 앞사람들의 오래된 관습을 물려받았으므로 앞에서와 같이 燥證의 復氣만을 서술하였다. 책이 이미 완성되어서 혼자서 생각해보니 『素問』의 ‘燥淫所勝’¹⁶⁹⁾과는 맞지 않으므로 雜說편중에 燥論 한조만을 저술하여 正化, 對化, 勝氣, 復氣를 상세하게 설명하면서 보

충하였다. 燥病勝氣가 三焦에 나타나는 것에 대해서는 결국 方論을 제시하지 못해서 불완전한 책이 된 것이 마음이 내내 불편하다. 이후에 沈日南先生¹⁷⁰⁾의 『醫徵』¹⁷¹⁾의 溫熱病論을 얻어서 보니 안에 秋燥一篇이 있었는데 醫論은 통달하고 정대하여 이에 이것을 채택하여 뒤에 실었으니 중간에 치우치고 원만하지 않은 곳이 있으면 상세하게 변론하였고 아울러 燥證勝氣治法을 아래와 같이 특별히 보충하였다.

다시 살펴 보건데 勝復⁽⁷⁾의 이치와 正化對化⁽⁸⁾, 從本從標⁽⁹⁾의 道는 근대이래로 그다지 깊이 연구하지 않았으며 注釋家들 또한 그다지 연구하지 않았다. 예를 들면 張仲景의 『傷寒論』중 麻黃, 桂枝, 乾薑, 附子는 寒의 勝氣를 치료하고, 寒의 正化를 치료하고, 寒의 本病을 치료하는 것이다. 白虎湯과 承氣湯은 寒의 復氣를 치료하고, 寒의 對化를 치료하고, 寒의 標病을 치료하는 것이다. 다른 氣들도 모두 이와 같이 유추해 볼 수 있다. (太陽은 本寒標熱하고 對化는 火이며 대개 水가 勝하면 火를 克한다. 그러므로 經에 실리기를 太陽이 司天하면 心病이 많다. 末尾에서 총결산하며 이르기를: 病의 本은 心에 있다고 하였는데 心火가 病을 받으면 반드시 金을 克한다. 白虎湯이 金을 구원하는 까닭이다. 金이 病을 받으면 굳세어 견고하여 막혀서 不通하고, 復氣는 土인데 土의 성질은 응색하니 오히려 本身인 眞水를 克하게 된다. 承氣湯은 金과 土를 泄하여 水를 救하는 것이다. 또 經에 이르기를 ‘寒淫所勝, 以鹹瀉之’¹⁷²⁾라 하였다. 지금까지 注釋家들은 글을 따라 意義를 해석할 따름으로 方法을 사용하는 까닭을 결국 찾아내지 못했다. 本論은 傷寒을 두루 注를 달 수 없어서 公교롭게도 하나만을 예를 들어서 다른 것들은 이에 따라 열거하였

166) 李範九, 朴贊斗 譯編. 方劑學. 서울. 대성의학사. 2000. p.518.

167) 靈樞研究集成刊行委員會 編. 靈樞研究集成. 대구. 청운인쇄. 2006. p.948. “辰者, 三月, 主左足之陽明, 巳者, 四月, 主右足之陽明, 此兩陽合于前, 故曰陽明.”, p.950. “病主左手之陽明, 丁主右手之陽明, 此兩火并合, 故爲陽明”

168) 素問研究集成刊行委員會 編. 素問研究集成 卷八. 대구. 金星印刷社. 2001. p.87.

169) 素問研究集成刊行委員會 編. 素問研究集成 卷九. 대구. 金星印刷社. 2001. p.439. “歲陽明在泉, 燥淫所勝, 則霧霧淸暎, 民病喜嘔, 嘔有苦, 善太息, 心脇痛, 不能反側, 甚則噎乾面塵, 身無膏澤, 足外反熱”

170) 傳統醫學研究所 編纂. 東洋醫學大辭典. 서울. 成輔社. 2000. p.1366. 沈日南은 沈明宗으로 17세기 清代의 醫家. 字는 日南이고 號는 秋湄이다. 젊어서는 禪宗과 醫學을 배웠다. 張仲景의 學問을 연구하였는데, 編注한 것은 傷寒卡經辨證治法, 張仲景金匱要略24卷이 있다.

171) 위의 내용으로 보아, 醫徵은 清代의 醫家 沈日南이 지은 것이 확실하나, 이를 뒷받침할만한 확실한 자료는 없어 보인다.

172) 素問研究集成刊行委員會 編. 素問研究集成 卷九. 대구. 金星印刷社. 2001. p.450. “太陽司天, 寒淫所勝, …”, p.461. “寒淫所勝, …, 以鹹瀉之”

다. 현명한 자는 이러한 지름길을 얻고 『內經』을 자세히 되새기면 순리적으로 傷寒이 해결 되고; 傷寒을 이해할 수 있으면 그 논리를 근본으로 하여 스스로 이해하기 어려움은 없을 것이다. 이로부터 추론해보면 六氣는 모두 그러할 뿐이다.)

汪按: 이 논리는 공평하고 막힘이 없어 앞서사람들이 나타내지 못한 것을 나타내고 있다. 단 立方과 用藥에 있어서 辛溫表散藥과 寒涼藥을 섞어 사용하는 앞서사람들의 상투적인 형식을 물려받는 것을 피할 수 없으므로 이 논리는 남겨두고 處方은 사용하지 않았다.

沈日南의 燥病論에 이르기를: 『天元紀大論』에 ‘天以六爲節, 地以五爲制’¹⁷³⁾라 하였다. 대개 六은 風寒暑濕燥火가 마디가 되고, 五는 木火土金水가 마디가 된다. 그리하여 하늘은 바깥을 주관하는데 一氣는 60일하고도 몇 시간을 司수하고; 地運은 안을 주관하는데 一運은 72일하고도 몇 시간을 사령한다. 그러므로 五運六氣는 合行하여서 한해를 마무리 하는 것은 天然의 不變의 法則이다. 『內經』에 ‘長夏傷于濕’과 ‘秋傷于燥’가 빠져 있기 때문에 燥證은 사라져버리고 지금까지 밝혀지지 않았다. 先賢중에 비록 말한 사람이 있을지라도 모두 內傷의 津血이 말라버린 證이지 外感의 清涼한 燥氣를 말한 것은 아니다. 燥氣는 秋分 이후, 小雪이전에 일어나고 陽明燥金의 涼氣가 司수한다. 經에 이르기를: ‘陽明之勝, 清發于中, 左肋脇痛, 泄泄, 內爲噎塞, 外發癩疔. 大涼肅殺, 華英改容, 毛蟲內殃. 胸中不便, 噎塞而咳.’¹⁷⁴⁾이라 하였다. 이 經文을 근거하여보면, 건조한 계절에는 반드시 서늘한 氣가 사람에게 감촉되어 肝이 邪氣를 받아서 燥가 된다. 오직 근대의 喻嘉言만이 탁월하게 표출하였는데, 후세의 백성의 행운이 될 만하다. 諸氣臏鬱, 諸痿喘嘔와 기침이 그치지 않아서 白血이 나와서 죽는 것¹⁷⁵⁾을 어찌 燥證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이는 內部가 손상된 것을 말한 것으로 진실로 外感의 燥證과는 다

르다. 더욱이 스스로 清燥救肺湯을 만들었는데 모두 滋陰清涼한 藥物로써 火熱이 金을 쳐서 肺氣가 熱을 받은 경우에 사용하는 것이 적당하다. 만약에 燥病을 다스린다면 서늘한 藥物로 서늘한 곳에 투입하니 반드시 病은 오히려 더욱 심해진다. 燥病은 涼에 속하고 寒 다음가는 것으로 病證이 寒에 感受되는 것과 동류임을 전혀 알지 못한다. 經에서는 寒邪가 偏勝하여 甘熱¹⁷⁶⁾로써 다스렸는데 여기서는 단지 燥邪가 偏勝하여 苦溫으로 다스린 것¹⁷⁷⁾이며, 外感에서는 苦溫辛溫으로 解表하는 것이 겨울철 추운 시기에 麻黃, 桂枝, 乾薑, 附子를 쓰는 것과는 방법이 다르나 和中攻裏한 것과는 다르지 않으므로 處方을 제시하지 않았다. 대개 『內經』의 六氣에서는 단지 陰陽으로만 나누어 치료하는데, 風熱火 三氣는 陽에 속하므로 치료를 같이 하되 다만 藥은 辛涼, 苦寒, 鹹寒의 구별이 있을 뿐이고; 濕燥寒 三氣는 陰에 속하여 치료를 같이 하되, 단지 藥은 苦熱, 苦溫, 甘熱의 다름이 있을 뿐이다. 이것은 張仲景이 傷寒과 溫病이란 두 이론을 대강으로 삼은 이유이다. 대개 『性理大全』에서는 ‘燥屬次寒’이라 하였는데, 後賢들은 어찌하여 다 熱에 속한다고 하였는지, 서로 현저한 차이가 있다. 예를 들어 한여름에 暑熱이 熏蒸하면 온몸에서 땀이 많이 나고 肌肉이 축축해서 건조하지 않았으며; 겨울철에 寒凝肅殺하면 온몸이 건조해지고 차가워진다. 그러므로 늦가을 건조한 氣가 行하면 인체의 肺氣이 호응하니 肌膚 또한 건조해지며 이에 火는 힘을 잃으므로 燥는 涼에 속하는 것이며 앞서사람들이 熱이라고 말한 것은 틀리다.

살펴 보건데 선생의 이러한 논리는 가히 남들과 다른 독특한 안목을 지녔다고 할 만한 것이라, 세속에 묻혀버리지 않은 것이다. 喻氏의 補燥論에서 甘寒滋陰하는 藥物을 사용하는 것은 『內經』의 ‘燥淫所勝, 平以苦溫’¹⁷⁸⁾하는 방법과 벗어난다는 것을 따지는 것 또한 아주 일리가 있다. 그러나 諸氣臏鬱, 諸痿喘嘔,

173) 素問研究集成刊行委員會 編. 素問研究集成 卷八. 대구. 金星印刷社. 2001. p.28.
174) 素問研究集成刊行委員會 編. 素問研究集成 卷九. 대구. 金星印刷社. 2001. p.471.
175) 素問研究集成刊行委員會 編. 素問研究集成 卷九. 대구. 金星印刷社. 2001. p.471. “陽明司天, 清復內餘, 則咳衄噎塞, 心膈中熱, 咳不止而白血出者死”

176) 素問研究集成刊行委員會 編. 素問研究集成 卷九. 대구. 金星印刷社. 2001. p.446.
177) 素問研究集成刊行委員會 編. 素問研究集成 卷九. 대구. 金星印刷社. 2001. p.446.
178) 素問研究集成刊行委員會 編. 素問研究集成 卷九. 대구. 金星印刷社. 2001. p.446.

咳不止出白血이 모두 內傷에 속한 다는 것은 이치에 있어서 완전하지 못하다. 대개 內傷으로 인해 이 증을 일으키는 것이 많으며, 外感의 다른 邪氣가 絡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熱로 바뀌어서 이 증을 일으키는 것 또한 적지 않다. 앞에서 風溫咳嗽의 조문아래에서 杏蘇散을 논박하고 桑菊飲을 보충하였으며, 方論내에 기침이 오래되어 머물러 있던 邪氣가 손상을 일으킨 까닭을 말한 것은 이 증과 동일한 이치이다. 淸燥救肺湯이 燥의 復氣를 치료하나 절대로 燥의 勝氣를 치료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한다면, 喻氏는 스스로 어떻게 변론해야 좋을지 몰랐겠지만; 만약 燥와는 관련이 없다고 말한다면 실로 한편으로만 이치를 이야기 한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대개 喻氏의 淸燥救肺湯은 곧 『傷寒論』중 後半部에 실린 復脈湯¹⁷⁹⁾인 것이다. 傷寒은 반드시 母氣의 燥를 겸하므로 처음에는 辛溫甘熱한 藥物을 사용하고 계속해서 辛涼苦寒한 藥物을 사용하며 마침내는 甘潤한 藥物을 사용하니, 氣化가 일어난 바에 따라서 그러한 것이다. 張仲景이 傷寒과 溫病이라는 두 가지 대강을 세운 것이 『素問』에서 ‘寒暑六入’¹⁸⁰⁾이라고 말한 바와 같이 暑는 風火를 통솔하고 寒은 燥濕을 통솔하듯이 일체의 外感이 모두 안에 내포된 다고 말하는 것이 다 그렇지는 않으며, 대개 張仲景을 존경하고 믿는 것이 지나쳐서 실수한 것이다. 만일 그렇다면 張仲景의 책을 당연히 六氣論이나 外感論이라고 命名하여야지 어찌 유독 傷寒論이라고 命名하였겠는가? 대개 張仲景이 당시에 책을 저술할 때에 원래는 傷寒을 위해서 계획한 것이지, 결코 外感을 두루 저술한 것은 아니었으며, 溫을 論하고 暑를 論하고 濕을 論한 것은 우연히 생각이 미친 것이다. 곧 선생은 또한 『醫微』의 ‘溫熱病論’을 보충하였는데 만약 全書를 묶는다면 어찌 수용하고 보충하였겠는가! 吳瑭인 나는 변론하기를 좋아 하지 않으며 後學들이 眉目不清하여 선배들을 존경하고 신뢰함이 지나쳐서 오히려 일체의 外感을 모두 『傷寒論』속에 넣어버릴까 걱정되는데, 이는 근대

이래의 큰 폐단으로 禍가 사라지지 않으니 어찌 감히 이와 같이 이론을 세우겠는가!

汪案: 仲景의 책을 잘 읽어서 傷寒을 치료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六氣를 치료할 수 있다고 말한 것은 맞겠지만; 仲景의 책이 이미 안에 六氣를 포함하고 있다는 것은 틀린 것이다.

按前所序之秋燥方論, 乃燥之復氣也, 標氣也. 蓋燥屬金而克木, 木之子, 少陽相火也, 火氣來復, 故現燥熱干燥之証. 又『靈樞』謂: 丙丁爲手之兩陽合明, 辰巳爲足之兩陽合明, 陽明本燥, 標陽也. 前人謂燥氣化火, 經謂燥金之下, 火氣承之, 皆謂是也. 案古方書, 無秋燥之病. 近代以來, 惟喻氏始補燥氣論, 其方用甘潤微寒; 葉氏亦有燥氣化火之論, 其方用辛涼甘潤; 乃『素問』所謂燥化於天, 熱反勝之, 治以辛涼, 佐以苦甘法也.

瑭襲前人之舊, 故但敘燥証復氣如前. 書已告成, 竊思與『素問』燥淫所勝不合, 故雜說篇中, 特著燥論一條, 詳言正化, 對化, 勝氣, 復氣以補之. 其於燥病勝氣之現於三焦者, 究未出方論, 乃不全之書, 心終不安. 嗣得沈日南先生『醫征』溫熱病論, 內有秋燥一篇, 議論通達正大, 茲采而錄之於後, 間有偏勝不圓之處, 又詳辨之, 並特補燥証勝氣治法如下. 再按勝復之理, 與正化對化, 從本從標之道, 近代以來, 多不深求, 注釋之家, 亦不甚考. 如仲景『傷寒論』中之麻桂, 姜附, 治寒之勝氣也, 治寒之正化也, 治寒之本病也. 白虎, 承氣, 治寒之復氣也, 治寒之對化也, 治寒之標病也. 余氣俱可從此類推. (太陽本寒標熱, 對化爲火, 蓋水勝必克火. 故經載太陽司天, 心病爲多. 未總結之曰: 病本於心, 心火受病必克金. 白虎所以救金也. 金受病, 則堅剛牢固, 滯塞不通, 復氣爲土, 土性壅塞, 反來克本身之真水. 承氣, 所以泄金與土而救水也. 再經謂: 寒淫所勝, 以咸瀉之. 從來注釋家, 不過隨文釋義, 其所以用方之故, 究未達出. 本論不能遍注傷寒, 偶舉一端, 以例其餘. 明者得此門經, 熟玩『內經』, 自可迎刃而解; 能解傷寒, 其於本論, 自無難解者矣. 由是推之, 六氣皆然耳).

汪按: 此論平正通達, 發前人所未發, 但其立方用藥, 仍不免襲前人窠臼, 辛溫表散與寒涼雜用, 故存此論,

179) p.229. 復脈湯은 炙甘草湯을 말함. “甘草炙4兩, 生薑切3兩, 人參2兩, 生地黃1斤, 桂枝去皮3兩, 阿膠2兩, 麥門冬去心半升, 麻仁半升, 大棗擘30枚”

180) 素問研究集成刊行委員會 編. 素問研究集成 卷九. 대구. 金星印刷社. 2001. p.446.

而不用其方。

沈目南『燥病論』曰：『天元紀大論』云：天以六爲節，地以五爲製。蓋六乃風寒暑濕燥火爲節，五即木火土金水爲製。然天氣主外，而一氣司六十日有奇；地運主內，而一運主七十二日有奇。故五運六氣合行而終一歲，乃天然不易之道也。『內經』失去長夏傷於濕，秋傷於燥，所以燥証湮沒，至今不明。先哲雖有言之，皆是內傷津血干枯之証，非謂外感清涼時氣之燥。然燥氣起於秋分以後，小雪以前，陽明燥金涼氣司令。經云：陽明之勝，清發於中，左脅痛，漉泄，內爲噎塞，外發疝。大涼肅殺，華英改容，毛虫乃殃。胸中不便，噎塞而咳。據此經文，燥令必有涼氣感人，肝木受邪而爲燥也。惟近代喻嘉言昂然表出，可爲後世蒼生之幸；奈以諸氣郁，諸痿喘嘔，咳不止而出白血死，謂之燥病，此乃傷於內者而言，誠與外感燥証不相及也。更自製清燥救肺湯，皆以滋陰清涼之品，施於火熱刑金，肺氣受熱者宜之。若治燥病，則以涼投涼，必反增病劇。殊不知燥病屬涼，謂之次寒，病與感寒同類。經以寒淫所勝，治以甘熱，此但燥淫所勝，平以苦溫，乃外用苦溫平溫解表，與冬月寒冷而用麻桂姜附，其法不同，其和中攻裡則一，故不立方。蓋『內經』六氣，但分陰陽主治，以風熱火三氣屬陽同治，但藥有辛涼苦寒成寒之異；濕燥寒三氣屬陰同治，但藥有苦熱苦溫甘熱之不同。仲景所以立傷寒溫病二論爲大綱也。蓋『性理大全』謂燥屬次寒，奈後賢悉謂屬熱，大相徑庭。如盛夏暑熱熏蒸，則人身汗出，肌肉潮潤而不燥也；冬月寒凝肅殺，而人身干槁燥烈。故深秋燥令氣行，人體肺金應之，肌膚亦燥，乃火令無權，故燥屬涼，前人謂熱非矣。

按先生此論，可謂獨具只眼，不爲流俗所沒者。其責喻氏補燥論用甘寒滋陰之品，殊失燥淫所勝，平以苦溫之法，亦甚有理。但謂諸氣郁，諸痿喘嘔，咳不止而出白血，盡屬內傷，則於理欠圓。蓋因內傷而致此証者固多，由外感余邪在絡，轉化轉熱而致此証者，亦復不少。瑯前於風溫咳嗽條下，駁杏蘇散，補桑菊飲，方論內極言咳久留邪致損之故，與此証同一理也。謂清燥救肺湯治燥之複氣，斷非治燥之勝氣，喻氏自無從致辨；若謂竟與燥不相及，未免各就一邊談理。蓋喻氏之清燥救肺湯，即『傷寒論』中後半截之複脈湯也。傷寒必兼母氣之燥，故初用辛溫甘熱，繼用辛涼苦寒，終用甘

潤，因其氣化之所至而然也。至謂仲景立傷寒溫病二大綱，如『素問』所雲，寒暑六入，暑統風火，寒統燥濕，一切外感，皆包於內，其說尤不盡然，蓋尊信仲景太過而失之矣。若然，則仲景之書，當名六氣論，或外感論矣，何以獨名傷寒論哉。蓋仲景當日著書，原爲傷寒而設，並未遍著外感，其論溫，論暑，論濕，偶一及之也。即先生亦補『醫征』溫熱病論，若系全書，何容又補哉。瑯非好辨，恐後學眉目不清，尊信前輩太過，反將一切外感，總混入『傷寒論』中，此近代以來之大弊，禍未消滅，尚敢如此立論哉！

汪按：謂善讀仲景之書，不獨可以治傷寒，並可以治六氣，則是；謂仲景之書，已包六氣在內，則非。

【字句解】

(1) 勝氣：運氣學說의 術語。偏盛한 氣를 가리킨다. 예를 들어 一年의 上半期에 발생한 비정상적인 기후나, 혹은 五運중에 어떤 運이 偏勝한 것이다.

(2) 復氣：運氣學說의 術語。報復하는 氣를 가리킨다. 예를 들면 一年의 상반기에는 어떤 勝氣가 발생하고 一年의 하반기에는 그와 相反되는 氣候가 발생하거나, 혹은 五運中 어떤 運이 偏盛하는데 다른 運이 와서 報復하는 것을 모두 復氣라고 한다.

(3) 丙丁爲手之兩陽合明，辰巳爲足之兩陽合明：十干을 사용해서 날짜를 配合하는데, 病은 左手의 陽明을 주관하고 丁은 右手의 陽明을 주관하며, 辰은 左足의 陽明을 주관하고 巳는 右足의 陽明을 주관한다.

(4) 葉氏：葉桂이고, 字는 天士이고, 號는 香岩이다. 淸나라 江蘇省의 吳縣사람이다. 『溫熱論』, 『臨證指南醫案』등은 모두 문하생이 정리해서 이룩한 것이다.

(5) 燥化于天，熱反勝之：『素問·至眞要大論』에서 나온다. '燥氣司天'과 같은 의미이며, 燥는 金에 속하고 熱은 火에 속하고 火는 金을 극할 수 있다. 그래서 '反勝'이라고 말한다.

(6) 治以辛涼，佐以甘苦：『素問·至眞要大論』의 앞 두 句 뒤에 있다. 이는 反勝하는 '熱氣'가 生하는 巴의 病을 다스리는데, 治療는 辛寒하는 藥물을 사용하고 苦甘하는 藥물로 보좌하여야 하는 것인데, 苦寒은 淸熱할 수 있고 辛甘은 潤燥할 수 있기 때문이니, 이렇게 하면 熱이 물러가고 氣가 다스려진다.

(7) 勝復: ‘勝氣’와 ‘復氣’를 가르킨다. ‘五運六氣’는 一年중에서의 相勝相制, 先勝後復하는 상호관계이다. 그 중 ‘勝氣’는 一年중 相勝하는 氣이고, 勝은 主動적인 것이며 強盛하다는 뜻을 포함하고 있다. 一年의 상반기에 정상을 벗어나는 氣候가 발생하는 것을 가리킨다. 勝復은 매년 모두 있는 것은 아니다. 다만 ‘勝氣’가 있으면 ‘復氣’가 있게 된다.

(8) 正化, 對化: 運氣學說의 범위에 속한다. 그것은 ‘六氣分上下, 左右兩行天令, 十二支分節令, 時日而司地化’대로이다. 이렇게 ‘上下相召(상하가 서로 초래하고)’하고 正對로 저항을 받아 氣化가 變生하는 道理이고 一年 십이 개월을 변호를 매기는데 正月에 寅을 세우는 것부터 십이월에 丑을 세우는 것까지 하나의 圓周를 배열한다. 그중 南은 午, 北은 子, 東은 卯, 西는 酉 등 上下左右가 相對적이다. 하나의 方位를 ‘正化’로 삼고 이것과 상대적인 다른 한 쪽을 ‘對化’에 속하게 한다. 이 正, 對는, 어떤 것은 方位가 존재하는 바를 취한 것으로, 예를 들어 午는 正南方에 居하고 五月의 月建은 午이고 南方, 五月은 여름의 두 번째 달로 크다. 그래서 ‘午’는 ‘正化’가 되고 子는 正北方에 있어 正南方의 午와 相對적이어서 ‘子’는 ‘對化’이다. 어떤 것은 相生의 뜻을 포함하는 것으로, 예를 들어 戌은 九月의 月建이고 秋金이 盛한 계절이며 金은 水를 生하니 水의 母이다. 그래서 ‘戌’은 ‘正化’가 된다. 辰은 三月의 月建이고 봄에 속하고 가을의 戌과 相對적이므로 ‘辰’은 ‘對化’가 되는데, 正化는 主가 되고 對化는 從이 되어 두 가지가 一正一對, 一主一從하니, 두 가지가 서로 부딪혀서 六氣를 行한다.

(9) 從本從標: 여기서는 治療를 가리키는 것으로, ‘金’의 ‘正化’에서 本氣는 ‘燥’가 되고 治療는 ‘本’을 쫓으며; ‘金’의 ‘對化’에서 標氣는 ‘熱’이 되고 治療는 ‘標’를 쫓는다.

【考察】

본 조문은 秋燥勝復論의 근거를 제시한다.

이 補秋燥勝氣論은 吳鞠通이 책을 다 쓰고 나서 나중에 새롭게 보충한 부분이다. 補秋燥勝氣論의 目的은 주로 『素問』의 燥淫이 病이 되는 것을 다른 관점에 겨누어서 쓴 것으로 『素問』의 부족을 보충했다.

1) 秋燥之氣는, 輕則爲燥⁽¹⁾하고, 重則爲寒⁽²⁾하고, 化氣爲濕하고, 復氣爲火라.

燥氣의 大綱을 들어내어 그 子母의 氣, 勝復의 氣를 검하여 서술하니 燥氣가 스스로 분명해진다. 重하면 寒이 되는 것은 寒水가 燥金의 子이기 때문이고; 化氣하면 濕이 되는 것은 土가 金을 生하므로 濕土가 母氣이기 때문이다. 『至真要大論』에 이르기를 ‘陽明厥陰, 不從標本, 從乎中也’¹⁸¹⁾라 하였다. 또 이르기를 ‘從本者, 化生于本; 從標本者, 有標本之化; 從中者, 以中氣爲化也’¹⁸²⁾라 하였다. 살펴 보건데 ‘陽明之上, 燥氣治之, 中見太陰’¹⁸³⁾이라 하였다. 그러므로 본 이론에서는 처음에 燥金本氣의 方論을 만들지 않고 瘧, 疝 등의 證을 寒濕의 條文아래에 덧붙였다. 葉氏의 醫案은 伏暑가 속에서 發하고, 새로이 涼氣가 밖에서 加해졌다고 한 것은 伏暑類중에서 많이 나타나며; 仲景의 『金匱』에서는 腹痛, 瘧, 疝文중에 많이 나타난다.

揭燥氣之大綱, 兼敘其子母之氣, 勝復之氣, 而燥氣自明. 重則爲寒者, 寒水爲燥金之子也; 化氣爲濕者, 土生金, 濕土其母氣也. 『至真要大論』曰: 陽明厥陰, 不從標本, 從乎中也. 又曰: 從本者, 化生于本; 從標本者, 有標本之化; 從中者, 以中氣爲化也. 按陽明之上, 燥氣治之, 中見太陰. 故本論初未著燥金本氣方論, 而於瘧疝等証, 附見於寒濕條下. 葉氏醫案謂伏暑內發, 新涼外加, 多見於伏暑類中; 仲景『金匱』, 多見於腹痛瘧疝門中.

【字句解】

(1) 輕則爲燥: 가을에는 본래 燥氣가 司令한데 本氣를 感受 받아서 發病하며, 病의 위치는 肺에 있고 일반적으로 燥證의 증상이 나타나며 病은 대부분 가볍다.

(2) 重則爲寒: 燥는 陰邪이고 성질은 冷寒하다. 吳鞠通은 注釋에서: 腎은 寒水의 臟이고 肺金은 腎水

181) 素問研究集成刊行委員會 編, 素問研究集成 卷九, 대구, 金星印刷社, 2001, p.532.

182) 素問研究集成刊行委員會 編, 素問研究集成 卷九, 대구, 金星印刷社, 2001, p.532.

183) 素問研究集成刊行委員會 編, 素問研究集成 卷八, 대구, 金星印刷社, 2001, p.76.

의 어머니, 燥는 化해서 寒이 되는데 이는 ‘母病及子’이다. 그러므로 ‘重則爲寒’이라고 생각한다.

【考察】

본 조문은 燥氣의 總綱과 轉化의 규칙을 제시한다.

外感燥氣가 病을 일으키는 涼燥와 溫燥의 구별은 주로 燥邪를 感受받은 寒, 熱의 성질로부터 확정된다는 것이다. 만약 寒을 겸한 것은 燥金이 子인 寒水에 영향을 미치게 되니 곧 ‘重則爲寒’이나 ‘母病及子’가 되고, 熱을 겸한 것은 金은 木을 克하고 木의 子인 火가 와서 報復을 하니 ‘復氣爲火’가 되고, 濕을 겸한 것은 燥金의 氣가 母인 濕土에 영향을 미치게 되니 ‘化氣爲濕’이나 ‘子病及母’가 된다. 이는 곧 燥氣가 運氣상에서의 轉化이며 또한 燥病의 病機이다.

2) 燥傷本臟하야, 頭微痛, 惡寒, 咳嗽稀痰, 鼻塞, 噎塞⁽¹⁾, 脈弦, 無汗하면, 杏蘇散主之라.

本臟은 肺胃이다. 經에 ‘목구멍이 막히고 기침을 한다.’¹⁸⁴⁾라고 했으므로 上焦의 病은 여기에서 시작한다. 燥는 皮毛를 傷하므로 頭微痛하고 惡寒하는 것이며, 微痛은 傷寒의 痛증이 심한 것과는 다르다. 陽明의 脈은 위로는 頭角으로 行하므로 머리 역시 아프다. 咳嗽稀痰은 肺가 寒을 싫어한 것으로 옛날 사람들은 燥를 小寒이라 하였다. 肺가 燥氣에 의해 속박되는 바이기 때문에 通調水道할 수 없으므로 寒飲이 정체되어 기침한다. 코가 막히는 것은 코가 肺의 구멍이기 때문이다. 목구멍이 막히는 것은 목구멍이 肺의 系統이기 때문이다. 脈이 弦한 것은 寒이 飲을 겸하기 때문이다. 땀이 없는 것은 涼이 皮毛를 속박했기 때문이다. 살펴 보건데 杏蘇散은 小青龍湯을 한 단계 줄인 것이다. 이 조문은 下焦편에서 보충한 痰飲의 여러 조문과 참고하여 보아야 한다. 또 杏蘇散은 당시의 사람이 사계절의 傷風咳嗽을 統治하는 通用하는 方劑로서 본 論은 앞에 風溫文에서 이미 반박하였다. 만약 燥涼에 손상된 기침이라면 苦溫한 약물

로 다스리고 甘辛한 약으로 보좌하는 것이 정말로 합당하다. 만약 重寒을 感受받는데다 飲을 낀 기침이라면 小青龍湯을 쓰고; 만약에 春風에 傷했거나 燥氣가 이미 火로 변하여 痰이 없는 證이라면 여전히 桑菊飲, 桑杏湯의 예를 따라야 한다.

本臟者, 肺胃也. 經有噎塞而咳之明文, 故上焦之病自此始. 燥傷皮毛, 故頭微痛惡寒也, 微痛者, 不似傷寒之痛甚也. 陽明之脈, 上行頭角, 故頭亦痛也. 咳嗽稀痰者, 肺惡寒, 古人謂燥爲小寒也; 肺爲燥氣所搏, 不能通調水道, 故寒飲停而咳也. 鼻塞者, 鼻爲肺竅. 噎塞者, 噎爲肺系也. 脈弦者, 寒兼飲也. 無汗者, 涼搏皮毛也. 按杏蘇散, 減小青龍一等. 此條當與下焦篇所補之痰飲數條參看. 再杏蘇散乃時人統治四時傷風咳嗽通用之方, 本論前於風溫門中已駁之矣; 若傷燥涼之咳, 治以苦溫, 佐以甘辛, 正爲合拍. 若受重寒夾飲之咳, 則有青龍; 若傷春風, 與燥已化火無痰之証, 則仍從桑菊飲, 桑杏湯例.

杏蘇散方

蘇葉 半夏 茯苓 前胡 苦桔梗 枳殼 甘草 生薑 大棗(去核) 橘皮 杏仁

〔加減法〕 無汗, 脈弦甚或緊하면 羌活을 加하여 微透汗하고, 汗後에 咳不止하면 蘇葉, 羌活을 去하고 蘇梗을 加한다. 泄瀉腹滿을 겸한 경우에는 蒼朮, 厚朴을 加한다. 頭痛에 眉稜骨痛을 겸한 경우에는 白芷를 加한다. 熱이 甚하면 黃芩을 加 하고 泄瀉腹滿한 경우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方論〕 이는 苦溫甘辛法이다. 燥涼을 外感한 경우에는 蘇葉, 前胡와 같이 辛溫하며 가벼운 것으로 達表하고; 無汗하고 脈緊하므로 辛溫하며 重한 羌活을 加해서 약간 發汗시킨다. 甘草, 桔梗은 위를 따라 열리고 枳殼, 杏仁, 前胡, 黃芩은 아래를 쫓아 내려가므로 목구멍과 코가 막힌 것이 트이고 기침도 그친다. 橘皮, 半夏, 茯苓은 飲邪를 내쫓고 肺胃의 陽을 補한다. 白芷를 原方의 白朮로 바꾼 것은, 白朮은 中焦인 脾의 藥이고 白芷는 肺胃인 本經의 藥인데다 肌肉을

184) 素問研究集成刊行委員會 編. 素問研究集成 卷九. 대구. 金星印刷社. 2001. p.471.

따뜻하게 해서 皮毛를 通達시킨다. 生薑과 大棗는 營衛를 調和롭게 한다. 만약에 表의 涼이 물러갔으나 裏의 邪氣가 제거되지 않아서 기침이 그치지 않으면, 表로 가는 蘇葉을 제거하고 裏를 내리는 蘇梗을 加한다. 泄瀉腹滿은 金氣가 太實한 裏證이므로, 苦寒한 黃芩을 去하고 苦辛溫한 蒼朮과 厚朴을 加한다.

杏蘇散方

蘇葉 半夏 茯苓 前胡 苦桔梗 枳殼 甘草 生姜 大棗 (去核) 桔皮杏仁 [加減法]

無汗, 脈弦甚或緊, 加羌活, 微透汗.

汗後咳不止, 去蘇葉, 羌活, 加蘇梗.

兼泄瀉腹滿者, 加蒼朮, 厚朴.

頭痛兼眉棱骨痛者, 加白芷.

熱甚加黃芩, 泄瀉腹滿者不用.

[方論] 此苦溫甘辛法也. 外感燥涼, 故以蘇葉, 前胡辛溫之輕者達表; 無汗脈緊, 故加羌活辛溫之重者, 微發其汗. 甘, 桔從上開, 枳, 杏, 前, 芩從下降, 則噎塞鼻塞宣通而咳可止. 桔, 半, 茯苓, 逐飲而補脾胃之陽. 以白芷易原方之白朮者, 白朮中焦脾藥也, 白芷脾胃本經之藥也, 且能溫肌肉而達皮毛. 姜, 棗爲調和營衛之用. 若表涼退而裡邪未除, 咳不止者, 則去走表之蘇葉, 加降裡之蘇梗. 泄瀉腹滿, 金氣太實之裡証也, 故去黃芩之苦寒, 加朮, 朴之苦辛溫也.

【字句解】

(1) 噎塞: 噎은 咽을 가리킴. 咽喉가 乾燥하고 막혀서 이롭지 못한 感을 말함.

【考察】

본 조문은 涼燥가 表를 침범하는 證治를 제시한다. 조문에서 약간의 頭痛, 惡寒, 鼻塞, 無汗 등은 表證의 주요 증상이며, 기침하고 묽은 가래가 있다는 것은 안에 痰飲이 있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는 脉이 浮緊脉이 나타나야 하는데 弦脈이 나타났다는 것은 寒邪가 痰飲과 섞여 있다는 뜻이다. 이 때 治法은 解表散寒, 止咳化痰하여야 하며 處方은 杏蘇散을 사용한다.

處方중에 蘇葉은 解肌發表, 開宣肺氣하고, 杏仁은 宣肺止咳化痰한다. 前胡는 疏風降氣化痰하고, 杏仁과 蘇葉을 도와 輕宣이 表에 이르게 하고 化痰을 겸한다. 桔梗과 枳殼은 一升一降하여 杏仁을 도와 宣利肺氣한다. 橘皮, 半夏, 茯苓은 理氣化痰하고, 甘草는 桔梗과 합하여 宣肺祛痰한다. 生薑, 大棗는 調和營衛하고 通行津液한다. 이 모든 藥이 조화를 이루어 輕宣涼燥, 理肺化痰한다.¹⁸⁵⁾ 이 杏蘇散은 『素問·至眞要大論』의 “燥氣가 내부에 淫勝하면 苦味와 溫性을 가진 藥物로 주치하고 甘味와 辛味로 佐藥을 삼되, 苦味로 泄下시킨다.”¹⁸⁶⁾하는 내용에 따라 吳鞠通이 創方한 것이다.

본 조문을 54조와 서로 비교해보면, 桑杏湯은 溫燥의 기침으로 發熱하는데 陰虛가 비교적 확실한 外感溫燥證에 사용하니 藥物사용은 辛涼甘潤法을 사용한 것이다. 杏蘇散은 涼燥의 기침으로 表寒이 重하고 痰이 묽은 外感涼燥證에 사용하니 藥物사용은 苦溫甘辛法을 사용한 것이다.

3) 傷燥하여, 如傷寒太陽證하며, 有汗, 不咳, 不嘔, 不痛者면, 桂枝湯小和⁽¹⁾之라.

傷寒太陽證이라는 것은 頭痛, 身痛, 惡風寒을 가리켜서 말한 것이다.

땀이 나서 다시 發汗을 해서 안 되는 것은 傷寒의 例와 같으나, 다만 燥가 寒보다 가벼우므로 桂枝湯을 조금 써서 調和시켰다.

桂枝湯方(앞에 있음)

如傷寒太陽証者, 指頭痛, 身痛, 惡風寒而言也. 有汗不得再發其汗, 亦如傷寒例, 但燥較寒爲輕, 故少與桂枝小和之也.

桂枝湯方 (見前)

185) 李範九, 朴贊斗 譯編. 方劑學. 서울. 대성의학사. 2000. p.515

186) 素問研究集成刊行委員會 編. 素問研究集成 卷九. 대구. 金星印刷社. 2001. p.446. “燥淫于內, 治以苦溫, 佐以甘辛, 以苦下之”

【字句解】

(1) 小和: 輕微한 調和의 뜻으로, 桂枝湯을 약간만 처방함으로써 營衛를 약간만 調和시킨다.

【考察】

본 조문은 涼燥가 衛分을 손상시킨 증상을 제시한다. 吳鞠通은 涼燥病初起에 頭痛, 惡風寒 등의 表證이 있다는 것을 ‘如傷寒太陽證’이라는 말로 대신하였다. 본 조문은 無汗, 咳嗽하는 表 證과는 달리 有汗, 不咳, 不嘔, 身不痛이 있으니, 증상이 그다지 무겁지 않은 것으로 작은 量의 桂枝湯을 써서 調和營衛하면 病은 곧 나을 수 있다.

4) 燥金司令⁽¹⁾에, 頭痛, 身寒熱, 胸脇痛하고, 甚則疝瘕⁽²⁾痛者면, 桂枝柴胡各半湯加吳茱萸楝子茴香木香湯主之라.

이는 金이 勝하여 木을 克한 것이다. 木病이 金病과 함께 나타나고 表裏가 모두 病이 된 것이므로 柴胡를 써서 少陽의 氣를 透達하는 것이 肝木의 氣를 透達한 것이다. 桂枝湯을 습하여 밖으로 太陽의 邪氣를 빼내고 芳香性의 藥物을 加하여 滯滯을 진정시키고 苦溫한 藥物로 通降시킨다. 濕燥寒은 모두 陰邪이므로 여전히 足經의 例를 좇아야 한다.

桂枝柴胡各半湯加吳茱萸楝子茴香木香湯方(治以苦溫佐以甘辛法)

桂枝 吳茱萸 黃芩 柴胡 人參 廣木香 生薑 白芍 大棗(去核) 川楝子 小茴香 半夏 炙甘草

此金勝克木也. 木病與金病並見, 表裡齊病, 故以柴胡達少陽之氣, 即所達肝木之氣, 合桂枝而外出太陽, 加芳香定痛, 苦溫通降也. 濕燥寒同爲陰邪, 故仍從足經例.

桂枝 柴胡各半湯加吳茱萸 楝子 茴香 木香湯方(治以苦溫, 佐以甘辛法) 桂枝吳茱萸黃芩柴胡人參廣木香生薑白芍大棗(去核) 川楝子小茴香半夏炙甘草

【字句解】

(1) 燥金司令: 여기서 是 가을을 가리키는데, 가을

삼 개월이 ‘太陰’, ‘陽明’이 司令하기 때문이다.

(2) 疝瘕: 또 瘕疝이라고도 한다. 下腹部에 생기는 腫塊가 밀면 움직이고 갑작스런 腹痛이 있고 어찌다가 氣가 上衝하는 질환이 있는 것을 가리킨다. 남자를 疝이라 하고 여자를 瘕라 부른다. 風寒이 腹內의 氣血과 서로 맺혀서 일으킨다.

【考察】

본 조문은 涼燥初起에 脇痛, 疝瘕를 겸하는 證治를 제시한다.

頭痛, 發熱, 發冷 등의 증상은 肺衛가 寒邪에 의해 손상된 것이다. 胸脇痛과 疝瘕痛은 고정된 장소가 없이 모였다 흩어졌다 하는 것으로 血病이 아닌 氣病임을 충분히 알 수가 있다. 이는 肝氣鬱滯하거나 寒邪가 肝脈을 침범해서 일어난 것이다. 이 모든 증상이 肺肝의 病變이 동시에 나타난 것이다. 이를 근거로 마땅히 解表疏肝, 散寒止痛하여야 하고 處方은 桂枝柴胡各半湯加吳茱萸楝子茴香木香湯을 사용한다.

處方중에서 桂枝湯을 解表하고 小柴胡湯은 和法으로 寒熱을 제거시키고 川楝子¹⁸⁷⁾, 木香¹⁸⁸⁾, 吳茱萸¹⁸⁹⁾, 小茴香¹⁹⁰⁾은 理氣藥과 溫裏藥들로 行氣散寒해서 胸脇, 疝瘕의 滯滯을 그치게 한다.

5) 燥淫傳入中焦하여, 脈短而澁, 無表證, 無下證, 胸痛, 腹脇脹痛, 或嘔, 或泄하면, 苦溫甘辛以和之라.

燥가 비록 中焦로 들어갔을지라도 表裏證이 없으니 誤汗, 誤下해서도 안되고 다만 苦溫甘辛한 藥으로 和解시키기에 충분하다. 脈이 短澁한것은, 長은 木이고 短은 金이며 滑은 潤이고 澁은 燥이기 때문이다. 胸痛은 肝脈이 胸部에 絡하기 때문이다. 腹痛은 金氣

187) 全國韓醫科大學 本草學教授 共編著. 本草學. 서울. 圖書出版永林社. 1998. p.358. “舒肝行氣止痛, 驅蟲”
188) 全國韓醫科大學 本草學教授 共編著. 本草學. 서울. 圖書出版永林社. 1998. p.353. “行氣止痛, 溫中和胃”
189) 全國韓醫科大學 本草學教授 共編著. 本草學. 서울. 圖書出版永林社. 1998. p.338. “理氣止痛, 溫中燥濕”
190) 全國韓醫科大學 本草學教授 共編著. 本草學. 서울. 圖書出版永林社. 1998. p.344. “溫腎散寒, 和胃裏氣”

가 木을 克하고 木病이 土를 克하기 때문이다. 脇痛은 肝木의 本位이기 때문이다. 嘔라는 것 또한 金이 木病을 克하기 때문이다. 泄는 陽明이 오면 燥氣가 다스리고 中氣는 太陰을 보기 때문이다. 或이란 말은 정해지지 않는 것이다. 통증이 있으면서 嘔吐와 泄瀉를 겸하는 것이 있고, 嘔吐는 하지 않고 泄瀉만 하는 경우가 있고, 泄瀉는 하지 않고 嘔吐만 하는 것이 있고, 嘔吐와 泄瀉가 겸하지 않고 통증만 있는 것이 있다. 病의 상태는 固定되어 있는데 病勢는 固定되어 있지 않으므로 治法만 내고 處方은 세우지 않으니 배우는 자가 證에 따라 변화시키면 된다. 苦溫甘辛한 藥物을 사용하는 것은 경에 '燥淫所勝, 治以苦溫, 佐以甘辛, 以苦下之'라 한 것이다. 대개 苦溫은 火를 쫓아 변화하면서 金을 克하고 甘辛은 陽을 쫓아 변화하면서 陰을 勝한다. 苦로서 下하는 것은 金의 성질이 堅剛하여 덩어리를 이루니 病도 깊숙이 견고하게 맺어져서 下하지 않으면 다스릴 수 없다. 다음 문장은 攻下하는 證을 말한다.

燥雖傳入中焦, 既無表裡証, 不得誤汗, 誤下, 但以苦溫甘辛和之足矣. 脈短而澀者, 長爲木, 短爲金, 滑爲潤, 澀爲燥也. 胸痛者, 肝脈絡胸也. 腹痛者, 金氣克木, 木病克土也. 脅痛者, 肝木之本位也. 嘔者, 亦金克木病也. 泄者, 陽明之上, 燥氣治之, 中見太陰也. 或者, 不定之辭; 有痛而兼嘔與泄者, 有不嘔而但泄者, 有不泄而但嘔者, 有不兼嘔與泄而但痛者. 病情有定, 病勢無定, 故但出法而不立方, 學人隨証化裁可也. 藥用苦溫甘辛者, 經謂燥淫所勝, 治以苦溫, 佐以甘辛, 以苦下之. 蓋苦溫從火化以克金, 甘辛從陽化以勝陰也. 以苦下之者, 金性堅剛, 介然成塊, 病深堅結, 非下不可. 下文即言下之証.

【考察】

본 조문은 燥邪가 中焦에 들어간 證治를 제시한다. 短脈은 邪氣가 中焦에 들어간 것을 의미하고 澀脈은 燥의 형상이다. 表證이 없다는 것은 惡寒, 發熱, 頭痛, 鼻塞, 無汗 등이 없다는 것이다. 下證이 없다는 것은 大腸에서 便秘가 형성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燥邪가 足陽明에까지 미치지 않았다는 것

이다. 胸脇痛은 金이 木을 克한 것이고, 腹脹痛하고, 嘔하거나 泄한 것은 肝脾不和한 것이다. 종합해 보건데 表寒證과 裏實證이 없는 이상, 汗下法은 마땅히 禁해야 하며, 『素問·至眞要大論』의 “燥氣가 내부에 淫勝하면 苦味와 溫性을 가진 藥物로 주치하고 甘味와 辛味로 佐藥을 삼되, 苦味로 泄下시킨다.”¹⁹¹⁾의 治法을 토대로 해서 證에 따라 處方과 藥物을 선택해서 融通성 있게 치료를 하여야 한다.

6) 陽明燥證에, 裏實而堅은, 未從熱化하면, 下之以苦溫하고; 已從熱化하면, 下之以苦寒이다.

燥證은 陽明의 裏가 實해져서 堅固하고 그득한데 經에는 苦로써 下하고 苦로서 泄한다고 총괄해서 말한다. 지금 사람들은 下法을 사용할 때는 대부분 苦寒을 이용한다. 이 證이 이미 化한 것인지 아직 化하지 않은 것인지를 구별하여서 溫下와 寒下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하여 證에 따라 治療를 실시하는 것이 정확한 것이라는 것을 알지 못한다. 熱로 변화하지 않았을 때 脈은 반드시 短澀하니, 澀은 緊을 겸한 것이고 面色은 반드시 靑黃이다. 苦溫下法은 『金匱』의 大黃附子細辛湯¹⁹²⁾과 新方の 天台烏藥散¹⁹³⁾에 巴豆霜을 가한 부류와 같은 것이다. 이미 熱로 化한 脈은 반드시 數堅하고 面色은 반드시 赤하고 舌은 반드시 黃하니 다시 다른 證을 참고하여야 한다. 苦寒下法은 三承氣湯¹⁹⁴⁾의 부류와 같은데 小承氣湯에 芒硝가 없고 大黃을 가볍게 쓰거나 술에 볶아서 쓰고 枳實, 厚朴을 무겁게 사용하면 곧 溫法을 약간 겸한 것이다.

191) 素問研究集成刊行委員會 編. 素問研究集成 卷九. 대구. 金星印刷社. 2001. p.446. “燥淫于內, 治以苦溫, 佐以甘辛, 以苦下之”

192) 大塚敬節主講, 金匱要略講話, 醫方出版社, 원주, 2004. p.192. 大黃附子湯을 말함. “大黃三兩, 附子三枚, 細辛二兩”

193) 李範九, 朴贊斗 譯編. 方劑學. 서울. 대성의학사. 2000. p.321. “天台烏藥木香小茴香青皮高良薑各半兩, 檳榔二個, 川楝子十個, 巴豆七十粒”

194) 李範九, 朴贊斗 譯編. 方劑學. 서울. 대성의학사. 2000. p.134, 137. 大承氣湯(大黃酒洗 四兩, 厚朴去皮炙八兩, 枳實五枚, 芒硝三合), 小承氣湯(大黃, 厚朴, 枳實), 調胃承氣湯(大黃, 甘草, 芒硝)

甘辛之法調理, 漸次能食. 又十五日不大便, 余如前法下, 至第二次而通, 下黑亮球十五枚, 雖亦堅結, 然破之能碎, 但燥極耳. 外以香油熬川椒, 熨其堅處; 內服苦溫芳香透絡, 月余化盡. 於此証, 方知燥金氣傷人如此, 而溫下寒下之法, 斷不容紊也.

乙丑年, 治通廷尉, 久疝不愈. 時年六十八歲. 先是通廷尉外任時, 每發疝, 醫者必用人參, 故留邪在絡, 久不得愈. 至乙丑季夏, 受涼復發, 堅結肛門, 坐臥不得, 脹痛不可忍, 汗如雨下, 七日不大便. 余曰: 疝本寒邪, 凡結堅牢固, 皆屬金象, 況現下勢甚危急, 非溫下不可. 亦用天台烏藥散一錢, 巴豆霜分許. 下至三次始通, 通後痛漸定. 調以倭硫黃丸, 兼用『金匱』蜘蛛散, 漸次化淨. 以上治驗二條, 俱系下焦証, 以出陽明堅結下法, 連類而及.

【考察】

본 조문은 陽明燥證의 證治를 제시한다.

燥邪가 陽明中焦로 전해 들어가서 便秘不通이 나타난다. 이때에는 熱結하면 攻下하는 방법을 써야 할 것이고, 비록 裏結일지라도 化熱하지 않았으면 苦溫下法을 써야 할 것이고, 이미 化熱하였다면 苦寒下法을 써야 할 것인 즉, 상황에 따라서 어떠한 방법을 사용하는 게 적당한지 선택하여 辨證하여야 하며, 處方은 어떤 방법을 선택해서 사용할 지를 확정하여야 한다. 苦溫下法에는 天台烏藥散加巴豆霜으로 치료하든지 아니면 大黃附子細辛湯으로 치료하여야 하고, 苦寒攻下法에는 三承氣湯의 부류를 선택해서 사용한다.

이 조문 속에 그 처방을 나열하지 않았는데, 그 목적은 상황에 따라 治法과 處方이 달라지니 마땅히 辨證을 정확히 해서 제대로 된 處方을 사용하게 하는데 있다.

7) 燥氣延入下焦하고, 搏于血分하여, 而成癥者면, 無論男婦하고, 化癥回生丹主之라.

큰 邪氣가 表에 적중한 燥證이 邪氣를 感受받아서 즉시 나타나는 것은 진실로 沈日南선생이 말한 바와 같이 傷寒과 治法이 같으니 배우는 자가 그 輕重을

헤아리면 될 뿐이다. 앞에서 보충한 여러 조문은 傷寒법과 상이한 두 조문과 胸脇腹痛의 한 조문 등 傷寒과 약간 다름이 있음을 제외하고는 모두 疝瘕를 겸하여 갖추고 있다. 經에 '燥淫所勝, 男子癰疽, 女子少腹痛'¹⁹⁷⁾이라는 분명한 문구가 있다. 疝瘕는 이미 寒濕門중에서 많이 나타나고 瘧證, 泄瀉, 嘔吐는 이미 寒濕, 濕溫門중에서 많이 나타나니, 이는 小邪가 裏에 的中되서 깊이 下焦血分으로 들어가서 堅結되어 흠어지지 않는 癥疾을 보충한 것이다. 만약 絡脈의 病은 緩通하는 治法을 사용하여야 한다는 것을 모르고서 간혹 함부로 急攻하는 방법을 사용한다면 반드시 瘕가 흠어져서 蠱가 되는 우를 범할 것이다. 이 蠱는 血蠱이니 부인에게 아주 많아서 아주 중병이라 難治하는 證으로 배우는 자는 예방하지 않아서는 안 된다. 化癥回生丹法은 燥邪가 내부로 들어간 것으로 苦溫으로 다스리고 甘辛으로 보좌하고 苦로서 下한다. 『金匱』의 鱉甲煎丸과 回生丹으로부터 빠져 나온 것이다. 이 처방에서 人參, 桂枝, 川椒, 生薑은 陽氣를 通補하고, 白芍藥, 熟地黃은 陰液을 守補하고, 益母膏는 陰氣를 通補하여 消水氣하고, 鱉甲膠는 通補肝氣하여 消癥瘕하고, 나머지 芳香性있는 藥들은 絡脈으로 들어가서 化濁한다. 게다가 血을 먹는 蟲중에 날아다니는 것은 絡중의 氣分으로 들어가고 걷는 것들은 絡중의 血分으로 들어가니, 가는 것이라도 들어가 지 못하는 곳이 없고 견고한 것이라도 깨트리지 못하는 것이 없다. 또 醋로 세 번을 볶은 大黃은 病所로 들어가되 다른 臟을 손상시키지 않으니 오랜 病으로 견고하고 굳은 것이 흠어지지 않은 것은 이것이 아니면 다스릴 수 없다. 아마 藥味가 너무 많을 지도 모르는데, 약을 사용하는 방도는 적게 사용하고 단독으로 사용하면 藥力이 커서 禁하고; 많이 사용하고 여러 가지를 사용하면 藥力이 분산되어 完만해짐을 모르는 것이다. 옛날 사람들의 緩下시키는 처방이 다 그러하니, 소위 제약함이 있는 군사는 상대방 數가 많음을 두려워하지 않지만 제약함이 없는 군사는 상대방 數가 적어도 문란해진다. 이 처방은 醋와 꿀을 합하여 36가지이며 四九란 數를 얻어서 金氣가 生成하

197) 素問研究集成刊行委員會 編, 素問研究集成 卷九. 대구. 金星印刷社. 2001. p.450.

는 數이다.

化癥回生丹方

人蔘 六兩 安南桂 二兩 兩頭尖 二兩 麝香 二兩 片子薑黃 二兩 公丁香 三兩 川椒炭 三兩 虻虫 二兩 京三稜 二兩 蒲黃炭 一兩 藏紅花 二兩 蘇木 三兩 桃仁 三兩 蘇子霜 三兩 五靈脂 二兩 降真香 二兩 乾漆 二兩 當歸尾 四兩 沒藥 二兩 白芍 四兩 杏仁 三兩 香附米 二兩 吳茱萸 二兩 元柴胡 二兩 水蛭 二兩 阿魏 二兩 小茴香炭 三兩 川芎 二兩 乳香 二兩 良薑 二兩 艾炭 二兩 益母膏 八兩 熟地黃 四兩 鱉甲膠 一斤 大黃 八兩

藥材를 가늘게 갈아서 鱉甲, 益母草, 大黃을 고르게 섞어서 다시 꿀을 加해서 丸으로 만들고 무게는 一錢五分으로 하고 蜜蠟으로 封한다. 끓인 물을 따뜻하게 해서 빈속에 복용하고 瘀血이 심한 증은 黃酒로 복용한다.

- 癥이 맺혀서 흠어지지 않고 아프지도 않은 것을 다스린다.
- 癥이 생겨서 통증이 심한 것을 다스린다.
- 血痺를 다스린다.
- 부녀의 乾血癆證이 實에 속한 것을 다스린다.
- 瘧로 左脇痛하고 寒熱이 往來한 경우를 다스린다.
- 부녀가 月經前에 통증이 있는 것으로 옛날에 痛經이라고 부르는 것을 다스린다.
- 부녀가 月經이 시작하려고 할 때에 寒熱이 往來한 것을 다스린다.
- 부녀가 月經할려고 할 때에 生冷한 것을 잘못 먹고 腹痛한 것을 다스린다.
- 부녀의 經閉를 다스린다.
- 부녀의 月經色이 紫黑色이고 심지어는 덩어리를 이룬 경우를 다스린다.
- 腰痛이 넘어진 것으로 인하여 死血이 생긴 경우를 다스린다.
- 産後의 瘀血로 少腹痛하고 누르기를 싫어하는 것을 다스린다.
- 넘어져서 昏暈하고 죽을 것 같은 경우를 다스린다.
- 金瘡棒瘡으로 瘀滯가 있는 경우를 다스린다.

大邪中表之燥証, 感而激發者, 誠如日南先生所雲, 與傷寒同法, 學人衡其輕重可耳. 前所補數條, 除減傷寒法等差二條, 胸脅腹痛一條, 與傷寒微有不同, 余俱兼疝瘕者, 以經有燥淫所勝, 男子疝, 女子少腹痛之明文. 疝瘕已多見寒濕門中, 瘕証, 泄瀉, 嘔吐已多見於寒濕, 濕溫門中, 此特補小邪中裡, 深入下焦血分, 堅結不散之痼疾. 若不知絡病宜緩通治法, 或妄用急攻, 必犯瘕散爲蠱之戒.

此蠱乃血蠱也, 在婦人更多, 爲極重難治之証, 學人不可不預防之也. 化回生丹法, 系燥淫於內, 治以苦溫, 佐以甘辛, 以苦下之也. 方從『金匱』鱉甲煎丸與回生丹脫化而出. 此方以參, 桂, 椒, 姜通補陽氣, 白芍, 熟地, 守補陰液, 益母膏通補陰氣, 而消水氣, 鱉甲膠通補肝氣, 而消瘕, 余俱芳香入絡而化濁. 且以食血之虫, 飛者走絡中氣分, 走者走絡中血分, 可謂無微不入, 無堅不破. 又以醋熬大黃三次, 約入病所, 不傷他臟, 久病堅結不散者, 非此不可. 或者病其藥味太多, 不知用藥之道, 少用獨用, 則力大而急; 多用眾用, 則功分而緩. 古人緩化之方皆然, 所謂有製之師不畏多, 無製之師少亦亂也. 此方合醋與蜜共三十六味, 得四九之數, 金氣生成之數也.

化回生丹方人蔘(六兩) 安南桂(二兩) 兩頭尖(二兩) 麝香(二兩) 片子姜黃(二兩) 公丁香(三兩) 川椒炭(二兩) 虻虫(二兩) 京三稜(二兩) 蒲黃炭(一兩) 藏紅花(二兩) 蘇木(三兩) 桃仁(三兩) 蘇子霜(二兩) 五靈脂(二兩) 降真香(二兩) 干漆(二兩) 當歸尾(四兩) 沒藥(二兩) 白芍(四兩) 杏仁(三兩) 香附米(二兩) 吳茱萸(二兩) 元胡索(二兩) 水蛭(二兩) 阿魏(二兩) 小茴香炭(三兩) 川芎(二兩) 乳香(二兩) 良姜(二兩) 艾炭(二兩) 益母膏(八兩) 熟地黃(四兩) 鱉甲膠(一斤) 大黃(八兩, 共爲細末, 以高米醋一斤半, 熬濃, 晒干爲末, 再加醋熬, 如是三次, 晒干, 末之) 共爲細末, 以鱉甲, 益母, 大黃三膠和勻, 再加煉蜜爲丸, 重一錢五分, 蠟皮封護. 同時溫開水和, 空心服; 瘕甚之証, 黃酒下.

- 治結不散不痛.
- 治發痛甚.
- 治血痺.

治婦女干血癆証之屬實者.
 治瘡母左脅痛而寒熱者.
 治婦女經前作痛, 古謂之痛經者.
 治婦女將欲行經而寒熱者.
 治婦女將欲行經, 誤食生冷腹痛者.
 治婦女經閉.
 治婦女經來紫黑, 甚至成塊者.
 治腰痛之因於跌撲死血者.
 治產後瘀血, 少腹痛, 拒按者.
 治跌撲昏暈欲死者.
 治金瘡棒瘡之有瘀滯者.

【考察】

본 조문은 燥邪가 下焦로 들어가서 血分과 서로 맞혀서 癥이 되는 證治를 논한다.

癥은 대부분 久積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 癥은 이전에 宿疾이 있는 경우도 있고, 燥邪가 血分으로 들어가서 생기는 경우도 있는데, 後者가 대부분이다. 이것은 裏가 實한 것이긴 하나 攻伐하지 않아야 하는데, 사람들은 이를 잘못해서 攻伐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렇게 함으로서 氣血이 損傷되고 아주 치료하기 어려워지는 病으로 되는 것이다. 이때는 攻伐하지 말고 緩通하게 하는 것이 최적의 방법이다. 行氣活血해서 消瘀化癥하여야 한다. 이 病은 남녀를 막론하고 모두 化癥回生丹을 써서 치료할 수 있다.

8) 燥氣久伏下焦나, 下與血搏하고, 老年八脈⁽¹⁾空虛하면, 不可與化癥回生丹, 復亨丹主之라.

金의 성질은 가라앉고 붙는데 오래도록 흠어지지 않아 絡脈을 溫通하지 않으면 치료할 수 없다. 血을 침범하여 단단한 덩어리를 이루지 않아 발작할 때 痛脹하면 형태가 있고 통증이 그치면 형태가 없으므로 營血을 損傷시키는 化癥回生丹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復亨이란 大義는 剝이 克하면 復하고 復하면 亨할 수 있다, 그 處方은 溫養과 溫燥를 겸하여 사용하는데 대개 溫陽하는 方은 잠시는 사용할 수 있으나 오래는 사용할 수 없고, 하물며 오래된 病이 비록 陽

이 허할 지라도 陰 또한 홀로 충족할 수 없고 老年에 이르러 八脈이 空虛하면 더욱 그 陰을 미리 보호해야 한다. 그러므로 石硫黃은 下焦의 眞陽을 補하고 陰을 손상시키지 않는 藥으로서 君藥을 삼고, 鹿茸, 枸杞子, 人參, 茯苓, 肉蓯蓉은 補正함으로서 佐藥을 삼고, 當歸, 小茴香, 川椒, 肉桂, 丁香, 萆薢는 衝任脈과 肝腎의 邪氣를 通하게 한다. 살펴 보건데 解產難중에 이미 通補奇經丸이란 方이 있는데 이 方은 기록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 다만 저 方이 전문적으로 八脈을 通補하는 것이 主가 되니 이는 溫養과 溫燥를 겸한 法이고; 게다가 앞 조문과 대비되는 處方이므로 함께 실었다. 살펴 보건데 『難經』에 ‘任之爲病, 男子爲七疝, 女子爲瘕聚’¹⁹⁸⁾ 하였다. 七疝을 朱丹溪는 ‘寒疝, 水疝, 筋疝, 血疝, 氣疝, 狐疝, 癰疝, 爲七疝’이라 하였다. 『袖珍』⁽²⁾에 ‘一厥, 二盤, 三寒, 四疝, 五附, 六脈, 七氣, 爲七疝’이라 하였다. 瘕는 血病으로 부인의 疝이다. 후세에 ‘蛇瘕, 脂瘕, 青瘕, 黃瘕, 燥瘕, 狐瘕, 血瘕, 蟹瘕, 爲八瘕’라 하였다. 대개 任脈은 天癸의 生氣이므로 대부분 형태가 있는 積이다. 대저 형태가 있는 實證은 앞의 方이 적당하고 無形의 虛證에는 이 方이 적당하다.

살펴 보건데 燥金의 遺病이 瘕疝의 부류와 같은 것은 대부분 下焦편의 寒濕濕溫門중에 나타난다. 다시 方書에 실은 것 중 燥門에 수록해야 할 것은 많은데 지면상에 한계가 있어 다 갖추어 실지는 못하였으며 이미 단서를 제시했으니 배우는 자는 유추하면 알 수 있다.

金性沉著, 久而不散, 自非溫通絡脈不可. 既不與血搏成堅硬之塊, 發時痛脹有形, 痛止無形, 自不得傷無過之營血, 而用化矣. 復亨大義, 謂剝極而復, 復則能亨也. 其方以溫養溫燥兼用, 蓋溫燥之方, 可暫不可久, 況久病雖曰陽虛, 陰亦不能獨足, 至老年八脈空虛, 更當預護其陰, 故以石硫黃補下焦眞陽, 而不傷陰之品爲君, 佐以鹿茸, 枸杞, 人參, 茯苓, 蓯蓉補正, 而但以歸, 茴, 椒, 桂, 丁香, 萆, 通沖任與肝腎之邪也. 按

198) 秦越人 著. 崔승훈 譯. 難經入門. 서울. 法人文化社. 1998. p.166. “任之爲病, 其內苦結, 男子爲七疝, 女子爲瘕聚”

解產難中, 已有通補奇經丸方, 此方可以不錄. 但彼方專以通補八脈爲主, 此則溫養溫燥合法, 且與上條爲對待之方, 故並載之. 按『難經』: 任之爲病, 男子爲七疝, 女子爲瘦聚. 七疝者, 朱丹溪謂: 寒疝, 水疝, 筋疝, 血疝, 氣疝, 狐疝, 疝, 爲七疝. 『袖珍』謂: 一厥, 二盤, 三寒, 四, 五附, 六脈, 七氣爲七疝. 瘦者血病, 即婦人之疝也. 後世謂: 蛇瘦, 脂瘦, 青瘦, 黃瘦, 燥瘦, 狐瘦, 血瘦, 蟹瘦, 爲八瘦. 蓋任爲天癸生氣, 故多有形之積. 大抵有形之實証宜前方, 無形之虛証宜此方也.

按燥金遺病, 如瘡疝之類, 多見下焦篇寒濕濕溫門中. 再載在方書, 應收入燥門者尚多, 以限於篇幅, 不及備錄, 已示門徑, 學人隅反可也.

復亨丹方(苦溫甘辛法)

倭硫黃(石硫黃) 十分 鹿茸(酒炙) 八分 枸杞子 六分 人蔘 四分 云茯苓 八分 淡菴蓉 八分 安南桂 四分 全當歸(酒浸) 六分 小茴香(酒浸, 與當歸同炒黑) 六分 川椒炭 三分 萆薢 六分 炙龜板 四分

益母膏에 섞어서 환을 만드는데 작은梧桐나무 열매 크기로 한다. 매번 二錢을 복용하고 하루 두 번 복용한다. 겨울에는 점차 三錢까지 늘리는데 끓인 물을 사용해서 복용한다.

살펴 보건데 옛날 사람들이燥가 病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 說은 寒과 燥를 같은 하나의 門인 濕門에 混入시키지 않았다. 대개 燥는 寒의 시작이고 寒과 비슷하므로 寒門에 混入시켰다. 또 陽明이 오면 燥氣가 다스리고 中氣는 太陰을 보며, 陽明은 中氣를 쫓는데 中氣로서 變化를 삼으니 濕門에 混入시키기가 쉽다. 다만 醫學을 배우는 선비는 반드시 要點을 분명히 하고 『內經』의 옛것을 되돌린 후에, 속에 일정한 見解나 주장이 생겨나 法則을 벗어나지 않을 것이다.

霹靂散

燥邪에 적중되어 나타나는 吐瀉腹痛을 主治하고 甚하면 四肢厥冷, 轉筋, 腿痛肢麻, 起臥不安, 煩躁不寧하고 더 심하면 六脈이 거의 없고 陰毒으로 發斑하고 疝瘕 등의 證이 있고 아울러 일체의 凝寒固冷積聚를 主治한다. 寒이 가버우면 많이 복용시켜서는 안

되고 寒이 무거우면 적게 복용시켜서는 안 되니, 낮은 것으로 기준을 삼는다. 실제로 濕燥寒의 三氣의 陰邪를 感受 받는 것이 아니면 복용할 수 없다.

桂枝 六兩 公丁香 四兩 草果 二兩 川椒(炒) 五兩 小茴香(炒) 四兩 韭白 四兩 良薑 三兩 吳茱萸 四兩 五靈脂 二兩 降香 五兩 烏藥 三兩 乾薑 三兩 石菖蒲 二兩 防己 三兩 檳榔 二兩 華澄茄 五兩 附子 三兩 細辛 二兩 青木香 四兩 薏仁 五兩 雄黃 五錢

위의 약들을 가늘게 갈아서 끓인 물을 사용해서 복용한다. 成人은 매번 三錢을 복용하고 病이 重하면 五錢을, 小兒는 반으로 줄인다. 다시 病이 重하면 연이어서 여러 차례 복용하고 痛증이 멎고 厥이 회복되거나 泄瀉가 그치고 轉筋하지 않은 것으로 기준을 삼는다.

[方論] 살펴 보건데 『內經』에 五疫³⁾의 명칭이 보이는데 五行의 偏勝이 극하여 모두 疫을 일으킬 수 있다. 비록 癘氣가 이르러서 대부분 火症이 나타나지만 燥金寒濕의 疫도 때때로 있게 된다. 대개 風火暑세 가지는 陽邪인데 穢濁한 氣와 서로 섞이면 溫癘가 된다. 濕寒燥 세 가지를 陰邪라 하는데 穢濁한 異氣와 서로 섞이면 寒癘가 된다. 지금 證을 보건데 대부분 肢麻轉筋, 手足厥逆, 吐瀉腹痛, 脇肋疼痛하고 심지어는 오히려 惡熱하고서 大渴하며 서늘한 것을 먹고 싶어 하는 證이 있다. 經에 ‘霧傷于上, 濕上于下’¹⁹⁹⁾라고 한 것이다. 이 證은 燥金寒濕의 氣가 직접 筋經을 침범하여 大絡別絡을 지나서 안으로 三陰臟眞을 손상시켜서 轉筋을 일으켜 배에 들어가면 죽는다. 또한 면서도 泄瀉한 것은 陰陽이 逆亂한 것이다. 모든 痛증은 燥金濕土의 氣가 싸우는 것이다. 渴症으로 서늘한 것만 먹으려고 하는 것은 少陰편에서 「自利하면서 渴症이 나는 것은 少陰虛에 속하므로 물을 마셔서 스스로를 구하려 하는 것」²⁰⁰⁾이라고 말한 것이다. 頭面이 붉은 것은 陰邪는 위로 펴박하고 陽은 下降할

199) 大塚敬節主講, 金匱要略講話, 醫方出版社, 원주, 2004, p.51.

200) 傷寒論研究會 編, 傷寒論講義, 서울, 圖書出版 鼎談, 1997. p.593. “自利而渴者, 屬少陰也. 虛故引水自救”

수 없으니 이른바 戴陽이다. 온몸이 惡熱喜涼하는 것은 陰邪가 안에서 웅크리고 있고 陽氣는 붙어있는 곳이 없이 흩어지고자 하는 것이다. 陰病이 오히려 陽證을 보는 것은 소위 水極似火이니 陰邪를 받는 것이 아주 심하다. 모든 陽證이 나타나서 반드시 臍痛이 심하고 拒按하는 것은 陽證에서 純陰이 보이는 것으로 이는 곧 眞陰의 證이니 이점을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된다. 그러므로 三陰經을 따듯하게 덥히면서 剛燥苦熱한 약물을 모아서 처방을 세우고 臟眞을 급히 덥히고 陽氣를 保住한다. 또 芳香性 약물을 重用하고 穢濁을 급히 몰아낸다. 한편으론 臟眞을 거쳐 別絡, 大絡으로 가고 밖으로는 筋經, 經絡으로 나가서 皮毛에 도달하고; 한편으론 臟腑, 經絡을 거쳐 六腑로 통과하고 밖으로는 九竅에 도달한다. 穢濁한 陰邪로 하여금 한꺼번에 풀리게 한다. 대저 모두 扶陽抑陰하는 것은 소위 離照當空, 群陰退避(태양이 하늘을 비추면 모든 음이 물러간다)하는 것이다. 다시 이 증은 唐宋 이후로부터 의사들이 燥氣가 침범한 것을 알지 못하고 무릇 陽證이 보이는 것을 속칭 痧라고 한다. 근래 痧證을 쓴 책이 있는데 어떤 근거도 찾지 못하고 난잡하고 체계가 없어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것이 적지 않다. 痧論은 天地의 氣를 침범하여 漫然해져서 痧를 이룬다. 결국 어떤 邪氣를 感受 받았는데 확실하게 지적할 수 없으므로 전제 기준이 없이 處方을 세운다. 그 誤謬는, 모두 앞서사람들이 燥는 病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데에 있으며 또 燥氣가 化火한다는說이 있다는 데에 있다. 나 또한 오류가 있었으므로 처음 책을 출판할 당시 再三 고민하였고 雜說篇중에 나타난 것을 논박하였는데, 단지 본문에는 燥氣의 火證은 있고 勝氣의 寒證은 없다. 燥가 病이라고 여기지 않는 오류는 『陰陽應象大論』편중에 秋傷于燥라는 한 條文이 빠져 있고; 長夏傷于濕이 또 秋傷于濕으로 잘못 되어 있어서 결국 燥證이 없다고 여기는 데에 오류가 있다. 『天元紀』, 『氣交變』, 『五運行』, 『五常政』, 『六微旨』 등 모든 篇에서 六氣를 평등하게 나열하고 燥氣가 病이 되는 것이 모든 氣와 같은데 어찌 燥氣가 病이라고 여기지 않는단 말인가? 經에 이르기를 風爲百病之長²⁰¹⁾이라 하였다. 살펴 보건데 風은

木에 속하고 仁을 주관한다. 『大易』에 이르기를 ‘元者善之長也’라고 하였으니, 끊임없이 일어나는 작용을 얻고 生化하는 근원을 열지라도 다종다양한 病을 일으키는데 하물며 殺癘之氣인 金에 있어서라! 歐陽修가 말하기를 : 商者傷也, 主義主收, 主刑主殺이라 하였다. 燥金이 사람을 손상시키는 것이 가장 빠르고 포악해서, 그중 심한 것은 결국 發病후 하루가 다가기 전에 죽는 것이다. 나는 이런 상황을 눈으로 보고서 마음이 傷하는 것을 禁할길 없어 再三 특별히 주의할 것을 제시한다.

復亨丹方(苦溫甘辛法)

倭硫黃(十分, 按倭硫黃者, 石硫黃也, 水土硫黃斷不可用) 鹿茸(酒炙, 八分) 枸杞子(六分) 人參(四分) 雲茯苓(八分) 淡菴蓉(八分) 安南桂(四分) 全當歸(酒浸, 六分) 小茴香(六分, 酒浸, 與當歸同炒黑) 川椒炭(三分) 萆(六分) 炙龜板(四分)

益母膏和爲丸, 小梧桐子大. 每服二錢, 日再服; 冬日漸加至三錢, 開水下.

按前人燥不爲病之說, 非將寒燥混入一門, 即混入濕門矣. 蓋以燥爲寒之始, 與寒相似, 故混入寒門. 又以陽明之上, 燥氣治之, 中見太陰而陽明從中, 以中氣爲化, 故又易混入濕門也. 但學醫之士, 必須眉目清楚, 復『內經』之舊, 而後中有定見, 方不越乎規矩也.

霹靂散方

主治中燥吐瀉腹痛, 甚則四肢厥逆, 轉筋, 腿痛, 肢麻, 起臥不安, 煩躁不寧, 甚則六脈全無, 陰毒發斑, 疔瘰等証, 並一切凝寒痲冷積聚. 寒輕者, 不可多服; 寒重者, 不可少服, 以愈爲度. 非實在純受濕燥寒三氣陰邪者, 不可服.

桂枝(六兩) 公丁香(四兩) 草果(二兩) 川椒(炒, 五兩) 小茴香(炒, 四兩) 薤白(四兩) 良姜(三兩) 吳茱萸(四兩) 五靈脂(二兩) 降香(五兩) 烏藥(三兩) 干姜(三兩) 石菖蒲(二兩) 防己(三兩) 檳榔(二兩) 萆澄茄(五兩) 附子(三兩) 細辛(二兩) 青木香(四兩) 薏仁(五兩) 雄黃(五錢)

201) 素問研究集成刊行委員會 編. 素問研究集成 卷二. 대구.

金星印刷社. 2001. p.265.

上藥共爲細末，開水和服。大人每服三錢，病重者五錢；小人減半。再病重者，連服數次，以痛止厥回，或瀉止筋不轉爲度。

〔方論〕按『內經』有五疫之稱，五行偏勝之極，皆可致疫。雖離氣之至，多見火証，而燥金寒濕之疫，亦復時有。蓋風火暑三者爲陽邪，與穢濁異氣相參，則爲溫癘，濕燥寒三者爲陰邪，與穢濁異氣相參，則爲寒癘。現下見証，多有肢麻轉筋，手足厥逆，吐瀉腹痛，脅肋疼痛，甚至反惡熱而大渴思涼者。經謂霧傷於上，濕傷於下。此証乃燥金寒濕之氣（經謂陽明之上，中見太陰；又謂陽明從中治也），直犯筋經，由大絡別絡，內傷三陰臟真，所以轉筋入腹即死也。既吐且瀉者，陰陽逆亂也。諸痛者，燥金濕土之氣所搏也。其渴思涼飲者，少陰篇謂自利而渴者，屬少陰虛，故飲水求救也。其頭面赤者，陰邪上逼，陽不能降，所謂戴陽也。其周身惡熱喜涼者，陰邪盤踞於內，陽氣無附欲散也。陰病反見陽証，所謂水極似火，其受陰邪尤重也。諸陽証畢現，然必當臍痛甚拒按者，方爲陽中見純陰，乃爲真陰之証，此處斷不可誤。故立方會萃溫三陰經剛燥苦熱之品，急溫臟真，保住陽氣。又重用芳香，急驅穢濁。一面由臟真而別絡大絡，外出筋經絡以達皮毛；一面由臟絡腑絡以通六腑，外達九竅。俾穢濁陰邪，一齊立解。大抵皆扶陽抑陰，所謂離照當空群陰退避也。再此証自唐宋以後，醫者皆不識系燥氣所干，凡見前証，俗名曰痧。近時竟有著痧証書者，捉風捕影，雜亂無章，害人不淺。即以痧論，未有不干天地之氣，而漫然成痧者。究竟所感何氣，不能確切指出，故立方毫無準的。其誤皆在前人謂燥不爲病，又有燥氣化火之說。嗚亦爲其所誤，故初刻書時，再三疑慮，辨難見於雜說篇中，而正文只有化氣之火証，無勝氣之寒証。其燥不爲病之誤，誤在『陰陽應象大論』篇中，脫秋傷於燥一條；長夏傷於濕，又錯秋傷於濕，以爲竟無燥証矣。不知『天元紀』，『氣交變』，『五運行』，『五常政』，『六微旨』諸篇，平列六氣，燥氣之爲病，與諸氣同，何嘗燥不爲病哉。經云：風爲百病之長。按風屬木，主仁。『大易』曰：元者善之長也，得生生之機，開生化之源，尚且爲病多端，況金爲殺厲之氣。歐陽氏曰：商者傷也，主義主收，主刑主殺。其傷人也，最速而暴，竟有不終日而死者。嗚目擊神傷，故再三致意雲。

【字句解】

(1) 八脈：奇經八脈을 가리킨다. 이곳은 주로 衝任 두 脈을 가리킨다.

(2) 袖珍：곧 『袖珍方』을 말하는 것이며, 모두 4권으로 된 明代의 一方方書이다.

(3) 五疫：『素問·刺法論』²⁰²⁾에 나오는 말로, 五行의 이름을 빌려서 疫病을 木疫, 火疫, 土疫, 金疫, 水疫이 있음.

【考察】

본 조문은 燥邪가 下焦에 오래 머물러서 血과 相搏하지 않는 證治를 제시한다.

본 조문을 앞 조문과 상대적으로 생각해보면, 燥邪가 下焦에 들어가서 앞 조문처럼 血分과 싸우는 경우가 있고, 이 조문처럼 血과 싸우지 않는 경우도 있다. 癰疽와 같은 병들은 통증이 있으면 형태가 있고 통증이 없으면 형태가 없는 것으로 보는데, ‘老年八脈空虛, 不可與化癰回生丹’의 내용으로 보아 통증이 없으니 형태가 없는 氣病으로 보며 이는 虛證에 속한다. 治法은 마땅히 溫陽散寒, 補氣養血하여야 하고 處方은 復亨丹을 사용한다.

處方중에서 石硫黃, 鹿茸, 肉蓯蓉, 安南桂는 補腎陽하고, 人蔘, 茯苓은 補氣健脾하고, 當歸는 補血하고, 炙龜板은 滋陰하고, 水茴香, 川椒炭은 散寒하고, 萆薢는 祛濕하여서, 모든 藥이 함께 어우러져서 陰陽氣血을 모두 補하여 散寒祛濕하는 효능이 나타난다.

霹靂散方은 寒燥濕의 疫癘의 氣가 일으킨 痧證과 疔瘰, 凝寒固冷積聚를 치료하는 것으로 散寒濕, 行氣化濁止痛하는 처방이다.

處方 中에 丁香, 川椒, 小茴香, 良薑, 吳茱萸, 乾薑, 萆薢, 附子, 細辛은 祛寒散濕하고, 雄黃은 燥濕하고, 草果, 石菖蒲는 芳香化濕하고, 防己, 薏苡仁은 利濕하고, 薤白, 五靈脂, 降香, 烏藥, 檳榔, 青木香은 行氣止痛하고, 桂枝는 通陽化氣하여 濕을 제거시킨다.

202) 素問研究集成刊行委員會 編, 素問研究集成 卷九. 대구. 金星印刷社. 2001. p.317.

IV. 總括 및 結語

『溫病條辨』은 清代의 吳鞠通이 저술한 것으로 上·中·下焦로 나누어져 있으며, 그중 上焦는 총 6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風溫·溫熱·溫疫·溫毒·冬溫 21개조, 暑溫 13개조, 伏暑 8개조, 濕溫 7개조, 溫癘 4개조, 秋燥는 6개조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맨 뒤에 秋燥勝氣論 8조가 추가되어 있다.

吳鞠通은 傷寒과 溫病의 鑑別에 있어서 症狀의 차이를 기술하였고 조문 3·7·8·9·11·13·22·23·26·30·40·43·48·50·53·54에서 상당부분 脈으로 溫病과 傷寒의 차이를 기술하였다.

補秋燥勝氣論은 새롭게 吳鞠通이 보충한 부분으로 조문 14·15·58조와 補秋燥勝氣論의 조문 25는 『黃帝內經』을 토대로 治法과 處方, 藥物을 구체적으로 운용하였다. 조문 5, 7, 8, 9, 13, 14, 22, 23, 29, 47, 48, 50, 51조와 補秋燥勝氣論의 조문 3, 4조는 『傷寒論』과 『金匱要略』의 내용이나 處方을 똑같이 인용하였거나, 處方을 合方·加減하여 사용하였다. 그러나 補秋燥勝氣論은 吳鞠通이 燥에 대한 의견을 피력하였는데 燥病을 다스리는데 서늘한 약물의 사용으로 病은 오히려 더 심하게 된다고 하며 燥病은 涼에 속하고 病症이 寒에 感受되는 것과 同類라 하였다. 늦가을의 건조한 氣는 인체의 肺金이니 이는 火의 힘을 잃어가고 있는 현상이라 설명하였다. 따라서 燥는 涼에 속하며 熱이라고 말한 것은 틀린 것이라고 결론지었기 때문에 燥의 標·本을 확실히 구별해주는 것이라 생각된다.

조문 46에서는 嘔을, 조문 58조에서는 痿證·喘證·嘔證 등을 언급한 것으로 보아 溫病뿐만 아니라 內傷雜病까지도 치료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조문 2에서는 溫病이 침입하는 경로는 手太陰肺經이며 傷寒이 침입하는 경로는 足太陽膀胱經임을 명확히 구분하였다.

조문 19에서는 溫毒으로 外腫하는 데에 水仙花膏를 붙이는 방법을 제시하여 外治法의 활용도 제시하였다.

吳鞠通은 이 『溫病條辨』의 각 조문 속에서 衛分·氣分·營分·血分 등의 내용을 거론하면서 葉天士의 衛氣

營血辨證을 三焦辨證, 六經辨證과 함께 運用하였다. 그리고 上焦에 대한 藥物의 성질을 정확히 인식하고서 藥物사용의 原則을 제시하였으며, 法製와 服用法도 상세히 기술하였다.

이상으로 吳鞠通은 『溫病條辨』에서 溫病의 실질적인 이론 체계를 갖추고 臨床적인 治療에 이르기까지 溫病의 완전한 틀을 갖추어서 새로운 治法과 處方을 제시하였으며 傷寒과 溫病의 구별을 명확히 구분하였다.

參考文獻

「단행본」

1. 吳瑭(鞠通) 著. 溫病條辨.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8. p47, 153.
2. 楊進 主編. 溫病條辨. 北京. 中國醫藥科技出版社. 1999.
3. 李劉坤 講義. 臨床溫病學特講. 서울. 대성의학사. 2001. p283, 588.
4. 素問研究集成刊行委員會 編. 素問研究集成. 대구. 金星印刷社. 2001. p.91, 111, 134, 144, 187, 213, 259, 卷一. p.81, 184, 265, 卷二. p.13, 68, 128, 164, 卷四. p.28, 76, 87, 280, 卷八. p.24, 471, 317, 318, 439, 446, 471, 488, 450, 519, 532, 544, 卷九.
5. 李範九, 朴贊斗 譯編. 方劑學. 서울. 대성의학사. 2000. p.82, 83, 84, 66, 74, 134, 165, 171, 172, 178, 179, 198, 515, 208, 227, 256, 321, 381, 475, 478, 480, 515, 517, 518, 542.
6. 傷寒論研究會 編. 傷寒論講義. 서울. 圖書出版 鼎談. 1997. p.6, 28, 33, 36, 51, 55, 57, 69, 108, 115, 164, 167, 178, 342, 377, 382, 593, 657.
7. 巢元方 著. 巢氏諸病源候論. 臺中. 昭人出版社. 發行年不明.
8. 吳又可 著. 中華醫書集成內 溫疫論. 北京. 中醫古籍出版社. 1999. 第三冊. p.2.
9. 張仲景 著. 傷寒論. 北京. 中醫古籍出版社. 1997. p.11.

10. 葉天士 著. 魏漢奇, 袁寶庭 注評. 溫熱論注評. 北京. 中醫古籍出版社. 1993. p.1.
11. 張介賓 著. 景岳全書. 서울. 麗江出版社. 1987. p.1, 438.
12. 金南一 外11名 等著. 溫病學. 서울. 圖書出版 鼎談. 2001.
13. 南京中醫學院 編. 溫病學.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78.
14. 大塚敬節 主講. 金匱要略講話. 원주. 醫方出版社. 2004. p.45, 77, 238, 45, 477.
15. 吳瑭 原著. 王振坤 編著. 溫病條辨新解. 北京. 學苑出版社. 1994.
16. 彭勝權 主編. 溫病學.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2000. p.88.
19. 錢乙 著. 金達鎬 譯. 小兒藥證直訣. 서울. 醫聖堂. 2002. p.3.
20. 全國韓醫科大學 本草學教授 共編著. 本草學. 서울. 圖書出版永林社. 1998. p.124, 154, 195, 214, 309, 331, 334, 338, 344, 353, 358, 415, 476, 477, 589, 635.
21. 靈樞研究集成刊行委員會 編. 靈樞研究集成. 대구. 청운인쇄. 2006. p.948, 945, 1587.
22. 秦越人 原著. 최승훈 譯. 難經入門. 서울. 法人文化社. 1998.
23. 李時珍 著. 俞小乎, 黃志杰 共主編. 本草綱目精譯. 北京. 科學技術文獻出版社. 1990. p.669.
24. 白上龍 譯注. (國譯補註)溫熱經緯. 서울. 木과土. 2001년. p.349.
25. 雷載權 主編. 中藥學.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97. p.30.
26. 成都中醫學院中藥方劑教研組 編. 中醫治法與方劑.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75. p.49.
27. 李鳳教 編著. 漢方診斷學 四診. 서울. 成輔社. 1986. p.225, 254.
28. 江蘇新醫學院 編. 中藥大辭典.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94. p.1533, 1798, 2175, 2690.
29. 傳統醫學研究所. 韓醫學辭典. 서울. 成輔社. 2004. p.345.
30. 高大民族文化研究所 編. 韓中辭典. 서울. 高麗大學校民族文化研究院. 2004.
31. 民衆書林 編輯局 編. 漢韓大字典. 파주. 民衆書林. 2006.
32. 傳統醫學研究所 編纂. 東洋醫學大辭典. 서울. 成輔社. 2000. p. 184, 977, 1397, 1606, 1930.
34. 팽부인, 項平 主編. 中醫方劑大辭典精選本.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9. p.133.
35. 漢醫學大辭典編纂委員會 編. 漢醫學大辭典(醫史文獻編). 서울. 東洋醫學研究院出版部. 1985. p.88, 166, 174, 180, 256.